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음악박사학위논문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전개 양상

-경성방송국 라디오 방송과 유성기음반을 중심으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송 정 민



## <국문초록>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병창, 산조, 민속기악 등이 유성기음반, 라디오방송, 공연 무대 등에서 가야금음악으로서 선보이게 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시점인 20세기 전반기는 가야금음악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에 관해서 『매일신보』,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의 기사들, 라디오로 방송되었던 음악에 대한 기록, 유성기음반 등을 통해 고찰했다. 그 결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라디오방송, 유성기음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활동했던 궁중음악 가야금연주자로는 함화진, 명호진 등을 들 수 있고 대표적인 레퍼토리는 영산회상 계열 음악이었다. 그러나 궁중음악이 본격적으로 가야금음악의 레퍼토리로 연주되는 것은 1930년대 이습희의 활동 이후였다. 현행에서 가야금정악이라고도 분류되는 궁중음악이 가야금의 레퍼토리로 적극적으로 채택되는 시기는 20세기 전반기,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궁중음악과 비교할 때 풍류방음악이 오히려 좀 더 이른 시기에, 그리고 훨씬 빈번하게 라디오방송 또는 공연무대에서 소개되었다. 1920년대에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했던 이들은 주로 권번 소속의 기생들이 많았으며 간혹 민간의 악사도 있었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대부분 “조선음률”이라고도 불렀던 영산회상 계열 음악이었다. 풍류방음악은 궁중음악과도 레퍼토리가 겹치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권번의 쇠퇴로 음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 기생들보다는 이왕직악부 출신의 악사 또는 민간의 연주자들이 주도적으로 연주하게 된다.

한편 20세기 전반기에 많은 인기를 누린 가야금병창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던 이들 중에는 권번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는 당시 판소리와 창극의 인기로 인해 가야금으로 반주하며 판소리의 단가 등을 부르는 병창이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웠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생들의 짧은 학습 기간이라는 조건에 산조와 같은 음악적 창조 능력이 결부되어야 하는 레퍼토리보다는 병창이 더 적절한 레퍼토리였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발전을 거듭하며 중요하게 전승되고 있는 음악인 산조는 1930년대 중반에 가야금 레퍼토리로서 더욱 주목 받는 음악이 되었다. 이는 판소리의 유행에 편승해서 병창이라는 장르로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 가야금이 점차 그 음악적 영역을 확대해 나가서 독자적인 기악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로는 충청도 이남 및 전라도 지역에서 판소리 및 풍류의 음악문화를 접하고 학습한 것이 배경이 되는 심상건, 정남희, 강태홍과 같은 음악인들이었다.

이렇게 각 장르별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이 부각되면서, 잡가, 민요 또는 판소리 등의 성악 반주 및 민속 기악의 연주까지도 가야금연주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 가야금연주자의 성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하겠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전반기, 특히 1930년대 이후 가야금은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병창, 산조 등을 연주하는 독주악기로서 근대라는 시대에 맞는 기악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악기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 및 풍류방음악이 20세기 전반기 이후 가야금정악으로서 정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역시 같은 시기에 병창과 산조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속악으로서 정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30년대까지 이어지는 가야금 병창과 산조, 즉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속악의 유통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포함하는 가야금정악에서도 가야금이 부각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20세기 전반기, 가야금,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병창, 산조, 민속기악, 이왕직아악부, 기생,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 유성기음반

학번: 2006-30466

# 차 례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연구대상 및 방법 .....	4
3. 선행연구 검토 .....	8
II.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	16
1. 1920년대 이전 .....	16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16
2) 연주자 .....	18
2. 1920년대 .....	20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20
2) 연주자 .....	26
3. 1930년대 .....	29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29
2) 연주자 .....	40
4. 1940년대 .....	45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45
2) 연주자 .....	48
5. 소결론 .....	49
III. 병창 .....	51
1. 1920년대 이전 .....	51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51
2) 연주자 .....	56
2. 1920년대 .....	58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58
2) 연주자 .....	71
3. 1930년대 .....	74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74

2) 연주자 .....	79
4. 1940년대 .....	87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87
2) 연주자 .....	90
5. 소결론 .....	92
IV. 산조 및 기악합주 .....	96
1. 1920년대 이전 .....	96
2. 1920년대 .....	97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97
2) 연주자 .....	105
3. 1930년대 .....	107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107
2) 연주자 .....	121
4. 1940년대 .....	126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	126
2) 연주자 .....	128
5. 소결론 .....	129
V.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전개 .....	132
1.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	132
2. 병창 .....	138
3. 산조 및 민속기악 .....	143
4. 소결론 .....	146
VI. 결론 .....	149
<참 고 문 헌> .....	154
<Abstract> .....	159
<부 록> .....	162

## 표 차 례

<표 1> 1912년 『매일신보』 가야금풍류 관련 기사 .....	19
<표 2>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 .....	21
<표 3> 192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 편성 풍류방음악 .....	23
<표 4>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풍류방음악 .....	24
<표 5> 1920년대 경성방송국 조선음률(조선정악) 방송 횟수 .....	25
<표 6> 1920년대 경성방송국 <영산회상> 악기편성 .....	26
<표 7> 1920년대 풍류방음악 가야금연주자 .....	27
<표 8> 1930년대 경성방송국 이왕직아악부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 .....	32
<표 9> 1930년대 이습회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의 연도별 연주 횟수 .....	33
<표 10> 1930년대 이습회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의 연주형태 및 횟수 .....	36
<표 11>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풍류방음악의 연도별 방송 횟수 .....	37
<표 12>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풍류방음악의 연주형태 .....	39
<표 13> 193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이왕직아악부 가야금연주자 .....	41
<표 14> 1930년대 이왕직아악부 이습회 출연 가야금연주자 .....	42
<표 15> 193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풍류음악 기생 가야금연주자 .....	43
<표 16> 1940년 이습회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 .....	46
<표 17> 1941-1943년 이습회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 .....	47
<표 18> 1940년대 이습회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의 연주형태 및 횟수 .....	47
<표 19> 1940년대 이습회 출연 가야금연주자 및 출연 횟수 .....	48
<표 20> 1910년대 『매일신보』 심정순 가야금병창 관련 기사 .....	52
<표 21> 1910년대 『매일신보』 박팔괘 가야금병창 관련 기사 .....	53
<표 22> 1910년대 『매일신보』 이산옥과 오옥엽 가야금병창 관련 기사 .....	54
<표 23> 1920년대 이전에 발매된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 .....	54
<표 24> 1920년대 가야금병창 공연 관련 기사 .....	59
<표 25> 1920년대 발매된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 .....	60
<표 26> 1926년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 .....	64
<표 27> 192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 .....	65
<표 28> 1928년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잡가/입창)의 방송 기록 .....	67
<표 29> 1926년 경성방송국 출연 가야금병창 연주자 .....	68
<표 30>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병창과 산조’ 방송 기록 .....	69



<표 31> 192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가야금병창 고수(반주) .....	70
<표 32> 192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가야금병창 연주자 .....	73
<표 33> 1920년대 유성기음반 취입 가야금병창 연주자 .....	74
<표 34> 1930년대 가야금병창 공연 관련 기사 .....	76
<표 35> 1930년대 유성기음반으로 발매된 가야금병창 곡목 .....	77
<표 36>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 곡목 .....	78
<표 37> 1930년 가야금산조와 병창을 함께 연주한 연주자 .....	79
<표 38> 1930년 가야금병창과 연주자별 연주 곡명 .....	81
<표 39> 1934년 가야금병창 연주자의 방송 출연 기록 비교 .....	82
<표 40>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병창 출연자 .....	84
<표 41> 193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병창 취입 연주자 .....	86
<표 42> 1940년대 유성기음반 취입 가야금병창 곡목 .....	88
<표 43> 194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병창 편성 .....	89
<표 44> 194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 곡목 .....	90
<표 45> 194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가야금병창 연주자 .....	91
<표 46> 1940년대 정남희, 심상건의 유성기음반 취입 현황 .....	92
<표 47> 1920년대 유성기음반으로 발매된 가야금산조 .....	100
<표 48> 1927년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산조 .....	101
<표 49> 1920년대 가야금산조의 방송 횟수와 유성기음반 발매현황 .....	102
<표 50> 192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 기악합주 및 성악반주 형태 .....	103
<표 51>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기악합주 및 성악반주 형태 .....	104
<표 52>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연주자 .....	106
<표 53> 1920년대 유성기음반 민속기악 연주편성 .....	107
<표 54>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기악 및 성악반주 연주자 .....	107
<표 55> 193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산조 목록 .....	109
<표 56>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연주 횟수 .....	110
<표 57> 1933년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곡목 .....	111
<표 58> 1934년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곡목 .....	112
<표 59>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연주된 심상건의 가야금산조 .....	114
<표 60> 1939년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곡목 .....	115
<표 61> 193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 기악합주 및 성악반주 형태 .....	116
<표 62> 1931, 1932년에 발매된 가야금 민속악 유성기음반 .....	116
<표 63> 1936년에 발매된 가야금 민속악 유성기음반 .....	117
<표 64> 1930년대 중반 유성기음반에 녹음된 가야금 반주 .....	117
<표 65> 1933년에 방송된 가야금 편성 기악합주 .....	119

<표 66> 유성기음반 가야금과 바이올린 .....	120
<표 67> 1930년대 경성방송국과 유성기음반의 산조 연주자 .....	122
<표 68> 1930년 경성방송국 산조와 병창을 함께 연주한 연주자 .....	123
<표 69>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기악 및 성악반주 형태 연주자 .....	125
<표 70> 1935년 속곡반주 가야금연주자 .....	125
<표 71> 1940년대 경성방송과 유성기음반의 가야금산조와 병창 .....	126
<표 72> 1940년 방송에 가야금산조만 편성된 경우 .....	127
<표 73> 1940년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민속악 .....	127
<표 74> 194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연주자 .....	128
<표 75> 1940년대 경성방송국 민속기악 가야금연주자 .....	129
<표 76> 이왕직악악부 소속 가야금연주자 .....	134
<표 77> 『조선미인보감』 기예에 따른 연주자 수 .....	141
<표 78> 20세기 전반기 연대별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경성방송 출연 상황	142
<표 79> 심상건의 가야금산조 유성기음반 .....	143
<표 80> 20세기 전반기 경성방송국 민속기악 가야금연주자 .....	146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야금은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며 궁중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두루 사랑을 받아온 악기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시대 이래로 음악을 기술한 악서 및 악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중 「악지」에 따르면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는 가야금은 신라로 전해진 이후 가야금음악이 신라의 대악으로 발전되었다 한다. 또한 가야금은 신라악을 대표하는 향악기인 삼현(三絃) 중 하나로 언급된다.<sup>1)</sup> 이러한 기록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 가야금의 비중을 알 수 있게 한다. 삼현으로써 가야금은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삼국시대 이래로 가야금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가야금은 거문고와 더불어 문인들이 곁에 두고 연주하는 악기였다. 고려시대의 문인들이 가야금을 특히 애호하였음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sup>2)</sup>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거문고가 문인들의 악기로 선호되면서 거문고가 가야금보다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거문고 선호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악보들의 악기별 비중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

1) 『三國史記』卷32, 「雜志」1 樂. “...新羅樂, 三竹, 三絃, 拍板, 大鼓, 歌舞... (中略)... 三絃, 一玄琴, 二加耶琴, 三琵琶. 三竹, 一大琴, 二中琴, 三小琴. ... (中略)... 加耶琴, 亦法中國樂部箏而爲之. ... (中略)... 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 見唐之樂器, 而造之. 王以謂, 諸國方言各異, 聲音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 造十二曲. 後于勒以其國將亂, 携樂器, 投新羅眞興王. 王受之, 安置國原, 乃遣大奈麻注知・階古・大舍萬德 傳其業. ... (中略)...”

2) 송방송, 「고려 향악의 삼현문제-선비들의 풍류를 중심으로-」, 『고려음악사연구』, 일지사, 1988.

송혜진, 「고려시대 음악연구 : 거문고보다 가야금을 즐긴 고려시대의 문인들」, 『전통문화』 8월호, 전통문화사, 1986.

윤영혜, 「조선전기 사대부 금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조선시대 거문고 악보로는 『금합자보(琴合字譜)』(1572)를 시작으로 『양금신보(梁琴新譜)』(1610), 『현금동문유기(玄琴東文類記)』(1620) 등 다수의 악보가 편찬되었다. 또한 거문고보와 함께 적보, 장고보가 같이 수록된 총보 형식의 『금합자보(琴合字譜)』에도 가야금 선율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현전 최고(最古)의 가야금 악보로 알려진 『졸장만록(拙庄漫錄)』(1796)이 18세기 후반의 악보인 점을 고려하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가야금은 당대 상층의 음악 문화라 할 수 있는 문인들의 풍류 문화에서 거문고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자기 수양을 위해 연주하는 악기로 가야금보다는 거문고를 선호했다. 이에 풍류방음악에서 거문고가 중심적인 위치가 되었고 시가 음악의 반주 악기로서의 중심적인 역할 역시 거문고가 담당하게 되었다.<sup>3)</sup> 즉, 조선시대에는 가야금보다는 거문고가 더욱 비중 있는 현악기로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선시대 음악문화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0세기 전반기 라디오와 유성기음반의 등장은 음악의 사실적인 원형을 시간과 장소의 구분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 동질의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했다. 협률사(協律社)와 원각사(圓覺寺) 같은 극장식 무대의 상설화는 새로운 공연 환경으로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음악 공연 운영체계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는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전문음악인들이 예술가로서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다.<sup>4)</sup> 이처럼 20세기 전반기는 서구 문물의 수입, 일제강점기, 근대화의 진행 등 사회 전반의 변화들과 맞물려

3) 가야금은 쟁(爭)에 비유되는 금류의 악기로 조선의 문인들에게 거문고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규보의 가야금 애호에 대한 이익의 다음과 같은 비판적 견해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가야금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급취장(急就章)》 주에 상고하니, “쟁(箏)은 슬(瑟) 따위로서 본래는 12현이던 것이 지금은 13현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개 진 나라에서 만든 것인 까닭에 이름을 진쟁(秦箏)이라 하며, 또는 진 나라 풍속이 각박하고 악독하여 부자간에 슬(瑟)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자가 있어 각기 반절씩 쪼개어 갖게 되었던 까닭에, 그 당시 쟁이란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이로 본다면 가야금이란 것이 진쟁과 뭐 다르겠는가? 이규보는 이런 것을 상고하지 않은 듯하다...”(『성호사설(星湖僊說)』, 「만물문(萬物門)」).

4)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1』, 한길사, 1995, 661쪽.

서 한국음악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일찍이 관련 선행연구에서 여러 각도로 주목을 받아 왔다.

가야금이라는 악기, 가야금연주자 그리고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급변했던 20세기 전반기 상황에서 다른 어떤 악기들보다도 적극적으로 근대화에 맞추어 변모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이미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기악독주곡 산조가 거문고 등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보다 먼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근대 사회를 거치며 가야금은 “기악곡”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제일 먼저 자리매김하며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 기사를 참고해 보면 20세기 전반기에 연주회나 라디오, 그리고 유성기음반에서 가야금음악의 비중이 거문고라는 악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높았음이 확인된다.<sup>5)</sup>

이렇게 가야금은 20세기 전반기에 진행된 전통음악의 근대화라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새로이 등장한 방송과 음반이라는 미디어와 근대식 무대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악기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오늘날 연주되는 가야금음악의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20세기 전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전개양상에 관해 살펴보는 것에 두고자 한다.

이 시기 가야금음악의 전개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이른바 청중을 위해 공연되는 근대식 무대, 그리고 라디오방송과 유성기음반으로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음악 유통 상황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시의 가야금음악에 관해서는 『매일신보』,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의 기사들, 라디오로 방송되었던 음악에 대한 기록을 담은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sup>6)</sup>과 가야금음악이 담긴

---

5) 예를 들면 20세기 전반기에 발매된 유성기음반의 경우,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parchive.co.kr/v2/>)를 통해 검색해 본 결과 거문고(현금)를 검색하면 약 110개가 검색되는 반면, 가야금은 482개의 음반이 검색된다.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민속원, 2000.

유성기음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한국유성기음반』<sup>7)</sup>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 연주곡목, 연주형태, 연주자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20세기 전반기에 가야금이 어떻게 부각되었으며 어떠한 장르의 음악들이 가야금음악으로 정착되어 새롭게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음악 레퍼토리로 정립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야금음악의 연주 형태는 어떠한지 당시 가야금음악의 전개에 참여했던 연주자들의 활동, 역할 등에 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또한 가야금음악의 역사적 논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당시 가야금음악의 연주곡목과 연주형태, 연주자 등에 관해 살펴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이 어떠한 전개 양상을 보이는지 논의해 보고자 했다. 연구 자료로는 신문기사, 경성방송국 라디오 방송 목록, 유성기음반 등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세기 전반기를 기록한 신문으로는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있다. 여기 수록된 기사들 중에서 가야금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들을 찾아서 그 내용들을 통해 당시 연주된 가야금음악에 관해 확인해 보았다. 단, 이 신문들에 수록된 가야금 관련 기사 중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과 중복되므로 제외했다.

한편 1927년 2월 26일에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경성방송국은

---

7)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 한결음더, 2011.

전통음악 역시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sup>8)</sup> 이 때 방송된 국악 프로그램은 아악·음율·취타·시나위 또는 속곡(俗曲)·가곡·가사·시조·창극조(즉 판소리)·서도소리·경기좌창·경기입창·서도잡가·남도잡가·가야금병창과 산조 등 약 15개의 종목을 포함하였다. 한 달 치 국악방송 프로를 만들 때에는 어느 한 가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다고 한다.<sup>9)</sup> 그러므로 1926년부터 1945년까지 19년간의 방송내용을 장르, 연주곡, 연주자 등으로 정리한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중에서 가야금 관련 레퍼토리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 존재하였던 가야금음악들을 사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다양한 연주형태들 속에서 가야금의 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연구 방법이기도 하다.

방송과 함께 20세기 전반기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 것이 유성기음반이다.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가야금 연주로 가장 이른 것으로는 1908년에 박팔괘가 연주한 가야금병창 <새타령>, <자진산타령>, <토끼화상> 등이다.<sup>10)</sup> 즉 20세기 벽두부터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음악이 유성기음반으로 만들어졌던 만큼 20세기 전반기 발매된 유성기음반은 당시 가야금음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상 제외할 수 없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이러한 유성기음반에 관해서는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의 연구성과인 한국유성기음반 아카이브<sup>11)</sup>, 그리고 출판된 『한국유성기음반』<sup>12)</sup>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단, 연대가 불분명한 음원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신문기사,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의 자료들, 유성기음반 등을 통해 20세기 전반기 가야금 연주악곡의 종류와 연주형태 그리고 연주자를 분석하여 볼 것이다. 그 외에 당시 가야금 관련 기록이 있는 문헌들 역시 참고자료로 본 연구에 포함하도록 하겠다.

8) 서재길, 「1930년대 후반 라디오 예술과 전통의 문제」, 『한중인문학연구』 제23집, 2008, 177-200쪽.

9) 이해구, 「1930年代의 국악방송」, 『국악원논문집』 제9집, 국립국악원, 1997, 249-259쪽.

10) 음반번호: 새타령 VICTOR13512, 자진산타령 VICTOR13513, 토끼화상 VICTOR13521.

11)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sparchive.co.kr/v2/>).

12) 각주 7)과 같음.



따라서 본 연구의 시기적인 범위는 20세기 전반기,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가야금 유성기음반이 발견되는 1900년대부터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1945년까지이다. 1945년 이후로 한국은 다시 커다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음악계의 판도 역시 20세기 전반기와는 다르게 구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에 포함되는 광범위한 자료들의 효과적인 해석과 논의 전개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음악학 연구 방법론 중 신문기사, 방송목록, 유성기음반과 같은 자료들의 통시적 고찰을 전제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채용하고자 한다.<sup>13)</sup> 이들 자료들에는 인명이나 곡명 등에 있어서 오류가 있거나 다른 방식의 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문기사, 방송목록, 유성기음반의 관련 내용들을 횡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은 물론이며 선행 연구 역시도 참고해서 검증했다. 그리고 실제 신문기사, 방송목록, 유성기음반의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해서 연구 자료로 사용했다.

또한 큰 그림에서 가야금음악의 움직임을 조망할 수 있도록 당시의 가야금음악들을 10년 단위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1920년대 이전의 가야금 관련 자료는 10년 단위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희소하므로 1920년대 이전을 하나의 시기로 구분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10년 단위의 시대 구분은 단지 연구의 진행에 적용하는 시대구분이며, 이후 얻어지는 연구 결과로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전개양상과 관련된 시대구분은 새로 제시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논의 전개에 대해 언급해 보면, 신문기사,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과 『한국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 곡들을 장르별로 분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우선 II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으로 연주한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 시대에는 가야금이 궁중음악에서 사용된 악기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20세기 전반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오늘날 전해지는

---

13) 연구 방법론에 관해서는 김우진의 『한국음악학 연구 방법론』(민속원, 2015)을 참고하였다.

여러 장르의 가야금음악 중 조선시대의 연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채 20세기 전반기를 거쳐 온 것은 궁중음악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피는 것이 다른 장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풍류방음악은 궁중음악과 함께 오늘날 ‘정악’이라고 분류되는 가야금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궁중음악과는 별도로 문인들에 의해 거문고를 중심으로 연주되던 풍류방음악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궁중음악과도 상관성을 갖고 전개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II장에서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과 함께 풍류방음악도 살피고자 했다. 이것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이 오늘날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정악”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밝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20세기 전반기 두 장르의 가야금음악을 II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 III장에서는 가야금병창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다. 오늘날과는 달리 20세기 전반기에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중 병창의 비중이 상당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에 이어 가야금병창을 논의해 보고자 했다. IV장에서는 산조 및 기타 가야금이 포함된 민속음악을 고찰했다. II장과 III장, IV장에서는 연주곡목과 연주형태, 연주자 또는 연주집단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V장에서는 “근대 가야금음악의 성립과 전개”라는 관점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각 장르별로 20세기 전반기에 어떻게 대표적인 한국의 악기로 자리매김해 나갔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주자들의 활약에 대한 규명, 시대 구분에 관한 시론 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가야금음악’은 독주, 중주, 합주, 반주 등의 형태로 연주하는 모든 가야금 레퍼토리를 일컫는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통계를 위해 가야금이라는 단어가 직접 명시된 자료들을 주요 자료로서 채택했다.

### 3. 선행연구 검토

20세기 전반기인 19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음악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인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과 유성기음반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세기 전반기 가야금과 가야금음악을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언급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야금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 20세기 전반기를 다룬 것, 궁중음악,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 기타 가야금음악 등 각 장르별 음악 연구에서 20세기 전반기를 다룬 것이 있다. 그리고 20세기 전반기라는 시기를 중점적으로 가야금음악을 다룬 경우였다.

가야금의 역사에 관한 선행 연구 중 20세기 전반기를 다룬 것으로는 우선 민의식의 논문 “가야금음악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확장 연구”를 들 수 있다. 전근대와 근·현대로 시기를 구분하여 가야금음악의 시기적 특성, 연주양상, 음악적 특징 등을 분석한 이 글에서는 가야금이 사대부의 수신의 악기였던 거문고에 비해 미약하였고 조선후기 삼현육각 편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가야금의 소외현상이 근대에 산조의 탄생으로 가야금음악의 위상이 역전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의 서구적 작곡 개념의 도입으로 창작과 실험적 시도의 확대 그리고 음악의 변화에 따른 가야금의 개량에서 비롯된 가야금연주자의 음악적 기량의 확대 등을 통해 가야금음악이 확장된 양상과 그 의의를 도출하였다.<sup>14)</sup> 민의식의 이 글에서는 가야금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음악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 외의 연구들은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을 장르별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그 중 궁중음악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활발히 진행된 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야금에 관해 주목하기 보다는 당시의 궁중음악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가야금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

14) 민의식, 「가야금음악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확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다. 김명주의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방송활동: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이왕직아악부의 방송곡 목록 연주형태, 음악인을 살펴보고 전통음악의 수용 층 확대와 보급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sup>15)</sup> 이 연구의 결과로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 연주 상황을 일부 찾아볼 수는 있으나 이는 이왕직아악부의 음악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송혜진은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에서는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중 부록으로 실려 있는 이습회의 공연자료들을 대상으로 연주악기, 악곡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sup>16)</sup> 이 역시 이습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이습회의 가야금 연주형태나 연주 악곡 등을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가야금에 대한 연구’라는 시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20세기 전반기 궁중음악이라는 장르에서 가야금을 주목해 진행한 연구는 매우 적게 진행된 것에 반해 당시의 가야금병창을 다룬 연구는 다양한 저자에 의해 다양한 시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당시 가야금병창의 음원이 유성기음반에 많이 남아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유성기음반의 가야금병창을 다룬 연구로 이선, 이윤정, 이소영, 송혜원, 정명희, 홍재동 등의 논문이 있다. 그 중 이선은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의 현황: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을 중심으로”에서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에 나와 있는 가야금병창 목록을 음반사, 갈래, 인물, 악곡 등으로 분류하여 가야금병창의 시대적 양상을 조명하고자 하였다.<sup>17)</sup> 이렇게 이선이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면 이윤정은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 공연형태의 변모양상”에서 이보다 더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윤정이 가야금병창 유성기음

15) 김명주,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방송활동: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30집, 2003, 145-174쪽.

16) 송혜진,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국립국악원, 2001.

17) 이 선, 「留聲機音盤에 나타난 가야금병창의 현황: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반들을 목록에 나타난 가야금병창 기록을 중심으로 연주자와 악곡의 장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의 가야금병창은 충청권이 먼저 시작하여 후에 남도권이 함께 존재하였으며 가야금병창 관련 음반 중 가야금병창 악곡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1932년부터 1935까지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판소리 다섯 마당의 대목이나 단가가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서도나 남도의 잡가, 각 지역의 민요, 창극도 가야금병창의 악곡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밝혔다.<sup>18)</sup>

이렇게 이선과 이윤정이 유성기음반의 가야금병창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를 진행했다면 연주자를 한정지어서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소영은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구”에서 가야금병창의 전성기였던 시기로 20세기 전반기를 주목하면서 이 시기에 가야금병창을 하나의 음악 형태로 정립하는 데에 주도했던 오태석, 심상건, 이소향의 대표적인 악곡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 및 예술성을 고찰하고 가야금병창이 고유의 예술성을 갖는 전통음악의 중요한 공연양식이었음을 제시했다.<sup>19)</sup> 송혜원은 “유성기음반을 통해본 1930년대 가야금병창의 실태”에서 유성기음반을 통해 1930년대 가야금병창의 전반적인 음악적 양상을 알아보고 가야금병창의 전문 연주자였던 오태석과 이소향의 공연양상을 살펴보았다.<sup>20)</sup> 정명희는 “오태석의 가야금병창 활동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에서 1930년대 판소리나 산조의 여기(餘技)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였던 다른 명창들과 달리 가야금병창을 전문적으로 연주하였던 오태석의 활동상을 라디오, 고음반 자료, 라디오 프로그램,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다각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오태석은 1920년의 활동을 처음으로 1940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병창뿐만 아니라 1936년부터는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창극에 비중 있는 역할로 참여 하였다. 또한 음반취입 시 동일한 곡이라도 회사에 따

18) 이윤정,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 공연형태의 변모 양상」, 『우리춤과 과학 기술』 제12집, 2010, 181-209쪽.

19) 이소영,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0) 송혜원, 「유성기음반을 통해본 1930년대 가야금병창의 실태」, 『한국음악사학보』 제 27집, 한국음악사학회, 2001, 161-192쪽.

라 노랫말을 달리하여 곡을 구성하는 등 산조 명인들이 일종의 여기(餘技)로 병창을 부를 당시에, 다양한 가야금병창곡을 짜기 위해 노력한 오테석의 남다른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다.<sup>21)</sup>

그 외에 홍재동은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분석을 시도했다. “가야금병창 연구”에서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구조와 짜임새에 관해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유성기음반에 녹음된 가야금병창의 음악적 특징은 가야금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 병창에서 쓰인 선법이나 장단, 가야금과 소리와의 관계를 통한 병창효과의 극대화, 일반적인 병창의 노래선율 등은 가야금의 조율과 선율진행에 맞게 짜여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이 가야금병창의 특징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sup>22)</sup>

이상의 가야금병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통계에 의한 자료 분석과 악곡의 분석, 주요 연주자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유통 양상에 있어서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의 역할을 조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인다.

가야금산조에 대한 연구 역시 가야금병창에 관한 연구 못지않게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다수의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가야금병창과 마찬가지로 유성기음반에 가야금산조의 음원이 다수 남아있다는 점도 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야금산조라는 음악이 20세기 전반기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음악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도 들 수 있겠다.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산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들을 모두 다룬 개괄적 연구로는 김원명·정영진의 “일제강점기 대중매체에 조응한 가야금산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라디오방송과 유성기음반 자료에 기초하여 강태홍·박상근·성금연·신쾌동·심상건·안기옥·정남희·한성기를 중심으로 가야금산조들에 관해 살폈다.<sup>23)</sup>

21) 정명희, 「오테석의 가야금병창 활동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2) 홍재동, 「가야금병창 연구」, 『관소리학회지』 제5집, 관소리학회, 1994, 245-297쪽.

23) 김원명·정영진, 「일제강점기 대중매체에 조응한 가야금산조」, 『문화전통논집』 제10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산조의 분석 등을 통해서 당시의 가야금산조에 대한 역사적 의의, 그리고 오늘날 가야금산조와의 차이점 등등을 다수의 논문에서 언급한 연구자로 권도희를 들 수 있다. 권도희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산조와 관련해서 다수의 선행 연구를 진행했는데 특히 유성기음반의 산조를 분석해서 현행 가야금산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사적 고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와도 관련이 깊다. “가야금산조 진양의 형식론”에서는 유성기음반에 담긴 가야금산조의 진양조를 현행과 비교 분석하여 현행 산조의 주류를 이루는 몇 가지 유파의 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밝혔다.<sup>24)</sup> “김운선 가야금산조 연구”에서는 김운선의 산조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중모리>와 <원머리>의 선율분석을 통해 <중머리>는 현행 김죽과 긴 산조의 앞부분의 초기 가락이고 원머리는 현행 중중머리 일부와 자진모리 앞부분의 초기 가락인 것을 밝히고 현행 산조와의 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sup>25)</sup> 그리고 “유성기음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연구: 평조 유형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에서는 유성기음반의 가야금 음반 중에서 <중모리>와 관련 있는 16건의 음반을 분석하여 현행과 관련하여 유형을 나누어 보고 각 유형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도출해내려고 하였으며,<sup>26)</sup> “심상건의 산조사적 공헌”에서는 50년간 남긴 그의 녹음자료를 통해 산조사에서 그의 공헌을 양식사적 입장에서 조망해본 결과, 당학장단과, 2소박 6박 계열의 연속체 형식의 시도 그밖에 저음이 확대된 조현법 사용과 “당” 중심의 계면조 청 이동, 평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 등을 제시하며 양식사적으로 20세기 초에는 현재보다 다양한 종류의 산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산조의 발달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주장하였다.<sup>27)</sup>

호,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83-109쪽.

24) 권도희, 「가야금산조 진양의 형식론」, 『한국음반학』 제3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3, 89-154쪽.

25) 권도희, 「김운선 가야금산조 연구」, 『한국음반학』 제5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5, 271-275쪽.

26) 권도희, 「유성기음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연구 : 평조 유형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6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6, 273-314쪽.

27) 권도희, 「심상건의 산조사적 공헌」, 『한국음반학』 제9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9, 173-241쪽.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산조와 관련해서 특정 연주자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권은경은 “동명이인(同名異人)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김운선(金雲仙)을 중심으로”에서 일제강점기에 김운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김죽과 외에 6명으로 여자 5명, 남자 1명, 성별 미상 1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28)</sup> 또한 권은경은 “일제강점기 가야금산조 연주자들의 세대별 음악활동 및 공연예술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 경성방송국 방송 시작 이후를 중심으로”에서 1925~1940년까지 가야금산조 연주자들의 경성방송국(JODK) 방송과 유성기음반 취입기록을 조사하고, 각 연주자별 라디오방송 기록과 음반 취입기록 및 신문, 잡지에 나타난 연주자들의 기사를 통해 연주자들의 음악활동을 재구성해보고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와 대조를 통해 그들의 음악활동을 밝혀냈다.<sup>29)</sup> 그러나 그의 연구 역시 통계적 결과를 제시했을 뿐 20세기 가야금음악이 확립되어 전개되어 나가는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김해숙은 “유성기음반의 함동정월 가야금산조와 현행과의 비교”에서는 일본 콜롬비아사의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중중모리와 늦은 자진모리 장단을 현행의 것과 비교하였다.<sup>30)</sup> 또한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산조의 틀: -김해선의 음반 연주를 중심으로-”에서는 김해선의 연주로 유성기음반 님보노홍에 수록된 장양조산조와 중모리산조를 분석하여 현존 음악과의 관련성을 찾아보려 했다.<sup>31)</sup>

송방송은 “거문고명인 白樂俊과 가야금명인 丁南希의 公演樣相 : 일제강점기의 방송, 음반, 신문자료를 중심으로”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백낙준과 정남희 두 명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밝히고

28) 권은경, 「동명이인(同名異人)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김운선(金雲仙)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54집, 한국음악사학회, 2015, 5-30쪽.

29) 권은경, 「일제강점기 가야금산조 연주자들의 세대별 음악활동 및 공연예술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 경성방송국 방송 시작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30) 김해숙, 「유성기음반의 함동정월 가야금산조와 현행과의 비교」, 『한국음반학』 제2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2, 171-189쪽.

31) 김해숙,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산조의 틀: -김해선의 음반 연주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3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3, 77-88쪽.



음악사회사적 조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확인하며 그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sup>32)</sup>

정영진 “가야금명인 강태홍의 공연양상 : 일제강점기 방송·음반자료를 중심으로”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에 기초해 강태홍의 음악적 행보를 그려 지금까지 음악학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음악사회사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했다.<sup>33)</sup>

그 외에 20세기 전반기 중 일부 시기에 국한해서 가야금산조를 연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유나는 “1930년대 가야금산조 악조별 시김새의 음향학적 분석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에서 1930년대에 음반을 남긴 명인 중 지역적 전승계보에 따라 충청제 심상건과 전북제 김종기 그리고 전남제인 한성기, 정남희, 강태홍의 음원을 가지고 SonicVisualizer를 이용하여 산조의 음조직과 시김새를 분석하고 가야금산조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여 그 차이를 밝혀 산조 형성기의 모습을 연구하려 했다.<sup>34)</sup>

한편 김현호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산조의 전승을 권번과 관련지어 논의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가야금산조의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가야금산조의 연주양상과 권번을 통한 가야금의 전승에 대해 알아본 결과 권번에서 이루어진 산조교육 및 다양한 활동은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교육으로 다듬어진 예기들의 방송활동으로 수용 층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밝혔다.<sup>35)</sup> 이렇게 당시의 가야금산조와 권번, 또는 기생과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로는 이용식의 “한국 전통음악의 전승과 미래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가야금산조가 현대까지 전승된 방법으로 가야금명인들의 공연활동뿐만 아니라 권번의 가야금 선생으로도 활약하면서 가야금산조의 맥은 주로

32) 송방송, 「거문고명인 白樂俊과 가야금명인 丁南希의 公演樣相 : 일제강점기의 방송, 음반,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11집, 한국고음반연구회, 2001, 21-71쪽.

33) 정영진, 「가야금명인 강태홍의 공연양상: 일제강점기 방송·음반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29집, 한국음악사학회, 2002, 657-670쪽.

34) 이유나, 「1930년대 가야금산조 악조별 시김새의 음향학적 분석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5) 김현호, 「일제강점기 가야금산조의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53집, 동양고전학회, 2013, 197-228쪽.

권번에 의해 유지되었고, 이때부터 가야금산조의 담당층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방송과 음반이 산조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sup>36)</sup>

위와 같이 20세기 전반기의 가야금 관련 논문들은 당시의 가야금음악과 그 연주자들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라는 학문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부분 어느 한 장르에 치중하거나 인물 중심의 연구 또는 음악적 분석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전체 흐름을 읽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르적 범위의 한정을 두지 않고 당시 유행하고 연주되었던 가야금음악 전반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유통 양상을 살피고, 그에 대한 사적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

36) 이용식, 「한국 전통음악의 전승과 미래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19집, 공연문화학회, 2009, 281-315쪽.

## II.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20세기 전반기에도 여전히 가야금이 궁중음악에서 사용되던 전통은 이전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당시 궁중음악과 관련된 가야금음악의 전개를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20세기 전반기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이왕직아악부 출신의 음악인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풍류방음악에서의 가야금음악 전개 역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1920년대 이전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20년대 이전 가야금으로 연주했던 궁중음악 또는 풍류방음악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1910년대 일본인 음악학자 가네쓰네 기요스케(1885-1957)가 저술한 『조선의 음악(朝鮮の音樂)』에서 1910년대 가야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sup>37)</sup> 『조선의 음악』에 따르면 가네쓰네는 조선의 음악을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으로 분류한다. 궁중음악은 다시 아부제악(아악: 문묘제례악), 속부제악(속악: 종묘제례악), 내취, 향악으로 나누고, 민간음악은 민간의 정악과 민간의 속악(기생음악, 배우음악)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네쓰네 기요스케가 1912년에 조사한 조선음악의 분류와 악기편성을 보면 궁중음악 중 속악(종묘제례악)의 경우 가야금을 포함시켰으며, <여민락>과 <영산회상>으로 대표되는 향악 역시 가야금이 편성된다고 했다<sup>38)</sup>.

그 외에 가곡의 반주에 가야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1912년 『

37) 이에 관해서는 이지선이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음악 연구 -가네쓰네 기요스케(兼常清佐)의 『朝鮮の音樂』을 중심으로」(『한국음악사학보』 50권, 한국음악사학회, 2013, 211-249쪽)라는 글에서 확인했다.

38) 이지선,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음악 연구 -가네쓰네 기요스케(兼常清佐)의 『朝鮮の音樂』을 중심으로」, 216-220쪽.

매일신보』의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가야금은 휘금, 거문고, 양금, 단소, 생황, 장구와 함께 가곡 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音律家の 大責任- 고대음악 회복해야 성세 문명을 찬양케 함>.....  
휘금(徽琴)에 윤용구(尹用求), 거문고(琴)에 김경남(金經南), 리병문(李秉文), 가야금(伽倻琴)에 명완벽(明完璧), 양금(洋琴)에 정경선(丁景善), 단소(短簫)에 조동석(趙東錫) 리춘호(李春浩), 생황(笙簧)에 리중렬(李重烈) 조흥순(趙興淳), 장구(缶)에 윤경중(尹敬重), 가곡(歌曲)에 하규일(河奎一)제씨.<sup>39)</sup>

그러나 가야금음악의 연주곡목, 연주형태가 궁중과 민간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가네쓰네의 연구에서 언급된다. 또한 가네쓰네의 조선음악 조사에 따르면 1910년대에 민간의 음악은 궁중에서와 같이 수십 명이 아닌 4-5명의 편성이었고 <영산회상>이 가장 많이 연주되었으며, 그 외 <여민락>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sup>40)</sup> 이 때 민간의 음악으로 언급한 <영산회상>과 <여민락>은 풍류방음악인 줄풍류로 연주하는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네쓰네는 다른 부분에서 민간에서 연주하는 기악은 주로 현금과 양금, 가야금으로 연주한다고 적고 있다.<sup>41)</sup> 즉, 가네쓰네의 이러한 서술에 근거한다면 당시 민간의 음악, 즉 풍류방음악은 <영산회상>을 주로 연주했으며 가야금 외에 현금, 양금 등이 함께 편성되었다고 하겠다.

가네쓰네의 연구를 토대로 1910년대 궁중과 민간 풍류방에서 연주했던 가야금음악을 정리하면, 레퍼토리로는 <영산회상>, <여민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가야금음악의 연주 형태는 궁중음악의 경우 좀 더 많은 악기와 함께 합주, 민간의 풍류방음악의 경우 현금, 양금 등 4~5개의 악기와 합주로 편성되었다.

39) 『매일신보』 1912년 5월 24일자 3면.

40) 이지선,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음악 연구 -가네쓰네 기요스케(兼常清佐)의 『朝鮮の音樂』을 중심으로」, 224쪽.

41) 앞의 책, 225쪽.

## 2) 연주자

20세기 전반기 궁중음악의 전승은 이왕직아악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왕직아악부의 업무는 ‘아악(雅樂)에 관한 일’, 즉 이왕가를 위한 음악을 연주하는 일이었다.<sup>42)</sup>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궁중의 각종 의례가 축소되었고 그 여파로 장악기관도 명칭이 바뀌고 감원(減員)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sup>4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전 이왕직아악부의 가야금연주자들은 궁중의 행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일례로 1918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악개요』에는 당시 궁중음악에 사용되는 악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가야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이전의 공연무대나 유성기음반 등 대중에게 공개되는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의 가야금 연주 활동은 찾기 어려웠다. 이는 여전히 궁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국가 소속의 음악인이라는 신분이었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겠다. 다만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 이름이 언급된 기록은 1912년 매일신보 기사에 실린 가야금연주자 명완벽뿐이다.<sup>44)</sup>

가네쓰네의 『조선의 음악』에 따르면 1920년대 이전 민간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며 풍류방음악을 연주한 이로는 ‘조선정악전습소’와 관련이 있는 음악인들과 기생이 있었다. 가네쓰네는 기생은 주로 현금, 양금, 가야금을 연주했다고 적고 있어서 1920년대 이전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한 연주자로 기생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당시 기생들이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했던 것은 1912년 매일신보의 공연 관련 기사들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 <표 1>은 1912년 매일신보에 실린 풍류방음악 중 가야금이 포함된 기사를 발췌한 목록이다.

42) 이수정, 「이왕직아악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9쪽.

43) 이정희, 「이왕직아악부의 활동과 안팎의 시각」, 『동양음악』 26집, 2004, 97쪽.

44) 각주 39)와 같음.

<표 1> 1912년 『매일신보』 가야금풍류 관련 기사

날짜	기사내용
1912. 4. 26	<演藝界-登降仙樓 ㅎ야 試-評>...월중선의 거문고와 가패 채련의 가야금과 화향 덩홍 명옥의 양금으로 음악합주...
1912. 5. 7	<演藝界>...봉랑의 현금, 금편 취련의 가야금, 경패 옥련 명옥의 양금, 국희 금주의 팔선무...
1912. 5. 8 <sup>45)</sup>	<演藝案内 - 中部 罷朝橋 團成社 降仙樓 毎日 午後 八時 開演>...현금, 가야금, 양금 합주...
1912. 5. 16	<演藝界>...(줄풍류) 룡주, 벽도, 채경, 련홍...

앞의 기사를 보면 1912년 4월과 5월에 단성사에서 가야금, 현금(거문고), 양금의 합주로 줄풍류를 공연했던 이들 중 가야금을 담당했던 이의 이름으로 “취련”, “채련” 등의 기생으로 짐작되는 이들이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이전 기생들의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했음은 그들의 음악 교육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된다. 1910년대에 기생들의 음악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던 ‘조선정악전습소’에서 가야금을 가르쳤음은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나타난다.

<正樂의 分教室-정악전습소분교실에서 무부기일동을 열심 교수> 조선정악전습소분교실(朝鮮正樂傳習所分校室)에서는 무부기(無夫妓) 련심(蓮心)등 사십 명을 열심교수하는 중인데 그 과정을 가사, 국어, 수신시조, 잡가, 법무, 승무, 거문고, 가야금, 양금, 생황, 단소, 습자, 도화, 내지춤, 사미센 등인데 교사제씨도 열심하려니와 무부기들은 불철주야하고 부지런히 공부를 한다더라.<sup>4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920년대 이전 가야금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의 연주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궁중음악에 포함되는 가야금 연주는 무대 등 일반에게 공개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풍류방음악만이 기생들이 연주하는 레퍼토리로서 무대에서 공연되어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야금음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45) 『매일신보』 1912년 5월 10일, 1912년 5월 12일, 1912년 5월 14일 동일 기사 게재.

46) 『매일신보』 1912년 8월 29일자 3면.

## 2. 1920년대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20년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에 관해서는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923년의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명완벽(1842~1929)이 당시에 독주로 가야금을 연주했다.

하와이學生訪問團九日午前獨立館에

구일아침에 청년회를 떠난 하와이학생들은 즉로로 서대문밖(獨立館)으로 향하였다 일동이 독립문(獨立門)을 향하여 갓가히 이르매 수백여명의 동리사람들은 벚회포와 감격에 넘치는 비창한 낮에 반기는 빛을 띄며 일행을 독립관으로 마저드려 간곡한 다과의 향응이 잇스후 해동상회 주임 김광현(金光鉉)씨의 눈물에 저즌 레사가 잇스며 …(생략)… 독립문을 떠난 일동은 다시 당주동(唐珠洞)에 잇는 리왕직아악대(雅樂隊)에 일으려 세계에 자랑하는 고국의 고악을 듣게 되얏섯다 먼저 아악생일동의 장생불로가(長春不老歌)<sup>47)</sup>를 듣고 다시 아악사당 명완벽(明完璧)씨의 로련한 터재를 발휘하는 가야금 독주를 드른 학생들은 중구 일성으로 「평생을 이 집에서 살엇스면 좋겡다.」…<sup>48)</sup>하며 부르짖섯다.

위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하와이학생방문단이 이왕직아악부를 방문해서 이왕직아악대의 음악, 즉 ‘고국의 고악’을 듣게 되었는데 그중에 명완벽의 가야금 독주가 있었다. 당시 명완벽이 연주했던 가야금 독주가 어떤 곡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이 연주된 음악이 <장춘불로지곡>이며 ‘고국의 고악’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궁중음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음악 중 한 곡을 가야금 독주로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 역시 유성기음반에 궁중음악

47) <장춘불로지곡>의 잘못된 표기인거 같다.

48) 『동아일보』 1923년 7월 10일자 3면.

이 녹음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1920년대 궁중음악이 녹음된 유성기 음반은 1928년 이왕직아악부의 연주로 일본 빅타레코드에서 발매한 <조선아악>(총 13매, 26곡 수록)이 있다. 정확한 연주자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음원의 확인을 통해서 <조선아악> 전체 중 함화진 지휘, 이왕직아악부 연주의 Victor49810 중광지곡 <세령산>에 가야금 연주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sup>49)</sup>

한편, 경성방송국에서도 1920년대에 가야금으로 연주한 궁중음악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1928년 11월 3일에는 조선이왕직아악부에서 <악기소개주악>이라는 주제로 모두 5곡을 라디오방송을 통해 연주했다. 연주자 명단에 ‘명호진’이라는 이왕직아악부 양성소 1기생인<sup>50)</sup> 가야금연주자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51)</sup> 당시 연주에 가야금도 포함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연주된 악곡들 중에서 <만년장환지곡>, <봉황음>은 ‘관현악반주’ 또는 ‘관현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악기인 가야금이 함께 편성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 2>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

연도	날짜	구분	곡명	연주자
1928	11.3	악기소개주악	1. 서일화지곡(합악) 2. 만년장환지곡(관현악반주) 3. 봉황음(관현악) 4. 요천순일지곡(세악) 5. 만과정식지곡(관악)	조선이왕직아악부 김영제/함화진(아악수)/하규일(축탁)/이기0/명호진/박창규/김득길(아악수장)/이순용/김계선./김수천/고영재/이병우/박노아/김천룡/이병성/유금돌/김천홍(아악수)

49) 1928년에 발매된 이왕직아악부의 음반들은 2014년에 국립고궁박물관에 의해 [이왕직아악부 유성기음반 <조선아악>](2014)이라는 타이틀로 복각되었다. 이 복각된 음반의 해설지에는 가곡반주 <만년장환지곡> 중 <편락(49805-B), ‘편수대엽’(49806-A), ‘언룡’(49808-B), ‘언락’(49809-B), ‘계락’(49810-B), ‘언편’(49811-B)에도 가야금이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으나 필자가 음원을 확인한 결과, 가야금이 편성된 음원은 ‘세령산’ 하나라고 판단하여 확실한 사료인 ‘세령산’만 본고의 사료로 채택하였다.

50)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173-75쪽 참조.

51) 가야금 연주자.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의 아악수장(雅樂手長). 전공은 가야금. 아악부원양성소(雅樂部員養成所) 제1기 졸업생. 아악사장(雅樂師長) 명완벽(明完璧)의 아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302쪽.



이와 같이 1920년대에 유성기음반과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방송에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이 소개된 것이 확인되었다. 즉, 이전과는 다르게 궁중음악이 유성기음반이나 라디오방송 등 당시 일반 청중이 접할 수 있는 매체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를 연주하는 악기 중 하나로 가야금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궁중음악 연주에 있어서 가야금은 주로 합주 악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1923년 하와이청년단의 방문을 맞이한 연주의 경우와 같이 가야금이 독주 악기로서 등장하기도 했다. 이로써 이미 1920년대에 가야금이 독주악기로서 궁중음악을 연주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20년대에도 여전히 가야금은 풍류방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다루어졌다. 아래의 기사에 따르면 1921년 2월 21일 저녁 8시에 마산에서 음악대회라는 공연을 개최하였는데 이 때 청중이 구백여명에 달하였으며 공연 내용으로는 가야금, 양금, 사현금의 병주가 있었다고 한다. 연주곡목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 연주된 정확한 곡명은 알 수 없지만 양금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봐서 풍류방음악이 연주된 것으로 짐작된다.

#### 馬山音樂大會盛況

馬山耶蘇敎靑年勉勵會에서 音樂思想을 宣傳하기 爲하야 去二十一日 下午八時에 文昌禮拜堂에서 第一回音樂大會를 開催하였는데 舞臺를 盛飾하고 그 左右兩側에는 男女樂員及會員이 着席한바 聽衆은 九百餘名에 達한지라 定刻이 되매 會長 李允宰씨의 開會辭가 有한 後 左의 順序대로 演奏하였는데 第一부 ▲奏樂 …(생략)… ▲伽倻琴陽琴四弦絃琴並奏…(생략)…<sup>52)</sup>

위의 기사에서 명시된 연주회에서 선보인 음악이 풍류방음악이었다는 추측에 대한 근거는 부산에서 예기조합에 속해있던 기생 이소홍(李小紅)에 관련한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녀가 부산의 예기조합에서 ‘풍

52) 『동아일보』 1921년 2월 25일자 4면.

류'로 양금과 가야금을 배웠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기생들을 중심으로 풍류방음악을 가야금으로 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數寄한 李小紅 妓生으로 =경시텅에 잡혀가기까지

(생략)…이와가지 하로아춤에 그의 양모를 따라 釜山으로 향한 소흥이는 할 일업시 양모의 식히는대로 어려서부터 藝妓조합에 몸을 던지고 낮이나 밤이나 춤추기와 노래 배호는 것으로 일을 삼게 되었으며 본래 영리한 소흥이라 얼마 아니되어 뛰어난 재조는 일반기생들을 누를만치 풍류와 춤이 능란한 童妓가 되었다 풍류로는 양금, 가야금이요 춤에는 살푸리(국거리) 승무 등이었다 …(생략)<sup>53)</sup>

유성기음반을 통해서도 1920년대 풍류방음악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유성기음반에 녹음된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풍류방음악을 제시해 보면 아래의 <표 3>과 같이 네 곡이다. 이들의 곡명을 살펴보면 <모시편>, <편>, <시조(상)(하)>로 당시 가야금이 오늘날 정가 계열의 노래로 분류되는 음악에서 반주악기 역할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3> 192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 편성 풍류방음악

연도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
1925	편	최섬홍(병창)/이조선(양금),심매향(가야금)	일축조선소리반K507/A
	모시편	최섬홍(병창)/이조선(양금),심매향(가야금)	일축조선소리반K507/B
1926	시조(상)	박월정/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2/A
	시조(하)	박월정/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2/B

다음으로 1920년대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 가야금이 포함되는 풍류방음악이 방송된 것을 확인해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53) 『동아일보』 1924년 7월 16일자 3면.

<표 4>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풍류방음악

연도	날짜	구분	곡명	연주자
1926	7.18	조선음률	정악	차금홍(현금, 한성권번)/김진홍(양금, 한성권번)/김조홍(가야금, 한성권번)
1927	9.19	조선음률	영산회상	이성환(현)/ 나운보(가)/ 고희직(양)/ 용구(해)/ 현용현(대)/ 이재규(적)/ 김상운(단)
1928	1.23	조선음률 및 남도잡가 합창	수종(數種)	윤옥행(현금)/ 김운선(가야금)/ 이소행(단소)/ 강선옥(양금)
	6.11	조선음률과 남도잡가	곡명 없음	윤옥행(현금)/ 김운선(가야금)/ 이소행(단소)/ 서산옥(양금)
	8.8	조선음률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윤옥행(현금)/ 서산옥(양금)/ 김운선(가야금)/ 이소행(단소)
	9.20	조선음률과 남도잡가	곡명 없음	이금홍(현금)/ 서산옥(양금)/ 김운선(가야금)/ 이소행(단소)/ 고일선(장고)
	10.2	조선음률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이금옥(현금)/ 서산옥(양금)/ 김운선(가야금)/ 이소행(단소)
	12.6	조선정악	곡명 없음	이금옥(현금)/ 현매홍(양금)/ 김운선(가야금)/ 이봉구(단소)/ 박산홍(장고)
	12.22	조선정악과 남도 잡가	곡명 없음	이금옥(현금)/ 서산옥(양금)/ 문하월(가야금)/ 이계행(단소)
1929	7.20	조선음률	영 산 회 상 중	인천: 김철영(현금)/ 신화중선(양금)/ 김산홍(양금)/ 이석련(해금)/ 이우규(합남울咸南築)/ 이금행(가야금)/ 김명주(단소)/ 정인화(장고)

앞의 표에 따르면 1920년대에는 1926년에 1일(7.18), 1927년에 1일(9.19), 1928년에 7일(1.23/6.11/8.8/9.20/10.2/12.6/12.22), 1929년에 1일(7.20)<sup>54)</sup>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풍류방음악이 방송되었다. 이 중 대부분의 방송에는 ‘조선음률’ 또는 ‘조선정악’이라고 장르의 명칭처럼 구분해서 우선 기록하고 곡명에는 <수종(數種)>, <곡명 없음>, <영산회상> 등이라 기록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악곡의 갈래명인 ‘음률’은 주로 <영산회상>, <여민락>, <평조회상>, <취타>의 음악을 일컫는 용어였으며, 특히 영산회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sup>55)</sup> 따라서 당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민속원, 2000.

1926.7.18(25쪽), 1927.9.19(42쪽), 1928.1.23(48쪽), 1928.6.11(54쪽), 1928.8.8(56쪽), 1928.9.20(58쪽), 1928.10.2(59쪽), 1928.12.6(62쪽), 1928.12.22(63쪽), 1929.7.20(72쪽).

55) 정영진, 『일제강점기 국악』, 한국학술정보, 2007.

시 ‘음률’ 또는 ‘정악’등으로 기록된 음악들은 대부분 영산회상 계통의 풍류방음악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영산회상 계통의 풍류방음악의 편성에 가야금이 반드시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래 <표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경성방송국악방송곡목록』에 조선음률이라 표기된 음악 중 가야금이 포함되는 편성으로 연주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표 5> 1920년대 경성방송국 조선음률(조선정악) 방송 횟수

연도	가야금이 포함된 편성의 방송 횟수	전체 방송 횟수
1926	1	21
1927	1	45
1928	7	37
1929	1	22

또한 1920년대의 방송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당시 가야금이 포함된 풍류방음악 중 <영산회상>의 연주형태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현금/양금/가야금’ 1회<sup>56)</sup>, ‘현금/가야금/단소/양금’의 형태가 5회<sup>57)</sup>, ‘현금/가야금/단소/양금/장고’의 형태가 1회<sup>58)</sup>, ‘현금/가야금/양금/해금/대금/적/단소’의 형태가 1회<sup>59)</sup>, ‘현금/양금2/해금/가야금/필률/단소/장고’의 형태가 1회<sup>60)</sup> 나타났다. 그 중에서 ‘현금/가야금/단소/양금’의 형태가 5회로 가장 많았다.

즉, 1920년대 풍류방음악의 연주에 있어서 가야금이 포함되는 경우의 연주 형태는 ‘현금/가야금/양금’이 함께 편성되는 가운데 관악기와 장고가 가변적으로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함께 편성되는 관악기 중에서는 단소가 가장 많이 연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6)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26.7.18(25쪽)

57)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28.1.23(48쪽), 1928.6.11(54쪽), 1928.8.8(56쪽), 1928.10.2(59쪽), 1928.12.22(63쪽)

58)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28.12.6(62쪽)

59)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27.9.19(42쪽)

60)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29.7.20(72쪽)

<표 6> 1920년대 경성방송국 <영산회상> 악기편성

\*가야금이 포함된 경우만 제시하였음

장르	날짜	악기편성							
		가야금	거문고	양금	해금	대금	피리	단소	장구
영산회상	1926.7.18	○	○	○					
	1927.9.19	○	○	○	○	○	○	○	
	1928.1.23	○	○	○				○	
	1928.6.11	○	○	○				○	
	1928.8.8	○	○	○				○	
	1928.9.20	○	○	○				○	○
	1928.10.2	○	○	○				○	
	1928.12.6	○	○	○				○	○
	1928.12.22	○	○	○				○	
	1929.7.20	○	○	○○	○	○		○	○

그리고 1926년 9월 9일에 방송된 조선 음률을 예로 들어 보면 거문고와 양금, 단소, 장고, 해금의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고 있다.<sup>61)</sup> 이와 같이 1920년대에 거문고는 가야금 없이도 합주에서 현악기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가야금은 대부분 현금 또는 양금과 같이 편성된다. 이것은 합주에 현악기가 편성될 때 우선 거문고가 편성이 되고 부수적으로 가야금이 편성되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즉, 가야금이 현악기로서 합주에 단독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만큼 아직 현악기로서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 2) 연주자

1920년대 궁중음악을 가야금으로 연주한 이는 앞에서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가야금을 가르쳤던 함화진, 그리고 1928년 11월 3일자 방송에 출연한 명호진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모두 이왕직아악부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명호진은 아악부원양성소 제1기 졸업생으로 가야금을

61) 『경성방송국악방송곡목록』, 27쪽. [1926년 9월 9일 / 조선음률 / 홍승영(현금) 김상순(양금) 조동석(단소) 김순옥(장고) 지용구(해금)] .

전공하였고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수장(雅樂手長)을 맡기도 하였다.<sup>62)</sup> 그가 연주에 참여한 곡은 <만년장환지곡>이다.

가야금으로 1920년대에 풍류방음악을 연주했던 이들의 이름은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에서 다음의 <표 7>과 같이 확인되는데 김초홍, 나운보, 김운선<sup>63)</sup>, 문하월, 이금향 등을 들 수 있겠다.

<표 7> 1920년대 풍류방음악 가야금연주자

연주자	소속	출연일	연주곡목
김초홍	한성권번	1926.7.18	조선음률<정악>
나운보	미상	1927.9.19	조선음률<영산회상>
김운선	조선권번	1928.1.23	조선음률 및 남도잡가 합창
		1928.6.11	조선음률과 남도잡가
		1928.8.8	조선음률과 남도단가
		1928.10.2	조선음률과 남도단가
		1928.12.6	조선정악
		1928.9.20	조선음률과 남도잡가
문하월	미상	1928.12.22	조선정악과 남도잡가
이금향	한성권번	1928.7.20	조선음률<영산회상>

이들 중에는 기생인 권번소속 연주자들로 확인되는 이들은 한성권번 소속의 김초홍, 이금향, 조선권번 소속의 김운선이다. 그리고 문하월은 어느 권번 소속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함께 연주한 이들이 이금옥(현금)/서산옥(양금)/문하월(가야금)/이계향(단소)인데 그 중 이금옥<sup>64)</sup>이

62) 국립고궁박물관, 이왕직아악부 유성기음반 <조선아악>, 2014.

63)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에 1927년-1933년까지, 유성기음반에 1931년-1934년까지 김운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권은경의 논문 「동명이인(同名異人)에 관한 연구」(『한국음악사학보』, 54집, 한국음악사학회, 2015, 23쪽.)에 일제강점기에 김운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총 7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중 가야금명인으로 알려진 김죽파(김운선)(1911-1989)의 활동시기와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김운선의 활동 시기가 동일하다. 하지만 이 외에 동명이인도 있어 다른 김운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연주곡목이나 풍류와 산조를 같이 연주 가능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모두 김죽파(김운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경성방송국 출연 당시 사용했던 이름인 김운선이라고 표기해 놓았다.

64) 성악가(민요). 경서도명창. 조선권번(朝鮮券番) 기생. 시에론사 소속, 송방송, 『한겨

조선권번 소속이고, 서산옥<sup>65)</sup>이 한남권번 소속인 것으로 보아 문하월도 권번 출신의 연주자였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김초홍, 김운선, 문하월, 이금향 등 권번 출신 연주자들은 1920년대에 모두 조선음률이라고도 불리는 곡을 연주 했고 이들 중 김운선은 1928년에 여섯 번이나 출연하고 있어서 역시 기생인 문하월, 이금향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출연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27년 9월 19일에 방송출연을 한 나운보에 관해서는 자세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연주한 이들이 거문고의 이성(승)환, 양금의 고희직, 해금의 지용구, 대금의 현용현, 피리의 이재규, 단소의 김상운이다. 이들 중 이승환, 지용구 등은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음악인들로 이왕직악부 소속이 아닌 민간의 음악을 담당했던 기악인들이다. 이에 대해 이해구는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음률’을 연주한 이들이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조선정악전습소 회원으로 거문고 조이순, 양금에 김상순, 해금에 민완직, 대금에 김영근(본명은 김계선), 장고에 김일우가 단골이었다. 그 후 인천의 합주단이 방송하여 거문고에 이언직, 양금에 이승환, 해금에 지용구, 세피리에 이재규 등등 새로운 얼굴들이 나왔다.<sup>66)</sup>

그러므로 나운보 역시 이들과 함께 활동한 민간의 기악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1920년대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이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유성기음반, 라디오 방송 등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였다. 당시 활동했던 가야금연주자로 이왕직악부 소속의 음악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며 그들의 레퍼토리는 주로 <영산회상>이었다.

---

레음악인대사전』, 617~18쪽.

65) 성악가(민요·여창가곡). 한남권번(漢南券番) 기생.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423쪽.

66) 이해구, 「1930년대의 국악방송」, 『한국근대음악의 전개양상』, 민속원, 2006, 662쪽.

그러나 <영산회상> 외에 가곡과 같은 악곡도 간혹 연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은 그리 활발하게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궁중음악보다는 오히려 가야금이 포함되는 풍류방음악이 훨씬 빈번하게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연주되었다. 1920년대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했던 이들은 주로 권번 소속의 기생들이 많았으며, 간혹 민간의 악사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들이 ‘조선음률’이라고 당시 일컬어지던 영산회상을 레퍼토리로 삼고 있었다.

## 2. 1930년대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30년대에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 관해서는 유성기 음반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 신문기사,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국악방송곡목록』과 이습회 연주회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38년 9월 13일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가야금이 편성된 궁중음악이 당시 라디오로 방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왕직악부의 중계방송 광고인데 가야금과 대쟁으로 연주하는 <오운개서조>가 600년전 고려때 곡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세한 곡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雅樂 (十三日後八, 三〇) 李王職雅樂部에서 中繼

一. 其壽永昌之曲

이곡은 지금으로부터 六백년전에 고려조(高麗朝)때의 것으로 궁중연례(宮中宴禮)때 연주하든것입니다. 쓰는 악기는 아쟁(牙箏)과 피릴률(箏簫)입니다.

二. 五雲開瑞朝

이곡은 지금으로부터 오백년전이조세종조(李朝世宗朝)때 된 곡으로 역시 궁중연례때 연주하든 것이며 대쟁(大箏)과 가야금(伽倻琴)의 두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입니다.



三. 瑞日和之曲

이곡은 지금으로부터 육백년전 고려때의 곡으로 왕이 동가(動駕)하실 때 연주하던 곡인데 필률 대금(大琴) 당적(唐笛) 해금(奚琴) 아쟁으로 연주합니다. (끝)<sup>67)</sup>

1930년대에 경성방송국은 본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진행했고, 이전보다 좀 더 많은 궁중음악들이 소개된다. 1930년대에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궁중음악 중 가야금이 편성된 경우는 모두 10차례였다. 방송 곡목 역시 다양해서 <만년장환지곡>, 영산회상 계열 악곡인 <우림령, 정상지곡>, <여민락(승평만세지곡, 오운개서조)>, <황하청지곡>, <밀도드리> 등이다.

1931년에 ‘이왕직아악부 조선 지방자치제 실시 기념 프로그램’ 방송에서도 궁중음악의 라디오방송에 가야금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날 연주된 여러 곡들 중 어느 곡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朝鮮 地方自治制 實施 記念 프로그램

...

朝鮮雅樂 李王職雅樂部

一. 瑞日和之曲(合樂)

二. 萬年長歡之曲(歌樂伴奏)

三. 鳳凰吟(管樂)

四. 堯天舜日之曲(細樂)

五. 長春不老之曲(合樂)

朴聖在(編鐘)/ 朴老兒(編磬)/ 金桂善(大琴, 笙簧)/ 金七福(簾, 塤)/ 李炳星(奚琴)/ 李福吉(唐笛)/ 金寶男(短簫)/ 金岡本(伽倻琴, 鼓)/ 金千興(玄琴)/ 金先得(長鼓)/ 成慶麟(座鼓)/ 張丁鳳(拍)/ 李壽卿(指揮雅樂師)<sup>68)</sup>

또한, 1930년대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의 기록을 통해 당시 궁중음악 연주에 가야금이 포함되는 경우, 어떠한 악기 편성이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황하청지곡>은 1930년대에 3회에 걸쳐 가

67) 『매일신보』 1938년 9월 13일자, 4면.

68) 『매일신보』 1931년 4월 5일자, 5면.

야금으로 연주 되었는데, ‘가야금 독주’, ‘가야금/ 대쟁’, ‘가야금/ 대금’의 소규모 편성으로 연주되었다.<sup>69)</sup> <여민락>은 2회에 걸쳐 ‘가야금/ 비파’, ‘가야금/ 해금/ 양금’ 등 2~3개 악기의 소규모 편성으로 연주되었다.<sup>70)</sup> 그 중 가야금과 비파가 함께 여민락을 연주하는 것은 현재는 볼 수 없는 편성이다. ‘영산회상’은 모두 2회 연주되었다. 영산회상의 악기편성은 ‘이수경외 7인’이라고만 쓰여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오늘날의 세악합주 편성 정도로 추측되는 합주와 가야금 독주의 편성으로 보인다.<sup>71)</sup> 그 외에 <밀도드리(하성조)>는 1회 연주되었는데 ‘현금/ 가야금/ 양금/ 해금/ 대금/ 단소/ 장고’로 편성되어 현행의 밀도드리의 세악합주 편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72)</sup> <만년장환지곡>, 일명 <가곡>은 1931년에 1회 방송되었는데 자세한 곡목과 악기편성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날 출연한 이들을 살펴보면 박성재(편종)/ 박노아(편경)/ 김계선(대금, 생황)/ 김철복(필율)/ 이병성(해금)/ 이복길(당적)/ 김보남(단소)/ 김강본(가야금, 鼓)/ 김천홍(해금)/ 김선득(장고)/ 성경린(좌고)/ 장정봉(박)/ 이수경(지휘: 아악사)이다. 이들 중 김계선(대금, 생황)/ 김철복(필율)/ 이병성(해금)/ 이복길(당적)/ 김보남(단소)/ 김강본(가야금, 鼓)/ 김천홍(해금)/ 김선득(장고)이 가곡의 연주자로 짐작된다. 즉, ‘가곡’의 기본 연주 형태인 세악 편성으로 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69)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4.11.1(216쪽), 1937.10.8(349쪽), 1937.11.3(352쪽)

70)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3.11.2(161쪽), 1935.3.21(229쪽)

71)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4.11.1(216쪽), 1935.11.7(255쪽)

72)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5.12.4(258쪽)

<표 8> 1930년대 경성방송국 이왕직아악부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

장르	날짜	악기편성									
		가야금	거문고	양금	해금	대금	피리	단소	장구	비파	대쟁
가곡	1931. 4.5	○			○	○	○	○	○		
영산회상	1934.11.1	이수경 외 7인									
	1935.11.7	○									
황하청지곡	1934.11.1	○									
	1937.10.8	○									○
	1937.11.3	○				○					
여민락	1933.11.2	○								○	
	1935.3.21	○		○	○						
수연장지곡	1935.12.4	○	○	○	○	○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에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서 가야금은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합주, 중주에 참여하는 악기로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드물게 독주악기로서도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주목해볼만한 점은 라디오 방송에서 가야금 독주로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경우가 1930년대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1934년 11월 1일에 김영윤이 독주로 <황하청지곡>을 연주했고 1935년 11월 7일 연주에서는 김강분의 가야금 독주로 <우림령>이 연주되었다.<sup>73)</sup> <우림령>과 <황하청지곡>은 원래 주로 합주로만 연주되던 음악이었는데 가야금 독주 음악으로서 당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정악으로 분류되는 궁중음악을 연주 악곡으로 채택해서 이를 가야금 독주로 연주하는 경향이 193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30년대 방송에서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으로 레퍼토리가 확장되어 나타나는 경향, 그리고 가야금 독주로 궁중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경향은 1932년 10월부터 이왕직아악부가 이습희라는 정기적인 음악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1934년 11

73) 1935.11.7.(목) 20:30- 아악(이왕직아악부연주소로부터 중계)(아악이습희3주년기념), 『경성방송국악방송곡목록』, 255쪽. 이왕직아악부 이습희 연주곡 목록, 같은책, 555쪽.

월 1일 방송의 김영윤 독주 <황하청지곡>은 이습회 3주년 기념 연주회를 중계한 것이다.

이습회는 1932년 10월 아악의 보존과 발전을 목적으로 이왕직아악부의 노악사들이 중심이 되어 아악부원들의 연습과 연주를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이러한 이습회의 연주회에서는 다음의 <표 9>과 같이 1930년대에 다양한 궁중음악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시도가 보인다.

<표 9> 1930년대 이습회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의 연도별 연주 횟수

연도\악곡명	가곡	영산회상	천년만세	여민락	보허사	만경정 식지곡	세환입	미환입	청성곡
1932		2				1		1	
1933	2	4		3	1	1		1	
1934	2	6		3	4		1	1	
1935	5	3	1	5		1	1		
1936	5	4	1	6	1	1		1	
1937	3	8	1	5	2	1		1	
1938	6	4		4	2	2	1	2	
1939	5	5	2	5	1	1	2		1
총	28	36	5	31	11	8	5	7	1

앞의 표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습회의 연주록을 살펴보면 독주와 중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다음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演奏會를 마치고>, 李王職雅樂部長 咸和鎭氏 談.<sup>74)</sup>

... 이 연주 발표회에 있어서 나는 병주(併奏)와 독주(獨奏)를 주로 한 것에 대해서 내 의사를 말하겠습니다. 대체 이 아악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연회가 있거나 제례(祭禮) 때에 쓰는 음악으로 적어도 40명이나 80명 내지 120명이 한 단체가 되어 가지고 연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온전히 예식에 따를 뿐이요 악사 개인으로서의 의지라는 것이 망각되어 왔습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 조선에서 아악을 더 장려하는 데는 완전한 예술적 기운을 가진 개인 개인의 악사를 양성하는 데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점을 지중한 것이거니와 이번 연주회에서도 독주와 병주를 만히 상연시켰습니다...

74) 『조선일보』 1938년 10월 8일자 4면.

당시 이습회를 기획한 아악사장 함화진은 40명이나 80명 내지 120명이 한 단체가 되어 오로지 예식에 따라 연주해 오던 궁중의 음악들을 더 장려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개인의 악사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악사 개인의 예술적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독주와 병주 등의 형태로 연주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주 형태의 변화는 1930년대에는 이왕직아악부의 음악인들이 전통적인 형식의 연주 형태에서 벗어나 왕조시대의 음악 유산을 음악가 개인의 예술음악으로 변환시켜야 한다는 시대인식의 발로였다고 한다.<sup>75)</sup> 그 결과 이습회의 연주회에서도 개인의 예술 세계가 더 강조되는 독주 또는 병주 등의 새로운 연주형태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1932년 12월 1일에 개최된 제3회 이습회에서 가야금 독주로 <수연장지곡>이 연주된다.<sup>76)</sup> 영산회상 계열 악곡 역시 합주 편성과 독주 편성의 가야금 연주 횟수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가곡 계열 악곡의 경우 가야금 혼자 노래 반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으며 노래 없이 가야금 독주로만 연주하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 <보허사>, <황하청지곡>, <승평만세지곡>, <수연장지곡>, <수요남곡> 등이 가야금 독주로만 연주된 곡들이다. 아래 <표 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30년대 이습회에서 가야금이 포함되어 연주된 악곡 전체 횟수 132회 중 78회가 가야금독주로 연주된 것을 보면 그만큼 독주가 장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주만큼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야금과 그 외의 악기 즉, 병주로 연주되는 경우도 이습회의 발표무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파와 병주를 하기도 했으며<sup>77)</sup> 아쟁과 병주로 연주하기도 했다.<sup>78)</sup> 그 외에 거문고로 <승평만세지곡>을 병주로 연주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sup>79)</sup>

<표 10>와 같이 이습회 연주회에서 가야금과 함께 여러 악기가 들어

75) 송혜진,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肄習會)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역대국립음악기관 연구』, 국립국악원, 2001.

76)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2.12.1(541쪽)

77)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3.11.2(545쪽)/1937.10.8(564쪽)

78)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7.10.8(564쪽)/1938.10.6(570쪽)

79)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41.2.6(581쪽)

가는 합주 편성은 오늘날 주로 보이는 줄풍류 또는 세악 편성인 ‘거문고, 해금, 대금, 세피리, 장고’ 또는 여기에 양금 및 단소가 곁들여지는 합주 편성도 물론 보이지만 그 외에 비파가 포함되거나 좌고, 생황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1930년대에는 아직 오늘날 이른바 ‘세악편성’이라 해서 가야금이 포함되는 현악기 중심의 악기 편성에 해당하는 형태 외에도 여러 악기의 조합으로 합주를 시도해 본 것으로 보인다.

<표 10> 1930년대 이습회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의 연주형태 및 횟수

편성 \ 악곡명	가 곡	영 산 회 상	천 년 만 세	여 민 락	보 허 사	만 파 정 식 지 곡	세 환 입	미 환 입	청 성 곡	총
가야금독주	13	18	1	24	9	5	3	4	1	78
가+ 노래	5									5
가+ 거			1							1
가+ 대쟁				1	1					2
가+ 비파		1		1						2
가+ 장+ 노래	4									4
가+ 대+ 노래	3									3
가+ 피+ 노래	2									2
가+ 해+ 피		1								1
가+ 거+ 해+ 양								1		1
가+ 거+ 해+ 대+ 피		1								1
가+ 거+ 해+ 양+ 장		1	1			1		1		4
가+ 거+ 대+ 피+ 양+ 장		1								1
가+ 거+ 해+ 대+ 피+ 장		1						1		2
가+ 거+ 대쟁+ 비파+ 양					1					1
가+ 거+ 해+ 단+ 양+ 생황							1			1
가+ 거+ 해+ 대+ 피+ 양		1								1
가+ 거+ 해+ 비+ 양+ 장		1								1
가+ 거+ 해+ 대+ 피+ 장+ 노래2	1									1
가+ 거+ 해+ 대+ 피+ 단2+ 양						1				1
가+ 거+ 해+ 대+ 피+ 단+ 장				1		1	1			3
가+ 거+ 해+ 대+ 피+ 양+ 장		3	2	3						8
가+ 거+ 해+ 대+ 피+ 장+ 좌고		1								1
가+ 거+ 해+ 대+ 피+ 단+ 양+ 장		4								4
가+ 거+ 해+ 단+ 양+ 비+ 생+ 장		1								1
가+ 거+ 해+ 대+ 피+ 양+ 당적		1								1
가+ 거+ 해+ 대+ 피+ 단+ 양+ 비파+ 장				1						1
총	28	36	5	31	11	8	5	7	1	132

그러므로 이러한 이승희의 활동에 힘입어 1930년대는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가야금이 합주 편성에 포함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악기로 인정되는 시기이다. 바꿔 말하자면 가야금이 관악기나 거문고와 함께 연주에 등장하는 종속적인 입장으로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닌,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독주 악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시기가 1930년대라 할 수 있겠다.

궁중음악과 함께 풍류방음악 역시 1930년대에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음악이었다. 아래 <표 11>은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송출된 가야금이 편성된 풍류방음악 목록이다. 풍류방음악의 곡목에 따른 송출 빈도를 비교하면, <영산회상> 9회, <가곡> 2회, <정악> 1회 순서로 영산회상이 가장 많다.

<표 11>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풍류방음악의 연도별 방송 횟수

연도 \ 악곡명	가곡	영산회상(별곡)	곡명없음
1930			
1931		1	
1932		2	
1933	1	4	
1934			1
1935			
1936	1		
1937		2	
1938			
1939			

<가곡>은 가야금이 포함된 경우는 1933년, 1934, 1937년의 방송들이었는데 연주곡목을 살펴보면 1933년과 1934년에는 곡목이 나타나지 않고 1937년에는 <우조초수대엽(남창)>, <우조두거(여창)>, <언락(남창)> <우락(여창)>, <편락(남창)>, <편(여창)><sup>80)</sup>이다. 이때의 반주 악기편성

80) 『경성방송국악방송곡목록』, 1927.8.15(40쪽)



은 ‘현금/가야금/양금/해금/대금/세적/장고’<sup>81)</sup>, ‘현금/가야금/양금2/단소/장고/여창2’<sup>82)</sup>, ‘남창/여창/현금/가야금2/피리/대금/해금/장고’<sup>83)</sup> 등이다. 현행의 가곡반주의 편성과 같이 세악 편성으로 현금과 같이 편성된 경우도 있지만 현금 없이 가야금이 편성된 경우도 보인다. 또한 양금과 가야금이 각각 한 연주에 2명이 편성되는 것과 같이 현행과는 다른 이채로운 모습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에 나와 있는 방송으로 송출된 가곡은 1117회<sup>84)</sup>로 이 때 반주에 참여한 음악가와 그들의 연주 악기는 주로 김상순(金相淳, 1881-1949)의 양금, 김영근(金永根)의 대금, 김일우(金一字)의 장고, 조이순(趙彝淳)의 거문고, 조동석(趙東奭)의 단소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가곡 반주는 양금/대금/거문고/단소/장고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악기 편성법이었다고 한다.<sup>85)</sup> 또한 이혜구는 1930년대에 방송된 가곡의 노래 반주는 대개 거문고에 김윤덕, 양금에 김상순, 대금에 김영근, 장고에 김일우로 정해져 있었다고 했다.<sup>86)</sup> 따라서 1930년대까지는 가곡 반주에 가야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30년대를 기점으로 드물게 가야금을 포함시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음률’이라는 장르명으로 가야금이 포함되어 연주된 ‘영산회상’은 1930년대에 모두 9회<sup>87)</sup>에 걸쳐 방송되었는데 자세한 곡목 표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중 곡목이 표기된 경우를 살펴보면,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상현>, <하현>, <염불>, <타령>, <군악>을 전바탕으로 연주하기도 했고, 그 중에서 몇 곡을 골

81)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3.9.10(153쪽)

82)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4.1.28(175쪽)

83)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7.8.15(343쪽)

84) 정영진, 「일제강점기 전통음악의 전개양상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70쪽.

85) 앞의 책, 86쪽.

86) 이혜구, 「1930년대의 국악방송」, 251쪽.

87)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1.8.26(102쪽), 1932.7.23(116쪽), 1932.8.12(117쪽), 1933.1.18(125쪽), 1933.4.26(130쪽), 1933.5.28(135쪽), 1933.7.4(141쪽), 1937.2.17(317쪽), 1937.8.15(343쪽).

라 다양한 조합으로 <잔도드리> 또는 <계면가락도드리>, <양청>이 포함되어 별곡의 형식으로 연주되기도 했다.

연주형태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영산회상은 ‘현금/양금/가야금/단소/장고’<sup>88)</sup>, ‘현금/양금/가야금/단소/대금/해금/장고’<sup>89)</sup>, ‘현금/양금2/가야금/단소/장고’<sup>90)</sup>, ‘현금/가야금/양금2/해금/단소/장고’<sup>91)</sup>, ‘현금/가야금2/단소’<sup>92)</sup>, ‘해금/단소/세적/가야금/양금/장고’<sup>93)</sup>, ‘현금/양금/가야금/해금/피리/단소/장고’<sup>94)</sup>, ‘현금/양금/가야금/해금/대금/통소’<sup>95)</sup>로 ‘현금/양금/가야금’의 형태에 관악이 변화되어 들어가는 편성이 주를 이룬다. 현행 편성법과 같이 여러 악기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중주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양금과 가야금이 2명씩 편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2>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풍류방음악의 연주형태

장르	날짜	악기편성										
		가	거	양	해	대	피	단	장	통소	여창	남창
영산 회상	1931.8.26	○	○	○				○	○			
	1932.7.23	○	○	○	○	○		○	○			
	1932.8.12	○	○	○○				○	○			
	1933.1.18	○	○	○○	○			○	○			
	1933.4.26	○○	○					○				
	1933.5.28	○	○	○				○	○			
	1933.7.4	○		○	○	○		○	○			
	1937.2.17	○	○	○	○		○	○	○			
	1937.8.15	○	○	○	○	○				○		
가곡	1933.9.10	○	○	○	○	○	○		○			
	1934.1.28	○	○	○○				○	○		○○	
	1937.8.15	○○	○		○	○	○		○		○	○

88)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1.8.26(102쪽), 1933.5.28(135쪽)

89)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2.7.23(116쪽)

90)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2.8.12(117쪽)

91)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3.1.18(125쪽)

92)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3.4.26(130쪽)

93)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3.7.4(141쪽)

94)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7.2.17(317쪽)

95)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7.8.15(343쪽)

## 2) 연주자

1930년대에 주목할 만한 점은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들의 빈번한 방송 출연을 들 수 있겠다. 이왕직아악부 소속으로 방송에 출연해 가야금으로 정악을 연주한 이들로는 김강본, 김영윤, 이창규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중 김강본은 아악부원양성소(雅樂部員養成所) 제3기 졸업생으로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의 아악수(雅樂手)로 활동했으며 가야금 전공으로 알려져 있다.<sup>96)</sup> 김영윤 역시 아악부양성소 3기 졸업생으로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사(雅樂師)였고 가야금 전공이었다.<sup>97)</sup> 이창규는 아악부원양성소 제4기 졸업생으로 이왕직아악부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아악수로 활동했다.<sup>98)</sup> 이처럼 1930년대 가야금으로 정악을 연주한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들은 주로 아악부양성소 3, 4기 졸업생들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이왕직아악부원으로 ‘현악’이라고 표기된 악곡들을 방송에 출연해서 연주한 것도 <표 13>에서와 같이 네 차례나 발견되는데 이 경우에도 가야금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 가능하다. 이왕직아악부 소속 가야금연주자들은 <가곡(만년장환지곡)>, <여민락(승평만세지곡, 오운개소조)>, <영산회상/별곡(우림령, 정상지곡)>, <황하청지곡>, <수연장지곡(하성조)> 등 다양한 정악곡들을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20년대 방송에서는 이왕직아악부 소속의 음악인이 방송에 출연한 경우는 단 한 차례 명호진이 1928년 11월 3일에 <만년장환지곡>과 <봉황음>을 연주한 것만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96) 『한겨레음악인대사전』, 81쪽.

97) 『한겨레음악인대사전』, 178~79쪽.

98) 『한겨레음악인대사전』, 714~15쪽.

〈표 13〉 193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이왕직아악부  
가야금연주자

연주자	소속	출연일	연주곡목
김강본	이왕직아악부	1931.4.5	만년장환지곡
		1933.11.2	승평만세지곡(현악)
		1935.11.7	우림령(독주)
김영운	이왕직아악부	1934.11.1	황하청지곡
미상	이왕직아악부원	1935.3.21	오운개서조(현악)
미상	이왕직아악부원	1935.12.4	하성조(현악)
미상	이왕직아악부원	1937.11.3	황하청지곡(현악)
미상	이왕직아악부원	1942.6.19	정상지곡(현악)
이창규	이왕직아악부	1937.10.8	황하청지곡

김강본, 김영운, 이창규는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이었던 만큼 이습회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그 이름이 확인된다. 그 외에 이습회에서 확인되는 1930년대 이왕직아악부 소속으로서 가야금을 연주했던 이로는 함연춘, 고칠동, 김덕규 등이 있다.

〈표 14〉와 같이 그 중 김덕규는 이왕직아악부 1기생으로 피리가 전공이었는데<sup>99)</sup> 가야금도 연주했다. 고칠동은 앞에서 언급된 김강본, 김영운과 같이 이왕직아악부 3기생이다.<sup>100)</sup> 그러나 김강본, 김영운에 비하면 출연 횟수가 적다. 주로 1934년 이후 1936년까지 3년간 이습회에서 그의 이름이 확인된다. 함연춘은 이습회의 1936년 발표회 기록에서 그 이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왕직아악부 4기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1939년까지 이습회에서 가야금을 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99) 김덕규의 본명은 김득길로 후에 개명함. 성기련,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의 음악교육 연구」, 『동양음악』 제26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148쪽.

100) 박은혜, 「근대 전문음악교육 연구-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논문, 2010, 25쪽.

<표 14> 1930년대 이왕직아악부 이습회 출연 가야금연주자

연주자	출연연도 및 횟수		연주곡목
김강본	1932년(2회)/1933년(7회) 1934년(7회)/1935년(8회) 1936년(7회)/1937년(2회)	33회	가곡/보허사/송구여지곡/수연장 지곡/여민락/영산회상
김덕규	1934년(3회)	3회	영산회상/송구여지곡
김영윤	1932년(2회)/1933년(5회) 1934년(6회)/1935년(7회) 1936년(5회)/1937년(7회) 1938년(8회)/1939년(11회)	51회	가곡/만파정식지곡/보허사/송구 여지곡/수연장지곡/여민락/영산 회상/천년만세
고철동	1934년(1회)/1935년(1회) 1936년(2회)	4회	여민락/영산회상
이창규	1936년(2회)/1937년(5회) 1938년(7회)/1939년(6회)	20회	가곡/만파정식지곡/보허사/수연 장지곡/송구여지곡/여민락/영산 회상/천년만세
함연춘	1936년(3회)/1937년(7회) 1938년(6회)/1939년(5회)	21회	가곡/만파정식지곡/보허사/수연 장지곡/여민락/영산회상/회팔선

이렇게 1930년대에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들이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가야금연주자로서 대거 등장하게 되는 반면에 풍류방음악에 있어서는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권번 소속 기생들이 주로 가야금을 담당했다. 김운선(조선권번), 류금화(개성권번), 김옥희(개성권번), 최소학(동래권번)이 대표적인 1930년대 풍류방음악을 가야금으로 연주했던 기생들이었다 하겠다. 이들의 레퍼토리는 주로 <영산회상>이었지만 드물게 가곡 반주에도 참여했다. 1936년 5월 26일자 방송에 보면 김미화는 가곡 <우조 이수대엽>, <우조두거>, <우락>, <환계락>, <편> 등의 반주를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표 15> 참조).

권봉선에 대해서는 어느 권번 소속인지 기록이 없지만 함께 연주했던 이로 등장하는 임소향(1918-1978)은 본명은 임유원(林酉元)으로 당시 조선권번 소속으로 활동했다.<sup>101)</sup> 이에 권봉선 역시 기생이었다고 볼 수

101) 1936년 8월 28~29일 수해구제구악대회 때 및 1938년 3월 12~13일 여류명창대회 때 출연했다. 1938년 5월 23일 조선성악연구회 제5회 정기총회 때 이사로 선임됐으며, 1939년 5월 22일 조선성악연구회 제6회 정기총회 때 이사로 당선되었다.(출

있다.

그런데 1930년대 기생들이 풍류방음악을 연주하는 경향은 아래의 <표 15>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1930년대 전반기에 국한되어 있고, 후반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표 15> 193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풍류음악 기생 가악금연주자

연주자	소속	출연일	연주곡목
김운선	조선권변	1931.8.26	조선음률 영산회상
		1932.7.23	조선음률 영산회상
류금화	개성권변	1932.8.12	조선음률과 남도단가 영산회상 중 제1장 제10장
미상	조선권변	1933.9.1	가곡
고초운	미상	1933.5.28	음률 1.잔영산 2.가락도드리 3.삼현 4.잔도 도리 5.하현 6.염불 7.타령 8.군악 9.계면도 도리 10.양청
권봉선	미상	1933.7.4	음률 잔도드리, 염불, 타령, 군악
김옥희	개성권변	1933.1.18	조선음률 영산회상
한소향/김해경	미상	1933.4.26	음률 영산회상 중
최소학	동래권변	1934.1.28	정악
김미화	미상	1936.5.26	가곡 우조이수대엽, 우조두거, 우락, 환계락, 편

이상의 권변 소속 기생 가악금연주자들 외에 경성방송국에 출연해 가악금으로 정악을 연주한 연주자로 민성기라는 이름이 보인다. 민성기는 아래의 1937년 2월 17일과 같은 해 8월 15일에 음률 <영산회상>을 연주한다.<sup>102)</sup>

민성기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같이 출연한 연주자들 중에는 1920년대에도 같은 레퍼토리를 연주한 피리의 이재규가 포함되어 있다.<sup>103)</sup> 그리고 해금을 연주한 김덕진은 다른 방송을 출연한 기록이나 유성기음반의 수록 상황 등을 검토해 보면 당시 민간 음악을 연주하는 악

처: 『한겨레음악인대사전』, 747-48쪽)

102)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317쪽.

103)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317쪽.

사였다.<sup>104)</sup> 이에 민성기 역시 민간의 악사로서 가야금을 연주한 이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1930년대 중반까지는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권번 소속 기생들이 주로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했고 이들의 레퍼토리는 압도적으로 음률이라고 불리던 <영산회상>이 많았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가야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와 동시에 기생들이 풍류방음악의 가야금연주자로서 출연하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민성기와 같이 <영산회상>을 주요 레퍼토리로 연주하는 민간단체 소속 연주자들의 풍류방음악 연주자로서의 활약은 1920년대에 이어 계속되고 있었다.

즉, 1930대에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하는 이들은 중반까지는 주로 권번 출신 기생들이었으며 이들은 레퍼토리로 <영산회상>과 드물게 <가곡>도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영산회상>이라는 레퍼토리는 민간단체소속 정악 가야금연주자들하고도 공유한다. 한편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이왕직아악부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들의 연주에 가야금연주자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1930년대는 1920년대에 비해 이왕직아악부의 방송참여가 활발해지며 가야금이 포함되는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오늘날 이른바 정악이라고 부르는 장르의 레퍼토리 확장이 나타난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영산회상>과 <가곡> 등이 이왕직아악부의 음악인들과 권번출신 기생들의 공통 레퍼토리가 된다. 그러면서 권번출신 기생들이 풍류방음악 연주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어진다. 즉, 이왕직아악부에서 전문적으로 가야금을 익힌 이들에게 권번출신 기생들이 그들의 레퍼토리였던 풍류방음악을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104)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343쪽.

### 3. 1940년대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40년대에는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관련 자료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1940년대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면 가야금이 편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1942년 6월 19일에 이왕직악부에서 중계된 곡들 중 <정상지곡>이라는 곡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연주 형태를 당시 프로그램에 “현악”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서 가야금이 편성되었을 것이라 추측될 뿐 확실하지 않다.<sup>105)</sup> 즉 이 시기에 이미 권번 소속 기생들 또는 민간의 악사들이 가야금으로 연주하던 풍류방음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1940년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은 앞의 1930년대에 관한 논의에서도 언급했던 이습회에 대한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습회는 194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표 16>를 살펴보면, 1940년에는 프로그램 또는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총 여덟 차례의 발표회에 가야금이 참여하였다. 이 때 연주된 곡목 중 <천년만세>, <오운개서조>, <영산회상> 계열 악곡, <황하청>, <수요남곡>, <서자고>는 가야금이 편성된 것이 확실한 곡들이다. 그 외에 <승평만세지곡>, <수연장지곡> 등도 현악기가 편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그리고 1930년대에도 이미 이들 악곡의 연주에 가야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근거해서 역시 가야금이 편성되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곡들이다.

---

105) 『경성방송국악방송곡목록』, 498쪽.



<표 16> 1940년 이습회 가야금 편성 공중음악

연도	날짜	회수	구분	곡명	연주자
1940	2.1	88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4장	김영운(가야금)
	3.7	89회	합주	오운개서조 5장	장사훈(현금), 김영운(가야금), 김보남(양금)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타령, 군악	이창규(가야금)
	5.2	91회	가야금독주	서자고 전곡	김영운(가야금)
	6.6	92회	가야금독주	우림령 하현, 염불	이창규(가야금)
	7.4	93회	가야금독주	우림령 하현, 염불	이창규(가야금)
			관현악	천년만세 전곡	김철영(현금), 이창규(가야금), 김보남(양금), 주성배(피리), 강길수(대금), 이덕환(해금), 김진환(단소), 김선득(장고)
	9.5	95회	가야금독주	수요남곡 전곡	김영운(가야금)
	11.9	97회	현악합주	승평만세지곡	성경린(공후)외 11인
			합주	수연장지곡	이용진(피리) 외 4인
	12.5	98회	가야금독주	황하청 1, 3장	이창규(가야금)

1941년에는 <표 17>과 같이 1월 9월, 2월 6일에 개최된 이습회에서 가야금이 편성된 기록이 있다. 이 때 연주된 곡으로는 <영산회상> 계열 악곡, <승평만세지곡(6장)> 등이다. 1942년에는 이습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이 때 가야금이 편성된 곡은 <오운개서조>이다. 1943년에 들어서서도 역시 이습회의 발표회는 그리 많이 개최되지 못한다. 모두 4회의 이습회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중 두 차례의 발표회에 가야금이 독주 또는 합주의 형태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이 때 연주된 곡은 <여민락>, <황하청 (6,7장)>, <중선회(계락)> 등이다.

<표 17> 1941-1943년 이습회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

연도	날짜	회수	구분	곡명	연주자
1941	1.9	99회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하현, 염불, 타령	김진환(가야금)
	2.6	100회	병주	승평만세지곡 6장	장사훈(현금), 이창규(가야금)
			가야금독주	정상지곡 세영산, 가락덜이	김영윤(가야금)
1942	2.5	112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7장	홍원기(가야금)
1943	8.5	130회	가야금독주	황하청 6, 7장	박성원(가야금)
	11.4	133회	가야금독주	중선회 계락	양영환(가야금)
			합주	여민락 5장	장인식(현금), 양영환 (가야금), 이장성(피리), 강길주(대금), 왕종진 (해금), 김선득(장고)

주로 이습회의 발표회에서 확인되는 가야금 편성 음악의 연주 형태는 <표 18>와 같이 가야금독주, ‘가야금/거문고’, 또는 ‘가야금/거문고/양금’의 두 세 악기의 합주, 그리고 ‘가야금/거문고/해금/대금/피리/장고’ 합주나 이에 양금과 단소가 곁들여지는 편성이었다. 그 중 ‘가야금/거문고/해금/대금/피리/장고’ 합주나 이에 양금과 단소가 곁들여지는 편성은 오늘날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세악 편성 또는 줄풍류 편성이라고 언급되는 악기 편성이다. 즉, 1940년대에는 가야금이 포함되는 합주 형태로 오늘날의 세악 편성과 같은 연주형태가 확정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표 18> 1940년대 이습회 가야금 편성 궁중음악의 연주형태 및 횟수

편성 \ 악곡명	가 곡	영 산 회 상	천 년 만 세	여 민 락	보 허 사	만 파 정 식 지 곡	세 환 입	미 환 입	청 성 곡	총
가(가야금독주)	1	5		2	2	1	1			12
가+ 거				1						1
가+ 거+ 양				1						1
가+ 거+ 해+ 대+ 피+ 장				1						1
가+ 거+ 해+ 대+ 피+ 단+ 양+ 장			1							1
총	1	5	1	5	2	1	1			16

## 2) 연주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40년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연주한 연주자는 이습회 발표에 참여했던 이들 정도가 확인된다.

그런데 이왕직악부 소속 음악인으로 1930년대에 활동했던 김강본의 이름은 194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30년대에 이어서 1940년대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는 김영윤, 이창규 등이었다. 또한 김진환, 박성원, 양영환, 홍원기 등이 1940년대에 새롭게 등장해서 이습회의 발표회에서 활동한 이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출연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본격적인 가야금연주자로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표 19> 1940년대 이습회 출연 가야금연주자 및 출연 횟수

연주자	출연연도 및 횟수		연주곡목
김영윤	1940년(4회)/1941년(1회)	5회	만파정식지곡/송구여지곡/여민락/영산회상
김진환	1941년(1회)	1회	영산회상
박성원	1943년(1회)	1회	보허사
이창규	1940년(5회)/1941년(1회)	6회	보허사/여민락/영산회상/천년만세
양영환	1943년(2회)	2회	가곡/여민락
홍원기	1942년(1회)	1회	여민락

## 5. 소결론

20세기 전반기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이 관련된 가야금음악의 전개 양상을 고찰해본 바에 의하면 1920년대 이전까지 여전히 궁중음악에 포함되는 가야금 연주는 무대 등 일반에게 공개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풍류방음악만이 기생들이 연주하는 레퍼토리로서 무대에서 공연되어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야금음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이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유성기음반, 라디오 방송 등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당시 활동했던 가야금연주자로 이왕직악악부 소속 음악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며 그들의 레퍼토리는 주로 <영산회상>이었다. 그 외에 가곡 등도 간혹 연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은 그리 활발하게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와 비교했을 때 가야금이 포함되는 풍류방음악이 훨씬 빈번하게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1920년대 가야금으로 풍류음악을 연주했던 이들은 대부분 권번 소속의 기생들이었으며, 간혹 민간의 풍류객도 있었다. 그리고 민간에서 연주된 가야금 악곡은 “조선음률”이었고 대부분 영산회상을 말한다. 이는 1930년대 이후 민간에서 활동한 이왕직악악부 출신의 연주 곡목과는 구별되는 현상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는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권번 소속 기생들이 주로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했고 이들의 레퍼토리는 압도적으로 “음률”이라고 불리던 <영산회상>이 많았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이왕직악악부 소속 음악인들이 공공의 공간에서 가야금연주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들은 이왕직악악부에서 연주되었던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연주해서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 및 풍류방음악의 레퍼토리 확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권번의 기생들과 마찬가지로 <영산회상>도 연주하기는 했지만 <여민락>, <밀도드리>, <황하청> 등 다른 레퍼토리를 시도했으며 이를 가야금음악으로 정착시키는 기초를 마

련했다. 이는 개인의 연주 역량 강화라는 이왕직악부에서 조직한 이습회의 기획 의도 및 활동과 관련 있다. 이습회에서 선보인 연주회에서 가야금은 독주 악기로 등장하거나 소규모 편성의 합주 악기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습회의 활동이 당시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 풍류방음악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렇게 1930년대는 1920년대에 비해 이왕직악부 출신 가야금연주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가야금이 포함되는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오늘날 이른바 정악이라고 부르는 장르의 레퍼토리 확장이 나타난 시기였다. 그러면서 <영산회상>과 <가곡> 등이 이왕직악부의 음악인들과 권번출신 기생들의 공통 레퍼토리가 되고 상대적으로 권번출신 기생들이 이들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가 점점 적어진다. 즉, 이왕직악부에서 전문적으로 가야금을 익힌 이들에게 권번출신 기생들이 그들의 레퍼토리였던 풍류방음악 <영산회상>, <가곡> 등을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점차 가야금이 독주악기로 부각이 되면서부터 궁중음악이나 풍류방음악의 연주에 있어서 가야금이 합주에 포함되는 종속적인 연주 형태에서 벗어나 독주 악기로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궁중음악 및 풍류방음악이 가야금음악의 레퍼토리로 부상하는 시기는 20세기 전반기, 그 중에서도 특히 1930년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흐름은 1940년대까지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Ⅲ. 병창

#### 1. 1920년대 이전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20년대 이전의 가야금병창에 관한 자료는 신문기사 및 유성기음반 관련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1910년대의 자료들은 『매일신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장안사<sup>106)</sup>, 단성사<sup>107)</sup>, 광무대<sup>108)</sup> 등 무대들의 공연 광고 기사들에 가야금병창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러한 『매일신보』 기사 자료 중에 가야금병창에 대한 가장 이른 것은 1912년 4월 2일의 심정순에 대한 기사로 다음과 같이 가야금병창으로 관람자의 환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演藝界情況

중부 장대장골, 장안사(長安社)에서는 각종의 구일연역을 설형호는디  
심정순(沈正淳)의 가야금병창과 리동빅(李東伯)의 판소리로 관람자의,  
환영을 받는다고<sup>109)</sup>

그 외에도 『매일신보』에 1910년대에 ‘심정순’과 ‘가야금’이라는 내용을 함께 포함한 기사가 다수 나타나지만<sup>110)</sup>, 그 중 가야금병창이라고 명

---

106) 장안사(長安寺)는 1908년에 개관하여 1914년에 폐관되었다(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서울공연예술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584쪽).

107) 단성사(團誠社)는 1907년 설립되었다(『서울공연예술사』, 588쪽).

108) 광무대는 1898년 설립 된 이후 1907년 이상필·곽한승·곽한영 등에 의해 영화 뿐 아니라 판소리 등 전통 연희도 공연하게 되었다(『서울공연예술사』, 582쪽).

109) 『매일신보』 1912년 4월 2일자 3면.

110) 『매일신보』 1913년 12월 18일자; 1914년 2월 4일자; 1914년 2월 8일자; 1914년 2월 15일자; 1914년 2월 17일자; 1914년 2월 21일자; 1914년 2월 24일자; 1914년 2월 25일자; 1914년 2월 26일자; 1914년 2월 27일자; 1914년 2월 29일자; 1914년 3월 14일자; 1914년 3월 15일자; 1914년 3월 17일자; 1914년 3월 18일자; 1914년 3월 21일자; 1914년 4월 11일자; 1914년 4월 16일자; 1914년 4월 26일자; 1914년 4월 28일자; 1914년 6월 21일자; 1914년 7월 21일자; 1914년 9월 8일자; 1914년 9월 10일자; 1914년 10월 30일자; 1914년 11월 8일자; 1914년 11

시가 된 기사는 아래 <표 20>과 같이 3건이고 그 외에 가야금병창으로 연주했을 것이라 짐작되는 곡목이 명시된 경우가 2건이다. 이 당시 심정순이 연주한 가야금병창 곡목으로는 <잡타령>, <성주পুর이>, <새타령> 등이 나타난다.<sup>111)</sup>

<표 20> 1910년대 『매일신보』 심정순 가야금병창 관련 기사

기사일자	기사명	출연자 및 공연내용
1912. 4.2	演藝界 情況	장안사 심정순의 가야금병창과 리동백의 판소리
1914. 2.26	演劇과 活動	장안사 구극 춘향가, 해선의 승무, 심정순의 가야금 잡타령 기타.
1914. 2.27	演劇과 活動	장안사 구극 화룡도 심정순의 가야금 성주পুর이 새타령 기타
1914. 7.12	독자기별	김봉문의 판소리, 심정순의 가야금병창
1914. 10.30	김봉문 고백	김봉문의 판소리, 심정순의 가야금병창, 초월/농월의 가무, 특별히 개량한 연극

심정순 외에도 1910년대 『매일신보』에 가야금병창을 공연한 연주자로 박팔괘가 있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박팔괘는 단성사에서 1914년과 1915년 2년 동안 18회 공연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사에는 대부분 ‘박팔괘 가야금’으로 나오고 그 중에서 병창을 공연한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가 다음의 <표 21>과 같다.<sup>112)</sup> 당시 박팔괘가 가야금병창으로 연주한 곡목은 <춘향가>, <새타령>, <만세가>가 나타난다. 이 때 <새타령>은

월 27일자; 1916년 2월 17일자; 1916년 2월 23일자; 1916년 3월 21일자; 1918년 12월 20일자(송혜진, 「음악가 심정순의 공연활동 재검토-1911부터 1926까지의 『매일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제27집, 국립국악원, 2013, 93-96쪽 참고)  
111) 송혜진, 같은 책, 101쪽.

112) 『매일신보』 1914년2월11일~14일자; 1914년2월28일자; 1914년3월3일자; 1914년 3월6일자; 1914년3월12일자; 1914년3월28일자; 1914년4월1일자; 1914년4월2일자; 1914년4월17일자; 1914년5월3일자; 1914년5월5일자; 1914년5월22일자; 1914년5월29일자; 1914년5월30일자; 1914년6월16일자; 1914년6월27일자; 1914년7월16일자; 1915년5월30일자(신혜주, 「단성사 공연 활동에 관한 예술사적 연구 - 1910년-1918년대까지의 전통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56집, 한국음악사학회, 2016, 224-226쪽)

심정순도 공연했던 곡목이다. 즉, 1910년대에 병창으로 연주되는 곡목들 중에는 <새타령>과 같이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공유하는 레퍼토리들도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21> 1910년대 『매일신보』 박팔괘 가야금병창 관련 기사

기사일자	기사명	출연자 및 공연내용
1914. 3.3	演劇과 活動	단성사 구극, 채란의 판소리, <u>박팔괘 가야금 춘향가</u> , 기타
1914. 5.29	演劇과 活動	단성사 삼생기연, 이화의 승무 검무, 남녀 선소리, <u>박팔괘 가야금 잡가</u> 기타
1914. 5.30	演劇과 活動	단성사 수중가, 홍도영연의 안진소리, 채란의 판소리, 이화의 승무 탈노름 검무, <u>박팔괘 가야금 성주풀이</u> 기타
1914. 6.16	演藝	단성사 배웅현 일행의 구극, 채란의 판소리, 이화의 승무 법고, <u>박팔괘 가야금새타령</u>
1914. 6.27	演藝	단성사 수중가 김봉이 심청가, 이화의 승무 무동 요술 <u>박팔괘 가야금 만세가</u>

심정순, 박팔괘 외에도 1910년대에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이들에 관한 기사를 『매일신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옥과 옥엽의 병창판소리’라는 내용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기사가 그것이다.

#### 演劇과 活動

광무대(光武臺) 장자고분지탄 쌍지조, 산옥 옥엽의 병창판소리 영월의 승무 금선의 성주푸리 기타<sup>113)</sup>

이 때 산옥과 옥엽은 선행연구에 의해 이산옥과 오옥엽이라는 광무대 전속 기생이라는 것이 밝혀졌다.<sup>114)</sup> 정확한 곡명은 알 수 없으나 ‘병창판소리’라는 기록으로 보아 판소리의 악곡 중 일부를 가야금병창으로 연주한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이산옥과 오옥엽이 가야금병창을 연주한다는 기사는 1914년도의 2월 19일, 3월 5일, 3월 18일, 5월 12자의 『매일신보』에도 나와서 그 해에 이들이 활발하게 가야금병창을 공연한 것

113) 『매일신보』 1914년 5월 12일자 3면.

114) 김영희, 「광무대 전속 기생-산옥과 옥엽을 아시나요-」, 『월간문화공간』, 문화산책, 2013.



으로 볼 수 있다. 1914년도 『매일신보』에 실린 이산옥과 오옥엽의 가야금병창 공연들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22>이다.

<표 22> 1910년대 『매일신보』 이산옥과 오옥엽 가야금병창 관련 기사

기사일자	공연장소	출연자 및 공연내용
1914. 2.19	演劇과 活動	광무대 구극 춘향가 <u>산옥 옥엽의 병창판소리</u> , 광천회의 땅재주 무동 기타
1914. 3.5	演劇과 活動	광무대 구극 심청가 무동 줄타는 재조, <u>산옥 옥엽의 사랑가 병창</u> 기타
1914. 3.18	演劇과 活動	광무대 구극 춘향가 <u>산옥 옥엽의 병창판소리</u> , 안진소리 산옥옥엽의 한량무 땅재주 기타.
1914. 5.12	演劇과 活動	광무대 장재고분지탄 땅재조, <u>산옥 옥엽의 병창판소리</u> 영월의 승무 금선의 성주푸리 기타

1920년대 이전의 가야금병창은 유성기음반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확인된 1920년대 이전의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들을 제시해 보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표 23> 1920년대 이전에 발매된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

발매연도	음반명	연주자	음반번호
1908년	새타령	박팔괘	Victor13512
	자진산타령	박팔괘	Victor13513
	토끼화상	박팔괘	Victor13521
1911년 <sup>115)</sup>	새타령	심정순	NIPPONOPHONE6023
	기생점고	심정순	NIPPONOPHONE6024
	열녀춘향옥중가	심정순, 박춘재	NIPPONOPHONE6068
	이별가	심정순	NIPPONOPHONE6069
	소상팔경가	심정순, 박춘재	NIPPONOPHONE6071
	사령 춘향 부르는데	심정순	NIPPONOPHONE6076
	이도령어사발행	심정순	NIPPONOPHONE6077
	토끼화상	심정순, 박춘재, 유명갑	NIPPONOPHONE6083
	육자배기	심정순, 박춘재, 유명갑	NIPPONOPHONE6101
1915년	단가(상편)	박팔괘	Victor42983/A
	단가(하편)	박팔괘	Victor42983/B

앞의 표를 살펴보면 1920년대 이전에 발매된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

들 중 1908년에 Victor에서 발매한 음반들에는 박팔괘가 부른 <새타령>, <자진산타령>, <토끼화상> 등이 녹음되어 있다. 또한 1911년 NIPPONOPHONE에서 발매한 음반들에는 심정순이 부른 <새타령>, <천자문가>, 춘향가 중 <남원사령호춘향타령>, <사령춘향부르는가>, <옥중가> 등이 녹음되어 있다. 1915년에 Victor에서 발매한 음반들에는 박팔괘가 연주자로 되어 있어 가야금병창이 녹음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단가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곡명은 알 수 없다.<sup>115)</sup>

그러나 이들 음반은 실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음악 내용이나 연주 형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 음반들을 통해 당시 가야금병창으로 연주된 곡명은 확인 가능하다.

이상의 신문기사 자료와 유성기음반을 통해 알 수 있는 1920년대 이전의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는 판소리 중 일부 대목이거나 단가, 그 외에 <새타령>, <자진산타령>, <잡타령>, <성주푸리>, <만세가> 등이다. 판소리 중에는 춘향가의 여러 대목, 그리고 수궁가 중 <토끼화상>을 레퍼토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새타령>, 판소리 춘향가, 수궁가 중 <토끼화상>은 심정순, 박팔괘 모두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들의 공통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타령> 역시 심정순, 박팔괘가 공통으로 유성기음반으로도 녹음했으며 공연에서도 연주했던 곡목이다. 즉, 1920년대 이전에 가야금병창으로 연주하는 곡목으로 정착된 레퍼토리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새타령>, 판소리 춘향가 중 일부 대목, 수궁가 중 <토끼화상>이 그 예인 것이다.

한편 앞의 자료들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1920년대 이전 가야금병창의 연주형태는 심정순, 박팔괘의 경우와 같이 혼자서 연주하는 경우, 또는 이산옥과 오옥엽의 경우와 같이 두 명이 함께 연주하는 경우가 보인다. 공연 관련 기사, 유성기음반의 녹음자 등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여기에 장구 반주가 곁들여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NIPPONOPHONE <육자배기>와 <토끼화상> 음반과 같이 예외적으로 장구는 물론이고 피

115) 배연형, 「심정순일가의 음반」, 『한국음악사학보』 제28집, 한국음악사학회, 2002, 5-28쪽.

116)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의 『한국유성기음반』에서 확인된 내용들이다.

리 반주까지 곁들여 녹음한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유성기음반에 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가야금병창의 연주 형태였다.

## 2) 연주자

앞서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에서 확인되듯이 1920년대 이전 가야금병창 연주자로는 심정순, 박팔괘, 이산옥, 오옥엽 등을 들 수 있겠다.

1873년생인 심정순은 충청도 출신이다. 심정순은 이후 가야금병창 명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심상건의 아버지 심창래와 형제지간이었다. 그가 서울에서 연주한 가야금병창은 중고제 가야금병창이었다고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sup>117)</sup>

박팔괘(1882-1940년)는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가야금 명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것으로도 역시 유명했다. 심정순과 같은 충청도 출신으로 당시에 가야금 독주음악에 대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 장안에 가야금병창과 가야금산조를 처음 소개하여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라 평가되고 있다.<sup>118)</sup> 원로 국악인들이 “박팔괘가 상경하기 전에는 서울에 가야금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해서 1890년 말에 서울에 진출해서 가야금음악을 처음 소개하여 일반화시킨 음악인이라 평가되고 있다.<sup>119)</sup> 이로서 박팔괘가 가야금병창은 물론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울에서 널리 유행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박팔괘에 관해서는 장사훈의 언급도 있다. 장사훈은 그의 책에서 가야금병창을 창시했다는 이가 박팔괘로 그의 나이 20대 중반에 서울에 와서 병창을 잘 불려서 인기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sup>120)</sup> 즉, 박팔괘가 부르는 가야금병창이 인기를 끌고 이에 힘입어 유명한 명창들이 주로 취입하던 시기인 1910년대 이전에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이 발

117)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 제28집, 한국음악사학회, 1997, 10-12쪽.

118) 이보형, 「박팔괘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 제20집, 한국음악사학회, 1998, 271쪽.

119) 이보형, 「박팔괘의 생애와 예술」, 288쪽.

120) 장사훈, 『국악개요』, 문연사, 1961, 305쪽.

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팔괘에 관해서는 1930년대까지도 기록이 나타난다. 1935년과 1936년에도 그는 경성방송국에 출연해서 가야금병창 <기생점고하는데>와 단가 <만고강산> 등을 연주했다.<sup>121)</sup> 박팔괘는 가야금병창이라는 음악을 처음 서울에 소개하고,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이라는 당시의 음악 유통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1930년대까지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가야금병창의 대표적 연주자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심정순과 박팔괘 외에 이산옥과 오옥엽도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이로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산옥은 1899년 수원 출생으로 8세에 동기가 되어 9세에 연흥사의 전속 기생이 되었으며 11세에 광무대 전속으로 옮겼다. 오옥엽은 1901년 창녕 출생으로 9세에 대구기생조합 소속의 동기가 되었고 11세부터 광무대에 전속 기생으로 출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극장을 대표하는 이들로 내세워지곤 했다고 한다.<sup>122)</sup>

이렇게 1920년대 이전의 가야금병창 연주자는 대표적으로 박팔괘, 심상건, 그리고 기생인 이산옥과 오옥엽 등을 들 수 있겠다. 그 중 박팔괘, 심상건은 모두 가야금병창이라는 음악의 창시라는 부분을 담당했다 평가되고 있다. 이들이 1920년대에 각종 공연무대에 출연한 것은 물론 유성기음반에 가야금병창을 녹음하기도 했다는 점은 당시 이들에 의해 이미 가야금병창의 유행이 도래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즉, 1920년대 이전 박팔괘, 심상건의 활동은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발매되기 시작하는 유성기음반 등에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겠다.

---

121)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279쪽.

122) 김영희, 「광무대 전속 기생-산옥과 옥엽을 아시나요-」, 『월간문화공간』, 문화산책, 2013.

## 2. 1920년대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각종 신문기사, 유성기음반을 통해 1920년대의 가야금병창 연주 기록이 확인된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경성방송국이 개국을 해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성방송국의 국악방송 목록을 통해서도 당시 연주된 가야금병창에 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920년대 가야금병창의 공연기록은 우선 1923년 진주에서 개최된 신구음악회 관련된 신문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기사에 따르면 1923년 3월 2일, 3일 이틀간 신구음악회가 진주 청년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때 김병기의 가야금병창이 포함되었다. 당시 김병기의 가야금병창은 최익수의 바이올린 독주와 함께 다수의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 가야금병창에 대한 청중의 호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新舊音樂會大盛況

晉州青年會의 主催로 去二三兩日間 新舊音樂演奏會를 青年會館에서 開하였는데 每夜 滿員의 大盛況을 呈하였스며 特히 金景祚양의 獨唱은 聽衆歡呼의 焦點이 되었고 崔益守군의 巴요령 獨奏 金炳起군의 伽倻琴 並唱은 多數聽衆으로 하여금 拍手的 的이 되었는데 實로 近來 稀有的 盛況이였스며 同情金을 寄贈한 人士는 如左하더라 ...<sup>123)</sup>

또한 1925년 10월 7일의 동아일보 신문기사에서도 가야금병창이 포함된 공연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다음의 인용문을 참고하자면 공연명은 “조선국악대회”였으며 이 때 이동백과 기생 여러 명이 출연해서 연주하는 레퍼토리 중에 가야금병창이 포함되어 있다.

---

123) 『동아일보』 1923년 3월 18일자 4면.

朝鮮古樂大會 今夜公會堂에서 大東學院主催

인력거부들의 경영으로 그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시내 壽松洞 大東學院은 창립된 뒤로 학생은 점점 늘고 校舍와 그 외의 여러 가지 경비에 곤난이 막심함으로 그 학원 유지회의 주최로 朝鮮古樂에 일함이 잇는 리동백(李東伯)과 기생 여러명이 보수도 맞지안코 출연하게 되야 금칠 일 오후 일곱시부터 시내당곡천당 공회당(長谷川町公會堂) 안에서 조선 고악대회를 연다는데 자미잇는 승무(僧舞)와 가야금병창과 합창 독창 등 불만한 것이 만타하며 입장료금은 일등에 일원 이등에 오십전 삼등에 삼십전식이라더라<sup>124)</sup>

이 외에도 1920년대의 공연에서는 가야금병창이 주요 레퍼토리로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24>와 같이 가야금병창은 각종 공연에서 꾸준히 불리어졌다.

<표 24> 1920년대 가야금병창 공연 관련 기사

기사 게재일	공연명	출연자	공연내용
동아일보 1923. 3. 18	新舊音樂會	김경조, 최익수, 김병기	독창, 바이올린독주, <u>가야금병창</u>
동아일보 1925. 10. 7	朝鮮古樂大會	이동백과 기생 여러 명	승무, <u>가야금병창</u> , 합창, 독창
동아일보 1926. 8. 15	音樂大會 本支局主催	조선음악연구회원, 초빙 악사	1부-양악 2부시조, <u>가야금산조</u> , 가곡, 단가, <u>가야금병창</u> , 관현악풍류, 시조사 등 기타
조선일보 1928. 2. 19	朝鮮音樂協會公演	조선음악협회(이동백, 심상건 등)	사대취악, 영산회상, 횡적독주, 판소리, <u>가야금병창</u>
매일신보 1928. 3. 6	劉公烈 獨唱會	심상건, 강남중, 유공렬, 박월정	단가, <u>가야금병창</u> , 판소리
동아일보 1928. 3. 24	新春男女名唱大會	이동백 외 네명의 남자 악사, 박록주, 윤옥향, 김추월, 김운선 외 열세 명의 명기	승무, 조선정악합주, <u>가야금반주</u> , <u>가야금</u> , 경성좌창, 서도입창, 남도단가, 웃음서리, 양팬스, 신식창가, 단가 합창, 남도잡가합창
동아일보 1928. 6. 12	新舊音樂會	박문수, 박철, 주승석, 조경환, 조명수, 김석주, 팔인조	적벽가, <u>가야금병창</u> , 이별가, 구락풍류
동아일보 1928. 7. 28	納涼名唱大會	유성준, 오태석, 김추월, 이화중선 외 여러명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남도잡가, <u>가야금</u> 외

124) 『동아일보』 1925년 10월 7일자 3면.

그러나 앞의 <표 2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20년대 공연에 관한 기사들에서는 주로 ‘가야금병창’이라고만 명시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야금병창으로 어떤 음악이 연주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1920년대에 가야금병창으로 연주된 악곡명은 공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1920년대 유성기음반, 경성방송국의 국악방송 목록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우선 1920년대 가야금병창을 수록한 유성기음반은 1925년에 5장, 1926에 1장, 1927년에 17장<sup>125)</sup>, 1928년에 1곡 그리고 1929년에는 10장이 발매되었다. 1920년대 발매된 가야금병창 수록 유성기음반 목록 및 수록곡은 아래의 <표 25>과 같다.

<표 25> 1920년대 발매된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

연도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
1925	백구타령-백구야 훨훨 날지마라/ 춘하추동기-춘하추동	김해선, 심해향/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04/A,B
	적벽가군사설움가(1)-내설움을 네들어라, (2)-간밤에 꿈을 꾸니	심정순/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18/A,B
	백구타령-백구야 훨훨 날지마라, 신관도입(1)-신년맞아 내려간다	김해선/심매향(가야금), 심정 순(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20/A,B
	신관도입(2)	김해선/심매향(가야금), 심정 순(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23/A
	춘향사랑가-사랑내사랑이야	심매향/김해선(가야금)한성 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23/B
	자진사랑가-상산사호네노인은, 골패타령-쌍줄육삼육	심매향/김해선(가야금), 한성 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35/A,B
1926	단가(상), 춘향전(하)	심상건/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입31/A,B

125) 1927년 ‘닛뽀노홍’에서 발매된 4매(K212/A,B), (K222/A,B), (K224/A,B), (K225/A,B)는 모두 NIPPONOPHONE의 재발매 음반이다.(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 도서출판 한결음더, 2011.)

1927	죽장망혜(상)(하)	강남중,신옥란,신진옥,신연옥	넙보노홍K101/A,B
	대장부가(1)(2)	강남중,신옥란,신진옥,신연옥	넙보노홍K102/A,B
	가자 어서가 가자 어서가 군사설움가-고당학발양친이별 한지라	강남중,신옥란,신진옥,신연옥	넙보노홍K103/A,B
	적벽가궁사가(상)-주유노숙으 로더불어, (하)-두장사분을내여	강남중,신옥란,신진옥,신연옥	넙보노홍K104/A,B
	소상팔경(1)(2)	강남중,신옥란,신진옥,신연옥	넙보노홍K117/A,B
	삼남새타령-남풍꽃아떨쳐나, 신관도임기생호명-기생호명차 차한다	심정순	넙보노홍K212/A,B
	춘향가(춘향옥중가-난향이란기 생이), (춘향이별가-춘향이기가 막혀)	심정순	넙보노홍K222/A,B
	사령춘향호출가-군노사령이나 간다, 어사발행기-어사발행하는 데였다	심정순	넙보노홍K224/A,B
	토끼화상, 육자배기-간다나는간다	심정순(가야금병창)/ 박춘재(장고)/ 유명갑(피리)	넙보노홍K225/A,B
	투전풀이-얼사마디여방아홍아, 화투풀이-화투풀이나하여보자	심매향/김해선(가야금) 한성 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51/A,B
	홍타령-아이고테이홍, 춘향사랑가-사랑내사랑이야	권금주/신금홍(가야금), 한성 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62/A,B
	충효가-고고천변일륜홍, 유람가-만고강산유람할제	김해선,심매향,박화선	일촉조선소리반K573/A,B
	새타령(1)-산천은 험준하고, (2)-귀족도	신금홍,권금주/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74/A,B
	대장부허랑하여(상)(하)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121/A,B
	명기명창, 사랑가	심상건/한성준(고)	제비표조선레코드B133/A,B
	백구타령, 동풍가	김해선/한성준(고)	제비표조선레코드B152/A,B
	십청가(정송령 소상팔경)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166/A,B
1928	심봉사상여뒤에-상여소리	오테석/지동근(장고)	Victor49041/A,B
	몽유가(상)-대장부허랑하여, (하)-대장부허랑하여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08/A,B
1929	십장가(상)(하)	오테석/이흥원(장고)	Columbia40031/A,B
	죽장망혜, 초한가	오테석/백점봉(장고)	Columbia40042/A,B
	박타령, 돈타령	오테석/지동근	Victor49014/A,B
	죽장망혜가, 심봉사방아타령	오테석/지동근	Victor49015/A,B
	백구타령, 옥중가	김해선/지동근(장고)	Victor49023/A,B
	청설영과가, 사랑가	김해선	Victor49039/A,B
	신연행차-신연맞이, 춘향자탄가	김해선/지동근(장고)	Victor49044/A,B
	죽장망혜	오테석/지동근	VictorKJ1296/A
	돈타령, 심봉가눈뜨는데	오테석	일촉조선소리반 K801/A,B



앞의 <표 25>에 나타난 연주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혼자 연주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같이 연주하는 형태로는 신금홍·권금주와 같이 두 명이 연주하거나 김해선·심매향·박화선과 같이 세 명, 또는 강남중·신옥란·신진옥·신연옥과 같이 네 명이 함께 연주하는 경우가 26곡 나타난다.

그리고 유성기음반을 통해 확인해 보면 장구반주가 동반된 형태가 1925년에 10곡, 1926년에 1곡, 1927년에 12곡, 1928년에 2곡, 1929년에 16곡으로 유성기음반에서도 장구 반주가 가야금병창 연주 시 꼭 갖추어야하는 연주 형태이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취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920년대에는 연주회, 방송, 유성기음반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가야금병창을 연주자가 혼자, 또는 여럿이 합주로 연주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여기에 장구 반주의 포함은 선택적인 사항이었다. 또한 반주에 피리라는 악기를 포함한 유성기음반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다양한 형태의 병창 연주가 시도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20년대 유성기음반으로 녹음된 가야금병창 곡목은 모두 단가와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 <홍보가> 중의 한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20년대 이전의 유성기음반에 가야금병창으로 판소리를 연주한 경우 <춘향가>, <수궁가>의 대목만 녹음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단가’ 중에서는 <백구타령>, <춘하추동가>, <단가>, <장부한>, <죽장망혜>, <유람가>, <초한가> 등이 있으며, ‘춘향가’ 중에서는 <춘향전(하) 춘도남원>, <사랑가>, <춘향사랑가>, <자진사랑가>, <춘향이별가>, <신관도임>, <신관도임기생호명>, <명기명창>, <신연행차>, <사령춘향호출가>, <어사발행가>, <군노사령>, <어사발행가>, <동풍가>, <춘향옥중가>, <춘향자탄가>, <십장가> 등이다.

‘심청가’ 중에서 <청송령소상팔경>, <심봉사눈뜨는데>가 있고, ‘적벽가’ 중에서 <군사설움가>, <적벽가궁사가>, <새타령> 등이 나타나고 ‘수궁가’ 중에서 <토끼화상>, <고고천변>, <가자어서가> 등이 ‘홍보가’ 중

에서는 <돈타령>이 취입되었다.

즉, 1920년대에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는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확대된 것이 당시 발매된 유성기음반을 통해 확인된다.

한편 경성방송국의 1920년대 방송 목록은 신문의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확인되는데 최초의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은 1926년 7월 12일(월요일) 오후 7시이다.<sup>126)</sup> 이 때 첫 곡으로 가야금병창이 방송되었다는 것 역시 당시 가야금병창의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1926년에는 이후 10회의 가야금병창이 연주되었음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1926년 경성방송국 개국 이후부터 신문에 수록하는 라디오프로그램 안내에 곡명이 포함되는 음악의 장르를 함께 적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인 1926년에는 가야금병창으로 짐작되는 음악들에 관해 ‘남도잡가(가야금병창)’, ‘남도단가(가야금병창)’, ‘조선소리(가야금병창)’, ‘조선행곡(가야금병창)’, ‘조선노래(가야금)’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성방송국이 개국했던 1926년 당시 가야금병창이라는 용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야금병창과 같은 용어 대신 널리 향유되던 성악곡을 지칭하던 용어인 ‘남도잡가’, ‘남도단가’, ‘조선소리’ 등을 장르명으로 적고 부수적으로 이를 가야금반주를 곁들여 부른다는 식으로 기록했던 것을 <표 26>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126)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7쪽.

〈표 26〉 1926년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7.12	남도잡가(가야금병창)	육자백이	김농운(한성권번)
7.18	조선소리(가야금병창)	사랑가	심매향(조선권번), 김해선(한성권번)
7.22	가야금병창	심청가	심정순
8.5	조선가극(가야금병창)	춘향전	심정순
8.8	조선노래(가야금병창)	단가	송옥주(대동권번), 김남주(대동권번)
8.19	가야금병창	소상팔경, 만고강산	김해선(한성권번), 이월향(한성권번) 오소옥(한성권번)
9.2	조선소리(가야금병창)	백구사, 옥중가, 죽지사, 매화사	김해선, 한국향, 김금홍, 장향란 (한남권번)
10.7	조선노래(가야금)	1. 남도잡가	김남주(대동권번), 송옥주(대동권번)
		2. 서도잡가	김란홍(대동권번), 전란홍(대동권번)
11.1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2.9	남도단가(가야금병창)	단가, 애가(愛歌), 조가(鳥歌)	심상건/ 한성준(장고반주)

다음으로 경성방송국이 개국한 1926년 이후 1929년까지 방송된 가야금병창 악곡들로는 〈춘향전〉, 〈심청가〉등의 판소리 대목, 〈소상팔경〉, 〈만고강산〉 등의 단가, 〈육자백이〉 등의 남도잡가, 서도잡가, 〈백구사, 죽지사〉, 〈매화사〉 등의 12가사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27년 전반기에도 이어지는데 〈몽중가〉, 〈만고영웅〉, 〈이별가〉 등 판소리의 일부 대목을 연주하거나 1926년에도 연주되었던 〈소상팔경〉이 여전히 연주되기도 했다. 그 외에 〈홍타령〉, 〈새타령(鳥歌)〉 등의 민요도 가야금병창으로 연주되었다고 확인된다. 1928년 12월에는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중 일부, 〈소상팔경〉 등이 가야금병창으로 연주된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1929년 5월에는 〈심청가〉, 〈박타령〉, 〈장부한가〉, 〈이별가〉, 〈옥중가〉 등이 연주되었으며 12월에도 〈아리랑〉, 〈육자가〉, 〈리리리야〉 등이 연주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연주된 가야금병창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곡명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매달 서너 차례 이상 많게는 열 차례 정도 가야금병창이 방송되지만 자세한 곡명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표 27〉과

같다.

<표 27> 192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

연도	날짜	구분(장르)	곡명
1926	7.12	남도잡가(가야금병창)	육자백이
	7.18	조선소리(가야금병창)	사랑가
	7.22	가야금병창	심청가
	8.5	조선가극(가야금병창)	춘향전
	8.8	조선노래(가야금병창)	단가
	8.19	가야금병창	소상팔경, 만고강산
	9.2	조선소리(가야금병창)	백구사, 옥중가, 죽지사, 매화사
	10.7	조선노래(가야금)	1. 남도잡가 2. 서도잡가
	12.9	남도단가(가야금병창)	단가, 애가(愛歌), 조가(鳥歌)
1927	2.20	남도단가(가야금병창)	산조, 신궁봉접, 기생접고
	2.26	남도잡가(가야금병창)	단가, 화용도
	3.1	단가(가야금병창)	조타령, 무녀유가, 투전해가, 춘향가
	3.9	남도단가(가야금병창)	백구사, 만고강산, 육자가
	3.11	가야금병창	단가, 몽중가, 소상팔경
	3.18	가야금병창	산조, 단가
	3.26	가야금병창	대장부, 소상팔경
	3.29	가야금병창	백구사, 조가, 흥타령
	4.4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4.5	가야금병창	만고영웅, 이별가
	4.9	가야금병창	단가, 흥타령, 조타령
1928	12.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1절
	12.16	가야금병창	산조, 장부한, 소상팔경 외
	12.21	가야금병창	산조, 단가, 적별가, 화용도
1929	5.10	가야금과 대금 합주	단가 애가, 옥중가, 산조, 잡가 합주가
	5.2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박타령
	6.1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7.1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장부한가
	12.12	가야금병창	아리랑가와 경남조, 육자가, 리리리야 기타
	12.1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이별가 기타

앞의 <표 27>에서 주목할 또 한 가지는 1926년에는 ‘남도잡가’, ‘조선 소리’ 등 ‘가야금병창’이라고 기록하기 이전에 소리에 관한 기록이 앞서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1927년 3월 이후에는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명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먼저 제시하고 그 세부 곡명을 표기하는 경향은 이후 1920년대에 지속된다. 즉 1920년대 후반기에 연주자가 노래를 하며 가야금을 연주하는 음악을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성방송국의 방송 목록을 통해 판소리 중 한 대목, 단가, 남도잡가, 서도잡가, 가사 등이 1920년대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였다고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12가사 중 몇 곡이 당시에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였다는 점이다. 1926년 9월 2일에 김해선, 한국향, 김금홍, 장향란과 같은 한남권번 소속 기생들이 가사 중 <백구사>, <죽지사>, <매화사(매화타령)>을 연주했으며<sup>127)</sup> 1927년 3월 9일에는 김농운, 최운매와 같은 조선권번 소속 기생들이 <백구사>를 연주했다.<sup>128)</sup> 이를 통해 1920년대에 가야금병창으로 연주하는 음악에 있어서 판소리나 단가, 민요, 잡가뿐만 아니라 가사까지도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28>를 보면, 1928년에 들어서면서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잡가/입창)를 함께 연주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 1927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4회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1928년에 모두 17회 라디오 방송에서 연주되는 것은 그 수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127)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27쪽.

128)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32쪽.

<표 28> 1928년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잡가/입창)의 방송 기록

구분(장르)	연주자	날짜
가야금병창 및 남도단가	김해선	6.17/5.2/5.11/ 5.31/6.26/12.11
	윤옥향	5.14
	오택석/조학진	11.2
	김연수	12.4
	○소흥	12.12
	이옥화(한성권변)/이옥화(경성권변)	10.17
	염계화	11.13
	안기옥(가야금)/조몽실(입창)	12.31
	이옥화(한성권변)	9.21
가야금병창과 남도입창	김종기(가야금)/백점봉(입창)	9.13/12.17
가야금병창과 남도잡가	김종기(가야금)/백점봉(입창)	9.29

이렇게 당시 가야금병창이 남도단가 또는 남도잡가에 해당하는 곡과 같이 연주된 것은 이들 음악이 남도음악인들의 복진으로 가야금병창과 함께 연주하는 중요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도음악인들의 상경은 192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서울 내의 남도음악계는 서서히 전남 출신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28년에 남도출신의 음악인들이 조직한 호남악우회의 결성 이후 전라도 음악인이 중심이 되는 전문 집단은 계속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sup>129)</sup> 예를 들면 조몽실은 전라남도 화순 출신의 판소리 명창으로 알려져 있다.<sup>130)</sup> 이렇게 전라도 출신의 음악인들이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그들은 당시 서울에서 유행하던 음악인 가야금병창과 함께 자신들의 특기인 이른바 ‘남도단가/잡가/입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음악을 함께 연주했다. 이러한 영향이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라는 레퍼토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가야금병창의 연주형태는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방송에서

129)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 민속원, 2004, 235-236쪽.

130) 박황,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1974, 139쪽.

1926년에 방송된 기록들을 확인해 보면 김농운은 1회 심정순과 심상건은 각각 2회 솔로로 연주하였고 권번 출신 2~4명이 같이 합주를 하는 경우도 5회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29>와 같이 경성방송 관련 기록에서도 1926년 당시에는 가야금병창을 솔로로 연주할 뿐만 아니라 합주의 형태로도 연주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즉, 경성방송국 개국 당시인 1926년에는 가야금병창을 한사람이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기도 했다. 솔로로 연주한 이들은 심정순, 심상건 등과 같은 가야금병창 전문 연주자가, 합주 연주자들은 권번 출신 기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권번 출신 기생들이 주로 합주를 연주하는 것은 1920년대 이전 이산옥과 오옥엽이 함께 출연해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것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즉, 1926년까지도 가야금병창은 그 연주형태에 있어서 솔로로 연주하는 경우와 합주로 연주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합주로 연주하는 경우는 대개 권번 출신 기생들이 연주할 때라 하겠다.

<표 29> 1926년 경성방송국 출연 가야금병창 연주자

연주형태	날짜	연주자	소속
독주	7.12	김농운	한성권번
	7.22/8.5	심정순	미상
	11.11/12.9	심상건	미상
합주	7.18	심매향	조선권번
		김해선	한성권번
	8.8	송옥주, 김남주	대동권번
	8.19	김해선, 이월향, 오소옥	한성권번
	9.2	김해선, 한국향, 김금홍, 장향란	한남권번
	10.7	김남주, 송옥주	대동권번
		김관홍, 전란홍	

그러나 1927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2월 26일에 송옥주와 조우춘 그리고 3월 9일에 김농운과 최운매가 함께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기록<sup>131)</sup> 외에는 주로 한사람이 가야금병창을 연주한다. 김운선(1회), 심상건(23회), 이소향(5회), 이월향(1회), 이일선(12회), 조우춘(5회), 조우향(1회), 황국향(2회)으로 모두 솔로로 연주하였다.

131)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32쪽.

1920년대에 한 명의 가야금연주자가 출연해서 가야금병창과 함께 기악 독주를 병행하는 형태가 등장한다. 1927년에 이소향은 병창과 함께 단소도 독주한 기록을 2회(11.11/11.30) 볼 수 있다.<sup>132)</sup> 또한 심상건이 병창과 함께 산조를 2회(2.20/3.18) 연주하였는데, <표 30>과 같이 한 명의 연주자가 가야금병창을 산조와 함께 이어서 모두 연주하는 형태가 1928년에는 5회, 1929년에는 29회로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0>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병창과 산조’ 방송 기록

연도	횟수	출연자(날짜)
1927	2	심상건(11.11/11.30)
1928	5	심상건(10.14/11.29/12.16)
		오택석(10.20)
		이소향(12.21)
1929	29	이소향(1.31/3.17/3.25/4.6/4.11/4.21/5.5/5.12/5.26/10.5/10.20/11.19)
		심상건(1.27/2.5/5.25/6.3/6.18/6.27/7.7/7.14)
		김운선(5.15/6.1)
		김옥희(11.6/12.13)
		김해선(6.11/7.27)
		김종기(11.10)
		강소춘(4.14)
		조우춘(12.8)

다음의 <표 31>과 같이 1920년대 가야금병창 연주에는 고수가 함께 출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926년 12월 9일 방송에는 장구 반주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132)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44-45쪽.



<표 31> 192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가야금병창 교수(반주)

연도	병창 전체 연주 횟수	반주포함 공연일	가야금병창 연주자	반주(고수)
1926	10회	12.9	심상건	한성준(반주)
1927	54회	3.1	이일선	박춘재(고수)
1928	99회	3.12/3.20	오탈석	오갑조(고수)
		4.1/4.9		한성준(고수)
		4.20/4.28		안기옥(반주)
		4.27	박동준	박종기(고수)
		11.6	이소향/ 오탈석	박종기(고수)
1929	92회	1.15/2.17/4.8/4.25	김해선	박종기(고수)
		1.31/4.11 <sup>133)</sup>	이소향	박종기(고수)
		/4.21/5.5/10.20		
		11.30	최향심	한성기(장고)

즉, 1920년대에 이미 가야금병창과 장구 반주가 함께 연주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1920년대에 방송에서 가야금병창에 장구를 곁들여 연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7년 3월 1일 가야금병창을 위해 이일선이 출연하는데 이 때 박춘재가 고수의 역할을 한 기록이 있다.<sup>134)</sup> 그 외에 1928년에 오탈석이 가야금병창을 연주할 때 “반주” 또는 “고수”로서 함께 출연한 이들의 기록이 있는 것도 주목된다. 1920년대에 오탈석이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것은 모두 삼십여 차례인데 그 중 고수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1928년에 여섯 차례가 있고 1929년에는 고수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십여 차례 있다. 이에 1920년대 후반에 가야금병창에 고수가 함께 등장하는 연주 형태가 시도되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133)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68쪽에는 이종기(李鍾基)로 표기되어 있으나 『매일신보』 1929년 4월 11일자 확인결과 박종기(朴鍾基)로 표기되어 있음.

134)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32쪽.

## 2) 연주자

1926년에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 가야금으로 병창을 연주한 연주자는 15명으로 아래 <표 32>와 같다.

이들 중 김농운, 김해선, 이월향, 오소옥 등은 한성권번 소속이며 심매향은 조선권번, 송옥주, 김남주, 김란홍, 전란홍 등은 대동권번 소속이었다. 즉, 1926년 경성방송국이 개국한 당시에는 주로 권번 소속 기생들이 한명 또는 두, 세 명 단위로 라디오에 출연해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다.

1927년부터는 고정적으로 여러 차례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이들이 등장한다. 심상건, 이소향, 이일선, 조우춘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에 김농운, 최운매, 김운선, 이월향, 조우향, 황국향 등이 1회 또는 2회 정도 출연했던 연주자들이다. 이들 중 김농운, 김운선, 송옥주, 이소향, 이월향, 조우춘, 조우향, 최운매, 황국향, 황란향 등은 1926년과 마찬가지로 권번 소속의 기생들이었다. 그 중 이소향은 조선권번과 종로권번 소속 기생이었으나 후에 1930년대에 조선성악연구회 이사까지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sup>135)</sup>

1927년에는 이러한 권번 소속 기생들보다는 심상건(23회), 이일선(12회)의 출연 횟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1927년에 들어서면서 권번 소속 기생이 아닌 심상건, 이일선과 같은 전문 연주자가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등장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심상건은 가야금병창 외에 산조도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였다.<sup>136)</sup>

1920년대에는 앞의 <표 30>과 같이 가야금병창과 더불어 산조도 연주할 수 있었던 연주자 강소춘, 김옥희, 김운선, 김종기, 김해선, 심상건, 이소향, 오태석, 조우춘 등이 나타난다. 가야금병창만 가능한 연주자 보다는 산조도 겸할 수 있는 가야금연주자가 점점 더 많아진 것은 이전 시기와 다른 1920년대의 변화된 모습이라 하겠다. 가야금병창뿐만 아니라 산조 연주까지 요구되는 변화는 권번 소속 또는 출신의 기생이 아닌 전

135)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사, 2012.

136)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31쪽; 33쪽.

문 연주자가 가야금연주자로서 더욱 각광을 받게 된 계기로 보인다.

1928년에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가야금연주자는 모두 18명인데 가야금병창은 오태석과 심상건이 23회로 가장 많이 연주했으며 그 다음 이소향 17회로 역시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활동했다. 1928년에는 오태석이 방송에 처음 등장해서 가야금병창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다.

1929년에는 이전 해에 오태석과 심상건이 압도적으로 가야금병창 연주자로서 많이 출연한 것에 비하면 다시 권번 소속 기생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

<표 32> 192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가요금병창 연주자

연도	가요금병창 및 연주자 수		연주자별 출연횟수(**권번/출연횟수)		기타 <sup>137)</sup>
			전문연주자	권번 출신	
1926	10	15명	심상건(2회) 심정순(2회)	김금홍(한남) 김남주(대동)(2회) 김농운(한성)(1회) 김란홍(대동)(1회) 김해선(한남)(1회) 김해선(한성)(2회) 송옥주(대동)(2회) 심매향(조선) 오소옥(한성) 이월향(한성) 장향란(한남) 전란홍(대동) 한국향(한남)	
1927	54	12명	심상건(23회) 이일선(12회)	김농운(조선)(2회) 김운선(조선) 송옥주(대동)(2회) 이소향(조선)(5회) 이월향(한성) 조우춘(대동)(5회) 조우향(대동) 최운매(조선)(2회) 황국향(한성) 황란향(한성)	
1928	99	18명	김종기(3회) 박동준(5회) 심상건(23회) 안기옥 오택석(23회) 이일선(5회)	○소홍 김연수 김운선(2) <sup>138)</sup> 김해선(7회) 염계화 윤옥향 이소향(17회) 이옥화(경성) 이옥화(한성)(4회) 조우춘(한남)(4회) 조우향	조농선
1929	91	27명	김종기 심상건(12회) 오택석(11회) 이일선 정남희	김금련(4회) 김남주 김농운(2회) 김연수(3회) 김옥희(3회) 김운선(3회) 김채운 김초월 김해선(10회) 박녹주(1회) 염계화(4회) 이금향 이소향(15회) 이옥화(2회) 장금련 장초향(3회) 조우춘(4회) 최향심 홍소월(4회)	강소춘 장행진 김련
** 권번 이름만 표기함.					

137) 전문연주자와 권번 출신이 아닌 연주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하 동일.

138)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28.7.11.(55쪽) 연주자명이 김운정(金雲汀)으로 되어있는데, 「동아일보」 1928년 7월 11일자 확인 결과 김운선(金雲仙)으로 확인됨.

1920년대 유성기음반에 취입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은 <표 33>과 같이 모두 12명으로 강남중, 권금주, 김해선, 박화선, 신금홍, 신연옥, 신옥란, 신진옥, 심매향, 심상건, 심정순, 오테석 등으로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연주자의 수 보다 월등하게 적다.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은 권번 출신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유성기음반에 취입한 연주자들은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3> 1920년대 유성기음반 취입 가야금병창 연주자

연도	가야금병창 및 연주자 수		연주자명(출연횟수)		
			전문연주자	권번출신	기타
1925	5	3	심정순(2회)	김해선(8회)	심매향(8회)
1926	1	1	심상건(2회)		
1927	17	11	강남중(10회) 심정순(8회) 심상건(6회)	권금주(4회) 김해선(6회)	박화선(2회) 신금홍(4회) 심매향(4회)
1928	1	1	오테석(2회)		신옥란(10회) 신진옥(10회) 신연옥(10회)
1929	10	3	심상건(2회) 오테석(11회)	김해선(6회)	

### 3. 1930년대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30년대의 신문기사에서는 가야금병창이라고 명기된 공연 관련 기록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1920년대에 등장했던 박팔괘, 오테석, 심상건 등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던 이들이 참여하는 공연 관련 기사가 있으며 이들은 이후 언급할 유성기음반 및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 목록에서도 1930년대에 여전히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출연했던 공연에서 가야금병창이 연주되었다고 짐작 가능하므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확인해 보았다.

우선 1930년 10월 19일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독자위안 명창대회에

출연한 박팔괘는 이동백, 윤계화 등과 함께 공연했다 한다.

本報讀者慰安 명창대회 개최

[청주]본보청주지국에서는 조선명창 리동백(李東伯) 일행이 래청함을 기회 삼어 추기독자위안명창대회(秋期讀者慰安大會)를 지난 십륙일부터 삼일간 당지 앵좌(櫻座)에서 개최하얏는데 리동백과 악계에 유명한 박팔괘(朴八卦), 명기 윤계화(尹桂花)와 십여명이 출연하여 성황을 이루는 중이다.<sup>139)</sup>

이렇게 판소리 명창들하고 함께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이들이 공연에 참여한 기록은 같은 해 11월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도 보인다.

朝鮮音律協會 第一回 公演 十九, 二十 兩日 午後 七時부터 市內 朝鮮 劇場에서

조선음률정화를 목표로 하고 조선에 처음으로 생긴 조선음률협회에서는 그 동안 각 방면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활약을 해 오던 바 19, 20 양일간 시내 조선극장에서 금번 첫 공연을 개최하게 되었다는데 출연자는 사계의 일류명창을 망라하였으며 출연곡목도 조선 고유의 것을 전부 포함하여 실로 전에 없던 대공연이며 출연자 제씨는 다음과 같다.

◇출연자

이소향(李素香)·오택석(吳太石)·조학진(曹學珍)·김창룡(金昌龍)·김창환(金昌煥)·심상건(沈相健)·박녹주(朴綠珠)·김초향(金楚響)·한성준(韓成俊)<sup>140)</sup>

이 기사에 따르면 조선음률협회의 창립 이후 제일 첫 번째 연주회에 오택석, 심상건 등 가야금병창으로 유명했던 이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판소리 명창들과 함께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이들이 공연에 참여한 기록은 아래의 <표 34>과 같이 1930년대에 종종 나타난다.

이들 공연에 출연하는 이들은 오택석, 심상건, 박팔괘 등 가야금병창

139) 『동아일보』 1930년 10월 19일자 7면.

140) 『조선일보』 1930년 11월 19일자 5면.

명인으로 알려진 이들 외에는 주로 판소리 명창들이어서 당시 조선음률협회의 주축이 되었던 판소리 명인들과 함께 가야금병창 명인들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1930년대 가야금병창 공연 관련 기사

기사출처	공연명	출연자 또는 장르
동아일보, 1930. 10. 19	秋期讀者慰安名唱大會	이동백, 박팔괘, 윤계화 외 십여명
조선일보, 1930. 11. 19	朝鮮音律協會 第1回公演	조학진 김창환 김창룡 이소향 <u>오테석</u> <u>심상건</u> 박녹주 김초향 한성준
조선일보, 1931. 3. 29/30	朝鮮音律協會 第2回公演	김운선, <u>오테석</u> , 김해선, 김창룡, 김소향, 송만갑, 김금옥, <u>심상건</u> , 정정렬, 김초향, 김창환, 이옥화, 박녹주, 이소향
조선일보, 1931. 11. 14	[平壤]滿洲 遭難同胞 救濟演藝大會	승무, 탈춤, 서도잡가, 수심가, 남도잡가, 단가, <u>가야금병창</u> , 양악합주, 댄스8*, 일본 가요 7편 등
동아일보, 1933. 2. 26	開城名唱大會	정정렬, <u>오테석</u> , 한성준, 김초향, 하농주
조선일보, 1933. 8. 12	朝鮮 音樂 鑑賞의 夕	이언중, 김명수, 이명호, 방용현, 이성환 외 1인, 지용구, 박일몽, 이동백 외 2인, 최수성 외 1인, 강태홍, 이한성, <u>오테석</u>
동아일보, 1935. 1. 31	朝鮮名唱大會	이동백, 정정렬, <u>오테석</u> , 한성준, 신금홍, 김유앵, 변진홍, 김소희
동아일보, 1935. 7. 27	納涼音樂大會	형양관현악단 전원, 포리도루전속가수 왕수복양, 씨에론 전속가수 최연연양, <u>가야금명수</u> <u>심상건씨</u>
동아일보, 1935. 11. 25	初冬名唱大會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u>오테석</u> , 오비취, 신숙, 조앵무, 조소옥, 김연수 외 이십여명
동아일보, 1936. 7. 11	公州練藝協會會館 落成式	<u>오테석</u> , 박녹주

그러나 이러한 1930년대 공연 관련 신문기사에서는 연주형태나 곡목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았다.

1930년대 가야금병창에 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유성기음반,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 목록에서 알아볼 수 있었다. 우선 1930년대 유성기음반을 살펴보면 1930년에 10장, 1931년에 19장, 1932년에 34장, 1933년에 40장, 1934년에 48장, 1935년에 22장, 1936년에 27장, 1937년에 19장, 1938년에 8장, 1939년에 5장 취입한 것으로 나온다.

1930년대 유성기음반에서 발견되는 가야금병창 연주곡목들은 다음 <표 35>과 같이 단가와 판소리 중심으로 취입되었다.

<표 35> 1930년대 유성기음반으로 발매된 가야금병창 곡목

연도	병창	확인 가능한 곡명(연주횟수)
1930년	10	단가(2) 심청가(6) 춘향가(4) 수궁가(4) 흥보가(2) 잡가(2)
1931년	19	단가(9) 심청가(5) 춘향가(15) 수궁가(2) 적벽가(2) 민요(3) <화초새타령><자진 새타령>
1932년	34	단가(9) 심청가(10) 춘향가(14) 수궁가(10) 흥보가(1) 적벽가(9) 민요(10) <중타령><초로인생><호리진곤><세상공명>(2)
1933년	40	단가(19) 심청가(6) 춘향가(13) 수궁가(6) 흥보가(8) 적벽가(8) 민요(15) <칠선제풍(상)(하)><산타령><백구사>
1934년	48	단가(10) 심청가(15) 춘향가(20) 수궁가(9) 흥보가(7) 적벽가(9) 민요(17) 잡가(1) <초로인생>(2)<반석현성하의수훈(상)(하)><철야 장탄(상)(하)><군신읍별(상)(하)>갑신정변황철(사)>< 짝사랑(상)(하)>
1935년	22	단가(13) 심청가(5) 춘향가(13) 수궁가(2) 흥보가(2) 적벽가(2) 민요(2) <상산사호><태평천지><꽃타령>
1936년	27	단가(8) 심청가(13) 춘향가(12) 수궁가(5) 흥보가(3) 적벽가(1) 민요(4) 잡가(2)
1937년	19	단가(10) 심청가(5) 춘향가(7) 수궁가(3) 흥보가(4) 적벽가(3) 민요(2) <호리진곤>
1938년	8	단가(5) 심청가(5) 춘향가(1) 수궁가(1) 흥보가(2) <무정한세월아>
1939년	5	단가(5) 심청가(1) 춘향가(2) 수궁가(2)

그 다음에 경성방송국 방송 목록을 살펴보면, 1930년대에도 여전히 가야금병창이 방송에 자주 등장한다. 1930년대에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 곡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6>과 같다. 그런데 앞의 유성기음반에서는 1930년대에 단가나 판소리가 가야금병창의 주요 레퍼토리였던 것에 비하여 경성방송국의 방송목록에는 1934년까지 <유행가>나 <아리랑>, <제석거리>, <잡가> 등 단가나 판소리 외의 음악들도 포함된 것이 다른 점이다. 이는 1930년대 공연에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이들이 판소리 명창들과 함께 활동했으며 또한 유성기음반에도 판소리를 주로 취입하면서 서서히 방송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1930년대 중반 이후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로서 단가와 판소리가 중심 역할을 하는 분위기가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표 36>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 곡목

연도	병창	확인 가능한 곡명(연주횟수)
1930년	58	단가(59) 심청가(16) 춘향가(23) 수궁가(4) 홍보가(1) 적벽가(7) 愛의 歌(애가)(4) 경성유행가(소패)(17) 잡가(12) 조의가(1) 조타령(7) 아리랑사(조)(2) 이팔청춘가 진양조(1)
1931년	38	단가(40) 심청가(8) 춘향가(21) 수궁가(7) 적벽가(2) 유행가(4) 잡가(4) 조타령(4) 무녀가(1) 문장천(1) 아리랑(1) 兎の歌(2) 죽장가(1) 진양가(1) 철설령(1) 토공전(1) 화초조타령(1)
1932년	38	단가(45) 심청가(19) 춘향가(25) 수궁가(2) 홍보가(4) 적벽가(1) 유행가(2) 잡가(3) 제석거리(1) 유행가(2) 잡가(2) 일표건곤(1) 적성조타령(2) 조타령(1)
1933년	59	단가(64) 심청가(23) 춘향가(29) 수궁가(5) 홍보가(7) 적벽가(5) 민요(4) 잡가(3) 부용도(2) 진양조(3) 중머리(1)
1934년	71	단가(59) 심청가(21) 춘향가(11) 수궁가(5) 홍보가(11) 적벽가(8) 민요(23) 잡가(1) 공도란이(1) 사창(1)
1935년	53	단가(51) 심청가(10) 춘향가(11) 수궁가(16) 홍보가(15) 적벽가(4)
1936년	81	단가(67) 심청가(23) 춘향가(23) 수궁가(5) 홍보가(7) 적벽가(17) 공명가(1)
1937년	63	단가(58) 심청가(18) 춘향가(9) 수궁가(5) 홍보가(10) 적벽가(21) 개타령(1)
1938년	58	단가(56) 심청가(15) 춘향가(17) 수궁가(7) 홍보가(6) 적벽가(10)
1939년	51	단가(49) 심청가(18) 춘향가(9) 수궁가(7) 홍보가(5) 적벽가(7)

한편, 193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는 가야금병창을 중주 또는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 형태는 방송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당시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방송 여건이나 레퍼토리의 즉흥성 등과 관련해서 중주보다는 독주의 형태가 선호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32년까지는 드물게 고수가 등장하는데 1933년에는 거의 모든 가야금병창 연주 프로그램에 장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933년 이후의 가야금병창은 장단을 치는 고수가 함께 연주하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할 수 있겠다.

## 2) 연주자

1930년도에 들어서서도 <표 37>과 같이 여전히 가야금병창과 함께 가야금산조를 이어서 방송에서 연주하는 프로그램이 지속되며, 1920년대에 활동했던 김운선은 여전히 경성방송국에 출연해서 가야금병창과 가야금산조를 연이어 연주한다. 심상건, 이소향 등도 마찬가지이다.

<표 37> 1930년 가야금산조와 병창을 함께 연주한 연주자

연주자	횟수	날짜
김운선	6회	6.8/6.28/7.26/8.8/9.30/11.3
김해선	2회	10.5/11.9
심상건	4회	4.13/8.27/11.23/12.25
이소향	2회	2.14/4.21
이순근	1회	10.1
한성기	3회	2.27/6.16/8.18

그런데 오택석은 이들과 달리 가야금병창만 연주한다. 1930년 10월 17일 방송과 11월 15일 방송에서 오택석은 가야금병창으로 단가 및 판소리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등의 대목을 부른다. 그 외에 1930년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성기가 병창과 산조의 연주자로 처음 출연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병창을 연주한 이들 중 심상건은 판소리 대목을 주로 연주하는 반면, 권번 출신 여성 연주자들은 민요와 잡가 외에도 유행가라는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것을 보면, 가야금병창이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레퍼토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주자에 따라 레퍼토리가 달라지는 것은 개인별로 전문 음악 분야의 틀이 마련되는 시기였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겠다. 1930년대 초반 가야금병창 전문가로서 오택석, 심상건, 이소향 등의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연 관련 기사가 있다. 아래 기사에 나타난 11월 19일 조선음악협회 1회 공연 출연자들이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예인들로 표현된 것으로 이들은 당시 가야금병창 전문 연주자로서 대중들에게 인지도

를 높여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人氣는 最高調 聲援도 多大 신용인씨가 비행기로 선전 朝鮮音律協會公演>

오는십구, 이십량일동안에 조선음악정화운동(朝鮮音樂淨化運動) 제일 보로 출연자수를 주리며 간연적(間演的) 여흥물(餘興物)도 업새이고추루 난잡한 소위 『안일이』를 전부 업새여 어디까지나 정숙한기분을 도두어 회장내로하야곰 과연 진정한의미의 음악회를 만들게 하고자하는 조선음률협회(朝鮮音律協會) 제일회 공연을 시내조선극장에서 개최한다 함은 이미 본지상에 보도한 바어니와 동외 공연계획이 발표되자 만도 인사의 이에대한기대가 최고조되엿스며 인기도 백『퍼-센트』로 비등되는중인데 이날출연할 회원은 본회최고간부0요 조선음악의 본존(本尊)인 김창환(金昌煥)씨를 비롯하야 김창룡(金昌龍) 조학진(曹學珍), 심상건(沈相健), 오태석(吳太石), 박록주(朴綠珠), 김초향(金楚香), 리소향(李素香), 등 사계의 일류만 망라되엇으며 더욱이 반주계(伴奏界)의 제일인으로 국보(國寶)라 일컫는 한성준(韓成俊)씨가 출연하야 일체를 드리울 모양인데 이와 가튼 음악회는 종래 그류테를 보지 못하든 것이요...<sup>141)</sup>

역시 1930년에는 <표 38>과 같이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를 이어서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있었다. 김금옥, 염계화, 이옥화, 이소향 등이 1930년에 단가와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다. 이들이 가야금병창으로 연주한 것은 주로 판소리 계열 악곡 또는 단가 계열이어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지만 남도소리 계열의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당시에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41) 『매일신보』 1930년 11월 18일자 2면.

<표 38> 1930년 가야금병창과 연주자별 연주 곡명

연주자	곡명
김금옥	단가/춘향가
염계화	단가2회/춘향가/사랑가/심청가
이옥화	단가5회/춘향가2회/사랑가2회/진양조/심청가2회/유행가/애가
이소향	단가/춘향가 중/조어환주(釣魚換酒)/소상팔경

1931년에 경성방송에 출연해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이들로는 김운선, 심상건, 오태석, 박계화, 한성기, 염계화, 이계화, 김옥련, 김우학, 이일선 등이다. 이 중 오태석과 한성기가 9회로 가장 많이 출연한 연주자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일선이 5회, 김운선이 4회 출연했다. 이들 중 오태석과 김운선의 활약은 1932년에도 이어진다. 그러나 1933년 이후 김운선의 연주는 경성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3년에도 오태석이 여전히 활발히 활동했지만 그 외에 최소옥, 김혜선, 김채련, 박옥돌 등이 가야금병창 연주자로서 새롭게 등장한다. 그러나 박옥돌의 출연 기록은 1933년 7월 15일 한번 뿐으로 일시적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김채련은 1899년 출생으로 대정권변 및 조선권변의 기생이었다. 그는 이후 1934년에는 경성방송에서 김은자와 함께 가야금산조를 연주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이동백, 강태홍 등과 함께 조선성악연구회 멤버로서도 활동했다.<sup>142)</sup> 즉, 비록 권변 출신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음악가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방송 활동은 주목된다.

1930년대에 꾸준히 활동하는 이소향 역시 1920년대부터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시작해서 이후 1930년대에 조선성악연구회 이사를 맡는 등 활발히 활동한다. 즉, 김채련과 이소향의 예는 1920년대의 기생들과는 달리 1930년대에는 전문적인 음악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음악가로서 활동하는 기생들이 가야금연주자로서 거듭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최소옥<sup>143)</sup>, 홍소월<sup>144)</sup> 등도 역시 같은 경우이다.

142)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사, 2012, 242쪽.

143) 최소옥(崔素玉)은 성악가(민요)이자 조선권변(朝鮮券番) 기생으로 장기는 가야금이며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 선전부 이사를 역임했다.(송방송, 『한겨레음악인

1934년에는 28명의 가야금병창 연주자가 출연하였다. 연주자별 출연 빈도를 살펴보면 오택석 13회, 김종기 10회, 강태홍 8회 순으로 출연 빈도수가 높았는데, 오택석은 병창으로, 김종기와 강태홍은 병창과 산조 연주로 자주 출연하였다. 1934년에 들어서면서 특이한 점은 병창과 산조를 모두 연주하는 출연자의 출연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1934년에 산조와 병창을 모두 연주하는 연주자는 6명이었다. 그 중 김종기가 8회 그 다음으로 강태홍이 6회로 빈도수가 많았다. <표 39>와 같이 가야금병창으로 이전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하던 오택석과 비견될 만큼 가야금병창과 산조가 모두 가능했던 김종기, 강태홍, 김은자 등의 출연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표 39> 1934년 가야금병창 연주자의 방송 출연 기록 비교

연주자	출연횟수	병창	가야금병창과 산조
오택석	13회	13	0
김종기	10회	2	8
강태홍	8회	2	6
김은자	5회	0	5

<표 40>과 같이 1935년에도 가야금병창 연주자로서 오택석의 활약은 이어지며 정남희 역시 가야금병창으로 방송 출연을 했다. 그리고 강태홍은 가야금산조와 병창을 모두 연주하는 인물로서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했으며 이는 이후 1930년대 내내 지속된다. 정남희 역시 마찬가지이다. 1936년에 이르러서는 잠시 활동이 주춤했던 이소향이 다시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활동하는데 그녀는 1936년에는 오택석보다도 훨씬 많이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방송에 등장한다. 1936년에는 모두 28명의 가야금병창 연주자가 출연했다. 28명 중에 이소향 10회로 가장 많았고, 성금화 8회, 정남희 7회, 심상건 7회, 박추월 7회, 강태홍 6회, 오택석 5회, 최봉익

대사전』, 보고사, 2012, 892-893쪽.)

144) 홍소월(洪素月)은 성악가(민요)이자 남도명창이다.(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971쪽.)

5회로 빈도수가 높았다.

그 중 5회 이상 출연한 연주자들의 장르를 살펴보면 이소향은 (병창 6회/산조와 병창 4회), 심상건 (산조 1회/산조와 병창 7회), 정남희 (병창 1회/산조와 병창 6회/반주 1회), 성금화 (병창 1회/ 산조와 병창 6회), 박추월 (병창 7회), 강태홍 (산조와 병창/ 6회), 오태석 (병창 5회), 최봉익 (병창 4회/산조와 병창 1회)이다. 즉, 병창 쪽으로만 기울어진 연주자 (박추월, 오태석, 최봉익)와 산조와 병창을 두루하는 연주자(이소향, 심상건, 정남희, 성금화, 강태홍)가 확연하게 구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중반에 가야금병창만, 또는 가야금병창과 산조 양쪽이 모두 가능한 연주자로 부각되기 시작한 가야금연주자들은 이후 1930년대 후반에도 그 활동을 이어나간다. 오태석, 정남희, 심상건, 이소향, 박추월, 강태홍은 1937, 1938년, 1939년에도 여전히 경성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름이 빈번하게 확인된다. 그런데 1939년에는 방송출연이 확인된 가야금병창만 연주하는 이들은 모두 9명밖에 안 된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매년 많게는 20여명 가까이 출연하던 병창 연주자 수가 1939년이 되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1939년에 가야금병창 연주자로는 박추월이 3회 출연하였고 나머지 연주자들은 모두 1-2회 출연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1926년 경성방송국이 개국하면서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꾸준히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이들의 출연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후반에 달라진다. 이렇게 1939년에 방송에 출연해서 가야금병창만 연주하는 이들의 수가 확연히 감소한 것은 가야금병창이라는 음악에 대한 인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다.

<표 40>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병창 출연자

\*밑줄 친 이들은 해당 연도에 유성기음반에 취입한 기록이 나타나는 이들이다.

연도	가야금병창 및 연주자 수		연주자명(1회 이상 출연횟수)			
1930	58	15	강선옥 김금옥(2) 김옥희 김운선(7)	김해선(3) <u>심상건(5)</u> 엄계화(2) <u>오택석(6)</u>	이소향(3) 이순근 이옥화(6) 이운선	이일선(15) 조우춘 한성기(3)
1931	38	11	김옥련 <u>김운선(4)</u> 박계화(2)	<u>심상건(4)</u> <u>오택석(9)</u> 이계화	<u>이소향</u> <u>이옥화(2)</u> 이일선(5)	장조향 <u>한성기(9)</u>
1932	38	15	김성기 김소향 김여란 김옥련	김운선(6) <u>김채련</u> <u>심상건(4)</u> <u>오택석(12)</u>	이계순 <u>이소향(2)</u> <u>이옥화(2)</u> 이일선(2)	<u>최소옥</u> 한남권변 <u>한성기</u>
1933	59	16	강태홍 <u>김운선(8)</u> 김은자 <u>김채련(4)</u>	김해선(6) 박옥돌 심상건(11) <u>오택석(7)</u>	윤옥향(2) 이소향(5) 이일선(2) <sup>145)</sup> 정금도	한성양권변 <u>최소옥(7)</u> 홍소월(2)
1934	71	28	강계향 강태홍(8) <u>김갑자</u> 김금란 김금옥 김연수 김옥진	김옥희 김은자(5) <u>김종기(10)</u> <u>김채련(4)</u> 김채운(4) 최계란 박금도	박추월 <u>심상건(3)</u> 민옥향 김화중월 <u>오비취</u> <u>오택석(13)</u> 이기화(2)	이난향 이일선(3) <sup>146)</sup> 정금도(3) <u>정남희</u> 정옥희 <u>최소옥(3)</u> 하농주
1935	53	22	○금화 강태홍(9) 김금옥 김옥진(2) 김채련 김해선(4)	박설향 박정희 박추월(2) 박팔괘 <u>성금화(3)</u> 성농운	심상건(4) <u>오택석(7)</u> 이기화 임소향 임추월 정금○	정금도 정금수 <u>정남희(8)</u> 조농선
1936	81	28	강계선 강계향 강계홍 <u>강태홍(6)</u> <u>김금옥</u> 김채련 김해선	류대○ 박정희 박추월(7) 박팔괘(3) 성금화(8) <u>심상건(7)</u> <u>오택석(5)</u>	원농월 이상봉 <u>이소향(10)</u> 정금○(2) 정금도 <u>정남희(7)</u> 정운선	조계선 조명주(3) 조영화 <u>최계란(2)</u> <u>최봉익(5)</u> 한○환 한봉환
1937	63	19	강계란 강계홍(3) <u>강태홍(3)</u> 김금암 류대○	박성옥(3) 박추월(6) 성금화 신쾌동 <u>심상건(7)</u>	오택석(7) <u>이소향(6)</u> 전봉선 정금○ <u>정남희(8)</u>	조영화(3) <u>최계란(4)</u> 최난주 최봉익(5)

1938	58	26	○계홍 강계홍 <u>강태홍(2)</u> 김은자 박동준 박추월(3) 성금화(2)	신송학 신송화 신쾌동 심○원 <u>심상건(9)</u> 안기옥 <u>오테석(8)</u>	<u>이소향(11)</u> 이연향 정남희(6) 조영학 지만수 최○○ 최계란(2)	최금향 최봉익 최송희 하귀란 한갑득 함동정월
1939	51	19	강계홍 강태홍(6) 강희구 김녹주(2) 김여란	김채련 박동준 박상근 박추월(3) 신관영	신쾌동(2) <u>심상건(10)</u> 안기옥 <u>오테석(3)</u> 이소향	<u>정남희(9)</u> 조영학(2) 최계란 한갑득(3)

앞의 표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해당 연도에 발매된 유성기음반에 가야금 병창을 녹음한 이들이었다. 오테석, 심상건, 이소향 등과 같이 방송 출연이 많았던 이들이 유성기음반 녹음에도 활발히 참여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아래 <표 41>에서 보이는 것처럼 1930년대 유성기음반에 가야금병창을 녹음한 이들 중에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하기 이전에 유성기음반에 가야금병창을 먼저 녹음한 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강태홍은 1932년에 가야금병창으로 유성기음반을 내는데 그의 방송 출연은 1933년부터 이루어진다. 또한 1933년에 유성기음반을 낸 김갑자, 김종기 역시 1934년에 방송에 이름이 보이고 김갑자의 1934년 방송 출연은 단 한번이었다. 즉, 1930년대의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경우 라디오 방송에 빈번하게 출연해서 지명도를 높였던 이들이 유성기음반까지 취입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반대로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이후 방송 출연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1930년대 가야금병창과 관련해서는 당시 유행하던 유성기음반의 발매를 통해 예술성을 인정받은 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연결된 이들도 있었던 것이다.

1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69쪽에는 김일선(金日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매일신보』 1933년 12월 22일자 확인결과 이일선(李日善)으로 나타남.

146) 앞의 책, 172쪽에는 김일선(金日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매일신보』 1934년 1월 11일자 확인결과 이일선(李日善)으로 나타남.



<표 41> 193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병창 취입 연주자

\*밑줄 친 이들은 해당 연도에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기록이 나타나는 이들이다.

연도	가야금병창 및 연주자 수		연주자명(1회 이상 출연횟수)			
1930	10	2	<u>심상건(10)</u>	<u>오태석(10)</u>		
1931	19	7	<u>김운선(2)</u> <u>심상건(6)</u>	<u>오태석(8)</u> <u>이소향(2)</u>	<u>이옥화(2)</u> <u>한성기(14)</u>	<u>한월탄(4)</u>
1932	34	12	<u>강태홍(2)</u> <u>김우학(2)</u> <u>김운선(2)</u>	<u>김채연(2)</u> <u>박동준(2)</u> <u>방금선</u>	<u>신옥도(2)</u> <u>심상건(6)</u> <u>오태석(18)</u>	<u>이소향(8)</u> <u>이옥화(7)</u> <u>한성기(15)</u>
1933	40	15	<u>김갑자(4)</u> <u>김남수(6)</u> <u>김운선(6)</u> <u>김종기(6)</u>	<u>김채련(2)</u> <u>박녹주(2)</u> <u>신옥도(2)</u> <u>신정옥(2)</u>	<u>오태석(4)</u> <u>이소향(16)</u> <u>이옥화</u> <u>주난향(6)</u>	<u>최소옥(6)</u> <u>한농선(2)</u> <u>한성기(14)</u>
1934	48	18	<u>권농선(3)</u> <u>김갑자(13)</u> <u>김소희</u> <u>김연수(2)</u> <u>김옥진(2)</u>	<u>김운선(4)</u> <u>김유앵(6)</u> <u>김종기(2)</u> <u>김차돈(2)</u> <u>김채련(2)</u>	<u>박녹주(6)</u> <u>심상건(2)</u> <u>오비취(4)</u> <u>오태석(26)</u> <u>이소향(13)</u>	<u>정남희(6)</u> <u>최소옥(2)</u> <u>한농선(2)</u>
1935	22	10	<u>김성화</u> <u>김소희</u> <u>김차돈</u>	<u>성금화(4)</u> <u>신금홍(2)</u> <u>오비취(4)</u>	<u>오태석(10)</u> <u>이소향(6)</u>	<u>정남희(6)</u> <u>한성기(7)</u>
1936	27	13	<u>강태홍(2)</u> <u>김갑자(2)</u> <u>김금옥(2)</u>	<u>김옥진</u> <u>심상건(7)</u> <u>오비취(3)</u>	<u>오태석(4)</u> <u>이난향</u> <u>이소향(13)</u>	<u>임소향</u> <u>정남희(7)</u> <u>조앵무(2)</u> <u>최계란(3)</u>
1937	19	8	<u>강태홍(4)</u> <u>권농선(3)</u>	<u>김금암(8)</u> <u>심상건(7)</u>	<u>오비취</u> <u>이소향(6)</u>	<u>정남희(4)</u> <u>최계란(2)</u>
1938	8	5	<u>김갑자</u>	<u>심상건(2)</u>	<u>오태석(4)</u>	<u>이소향(6)</u> <u>함동정월(2)</u>
1939	5	3	<u>심상건(2)</u>	<u>오태석(4)</u>	<u>정남희(4)</u>	

## 4. 1940년대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40년대 신문기사에서 가야금병창 관련 기록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다만 아래와 같은 1947년 3월 30일의 동아일보 기사에 전국민속예술농악대제전이 열렸으며 이 때 오태석이 가야금병창으로 <수궁가> 중에서 토끼가 세상으로 나오는 대목을 불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를 “관중은 따뜻한 봄볕도 잊은 듯 뉘를 잃고 듣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1940년대에도 여전히 가야금병창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으며 그 레퍼토리로 수궁가의 한 대목이 불리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豪華한 競演에 觀衆陶醉

全國民俗藝術農樂大祭典大人氣

그동안 장안 一百二十만 시민이 고대하여 마지않던 본사 주최의 전국 민속예술농악대제전(全國民俗藝術農樂大祭典)은 작 이십구일 그 호화현란한 막을 열었다...이어 국극사 국악원 등의 출연자가 회장에 들어와 정각 한시에 전국 민속예술농악 대제전은 드디어 막을 열었다 먼저 국악원(國樂院)의 오태석(吳太石)씨의 가야금병창으로 수궁가(水宮歌) 중에서 한가락 뜯어내고 이어 임방울(林芳蔚)씨의 단가(短歌)로 「금수강산」과 「수궁가」 중에서 「토끼가 세상으로 나오는 대목」을 그 유명한 목청으로 뽑아내니 관중은 따뜻한 봄볕도 잊은 듯 뉘를 잃고 듣고 있었다 ...147)

1940년대의 방송과 음반의 녹음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상황 속에서 1940년대에 남긴 가야금병창 음반은 모두 7장이다. 이는 물론 사회적, 정치적 혼란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1940년대 유성기음반에 나타나는 가야금병창 곡목은 다음 <표 42>와 같다. 1941년과 1944-45년에는

---

147) 『동아일보』 1947년 3월 30일자 3면.

병창이 녹음되지 않았다.

1940년에는 연주자 정남희만 가야금병창 음반을 취입하였는데 단가 5회, 심청가 1회를 연주했다. 단가 곡명으로는 <초한가>, <청루가인곡(상)(하)>, <화류정한(상)(하)>의 악곡명이 보인다. 1942년에도 정남희만 녹음에 참여하였다. 단가 중에 <죽장망혜>가 나타나고, 심청가 중에서는 <심청부친이별(상)(하)>, 춘향가 중에서는 <춘향옥중자탄(상)(하)>, 흥보가 중에서는 <흥보부부박타는데>가 나타난다. 1943년에는 심상건이 단가 2곡을 녹음했는데 곡명은 <장부한(상)(하)>이다. 즉, 유성기음반 취입에 있어 1930년대에 이어서 1940년대에도 단가 및 심청가, 춘향가는 여전히 대표적인 가야금병창 레퍼토리였다.

<표 42> 1940년대 유성기음반 취입 가야금병창 곡목

연도	병창	확인 가능한 곡명(연주횟수)
1940	3	단가(5) 심청가(1)
1942	3	단가(1) 심청가(2) 춘향가(2) 흥보가(1)
1943	1	단가(2)

1940년에는 가야금병창만 단독으로 편성되어 방송된 것은 열한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 한 연주자가 가야금산조에 이어서 병창을 연주하는 경우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20회여서 이미 가야금병창이 가야금산조에 오히려 부속되어 연주하는 음악으로서 인식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아래 <표 43>을 보면, 이러한 경향은 이후 1945년도까지 계속된다. 가야금병창만 편성되는 경우는 1941년의 세 차례, 1942년의 여덟 차례, 1943년 열세 차례, 1944년 두 차례, 1945년 세 차례로 가야금병창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 현저하게 줄어서 편성된다.

<표 43> 194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병창 편성

연도	병창	병창+산조	병창 총계
1940	11	20(3)**	31
1941	3	23(3)**	26
1942	8	13(2)**	21
1943	13	12	25
1944	2	9	11
1945	3	8(1)**	11
총	40	85	125

\*\* ( )는 현금산조를 나타냄.

이 때 연주되는 가야금병창 악곡으로는 <표 44>와 같이 잡가와 민요 등의 음악은 사라지고 역시 단가 계열, 그리고 창극조로 부르는 판소리 한 대목들이다. 이는 이전 1930년대부터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종 공연 무대, 유성기음반의 발매,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방송 등 새로 도입된 무대와 대중매체에 힘입어 병창이 대중화 되면서 1920년대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 많은 연주자들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시도했지만 점차적으로 판소리와 창극, 산조와 같은 음악들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예인들이 자리 잡게 되고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 역시 이들이 주로 하는 음악인 판소리, 창극 또는 단가 등 판소리 관련 음악들로 고착되어 가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1940년을 예로 들면 단가 중에서는 <대장부> 9회, <명기명창> 1회, <소상팔경> 1회, <아서라세상사> 2회, <어화청춘> 4회, <운담풍경> 1회, <죽장망혜> 7회, <초한가> 4회, <녹음방초> 1회가 연주됐다.

창극조는 <심청가>가 12회로 가장 많이 연주되었는데, 연주곡목으로는 <범피중류>, <자탄가>, <심봉사 눈뜨는데>, <장승상택가는데>, <황성올라가는데> 등의 이름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연주된 것은 <춘향가>로 9회 연주되었는데 <동풍가, 몽중가, 옥중가>등의 악곡명이 보이고, <수궁가>는 4회, <홍보가>는 3회, <적벽가>는 2회 순으로 연주됐다.

즉, 1930년대부터 고정화된 판소리계열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들은

1940년대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표 44> 194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 곡목

연도	곡명(연주횟수)
1940년	단가(30) 심청가(12) 춘향가(9) 수궁가(4) 흥보가(3) 적벽가(2)
1941년	단가(25) 심청가(9) 춘향가(4) 수궁가(3) 흥보가(5) 적벽가(5)
1942년	단가(17) 심청가(2) 춘향가(0) 수궁가(2) 흥보가(11) 적벽가(1)
1943년	단가(9) 심청가(7) 춘향가(4) 수궁가(2) 흥보가(1) 적벽가(0)
1944년	단가(3) 심청가(1) 춘향가(0) 수궁가(1) 흥보가(1) 적벽가(0)
1945년	<곡명없음>

## 2) 연주자

1940년대에 들어서서도 이전에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심상건과 오태석이 가장 대표적인 가야금병창 연주자로서 활동한다. 1940년을 예로 들면 강계란, 김봉란, 박성옥, 방응교, 조영학<sup>148)</sup> 등이 심상건과 오태석 외에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이들이었는데 이들은 거의 한 회 정도만 출연하고 있어서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8) 1940년 9월 29일/10월 3일/12월 2일에 평산쾌동(平山快童), 11월 19일에 청송상건(淸松相健,) 12월 17일에는 죽정태석(竹井太石)등의 창씨 개명한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창씨개명 전의 이름들로 통일시켜 표기했다.

<표 45> 1940년대 경성방송국 출연 가요금병창 연주자

연도	가요금병창 및 연주자 수		연주자명(1회 이상 출연횟수)			
1940	35	13	강계홍 강태홍 김봉란 류대복	박성옥(2) 방응교 심상건(7) 안기옥(2)	오택석(6) 정남희(3) 정달영	조영하 조영학(4) 신쾌동(3)
1941	29	13	○성기 강계홍 류대복	성금연(5) 성금화 신채란	신쾌동(6) 심상건(4) 오택석(2)	정남희(6) 조영학 한성기
1942	23	7	박상근 신쾌동(4)	심상건(8) 오택석	정남희(4) 조영학(3)	심금호
1943	25	11	○향옥 고계선 김연수	박상근 성금선(5) 성금연(2)	성금화 심상건(6) 오택석(2)	정남희(3) 조농옥(2)
1944	11	4	박상근(3)	심상건(4)	오택석(2)	정남희(2)
1945	12	5	박상근	신쾌동	심상건(2) 오택석(2) 정남희(2)	

위의 <표 45>에서 알 수 있듯이 1940년에는 거문고산조 신쾌동류를 만든 연주자 신쾌동이 가요금병창을 연주한 기록이 있다.<sup>149)</sup> 그리고 1943년에는 가요금산조로 유명한 성금연이 가요금병창 연주자로 등장한다. 이렇게 신쾌동, 성금연 등이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에 가장 많이 가요금병창을 연주한 이로는 심상건, 정남희, 오택석을 들 수 있다. 1940년대에 심상건은 총 31회 출연하였으며, 그 외에 정남희가 20회, 오택석이 15회 순으로 병창을 많이 연주했던 연주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1930년대부터 꾸준히 활동해 왔었다. 1940년대에는 이미 가요금병창의 향유층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기에 가요금병창이라는 장르에 새로운 연주자로 등장해서 인기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1940년대 가요금병창 연주자로서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수에 비해 유성기음반에 참여한 수는 훨씬 더 적어진다. <표 46>을 보면, 단 두 명

149) 이후 1941년 3월 27일/ 10월 18일, 1942년 6월 29일 등 신쾌동은 1940년대에 거문고산조는 물론 가요금병창 연주자로서도 활동했다.

의 연주자 정남희와 심상건이 1940년대에 유성기음반을 발매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1940년대까지 가야금병창 녹음에 참여한 연주자가 가야금산조의 명인으로 정평이 난 정남희와 심상건이라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표 46〉 1940년대 정남희, 심상건의 유성기음반 취입 현황

연도	연주자명(취입횟수)
1940	정남희(6)
1942	정남희(6)
1943	심상건(2)

## 5. 소결론

가야금병창은 20세기 초부터 매우 인기 있던 주요 장르였다. 1908년에 이미 박팔괘가 녹음한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이 발매되었으며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정순이 녹음한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도 발매된다. 1910년대에는 장안사, 단성사, 광무대와 같은 근대식 무대에서 가야금병창이 공연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박팔괘, 심정순 외에 이산옥 오옥엽과 같은 기생들도 가야금병창 연주자로서 등장했다. 1910년대까지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들을 확인해 보면 <새타령>과 같이 박팔괘와 심정순이 공통적으로 부른 곡도 있다. 즉, 1910년대에 가야금병창으로 연주되는 곡목들 중에는 <새타령>과 같이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공유하는 가야금병창 레퍼토리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10년대까지의 가야금병창의 연주형태는 심정순, 박팔괘의 경우와 같이 혼자서 연주하는 경우, 또는 이산옥과 오옥엽의 경우와 같이 두 명이 함께 연주하는 경우가 보인다. 심정순, 박팔괘는 모두 가야금병창이라는 음악의 창시라는 부분을 담당했던 전문 음악가들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혼자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이산옥, 오옥엽과 같이 기생으로

두 명 이상이 가야금병창을 함께 연주하는 것은 심정순, 박팔괘와 다르다. 이처럼 기생출신의 연주자 여러 명이 합주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형태는 이후 20세기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즉, 20세기 초부터 기생들이 가야금병창을 연주했으며 그 경우에는 심정순, 박팔괘 등 전문 음악인으로 활동한 이들과는 다르게 여러 명이 함께 합주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형태를 주로 취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야금병창 연주자가 전문 음악인인지, 혹은 기생인지의 신분 구분에 따라 연주 형태가 독주인지, 합주인지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이라는 음악 장르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야금병창은 공연, 유성기음반,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더욱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가야금음악이 된다. 1926년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이 시작된 이래 점차적으로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명으로 고정되어 방송 프로그램으로 소개된다. 이것은 1920년대 후반에 연주자가 노래를 하며 가야금을 연주하는 음악인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와 그 장르명이 확립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1920년대에 유성기음반에 녹음된 가야금병창 기록들을 확인해 보면, 1910년대에 판소리 계열의 노래를 가야금병창으로 연주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1920년대에는 판소리 다섯마당 전 바탕으로 레퍼토리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외에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병창들 중에는 남도잡가, 서도잡가, 가사도 등장해서 1920년대에 가야금병창 레퍼토리 확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레퍼토리 확장은 주로 라디오 방송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따로 언급할 만한 부분이다. 일단 녹음되어 발매되면 지속적으로 그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따랐던 유성기음반에 비해 라디오 방송으로 연주하는 음악은 ‘일회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에 연주자들이 유성기음반보다는 라디오 방송에서 새로운 레퍼토리의 시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920년대의 상황은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한편 1920년대에는 가야금병창에 장구 반주가 동반되는 연주 형태가 꽤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1920년대에는 연주회, 방송,



유성기음반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가야금병창을 연주자가 혼자, 또는 여럿이 합주로 연주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여기에 장구 반주의 포함은 선택적인 사항이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고정적으로 여러 차례 경성방송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등장한다. 심상건, 이소향, 이일선, 조우춘 등이 그 예이며 이 중 심상건, 이일선은 가야금병창 연주 중 전문 연주가에 속한다. 이들은 또한 가야금병창만 연주하기 보다는 산조도 함께 연주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당시의 상황이 가야금병창과 함께 산조의 연주까지 요구되면서 권번 소속 또는 출신의 기생이 아닌 전문 연주자가 가야금연주자로서 더욱 각광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가야금병창으로 연주되는 악곡이 눈에 띄게 판소리 계열 악곡들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1930년대 공연에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이들이 판소리 명창들과 함께 활동하고 유성기음반에도 판소리를 취입하면서 서서히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1930년대 중반 이후 가야금병창의 레퍼토리로서 단가와 판소리가 중심 역할을 하는 분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93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가야금병창을 중주 또는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 형태는 방송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당시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방송 여건이나 즉흥성을 수반하는 레퍼토리 등에 기인하여 중주보다는 독주의 형태가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32년까지는 드물게 고수가 등장하는데 1933년에는 거의 모든 가야금병창 연주 프로그램에 장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933년 이후의 가야금병창은 장단을 치는 고수가 함께 연주하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할 수 있겠다.

1930년대 병창을 연주한 이들 중 연주자의 성격에 따라 연주 레퍼토리를 달리 하는 양상도 보인다. 예를 들면, 심상건은 판소리 대목을 주로 연주하는 반면, 기생들은 민요와 잡가 외에도 유행가를 연주한다. 이러한 레퍼토리의 차이는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 안에서도 연주자 개인이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분야가 더 다양화 되는 경향으로 1930년대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1930년대의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경우 라디오 방송에 빈번하게 출연해서 지명도를 높였던 이들이 유성기음반까지 취입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반대로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이후에 방송 출연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1930년대 가야금병창과 관련해서는 당시 유행하던 유성기음반의 발매를 통해 예술성을 인정받은 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연결된 이들도 있었던 것이다.

1930년대까지 인기에 힘입어 발전해 나가던 가야금병창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1940년대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1940년대 까지 가야금병창은 방송 및 유성기음반, 공연 등에서 이전보다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 IV. 산조와 기악합주

가야금산조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전개 양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음악 장르이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는 산조라는 음악이 형성기를 지나 완성 및 발전해 나가던 시기이며 산조와 함께 다양한 기악 음악들 역시 존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산조와 그 외에 여러 기악들은 음악적 특징이나 연관성 등이 함께 고려되기도 한다.<sup>150)</sup> 이에 본 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산조와 함께 당시 가야금으로 연주했던 민요 반주나 민속음악 합주 등을 ‘민속 기악’이라 지칭하고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1. 1920년대 이전

가야금산조는 19세기 말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1920년대 이전의 가야금산조에 대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현재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20세기에 ‘산조’를 연주했던 가장 빠른 기록은 1913년에 덕수궁에서 다동기생조합 소속 남중(南中)기생 설경패(薛瓊貝)가 연주한 ‘가야금산조(伽倻琴酸調)’가 처음이고, 이 기록 외에 1910년대 산조가 서울에서 독립적 연주 종목으로 소개된 경우는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고 선행연구에 밝혀져 있다.<sup>151)</sup>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일신보』 기사에 1920년대 이전 가야금과 연관된 연주자로 심정순과 박팔괘의 공연 내용들이 나와 있다.<sup>152)</sup> 그

---

150) 권도희는 20세기 전반기의 산조 외에 <봉장취>, <살풀이>, <굿거리> 등 다양한 기악곡들을 산조와 함께 당시 기악곡을 논하는 연구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 『한국음악연구』 제59집, 한국국악학회, 2016, 7-38쪽.)

151)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 10쪽.

152) 김영희, 『매일신보 전통공연예술 관련기사 자료집 1』, 보고사, 2006, 41쪽, 56쪽, 101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8쪽, 121쪽, 124쪽, 132쪽, 135쪽, 136쪽, 160쪽, 172쪽, 173쪽, 353쪽, 444쪽 참고.

중 박팔괘는 박상근, 성금연 가야금산조로 이어지는 초기 산조를 연주한 이로 밝혀져 있다.<sup>153)</sup> 그러므로 박팔괘를 20세기 초기 산조연주자로 보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가야금산조에 대한 흔적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다. 신혜주는 그의 논문 「단성사 공연 활동에 관한 예술사적 연구-1910년~1918년대까지의 전통공연예술을 중심으로-」에서 1908년~1914년 단성사에서 공연된 악기연주 중 ‘가야금’이 35회, ‘박팔괘 가야금’이 12회 연주되었다고 했다.<sup>154)</sup> 『매일신보』 1915년 5월 30일자 기사에도 ‘유명한 박팔괘도 밤마다 단성사에서 가야금’ 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sup>155)</sup> 박팔괘가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경우는 ‘가야금병창’ 또는 ‘가야금(곡명)’과 같은 형태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는 가야금 산조를 연주했을 수 있다고 추측 가능하다. 따라서 1920년대 이전에는 가야금산조가 비록 유성기음반에 녹음되어 발매될 정도까지 발전하지 않았지만 공연 무대에서 소개되면서 청중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전 연주된 가야금산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곡목 등은 알기 어렵다. 또한 가야금산조 외에 가야금으로 연주한 민속 기악에 대한 기록 역시 찾을 수 없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불가능했다.

## 2. 1920년대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20년대 가야금산조에 대한 기록은 신문기사,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목록, 유성기음반<sup>156)</sup>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 신문에 수록된 기사

153) 이보형, 「박팔괘의 생애와 예술」, 271-272쪽.

154) 신혜주, 「단성사 공연 활동에 관한 예술사적 연구 - 1910년-1918년대까지의 전통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56집, 한국음악사학회, 2016, 239쪽.

155) 김영희, 『매일신보 전통공연예술 관련기사 자료집 1』, 173쪽.

156) 가야금산조 유성기음반 발매년도는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의 자료를 참고했다.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가야금산조 관련 내용을 제시해 보면 우선 1926년 8월 15일의 『동아일보』 기사가 있다.

音樂大會 本支局主催

農繁期를 거치여 百種에 이르는 農村人士들의 疲勞한 心身을 慰勞하는 同時에 따라서 本報愛讀諸氏에게 一時의 歡樂일지라도 일우어 주고 저 本報高山支局에서는 來二十二日(陰十五日) 午後 八時부터 當地 東山大觀亭에서 朝鮮音樂大演奏會를 開催할터인 바 會館을 高山郡에 設置한 朝鮮音樂研究會員들의 主演으로써 他處에서 請聘한 樂士들과 갓치 左記와 如한 順序로써 演奏하며 音樂會를 마치고 餘興으로 投票及抽籤을 行할터이라더라(高山)

◇會順

一部 三十分間 洋樂

二部 詩調, 伽倻琴散調, 歌曲, 短歌, 伽倻琴竝唱, 管絃樂, 風流, 詩調 詞 등 기타<sup>157)</sup>

위 기사를 보면 1920년대에 가야금병창과 함께 가야금산조 역시 무대에서 공연되는 레퍼토리라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그 무대가 전라북도 고산에 설치되었다는 것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1920년대에 가야금산조가 연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당시 각 지방에서 가야금산조가 연주된 것은 아래의 1927년 12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大邱金泉訪問 朝鮮正樂大會

금일부터 사흘동안

경성여자미술학교(京城女子美術學校) 주최와 대구(大邱) 세 신문지국

---

157) 『동아일보』 1926년 8월 15일 5면.

후원으로 조선정악대회(朝鮮正樂大會)를 금 이십일일은 대구조양관(大邱朝陽館)에서 명 이십이일은 대구좌(大邱座)에서 매일밤 일곱시부터 열터인데 목덕은 조선고악을 부활하려 함이라하며 낮에는 대구 각 남녀학교를 순회하며 정악을 교재(敎材)로 들린다하며 악사는 정악 외에 성악으로 리동백(李東伯)군 『가야금』 『산조』로 심상건(沈相健)군과 리화녀자전문의 정악강사도 출연할터이라는 바 귀경도중에는 김천에 들러 대회를 열터이라더라<sup>158)</sup>

이 기사에서도 공연무대에 심상건이 연주하는 가야금산조가 레퍼토리로 올려지는 것이 확인되며 그 지역은 대구와 김천이다. 즉, 1920년대에 전라도 경상도 등지에서 가야금산조의 공연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평양에서도 가야금산조로 짐작되는 레퍼토리가 공연되었다.

朝鮮古樂大會 斯界名唱總出演

경성여자미술학교 주최와 본보 평양지국 후원아에서 평양백씨관 개최

[평양]우리 고악(古樂)은 침체상태에 있고 현존한 그것이나마 더급의 오락물이 되어있는 이 때 고악부활(古樂復活)의 첫시험으로 조선정악대회(朝鮮正樂大會)를 경성여자미술학교(京城女子美術學校) 주최 평양고독청년회와 본보 평양지국후원하에 오는 십팔일 십구일 이십일일 삼일간 오후 여덟시부터 부내백선행기념관(白善行紀念館)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령산회상(靈山會像)을 주연으로 하고 산도병창(散調竝唱)과 가사(歌詞)등을 조연으로 악사는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 기타 각곳에서 사계의 명사를 초빙하여 개최코저 하는데 실로 금번대회는 고악부흥(古樂復興)의 호시로써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 역사적 참고로 드를 사람, 예술의 가치를 들을즈려는 이는 쟁을 일치 말고 드를것이라는데 료금은 특 일원 보통 룽십전 학생 삼십전으로 (特別히 本報 平壤讀者로 讀者卷을 소지자는 三十錢) 다수히 참석하기 바란다더라<sup>159)</sup>

이렇게 1920년대에 공연 무대에서 가야금산조가 연주되었고 그 연주

158) 『동아일보』 1927년 12월 21일자 3면.

159) 『동아일보』 1929년 10월 17일자 3면.

자로 이름을 알 수 있는 이로는 심상건이 있다. 또한 1920년대에 서울이 아닌 고산, 대구, 김천, 평양 등 전국 각지의 무대에서 가야금산조가 소개되고 있었다.

1920년대에 발매된 유성기음반 중에서는 1925년 발매된 김해선이 연주한 가야금산조 음반이 가장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장양조산조>, <중머리산조> 그리고 <頻驅散調잔모리>가 수록곡이다. 1926년에는 모두 제비표조선레코드에서 세 장의 음반이 발매되는데 심상건의 연주로 <진양도>, <느린중머리>, <자신중머리>, <당학>이 녹음되어 있다.

1929년에는 일축조선소리판에서 한 장의 가야금산조 음반이 발매됐는데, 안기옥의 연주로 <진양도>가 녹음되어 있다. 또한 Columbia에서 심상건의 연주로 모두 세 장의 음반이 발매됐는데 <잔머리>, <엇중머리>, <자진잔머리>, <당학>이다. 1927년과 28년에는 음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1927년에 가야금병창 음반이 17장(재발매 포함)이 발매되는 것과 비교된다. 1920년대까지도 가야금산조가 가야금병창에 비해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한 음악이었던 것이다.

<표 47> 1920년대 유성기음반으로 발매된 가야금산조

발매연도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
1925	장양조산조, 중머리산조	김해선/한성준	넙보노홍K506/A,B
	잔모리	김해선/한성준	넙보노홍K575/A,B
1926	가야금산조(1)(2) 진양도	심상건/한성기(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1/A,B
	가야금산조(3)느린중머리, (4)자진중모리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65/A,B
	가야금산조(5)(6)당학(상,하)	심상건/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132/A,B
1929	가야금독주 진양도	안기옥/이흥원	일축조선소리판K804/B
	느린중머리(상)(하)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40/A,B
	잔머리, 엇중머리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49/A,B
	자진잔머리, 당학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60/A,B

이렇게 위의 <표 47> 같이 총 9장의 가야금산조 음반이 1920년대에 발표되는데, 장단명을 살펴보면, 모두 현행과 같이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심상건이

연주한 <당학>과 <엇중모리>와 같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장단명도 보인다. 당학은 현행 산조의 휘모리와 단모리에 해당되고, 엇중모리는 심상건의 녹음에만 보이며 현행 산조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2소박 6박자의 장단이다.<sup>160)</sup>

한편, 1920년대에 발표된 9개의 유성기음반 중에서 고수의 반주가 포함된 경우는 7개로 당시 고수가 가야금산조 연주 시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겠다.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서 가야금산조 연주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표 48>과 같이 1927년 2월 20일이다. 그 후 3월 18일에도 한 번 더 나타나는데 두 번의 방송출연에서 모두 심상건이 가야금병창과 함께 가야금산조를 연주했다.

<표 48> 1927년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산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20	남도단가(가야금병창)	산조, 신관봉접, 기생접고	심상건
3.18	가야금병창	산조, 단가	심상건

그 후 1928년에는 가야금병창과 함께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경우가 19회 그리고 병창 없이 가야금산조만 따로 방송된 경우가 1928년 12월 6일<sup>161)</sup>에 1회 나타난다. 같은 시간대에 <서도잡가>와 <조선정악>, <가사>가 같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 이때의 가야금산조 연주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929년에도 역시 방송에서 가야금산조가 연주되는데 안기옥 외에도 정남희, 김운선 등이 연주자로 확인된다. 그 횟수 역시 1928년보다 두 배 정도 많아진 44회로 1920년대에 산조가 가야금의 고정 레퍼토리로서 자리 잡아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중 산조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20년대에 이미 가야금이 가야금병창의 경우에

160) 권도희,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 15쪽.

161) “1928.12.6.(목) 20:40- 매일 <조선정악><서도잡가><가야금산조><가사>”,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62쪽.



서처럼 소리와 함께 연주하는 부수적인 악기가 아닌 순수 기악을 연주하는 독주 악기로서 그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표 49>와 같이 가야금산조의 유성기음반 발매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가야금산조는 방송이라는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욱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인기는 1928년, 1929년 등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를 반영해서 가야금산조의 유성기음반의 발매 역시 더욱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49> 1920년대 가야금산조의 방송 횟수와 유성기음반  
발매현황

연도	경성방송국 연주 횟수	유성기음반
1925	없음	2
1926	없음	3
1927	2	없음
1928	20	없음
1929	44	4
총	66	9

그런데 1920년대에 산조가 방송될 때 특이한 것은 가야금병창에 이어서 연주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야금산조만 30분 동안 방송하면 청취자가 몰라서, 먼저 병창을 15분간 방송하고 후에 산조를 15분 타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에는 가야금산조를 지금 같이 길게 감상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또한 남도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는 가야금산조는 감상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sup>162)</sup> 따라서 라디오 방송 중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나 기악합주곡은 청취자들에게 익숙한 가야금병창과 함께 편성해서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920년대 산조 외에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속기악의 경우 역시 유성

162) 이혜구, 「1930年代의 국악방송」, 249-259쪽.

기음반으로 발매된 경우가 먼저 보인다. <표 50>을 살펴보면, 그 중 가야금이 독주로 연주한 경우가 네 번, 기악 합주에 가야금이 편성된 경우가 두 번, 노래 등의 반주인 경우가 열 번이었다. 1925년 11월 8일의 『동아일보』 광고에 의하면 일축조선소리반K543B 음반은 심정순이 <자진시나위>, <배달가>, <난봉가>를 연주하고 한성준이 반주를 맡은 것을 녹음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일축조선소리반K566/A,B에서 <굿거리>, <자진굿거리>를 독주로 녹음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가야금병창이나 산조에 비해서 그 수가 현저히 적지만 역시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레퍼토리 확장에 대한 시도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겠다.

<표 50> 192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 기악합주 및 성악반주 형태

연도	곡명	연주자/ 반주자	음반번호
1925	<배달가, 난봉가> <자진시나위>	심정순/ 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43/A,B
	삼남산타령(1)(2)	신금홍/ 권금주(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27/A,B
1926	대장부허랑하여(상), 춘향몽중가(하)	박월정/ 심상건(가야금), 한성준(장고)	체비표조선레코드B44/A,B
	비조가(상)(하)	박월정/ 심상건(가야금), 한성준(장고)	체비표조선레코드B임24/A,B
	육자배기(상), 자진육자배기	박월정/ 심상건(가야금), 한성준(장고)	체비표조선레코드B46/A,B
	체비가(상)(하)	박월정/ 심상건(가야금), 한성준(장고)	체비표조선레코드B임25/A,B
1927	굿거리, 도드리	심상건(가야금)/ 지용구(해금)	체비표조선레코드B154/A,B
	굿거리, 자진굿거리	심정순	일축조선소리반K566/A,B

한편, 1920년대 경성방송국에서는 정확한 곡명은 나타나지 않지만 1928년(17회)과 1929년(8회)에 기악합주와 성악반주 형태가 나타난다.

기악 합주 형태의 ‘가야금과 대금(독주) 및 합주’가 14회, ‘가야금과 단소 합주’가 3회가 있고, 성악반주로 가야금이 포함된 경우는 ‘가야금과 남도단가(잡가) 독창(합창) 및 합주’ 4회, ‘가야금과 서도잡가 합주’ 3회, ‘가야금 합주·남도단가 합창’ 1회 나타난다.

이처럼 1920년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기악곡은 산조가 대표적인 레퍼토리였지만 그 외에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합주 형태의 음악 역시 가야금음악의 레퍼토리로 등장했던 것이다. <표 51>를 보면, 1928년 10월 27일의 경성방송국 라디오프로그램에는 가야금병창에 이어서 가야금과 대금이 합주했다는 기록이 있다.<sup>163)</sup> 이 때 연주한 이는 이소향과 대금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박종기인데 역시 같은 이들이 11월 17일에도 같은 레퍼토리로 출연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64)</sup> 1929년 1월 11일에도 가야금연주자는 박동준이지만 역시 박종기가 함께 등장해서 가야금과 합주를 한다.<sup>165)</sup> 이러한 가야금과 대금의 기악합주 형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가야금 레퍼토리의 확장을 시도했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1>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기악합주 및 성악반주 형태

구분(장르)	연도	날짜	연주자
가야금과 대금(독주) 및 합주	1928	1.28/8.3/10.12/ 10.27/11.17	이소향(가야금)/ 박종기(대금)
		5.10/5.17/6.7	박동준(가야금)/ 박종기(대금)
		7.13/7.25/ 10.1/12.24	김해선(가야금)/ 박종기(대금)
	1929	1.11	박동준(가야금)/ 박종기(대금)
		5.1	김해선(가야금)/ 박종기(대금)
가야금과 단소 합주	1928	11.23	김우학(가야금)/ 송영준(단소)
	1929	1.28/2.17	김우학(가야금)/ 송영준(단소)
가야금 합주 남도단가 합창	1928	9.3	김산월/ 김선화(가야금)
가야금과 남도단가(잡가) 독창(합창) 및 합주	1928	12.15	이금옥/ 김우학(가야금)
	1929	1.17	박녹주/ 하농주/ 이소향/ 이옥향(가야금)
		2.1	이옥화/ 김연수(가야금)/ 박종기(교수)
		4.23	박녹주/ 하농주/ 오태석/ 안기옥(가야금)
가야금과 서도잡가 합주	1928	9.14	김우학(가야금)/ 손진홍(좌창)
		10.13	김우학(가야금)/ 이진봉(창)
	1929	3.16	김우학(가야금)/ 이성(창)

163)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60쪽.

164)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61쪽.

165)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64쪽.

## 2) 연주자

1920년대에 경성라디오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이로는 강소춘, 김옥희, 김운선, 김종기, 김해선, 심상건, 안기옥, 오태석 등이다. 이중에서 심상건이 1927년 방송에서 가장 처음으로 산조를 연주했다. <표 52>와 같이 1928년에는 안기옥이 경성방송에 13회 출연해서 산조 연주가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안기옥의 예와 같이 1920년대 후반에는 가야금산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이로 등장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당시 가야금 연주곡으로 병창 이외에 산조도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산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이들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1929년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데 가야금병창과 산조를 모두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기옥은 1929년에 4회만 출연하고 정남희도 5회에 걸쳐 오태석과 함께 출연하여 서로 산조와 병창을 나눠서 연주했다. 그러나 이 9회 빼고는 1929년의 방송에서는 한명의 연주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산조와 병창을 병행해서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소향이 12회로 가장 많이 연주를 하였고, 심상건이 8회, 김운선과, 김옥희, 김해선이 각각 2회, 그리고 강소춘, 김종기, 조우춘은 1회씩 출연하여 산조와 병창을 연주했다. 정남희도 1회 산조와 병창을 같이 연주한 경우가 있는데, 정남희는 30년대 중반 이후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에 반해 안기옥은 가야금 전문 연주자이지만 병창과 산조 모두를 할 수 있는 연주자들에 비해 출연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2>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연주자

연도	산조횟수	연주자명(1회 이상 출연횟수)				음반(장)
1925						김해선(2)
1926						심상건(3)
1927	2	심상건(2)				
1928	20	김운선 이소향	심상건(5)	안기옥(13)	오택석	
1929	44	강소춘 김옥희(2) 정남희(6)	김운선(2) 김종기 조우춘	김해선(2) 심상건(8)	안기옥(4) 이소향(12)	안기옥(1) 심상건(3)

1920년대 전체로 살펴보면, 안기옥이 17회로 산조를 가장 많이 연주하였고, 그 다음으로 심상건이 15회, 이소향이 13회 순으로 출연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당시 가야금산조 연주자인 안기옥, 심상건, 이소향이 서로 비슷한 정도의 횟수로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것에 반해서 유성기음반에는 심상건이 월등히 많은 양의 녹음을 남긴다. 위의 <표 52>와 같이, 심상건은 1926년, 1929년에 모두 6장의 음반을 발표했는데 안기옥은 1929년에 <진양도>를 녹음한 음반 한 장을 발매할 뿐이다. 그에 앞서 김해선은 20년대 방송에서는 2회만 출연하지만 가야금산조로는 가장 처음으로 1925년에 유성기음반을 발매한다.

심정순, 심상건, 김해선, 신금홍 등의 연주자는 <표 53>과 같이 1920년대부터 유성기음반에 여러 기악곡을 녹음한 것이 확인된다. 심정순은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서는 병창으로만 활동을 했는데 유성기음반에서는 가야금독주로 더 많은 활동을 했다. 심정순은 경성방송에서는 병창으로만 잠깐 출연하는데 비해 유성기음반에는 가야금독주를 네 곡 녹음했다. 이는 당시 심정순이 병창뿐만 아니라 가야금연주자로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표 53> 1920년대 유성기음반 민속기악 연주편성

\*가야금이 포함된 경우만 제시하였다

연대	구분(장르)	연주자(음반발매)
1920년대	가야금독주	심정순(2)
	가야금+ 기악합주	심상건(1)
	기타(가야금반주)	권금주(1) 심상건(4)

한편, <표 54>을 보면 192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병창과 산조 연주 외에도 다른 악기와 합주, 민요 등의 반주에 참여한 가야금연주자는 11명이다. 이들 중에는 산조와 병창을 연주했던 김해선, 박동준, 이소향, 오태석, 김연수, 이옥화, 안기옥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김우학의 경우와 같이 병창 또는 산조 연주자로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단소와의 합주 그리고 서도소리 반주자 등으로만 그 이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54> 192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기악 및 성악반주 연주자

구분(장르)	연주자(출연횟수)
가야금+ 기악합주	김우학(3) 김해선(5) 박동준(4) 이소향(5)
기타(가야금반주)	김산월(1) 김선화(1) 김연수(1) 김우학(4) 안기옥(1) 오태석(1) 이소향(1) 이옥향(1) 이옥화(1)

### 3. 1930년대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30년대부터 가야금산조의 공연 등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이 1938년 11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 산조가야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풍류가야금보다 작고 안쪽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가야금산조는 이미 당시에 유통되는 음악으

로서 당연시되고 있었으며, 산조가야금이라 부르고 있는 가야금이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는 바이다.

朝鮮雅樂器의 構造와 그 性能(8)

…또 伽倻琴에는 두가지 種類가 있다 하나는 風流伽倻琴이고 또 하나는 散調伽倻琴이라 한다. 아마 散調伽倻琴은 近代에 와서 변한 것 같다. 風流伽倻琴에 比하면 形體가 좀 적고 雁足이 높다. 그리고 현의 調律은 달르게 하고 있다…166)

1930년대에는 21여장의 가야금산조 유성기음반이 발매되었다. 강태홍, 김금암, 김운선, 함동정월이 각각 1장, 김종기 5장, 심상건 2장, 정남희 5장, 한성기 5장 등이다. 녹음된 곡들을 살펴보면 장단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가 기본 형태로 유지되는 가운데 연주자의 개성에 따라 특정 장단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인다.

강태홍은 <진양 중머리, 자진 중머리, 잔머리>, 김금암은 <중모리, 잔모리>, 김운선은 <중머리, 원머리>, 김종기는 <중머리, 잔머리, 살풀이, 자진중머리, 자진머리, 자진당학, 진양(상)(하), 중모리(상)(하)>, 심상건은 <진양조, 사설, 다스름, 진양, 엇머리, 중머리>, 정남희는 <진양조(1)(2), 중머리(3)(4), 중중머리(엇머리)(5), 잔머리(6)>, 한성기는 <굿거리, 당학, 진양(상)(하), 중머리, 엇머리, 잔머리, 당학, 진양조, 중머리>, 함동정월은 <굿거리, 중머리>를 연주하였다.

이중에서 김운선의 <원머리>, 김종기의 <살풀이, 자진당학>, 심상건의 <사설>, 한성기의 <당학> 등은 현행 가야금산조에는 보이지 않는 장단 이름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가야금산조 연주자의 즉흥적인 연주 및 이에 대한 곡명 부여 등의 상황을 엿 볼 수 있겠다.

20세기 전반기에 발매된 가야금산조 유성기음반을 <표 55>에서 살펴보면, 유성기음반에 담을 수 있는 시간제한 상 한 면에 한 장단별로 채워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30년대 후반에는 한 장단을 상, 하로 나누어 두 면에 나눠서 녹음하기도 한다. 한성기는 1933년에 <진양조>

166) 『동아일보』 1938년 11월 25일 3면.

를, 김종기와 정남희는 <진양조, 중모리>를 각각 1936년과 1939년에 음반 두 면에 나눠서 담은 것을 볼 수 있다. <진양조, 중모리> 같은 경우 장단이 느려서 가락을 다 담을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1931년에 발매된 강태홍의 연주 같은 경우는 한 면에 <진양, 중머리>, <자진중머리, 잔모리>를 묶어서 담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한성기, 김종기, 정남희 이들의 가락은 다른 이들에 비해 음반에 담을 만큼의 짜임새 있는 가락이 많았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5> 193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산조 목록

발매연도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
1930	중머리, 잔머리	김종기	일죽조선소리판K8입09/A,B
1931	다스름, 진양	심상건	RegalC183/A,B
	진양조, 사설	심상건	Columbia40280/A,B
	굿거리, 당학	한성기	Tombo500입13/A,B
	진양 중머리, 자진중모리, 잔모리	강태홍/ 한성준(고)	VictorKJ1342/A,B
1933	진양(상)(하)	한성기/ 주난향(고)	Taihei9000/A,B
	중머리, 엇머리	한성기/ 주난향(고)	Taihei9001/A,B
	잔머리, 당학	한성기/ 주난향(고)	Taihei9002/A,B
	진양조, 중머리	한성기/ 이화성(고)	Chieron52/A,B
1934	중머리, 원머리	김운선/ 김창선(고)	Polydor19013/A,B
	진양도(一·二)	정남희/ 한성준(장고)	Regal C199/A,B
	중머리, 중중머리, 잔머리	정남희/ 한성준(장고)	RegalC263/A,B
1936	진양(상)(하)	김종기/ 박녹주(장)	Okeh1869/A,B
	중모리(상)(하)	김종기/ 박녹주(고)	Okeh1870/A,B
	살풀이, 자진중머리	김종기	Okeh1871/A,B
	자진머리, 자진당학	김종기	Okeh1872/A,B
1937	굿거리, 중머리	함동정월/ 김성채(장)	Columbia40759/A,B
1938	중모리, 잔모리	김금암	Okeh12108/A,B
1939	진양조(1)(2)	정남희/ 한성준(고)	ColumbiaC2005/A,B
	중머리(3)(4)	정남희/ 한성준(고)	ColumbiaC2006/A,B
	중중머리(엇머리)(5)	정남희/ 한성준(고)	ColumbiaC2007/A,B
	잔머리(6)		



1930년 이후 산조는 경성방송에서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주된 레퍼토리로서 소개된다. <표 56>과 같이 1930년에 2월 14일 이후 가야금산조가 방송된 것은 20회에 가까운데 이 때 프로그램의 소개를 보면 1920년대와는 다르게 병창이 우선이 아닌 ‘가야금산조와 병창’이라는 장르명으로 되어있다. 즉, 1920년대는 가야금병창을 우선으로 내세우던 것이 1930년 이후에는 가야금산조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봐서 이미 가야금산조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음악들 중 주요 레퍼토리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0년대는 가야금병창의 연주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병창만 연주하는 경우보다 산조와 병행해서 연주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1920년대는 가야금병창의 힘을 빌어서 함께 연주하는 음악으로서 방송에 등장하던 산조가,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유성기음반의 발매가 증가될 정도로 음악적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방송에서도 가야금산조가 병창보다 우선적으로 유통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표 56>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연주 횟수

연도	경성방송국 연주 횟수			유성기음반 발매수	
	병창	산조	*연주형태별 구분 병창+ 산조/산조	병창	산조
1930	40	18	18/0	10	1
1931	18	20	20/0	19	4
1932	26	12	12/0	34	
1933	35	24	23/1	40	4
1934	48	24	23/1	48	3
1935	32	21	21/0	22	
1936	43	41	38/3	27	4
1937	35	29	28/1	19	1
1938	27	30	29(2)**/1	8	1
1939	13	35	33(5)**/2	5	3
총	317	254	245(7)/9	232	21

\*\* ( )는 현금산조를 나타냄.

한편 유성기음반에는 정확한 장단명이 1920년대부터 명시된 것에 비해 경성방송국 목록에는 1930년에서 1932년 사이에는 산조의 장단명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1933년에 경성방송국에서 방송된 가야금산조 중 장단의 이름을 표시한 것들이 보인다. <진양조>, <(느진)중머리>, <중중머리>, <잔머리>, <가진머리>, <자진머리> 등의 장단명이 방송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 57>을 보면 1933년에 방송된 가야금산조 중 5월 21일에 방송된 김운선이 연주하는 가야금에서 장단명을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잔머리>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는 물론 이 시기에 가야금산조의 이와 같은 장단들이 완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30분이라는 방송시간에 가야금산조를 병창 등과 함께 편성하는 것이 아닌, 단독으로 편성해서 길게 연주하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sup>167)</sup> 이는 당시 가야금산조가 30분 내내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음악적 짜임새를 갖추었기에도 가능했지만, 향유층 역시 두터워져 30분 정도 연주된 가야금산조를 들을 수 있는 청중이 확보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57> 1933년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곡목

연주자	날짜	곡목
김운선	5.21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잔머리
심상진	7.2	중머리, 가진머리,
	7.26	느진중머리, 잔머리,
	8.31	중머리, 자진머리
	9.17	진양조, 중머리
	6.8/10.2/10.22/11.5	중머리, 잔머리
김은자	12.13	진양조, 중머리, 자진머리

167) 1933년 5월 21일 편성표를 보면, 19:30에 가곡(여창)/20:05에 가야금산조/20:30에 지름과 속요/21:00에 연속 창극조가 30분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34쪽)

그러나 앞의 <표 5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의 가야금산조는 전 장단이 모두 연주되는 경우는 드물고 <중모리>와 <자진모리> 등 일부 장단만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전 장단을 연주하는 경우는 1933년 5월 21일에 방송된 김운선의 연주의 예와 같이 아직 시도에 그치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표 58>을 보면 이후 1934년에 이르러서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산조의 경우는 대부분 장단명을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때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이어서 연주하는 경우가 주로 많았다. 심상건의 경우 1934년 4월 17일의 방송에서 <중모리>, <엇모리>, <잔모리> 순으로 연주한 점이 특이하다.

또한 1932년 이전까지는 장구 반주자가 가끔 동반된 반면 1933년부터는 항상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8> 1934년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곡목

연주자	날짜	곡목
김은자	1.29/2.20/4.26/5.22	진양조(도), 중모리(몰이), 자진(찾은)모리
	4.26	진양조, 중몰이, 찾은몰이
김은자/ 김채련	3.7	중모리, 자진모리
심상건	3.2	중모리, 잔모리
	4.17	중모리, 엇모리, 잔모리
강태홍	5.17/6.11/12.16	진양조(도), 중머리, 잔(자진,가진)머리
김종기	6.27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12.27	진양조, 중모리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1934년의 방송 상황을 보면 당시 가야금 산조가 매우 중요한 전통음악의 레퍼토리로서 자리 잡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경성방송 개국 이래 일본 중계를 시도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 매우 좋아졌으며 이에 가야금산조 역시 일본에 중

계하는 방송에 포함시키는 곡으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全國中繼의 伽倻琴 放送

금년벽두부터 개시한 DK 송출 전 일본 중계의 정기방송은 실시 이래 회를 거듭할수록 일본 각지에서 더욱 절찬을 박하고 있는데, 이번 칠일 밤 (여덟시부터 삼십분 간)에는 김은자, 김채련 두 명기의가야금 산조를 방송하기로 되었다 한다. 더욱 삼월 중의 전 일본 중계방송은 전부 삼회로 이밖에 이십일 저녁에 강연, 이십육일의 어린이 시간 등이 있다 한다.<sup>168)</sup>

이렇게 1934년 3월 7일에 저녁 8시 30분부터 30분간 가야금산조가 전국에 중계된 방송은 독주악기로서 가야금이 대중성과 위상을 동시에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산조를 30분간 연주를 했다는 것은 당시 산조의 연주 길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1930년대 가야금산조에 대한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1935년 7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된 음악 관련 강의에 관한 방송이 있다. 이 방송에서는 이기세라는 당시 음반회사 기획자가 나와서 음악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가 선택한 주제가 바로 <조선음악 기본운동과 가야금산조에 대하여>였던 것이다.<sup>169)</sup> 이기세는 조선음률협회 발기인이자 빅터사 문예부장을 지낸 인물로 판소리 개량운동 등 한국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 선 사람이다.<sup>170)</sup> 그가 가야금병창이 아닌 기악곡 가야금산조를 방송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는 것은 1930년대에 가야금산조가 가야금병창을 제치고 가야금음악의 중요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1936년의 경우 최봉익이 5월 27일 방송에 출연해 연주한 가야금산조에서 <진양조> 대신 <평타령>이라는 것을 연주하고 그 후에 <자진모리>를 연주한다.<sup>171)</sup> 또한 <표 59>를 보면, 6월 16일에 심상건이

168) 『매일신보』 1934년 3월 8일자 6면.

169)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245쪽.

170) 『한겨레음악인대사전』, 619쪽.

171)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280쪽.

연주한 가야금 역시 <진양조>가 아닌 <다스름>을 연주하고 <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다. 이 중 <평타령>은 그 음원이 확인되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스름>은 오늘날 산조를 본격적으로 연주하기 전에 연주하는 부분으로 심상건이 1930년대 중반에 이 부분을 산조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1937년에는 <자진모리>에 이어서 오늘날의 <휘모리>에 해당하는 <당학>을 연주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1937년 12월 15일 심상건이 가야금산조를 <중모리>에서 시작해서 <자진모리>, <당학>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1938년, 1939년 방송 목록들을 참고해 보면 심상건은 이렇게 <중모리>로 시작해서 <당학>으로 끝내는 레퍼토리들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가야금산조 향유층이 확대되고 여러 연주자가 가야금산조를 연주하면서 각 연주자별로 자신의 개성 또는 기량을 담은 레퍼토리를 개발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중모리>에서 <자진모리>, <당학>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시 심상건만의 레퍼토리였던 것이다.

<표 59> 1930년대 경성방송국에서 연주된 심상건의 가야금산조

연주기간	연주유형	연주횟수
1930.4.13~1936.5.17	산조	17회
1933.6.8~1939.11.14	(느진)중모리+ (가진, 자진)잔모리	13회
1933.9.17, 1938.11.7	진양조+ 중모리	2회
1933.4.17	중머리+ 엇모리+ 잔모리	1회
1935.5.8.~1939.10.19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9회
1936.6.16~1937.4.22	다스름+ 중모리+ 자진모리	5회
1937.7.2~1939.11.26	중모리+ 자진(중)모리+ 당학	14회

1939년에 들어서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가야금산조의 연주형태로 주목되는 것은 <진양조> 또는 <중중모리> 등 한 장단만을 연주해서 방송 시간을 채우는 경우이다. <표 60>를 살펴보면, 1939년 9월 4일<sup>172)</sup>에 정영준이 출연해서 가야금산조를 연주하는데 이 때 중중모리만 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2월 23일<sup>173)</sup>에 강태홍이 출연해서 역시 진양조만 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 시기 가야금산조의 장단별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한 장단만으로 ‘가야금산조’라는 곡명을 연주해낼 만큼 짜임새 있는 각 장단의 구조가 완성되어 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라디오방송에서 가야금산조의 한 장단만을 연주해도 가능하게 된 건 유성기음반의 녹음에 있어서 각 장단별로 한 면에 녹음이 가능하도록 음악적 구성이 완성되는 1930년대의 흐름의 반영이기도 하다.

<표 60> 1939년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곡목

날짜	연주자	곡목
강태홍	1.24/5.16/11.18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12.23	진양조
	3.14	중모리, 자진모리
	10.5	진양조, 자진모리
김여란	4.15	중모리, 자진모리
김채련	1.29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박동준	10.13	진양조, 중모리,
	12.28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박상근	3.19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신관영	12.3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심상건	1.12/2.3/5.4/6.25/11.26	중모리, 자진모리, 당학
	9.10/11.14	중모리, 자진모리
	10.19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4.1	중모리, 자진中모리, 당학
안기옥	12.12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오택석	4.16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이소향	2.19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남희	1.19/2.26/3.23/4.26/7.11/9.28/12.6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영준	9.4	중중모리

172) 1939.9.4(월) 20:40에 가야금산조(중중모리)/대금 산조(중모리-중중모리)/봉장취가 편성되었다.(『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423쪽)

173) 1939.12.23(토)에 가야금산조(진양조)/병창(단가 창랑가, 창극조 박타령)이 편성되었다.(『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434쪽)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속음악이 담긴 1930년대의 유성기음반을 <표 61>에 살펴보면 가야금이 독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악합주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노래 반주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61> 1930년대 유성기음반 가야금 기악합주 및 성악반주 형태

연대	구분(장르)	연주자(1회 이상 출연횟수)		
1930년대	가야금독주	김우학		
	가야금+ 기악합주	강태홍(2)	심상건(10)	이일선(4)
	기타(가야금반주)	가야금(33)	김종기(4)	이소향(3)
		강태홍(2)	김철성(5)	이일선
		김갑자	석산월(1)	일본콜롬비아와 가야금(1)
		김금암(2)	심상건(5)	정남희(2)
		김우학(10)	오비취(2)	조상선(2)
		김일춘(4)	오택석(4)	채규화

1930년대 초반의 유성기음반들을 보면 아래의 <표 62>과 같이 민요 반주나 판소리반주 등에 가야금이 편성되는 정도였다.

<표 62> 1931, 1932년에 발매된 가야금 민속악 유성기음반

연도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
1931	신이팔가, 아리랑	석산월/가야금	Tombo50006/A,B
	넌리리야, 아리아리랑	석산월/가야금	Tombo50015/A,B
1932	넌리리야, 아리아리랑	이영산홍,김옥엽/가야금,장고	Chieron3/A,B
	아리랑	김옥엽/석산월(가야금)	Chieron26/B
	홍부전 홍부복거(상)(하)	김초향/강태홍(가야금),한성준(장고)	Victor49131/A,B

그런데 1930년대 중반에 이르게 되면 가야금이 편성되는 민속악의 폭은 매우 다양해진다. <표 63>에 나타난 1936년에 발매된 유성기음반을 보면 가야금은 <봉장취>나 산조의 <진양조>, <평타령>, <잔머리>, 민요 <한강수타령> 등을 다른 악기들과 함께 합주로 연주하기도 한다.

<표 63> 1936년에 발매된 가야금 민속악 유성기음반

제목	연주자	음반번호
봉장취(상)(하)	강태홍(가야금), 박종기(대금), 최계란(장고)	MillionCM809/A,B
진양조, 평타령	심상건(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준(해금), 한성준(장고)	VictorKJ1046/A,B
잔머리	심상건(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준(해금), 한성준(장고)	VictorKJ1047/B
한강수타령	심상건(가야금),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고), 정해시(통소), 김매홍(탐버린)	VictorKJ1066/A

그러나 그 외에 가야금이 반주 악기로서 편성하는 음악은 훨씬 그 폭이 넓어진다. 경기민요, 남도민요, 판소리, 신민요, 당시의 대중가요, 무가 등의 반주에 가야금이 포함되는 것이다.

<표 64> 1930년대 중반 유성기음반에 녹음된 가야금 반주

구분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
경기민요 반주	홍공단타령	이영산홍/장고, 가야금, 대금, 세적	MillionCM808
	자진방아타령	이옥화/강춘섭(초금), 오비취(가야금), 한성준(장고)	RegalC315/B
	자진방아타령	김태운/고재덕(세적), 김칠성(가야금), 민완식(장고)	Columbia40641/B
	군밤타령	이소향, 유농주/가야금, 대금	Taihei8219/B
	청춘가	김옥엽/장고, 해금, 가야금	Victor49397/B
남도민요 반주	등개타령	이소향, 유농주/가야금, 대금	Taihei8219/A
	보름, 새타령	최계란, 조소옥/장고, 가야금, 대금	MillionCM805/A,B
판소리 반주	적벽야유, 춘향가(돈타령)	김옥진/심상건(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고)	Victor49428/A,B
	낭자출궁(상) (하)	방진관/통소, 가야금, 해금, 장고	VictorKJ1064/A,B
	고당상(상)(하)	김소희/심상건(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고)	VictorKJ1073/A,B



	탈의 상증(상) (하)	김소희/가야금, 통소, 해금, 장고	VictorKJ1060/A,B
	가난타령, 중타령	김초향/이소향(가야금), 김덕진(해금), 정해시(통소), 한성기(장고)	VictorKJ1067/A,B
서도무악 (잡가) 반주	십대왕풀이	김주호/ 가야금, 해금, 통소	VictorKJ1062/A
	놀랑	김태운/고재덕(세적), 김칠성(가야금), 민완식(장고)	Columbia40641/A
신민요 반주	해로가	김옥진/장고, 해금, 가야금	Victor49397/A
	꽃타령	김옥진/심상진(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 진(해금), 한성준(장고)	Victor49403/A
근대음악 (대중민요) 반주	세골큰애기	김복희/일본빅타관현악단(가야금, 대금, 장 고)/고파영(작사) 나소운(작곡)	Victor49417/A
	바람이났네	김옥진/일본빅타관현악단(가야금, 대금, 장 고)/김팔련(작사) 전수린(작곡)	Victor49417/B
	봄을찬미하자	채규엽/김갑순(바이올린), 김갑자(가야금)/서수미례(작사)	Columbia40661/B

앞의 <표 6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성기음반과 관련해서는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가야금이 다양한 장르의 민속음악의 반주에 사용되는 악기로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31년에는 김우학이라는 연주자가 가야금으로 <놀랑> 등의 잡가를 반주하는 형태가 나타난다.<sup>174)</sup>

그리고 1932년에는 ‘조선음곡’이라는 구분으로 가야금이 포함된 민속기악 합주 형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염불타령>, <살পুর이곡>,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등의 곡목을 ‘해금/단소/양금/가야금/장고’의 편성으로 연주하였다.<sup>175)</sup>

<염불타령>과 <살পুর이>는 무용반주 음악으로 당시 무용의 대가 한성준이 반주자로 출연한 것으로 보아 무용반주 음악을 기악연주곡으로 방송에서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래 무용반주음악은 삼현육각 편성

174)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97쪽.

175)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16쪽.

으로 연주하는 것이 관례로 본다면 가야금과 양금 등의 현악기가 편성되어 연주된 것은 당시 연주형태로는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1933년에는 가야금과 다른 악기의 기악 합주 형태가 나타난다. <표 65>를 보면, 가야금과 양금의 결합이 1회, 가야금과 대금의 결합이 2회, 가야금과 해금이 결합 3회 나타난다. 그리고 5월 14일 심상건이 산조와 병창을 연주한 후 남도민요인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을 지용구의 양금연주와 합주하였고, 7월 23과 8월 11일, 12월 2일에는 가야금과 해금의 중주로 민요가 연주되었다. 12월 22일 연주도 병창을 부른 후 가야금과 대금의 경기민요 중주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야금병창과 더불어 민요 등의 성악곡을 다른 악기들과 중주의 형태로 연주되는 형태들은 가야금음악으로서 레퍼토리의 확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65> 1933년에 방송된 가야금 편성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목	연주자
1.21	대금독주와 가야금병창	1. 대금독주 가) 농부가 나) 육자백이 3. 가야금병창 가)단가 나) 부용도	김 해선 (가야금과 노래)/ 박종기(대금 독주 반주)
5.14	가야금과 양금	1.가야금산조 2. 병창 단가 3. 합주 가)육자백이 나)흥타령 다)개고리 타령	심상건(가야금)/ 지용구(양금과장고)
7.23	잡가	1. 양산도 2. 방아타령 3. 신방아타령 4. 춘향가 5. 자진난봉가 6. 아리랑 7. 구아리랑 8. 널너리야 9. 한강수타령 10. 노래가락 11. 창부타령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8.11	잡곡	1. 가야금병창 가) 단가 나) 새타령 다)노래가락 2. 가야금과 해금 가) 방아타령 나) 춘향가 다) 양산도 라) 도라지타령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12.2	가야금과 해금	1. 단가 새타령 2. 노래가락 3. 춘향가 4. 널너리야 5. 도라지타령 6. 담바귀타령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12.22	잡곡	1. 가야금병창 대장부 2. 가야금과 대금 가)방아타령 나)양산도 다)노래가락 라)청 춘가 마)밀양아리랑 바)사발가 사)널너리야	김일선(가야금)/ 김봉업(대금)

가야금과 다른 악기들이 합주로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이렇게 전통악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양악기와의 합주로도 시도되었다. 1933년에 콜럼비아에서 발매한 Columbia40468/B 음반에는 <방랑의 노래>라는 곡을 가야금과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다. 그리고 1934년에 방송에 처음으로 가야금과 양악기인 바이올린과의 중주가 보인다.<sup>176)</sup> 이것은 한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와의 합주라는 새로운 시도를 가야금이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게 되는 첫 걸음이라는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가야금과 서양악기인 바이올린이 함께 연주하는 경우를 방송에서는 1회밖에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지만 다음의 <표 66>와 같이 음반을 통해 다양한 음원들을 찾을 수 있었다.

<표 66> 유성기음반 가야금과 바이올린

연도	곡명	가야금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음반번호
1933	노래가락, 도라지타령	김갑자	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66/A,B
	방랑의노래	미상	가야금, 바이올린/ 안일파(편곡)	Columbia40468/B
	장부한	한농선	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72/A
	이팔청춘가	김갑자	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73/A
1934	양산도	김갑자	김갑순(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86/A
	짝사랑(상)(하)	한농선	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96/A,B
	추월강산, 이별가	김갑자	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502/A,B
	토끼화상, 하사월	김갑자	일본 콜럼비아 관현악 단	Columbia40509/A,B
	천안삼거리	김갑자	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13/B
	신창부타령, 오동동추야	김갑자	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21/A,B
	닐리리아	김갑자	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61/A
	방아타령, 가자어서가	김갑자	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97/A,B
1936	봄을찬미하자	김갑자	김갑순(바이올린) /서수미래(작사)	Columbia40661/B
1938	무정한세월아	김갑자	김갑순(바이올린)	RegalC445/B

176) 『경성방송국악방송곡목록』, 182쪽.

위에 보이는 김갑순이 바이올린 연주자이자<sup>177)</sup> 편곡자로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바, 이는 전통음악의 현대화하는 시초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김갑순은 콜럼비아 녹음기회사 전속으로 활동한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합이 콜럼비아 레코드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겠다.<sup>178)</sup> 여기에 당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시기가 현재와 같이 가야금이 창작음악에서 선두적인 악기로 자리매김하는 시작점이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 외에 1930년대에 시나위와 같이 오늘날의 대표적인 민속 기악으로 꼽히는 음악에 가야금이 편성하게 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1934년 5월 23일에 방송된 ‘현금/가야금/해금’ 합주 <신아위>에 김채련이 가야금연주자로서 편성하고 있다.<sup>179)</sup> 이렇게 가야금이 방송에서 병창이나 산조가 아닌 기악 중주곡 <시나위>를 연주하는 것은 1930년대에 처음 보이는데 이는 당시 가야금이 민속음악 곳곳에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사례이다.

## 2) 연주자

1930년대에 가야금산조를 유성기음반에 녹음한 연주자는 강태홍, 김금암, 김운선, 김종기, 정남희, 심상건, 한성기, 함동정월 등이다. 그 중 김종기와 정남희, 한성기가 5장으로 가장 많이 취입했고 심상건이 2장, 강태홍, 김금암, 김운선, 함동정월이 각각 1장 음반을 취입했다.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1930년대의 가야금산조 연주자들을 <표 67>에서 확인해 보면 모두 35명인데, 자세하게 언급해 보면 심상건 62회, 정남희 33회, 강태홍 32회, 김운선 23회, 이소향 18회, 한성기 14회, 성금화 13회, 김은자 8회, 김종기 8회 출연하였다.

대부분 경성방송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연주자들이 유성기음반을

177) 『매일신보』 1933년 11월 25일자 4면.

178) 『동아일보』 1933년 11월 19일자 6면, ‘콜럼비아 녹음기 회사 전속가수 당선합격자’.

179)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93쪽.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소향(18회)과 성금화(13회), 김은자(8회) 등은 방송에 다수 출연했음에도 음반 발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경우다. 반대로 함동정월은 산조 연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음반을 녹음했다. 그리고 김종기, 강태홍, 정남희 등은 유성기음반의 취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방송출연을 하게 된다. 즉 유성기음반 시장에서 먼저 그들의 음악이 유통이 되고 검증된 이후 방송에서도 그들이 연주하는 가야금산조가 선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67> 1930년대 경성방송국과 유성기음반의 산조 연주자

연도 및 산조 횟수		경성방송국 산조 연주자(1회 이상의 횟수)				음반(장)
1930	18	김운선(6) 김혜선(2)	심상건(4) 이소향(2)	이순근	한성기(3)	김종기(1)
1931	20	김운선(4) 한성기(10)	심상건(4)	오태석	이남수	강태홍(1) 심상건(2) 한성기(1)
1932	12	김운선(5)	심상건(4)	이소향	한성기	
1933	24	강태홍 김운선(8)	김은자 심상건(10)	이소향(2)	최소옥	한성기(4)
1934	24	강태홍(6) 김은자(6)	김종기(8) 김채련(2)	심상건(3)	정남희	김운선(1) 정남희(2)
1935	21	강태홍(8)	성금화(4) <sup>180)</sup>	심상건(4)	정남희(5)	없음
1936	41	강태홍(6) 류대○ 류동초(2)	성금화(7) 심상건(7) 이소향(4)	정남희(6) 정운선 조계선	조명주(3) 조영학 최봉익 한○환	김종기(4)
1937	29	강태홍(3) 김금암 류대○	박성옥(3) 성금화 심상건(7)	이소향(2) 전봉선 정남희(7)	조영학(2) 최봉익	함동정월(1)
1938	30	강소향 강태홍(2) 김은자	박동준 성금화 심상건(10)	안기옥 이소향(6)	정남희(6) 최○○	김금암(1)
1939	35	강태홍(6) 김여란 김채련	박동준(2) 박상근 신관영	심상건(9) 안기옥 오태석(2)	이소향 정남희(8) 정영준 조영학	정남희(3)

1930년에 들어서면 경성방송국 프로그램에 ‘가야금병창과 산조’라고 적혀있는 경우에 가야금병창의 연주자, 산조의 연주자 둘이 출연해서 각각 연주하던 1920년대와는 다르게 한사람의 연주자가 나와서 가야금병창과 산조를 모두 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68>을 보면 김운선, 김해선, 심상건, 이소향, 이순근, 한성기 등이 가야금산조와 병창을 모두 연주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표 68> 1930년 경성방송국 산조와 병창을 함께 연주한 연주자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14	가야금산조와 병창	단가, 사랑가, 이별가	이소향
2.27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외	한성기
4.1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심상건
4.21	가야금산조·병창	산조, 단가 외	이소향
6.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유행가 외	김운선
6.16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한성기
6.2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외	김운선
7.26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유행단가	김운선
8.8	가야금산조 및 병창	산조, 단가, 애가, 유행가 외	김운선
8.18	가야금산조 및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한성기
8.27	가야금산조 및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외	심상건
9.30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외	김운선
10.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가	김해선
10.10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이순근(통영)/ 김용배(교수)
11.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수궁가 외	김운선
11.9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김해선
11.2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노화월, 사랑가	심상건
12.2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심상건

180) 1935년 6월21일자 방송 연주자명에 ‘○금화’라고 되어있는데, 같은 해 ‘성금화’와 연주곡과 반주자가 동일하여 동일인물로 보겠다.

앞의 <표 67, 68>에 나오는 이들 중 김운선, 심상건, 이소향, 한성기는 1932년에도 여전히 활동했다. 그 중 심상건, 김운선, 이소향은 1933년에도 역시 가야금산조를 연주했다. 1933년에는 오늘날 유명한 강태홍이 가야금연주자로 4월 21일 방송에 처음 등장을 하고 1934년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 나간다.

1934년에는 병창과 산조 모두 합하여 총 28명의 가야금연주자가 방송에 출연하였는데 여전히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오태석이 출연횟수가 많았지만 가야금산조를 연주하는 김종기 역시 비슷하게 출연한다. 즉, 산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1935년에는 정남희가 가야금산조 연주로 5회 방송에 출연한 것이 확인된다. 그는 이 시기 심상건, 강태홍 등과 비슷하게 활발히 가야금산조 연주자로 방송에 나왔다. 1936년에는 정남희 6회, 심상건 7회, 강태홍 6회 등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던 오태석이 가야금병창으로 5회 출연한 것에 비해 가야금산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훨씬 많이 방송에 출연했다. 이들 연주자들은 1930년대 후반에는 산조 외에 다른 음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남희는 산조와 병창뿐만 아니라 <신아위>, <봉작취> 등의 중주곡도 두루 연주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가야금산조 연주자로서는 함동정월도 있다.

1939년에 방송에 총 약 19명의 가야금연주자가 출연했다. 그런데 그 중 심상건이 10회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10회 중 9회를 병창과 산조를 연주했고, 정남희는 9회 중 8회를, 강태홍은 6회 모두 산조와 병창을 함께 연주했다. 즉, 산조연주자의 출연 빈도는 높아지는 반면 병창만 하는 연주자는 출연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69>와 같이 1930년대 가야금으로 민속기악을 연주한 이들은 대부분 가야금병창이나 산조 연주자로서 이미 앞에서 거론되었던 이들이다. 즉, 1930년대 가야금병창 또는 산조를 연주했던 이들은 이미 가야금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음악가로서 병창과 산조 외의 다른 음악으로도 레퍼토리를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다양한 성악곡의 반주자로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표 69> 193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 기악 및 성악반주 형태 연주자

구분(장르)	연주자(1회 이상 출연횟수)
가야금+기악합주	김갑자 김금암(2) 김채련 김해선 박동준(2) 심상건 오택석(2) 이일선(15) <sup>181</sup> 정남희(4) 한갑득
기타(가야금반주)	김종기(2) 이일선(18) <sup>182</sup> 정남희 김우춘(2) 김우학(3) 김종기 김철성(2) 심상건 조류색

이들 외에 <표 70>와 같이 1930년대에는 가야금을 노래 반주에 편성하는 이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그 중 이일선이 가장 많이 활약했는데 1935년에만도 5회나 출연하고 있다.

<표 70> 1935년 속곡반주 가야금연주자

가야금 연주자	연주자	횟수	곡명
이일선	임명월/김인숙, 김 봉업(해금)	5	영변가 4회, 박연폭포 2회, 밀양아리랑 3회, 사발가 3회, 노래가락 5회, 도라지타령 2회, 산염불 2회, 영변가 2회, 청춘가 2회, 방아타령 1회
김철성	고일심/조송강/김 영근(대금)/고재덕 (세적)	2	수심가, 갈가보다, 노원곡, 방아타령, 신흥타령 이별가, 무덤속에 님이, 양산도, 사발가, 오토타령, 신청춘가
김우춘	조송강/고재덕(세 적)	1	신민요(유사가, 춘용가, ○처가, 신사발가, 신방아타령)
심상건	신태향/김덕진(해 금)/정해시(통소)/ 한성준(장고)	1	축○가(곡명없음)

181)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171쪽에는 김일선(金日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아일보』 1934년 1월 11일자 확인결과 이일선(李日善)으로 표기되어 있음.

182) 같은책, 185쪽에는 김일선(金日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아일보』 1934년 4월 5일자 확인결과 이일선(李日善)으로 표기되어 있음.



## 4. 1940년대

### 1)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1940년대의 가야금산조 관련 자료는 매우 적다. 이는 1940년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음악 유통 자체가 위축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겠다. 유일하게 1943년 심상건의 연주가 녹음된 가야금산조 유성기음반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녹음된 것은 <옛모리>와 <중머리>이다.

<표 71>와 같이 방송에서도 가야금산조의 연주 횟수가 30년대에 비해 줄고 있지만 병창만 연주하는 횟수에 비해 가야금산조와 병창이 함께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71> 1940년대 경성방송과 유성기음반의 가야금산조와 병창

연도	경성방송국 연주 횟수			유성기음반 발매 수	
	병창	병창+ 산조	산조	병창	산조
1940	11	20(3)**	4	3	
1941	6	23(3)**	3	0	
1942	8	13(2)**	4	3	
1943	13	12	3	1	1
1944	2	9	7	0	
1945	3	8(1)**	4	0	
총	43	85(9)**	25	7	1

\*\* ( )는 현금산조를 나타냄.

또한 한 프로그램에 가야금산조만 편성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다음의 <표 7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40년에 네 차례나 가야금산조만 편성되었다. 1944년에는 7번이나 가야금만 편성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표 72> 1940년 방송에 가야금산조만 편성된 경우

날짜	구분(장르)	곡목	연주자
1.26	가야금산조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심상진/ 한성준(고수)
6.30	가야금산조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남희/ 정원섭(장고)
7.18	가야금산조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남희/ 정원섭(장고)
11.5	가야금산조	곡명없음	정남희/ 박종기(장고)

즉, 1940년에 이미 가야금산조가 가야금병창 등의 성악곡과 같이 편성되는 음악이 아니라 단독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산조가 대중화되어 더 이상 청취자들에게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940년대에는 가야금산조의 방송 횟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1940년에는 24회, 1941년에는 26회였던 것이 1942년에는 17회로 이후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940년대에 들어서면 1930년대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장단들의 조합이 산조 레퍼토리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된다. 1940년대 산조는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의 구성이 40회로 가장 많이 연주되었고, <중모리/자진모리> 8회, <중모리/자진모리/당학> 2회 그리고 <진양조/중모리> 편성이 1회 나타난다. 그리고 1940년대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으로 노래를 반주하는 경우가 주로 보인다. 경성방송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면 아래의 <표 73> 경우처럼 남도가요, 남선가요, 속곡 등으로 구분되는 여러 민요, 잡가 계열의 악곡들을 가야금 반주를 넣어서 연주하게 된 것이다.

<표 73> 1940년 경성방송국 가야금 편성 민속악

날짜	구분(장르)	곡목	연주자
11.3	남도가요	보름,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신채란/채숙자/평산패동(현금)/신○종기(대금)/박상근(가야금)
5.20	남선가요(이)	목포배노리, 진도아리랑, 광주등계타령	정채란/박옥화/김명선/유종조(통소)/정채란(가야금)
1.28	속곡	1. 산염불 2. 방아타령 3. 양산도 4. 흥타령 5. 노들강변 6. 사절가 7. 님니리야	강학주(피리)/ 박성옥(가야금)

## 2) 연주자

1940년대에 가야금산조로 유성기음반을 발매한 연주자는 심상건 한 사람뿐이다. 심상건은 경성방송에서 시험방송해인 1926년부터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출연한 뒤 1927년부터는 가야금산조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경성방송의 마지막 해인 1945년까지도 출연하여 20세기 전반기 가야금 역사에 획을 긋는 연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1920-40년대에 경성방송국에서 가야금병창 161회와 가야금산조 111회를 연주하는 등 가야금연주자로서 병창과 산조를 균형 있게 연주하여 가야금의 위상을 올리는데 일조한 이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서도 <표 74>와 같이 1930년대에 등장한 연주자들의 방송 출연이 이어지긴 하는데, 심상건과 더불어 정남회도 활발한 활동을 했고, 현재 가야금명인으로 유명한 성금연도 1941년에 처음 방송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4> 1940년대 경성방송국 가야금산조 연주자

연도 및 산조횟수		경성방송 연주자(1회 이상 출연횟수)			
1940	24	강태홍	심상건(8)	정남회(6)	조영학(3)
		류대복	안기옥(2)	조영하	신쾌동(2) <sup>183)</sup>
		박성옥			
1941	26	○성기	성금연(5)	오테석	조영학
		류대복	성금화	정남회(7)	한성기
		심상건(4)	신쾌동(3)		
1942	17	신쾌동	정남회(5)	조영학(2)	심금호 <sup>184)</sup>
		심상건(6)			
1943	15	김영이 <sup>185)</sup>	성금화	심상건(8)	정남회(3)
		성금연(2)			
1944	16	박상근(3)	심상건(5)	정남회(2)	
1945	12	박상근	심상건(3)	정남회(4)	

183) 平山快童으로 표기되어 있다.(『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464쪽)

184) 청송금호(淸松錦湖)로 표기되어 있다.(『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499쪽)

185) 광산영이(光山永二)로 표기되어 있다.(『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513쪽)

1940년대에도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 연주자로 활동하는 이들이 민속기악 연주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박상근이 1940년 11월 30일 남도가요 반주자로서 등장한다.<sup>186)</sup> 그 외에 1940년대 가야금산조 및 기타 기악 연주자로 활동한 이들은 다음 <표 75>와 같다.

<표 75> 1940년대 경성방송국 민속기악 가야금연주자

구분(장르)	연주자(1회 이상 출연횟수)
가야금+기악합주	박상근 광산영이 임춘현일 심상건 박성옥
기타(가야금반주)	정순 박상근(2) 심상건(3) 정채란 조영학

## 5. 소결론

이상으로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을 연도별로 나누어 가야금산조 및 가야금이 포함된 기타 민속음악의 연주곡목 및 연주형태, 연주자들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산조는 경성방송에서 약 430회 방송되었고 약 43명의 가야금연주자가 출연하였다.

1920년대는 거의 없었던 가야금산조의 방송 출연이 1930년대 들어서면서 병창과 산조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소리에 편승하여 인기를 얻게 된 가야금이 독자적인 악기로서 인정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성악이 아닌 기악 레퍼토리로서 가야금음악의 확장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악 레퍼토리로서의 확장은 가야금산조의 유성기음반 발매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가야금산조는 방송이라는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인기는 1928년, 1929년 등 1920년대 후반, 1930년대로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

186)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463쪽.

를 반영해서 가야금산조의 유성기음반의 발매 역시 더욱 늘어나게 된다.

1930년대에는 가야금산조 유성기음반이 이전에 비해 많은 양이 발매되었다는 것 역시 가야금산조가 이 시기 주요 가야금음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의 가야금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가 기본 형태로 유지되는 가운데 연주자의 개성에 따라 특정 장단이 나타나는 경우도 보였다. 그리고 김운선의 <원머리>, 김종기의 <살풀이, 자진당학>, 심상건의 <사설>, 한성기의 <당학>등은 현행 가야금산조에는 보이지 않는 1930년대 가야금산조로 연주되었던 장단 이름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가야금산조 연주자의 즉흥적인 연주 및 이에 대한 한시적인 곡명 부여 등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에 발매된 가야금산조 유성기음반을 살펴보면, 유성기음반에 담을 수 있는 시간제한 상 한 면에 한 장단별로 채워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30년대 후반에는 한 장단을 상, 하로 나누어 두 면에 나눠서 녹음하기도 한다. 한성기는 1933년에 <진양조>를, 김종기와 정남희는 <진양조>, <중모리>를 각각 1936년과 1939년에 음반 두 면에 나눠서 담았다. 즉 1930년대에 각 장단별로 음반에 담을 만큼의 길이와 구성력을 지닌 짜임새 있는 가락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산조를 유성기음반에 녹음한 연주자는 강태홍, 김금암, 김운선, 김종기, 정남희, 심상건, 한성기, 함동정월 등을 들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눈에 띄게 많은 활동을 했던 이들은 주로 전문 연주자의 성격이 강했다. 가야금산조 연주자로 권번 소속 또는 권번 출신의 기생들 이름이 드물게 보이는 것은 병창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 중 전문 음악인의 레퍼토리로서 고정되는 장르는 가야금산조라 할 수 있다.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1930년대의 가야금산조 연주자들을 확인해 보면 모두 35명인데, 자세하게 언급해 보면 심상건 62회, 정남희 33회, 강태홍 32회, 김운선 23회, 이소향 18회, 한성기 14회, 성금화 13회, 김은자 8회, 김종기 8회 출연하였다.

대부분 경성방송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연주자들이 유성기음반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소향(18회)과 성금화(13회), 김은자(8회) 등은 방송에 다수 출연했음에도 음반 발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경우다. 반대로 함동정월은 산조 연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음반을 녹음했다. 그리고 김종기, 강태홍, 정남희 등은 유성기음반의 취입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방송 출연을 하게 된다. 즉 유성기음반 시장에서 먼저 그들의 음악이 유통이 되고 검증된 이후 방송에서도 그들이 연주하는 가야금산조가 선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연주된 가야금 민속기악의 형태로는 ‘가야금과 대금’ 또는 ‘가야금과 해금, 장고’의 결합이 두드러졌으며 <봉장취>, <시나위> 등의 기악합주와 민요기악연주 등의 레퍼토리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야금과 바이올린’의 민요 합주와 같은 새로운 시도도 엿볼 수 있었다. 가야금의 또 다른 레퍼토리로는 잡가, 민요 또는 판소리 등의 성악 반주 등이었다. 이는 반주자로서의 기능적인 역할의 확대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가야금병창과 달리 가야금연주자와 소리전문연주자로 나뉘어 점차 현대와 같이 전문화의 길로 분리되어 가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가야금이 성악 반주에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1930년대 초반까지도 민요나 판소리 반주 등에만 국한되다가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유행가나 무가 등 다양한 장르의 반주 악기로서 가야금이 사용된다. 이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당시 민속악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악기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반주라는 기능에 있어서도 가야금이 우선적으로 편성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음악 유통에 있어서 가야금연주자들이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부각되어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 V.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전개

### 1.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가야금정악 연주자로서의 이왕직아악부원

20세기 전반기 궁중음악을 연주했던 이들로는 이왕직아악부 출신 가야금연주자로서 명완벽, 명호진, 김강본, 김영윤, 이창규, 홍원기, 박성원, 유영수, 김상진, 이재국 등이 있다. 그 중 명완벽(1842-1929)은 1920년대에 이미 이왕직아악부에서 가야금 독주로 궁중음악을 연주했었다는 기록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sup>187)</sup> 명완벽은 고종 때 전악(典樂)으로 활동했으며 1911년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사(雅樂師)를 거쳐 1916년 제3대 아악사장(雅樂師長)이 된다. 그는 이왕직아악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sup>188)</sup> 그러한 명완벽이 가야금연주자로 궁중음악을 연주했다는 것은 곧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가야금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명완벽은 1909년 조선정악전습소의 전신인 조양구락부의 설립 당시에도 참여했으므로 조선정악전습소에서의 가야금음악 전승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다.

명완벽의 아들인 명호진 역시 가야금연주자로 활동했다. 그는 아악부원양성소의 제1기 졸업생으로 1928년 11월 3일 이왕직아악부가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만년장환지곡>, <봉황음>, <서일화지곡>, <승평만세지곡>, <장춘불로지곡>, <취태평지곡>을 연주하였다.<sup>189)</sup>

명완벽의 연주 관련 활동 기록은 주로 이왕직아악부 소속의 것만 나타나는 반면 명호진은 이왕직아악부 소속 공연 외에도 연주 활동 기록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33년 8월 12일 조선음악학원 설립을 위한 전통음악과 무용의 밤 공연에서 명호진은 방용현, 지용구, 강태홍 등과 함께

187) 『동아일보』 1923년 7월 10일자 3면.

188) 이정희, 「한국근대전환기의 궁중악사, 명완벽」, 『한국음악사학보』, 51권, 한국음악사학회, 2013, 72쪽.

189)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60쪽.

출연해서 연주했다.

傳統樂과 舞踊의 밤 天道教記念館 十二日夜開催

조선의 구악(舊樂)을 부활, 보급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선음악학원을 설립보지 노력중인 조선음악학원기성회(朝鮮音樂學院 期成會)에서는 동회의 취지를 널리 선전하기 위하여 제一회 연주회로 오는 十二일 밤 八시부터 시내 경운동 천도교 기림관(慶雲洞天道教記念館)에서 『전통악(傳統樂)과 무용(舞踊)』의 밤을 개최하기로 되었다는데 입장료는 一圓, 五十圓, 三十전이라 한다.

당야의 출연자는 모다 사계의 일류로 기악(器樂)편에는

이언식(李彦植), 김기풍(金基豐), 이명호(李明鎬), 이성환(李聖煥), 김용승(金容承), 박일몽(朴一夢), 최수성(崔壽成), 김흥구(金興九), 명호진(明鎬震), 이한경(李漢卿), 김명수(金明洙), 고재덕(高載德), 조재필(趙載弼), 方龍鉉, 池龍九, 姜太弘

창극조(唱劇調)가수(歌手)로는 이동백(李東伯), 조학진(曹學鎭), 정정렬(丁貢烈), 오태석(吳太石), 심상건(沈相健)

그리고 무용편에도 시내의 여러 단체에서 출연하리한다.<sup>190)</sup>

이러한 상황은 김강본, 김영운 등 19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이왕직아악부의 악사들에게 공통적이었다. 즉, 이왕직아악부의 악사들은 비록 궁중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교육받았지만 당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라디오 및 근대 무대에서도 음악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왕직아악부 악사들은 다양한 궁중음악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시도를 한다. 이전까지는 의례 또는 연례용 합주 음악을 연주하던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이왕직아악부 음악인들에 의해 경성방송, 공연무대 등에서 연주되며 근대식 음악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

190) 『동아일보』 1933년 8월 8일자 6면.



<표 76> 이왕직아악부 소속 가야금연주자

소 속	이 름
이왕직아악부 제3대아악사장	명완벽(明完璧)(1842 ~ 1929)
이왕직아악부 제4대아악사장	김영제(金寧濟)(1883 ~ 1954)
이왕직아악부 제5대아악사장	함화진(咸華鎭)(1884 ~ 1948)
양성소 1기(1920)	명호진(明鎬震: 가야금)
양성소 2기(1923)	없음
양성소 3기(1926)	김강본(金岡本: 가야금), 김영윤(金永胤: 가야금)
양성소 4기(1931)	이창규(李昌奎: 가야금), 함연춘(咸演春: 가야금)
양성소 5기(1936)	홍원기(洪元基: 가야금), 양영환(梁榮煥: 가야금), 박성원(朴性遠: 가야금)
양성소 6기(1940)	유영수(柳永秀: 가야금), 김상진(金湘振: 가야금), 이재국(李載國: 가야금)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들이 연주한 레퍼토리 중에서 <만년장환지곡>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들이 연주한 것으로 알려진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가곡들을 확인해 보면 노래 반주에 가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1935년 2월 1일에 신보가 발표된 빅타의 유성기음반 Victor49805-B 朝鮮雅樂(歌樂)宴禮樂 萬年長歡之曲 編樂과 관련된 기록에 보면 하규일(河圭一)이 노래를 부르고 현금은 장정봉, 세피리는 이병우, 대금은 김계선, 단소는 김천룡, 해금은 박덕인, 장고는 김수천, 박은 최순영, 지휘는 함화진으로 반주가 구성된다.<sup>191)</sup> 당시 이왕직아악부가 연주한 가곡의 음원들을 확인해 보면 이러한 편성으로 <편락>을 비롯한 <언룡>, <편수대엽> 등의 반주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궁중음악의 합주에 가야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20세기 전반기 경성방송국의 국악방송에서 오늘날 가야금으로도 연주되는 많은 궁중음악계열의 악곡들이 가야금 없이 다른 악기들만의 합주로 빈번하게 연주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23년에 이미 명완벽이 가야금독주로 <장춘불로지곡>을 연주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20

191) 한국유성기음반 사이트(<http://www.sparchive.co.kr>)에서 제공하는 Victor49805-B 朝鮮雅樂(歌樂)宴禮樂 萬年長歡之曲 編樂 음반의 가사지에 녹음에 참여한 연주자들의 이름과 담당 악기가 나와 있다.

세기 전반기의 가야금은 궁중음악에 사용되는 현악기들 중 일찌감치 독주 또는 병주 등 다양한 편성으로 연주가 시도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에는 1930년대에 가야금독주 또는 가야금이 편성되는 중주 등의 소규모 편성을 활발하게 시도하던 이습회 역시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겠다. 1932년에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의 노악사(老樂師)들이 중심이 되어 아악의 연습과 연주를 위해 조직한 단체 이습회는 독주 또는 중주와 같은 소규모 연주에 중점을 두고 매월 1회씩 연주회를 개최했다. 가야금으로 다양한 궁중음악을 선보였던 이습회 덕분에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은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독주 또는 중주 등 소규모 편성 중심이었지만 20세기 전반기 명완벽, 명호진, 김강본, 김영운 등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들이 궁중음악을 라디오 방송에서는 물론 유성기음반, 공연무대 등에서 연주한 덕분에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의 레퍼토리가 확대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왕직아악부 소속 음악인들이 다양한 궁중음악의 레퍼토리화를 시도 하는데 반해 권번 출신 음악인들과 지역출신 음악인들은 주로 풍류방음악에서 가야금 연주를 담당했다.

우선 1920년대에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한 권번 출신의 기생들로는 김초홍, 김운선(김죽파), 문하월, 이금향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 중에서 김초홍, 이금향, 김운선(김죽파)은 한성권번, 조선권번 등으로 그 소속이 확인되는 이들이다. 이들은 1920년대에 모두 조선음율이라고도 불리는 영산회상을 연주했고 특히 김운선은 1928년에 여섯 번이나 출연하고 있어서 다른 권번 출신 기생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출연했다.

1930년대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번 소속 기생들인 김운선(조선권번), 류금화(개성권번), 김옥희(개성권번), 최소학(동래권번)이 가야금으로 연주했다. 이들의 레퍼토리는 주로 <영산회상>이었지만 드물게 가곡 반주에도 참여했다. 1936년 5월 26일자 방송에 보면 김미화는 가곡 <우조이수대엽>, <우조두거>, <우락>, <환계락>, <편> 등의 반주를 담

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의 기록을 보면 권번의 교육과정에서는 관현악의 하나로서 가야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영산회상과 같은 풍류방음악의 곡들을 가르친다.<sup>192)</sup> 20세기 전반기 기생들이 유통시키는 음악에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풍류방음악이 대표적이었던 것이다.

권번 소속 기생들 외에 풍류방음악 연주를 담당한 이로는 지역 출신 음악인들을 들 수 있겠다. 1927년 9월 19일에 방송출연을 한 나운보에 관해서는 자세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연주한 연주자들로 보아 같이 연주한 이들이 이왕직악부 소속이 아닌 민간의 음악을 담당했던 기악인들이라고 앞의 II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나운보 외에 경성방송에 출연한 민간 악사로 민성기를 들 수 있다. 민성기에 관해서 방송 출연 외에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같이 출연한 연주자들 중 나운보와 같이 연주했던 피리악사 이재규, 해금악사 김덕진 등이 민간 악사라는 점에 근거하여 민성기 역시 민간 악사로서 가야금을 연주한 것으로 간주했다.<sup>193)</sup>

이러한 민간 출신 악사들은 이미 1920년대 즈음에는 풍류방음악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1927년 5월 11일자 제 3면의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이화학교에서 가야금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衰退한 朝鮮音樂 女學生의 손으로 復活

리화학교의 조선음악부 데일연주회는 대 성공

구일 오후에 기자는 조선음악 교수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시내 동동梨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 김활란씨의 안내로 이층으로 올라가니 한교실로부터 청아한 악음(樂音)이 그윽히 흘러나와서 무엇인지 모르게 기자를 반갑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즉 조선음악이었고 그 방이 조선음악교수실이었습니다 현재 교수하고 있는 것은 양금, 가야금, 거문고 이 세가지 뿐이지마는 장차는 노래까지 넣겠다고 합니다 머리를 삼단가치 따

192) 안성희, 「권번 여기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7쪽.

193)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343쪽.

느린 학생들이 이곳저곳에 허터져 안져서 줄을 당기고 늦추는 것은 하날로부터 내려온 선녀인가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한지 한달도 되지 못한 이 때에 한가지의 합주(合奏)까지 하게되었답니다 ... (생략) ... 기자왈= 시내등동(貞洞)리화학교에서 조선음악을 가르키기 시작한 것은 지난 사월 십칠일부터요 현재 교수는 다음과 가트며 이번 연주회의 성적으로 보면 예상 이상의 조흔성적이라 할 수 잇답니다 그리고 서대문동(西大門町) 경성녀자미술학교에서도 일간 조선음악과를 신설하리라 합니다

玄琴 金基豊 伽倻琴 李載珪 楊琴 金禮植

이들 중 가야금을 가르쳤던 이재규에 관한 기록은 달리 찾아보기 어렵지만 함께 현금을 가르쳤던 김기풍에 대해서는 1937년 8월 14일 『동아일보』에 가야금 민간악사 민성기, 해금 민간악사 김덕진 등과 함께 경성방송에 출연해서 영산회상을 연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재규 역시 이들과 교류하던 민간 악사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즉,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했던 이들은 주로 권번 소속의 기생들과 민간 악사들이 많았으며, 간혹 이왕직아악부의 악사나 민간의 악사들 역시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이왕직아악부의 악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들이 ‘조선음률’이라고 하는 영산회상을 레퍼토리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번 소속 기생들과 민간악사들이 풍류방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194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된다. 대신 그 자리는 이왕직아악부 소속 또는 출신 악사들이 대체하게 된다. 이는 권번 자체의 존립이 어렵게 된 상황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권번의 쇠퇴에 따라 권번 소속 기생들 역시 음악활동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왕직아악부 소속으로 비교적 안정된 위치에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당시 <가곡>, <영산회상>과 같이 궁중음악과 공통레퍼토리이고 대중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풍류방음악을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기생 및 민간악사들은 보다 대중적인 수요가 확실한 음악 활동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 2. 병창: 기생들의 활약과 전문음악인의 등장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활동했던 이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인물로 확인되는 이들은 박팔괘, 심정순 등이다. 두 사람 모두 충청도 출신의 음악인으로 특히 박팔괘는 가야금병창을 창시한 인물로도 언급되고 있다. 1920년대 경성방송에 출연해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이들은 대부분이 권번 소속 기생들이었지만 이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박팔괘가 서울에서 가야금병창을 널리 유행시킨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박팔괘는 이동백 등 당대의 유명한 음악인들과 함께 공연활동에 참여해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공연활동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 1930년 10월 19일에 동아일보의 독자위안 명창대회에 출연한 박팔괘는 이동백, 윤계화 등과 함께 공연했다고 되어 있다.<sup>194)</sup>

박팔괘 이외에 심정순 역시 충청도 출신 음악인이다.<sup>195)</sup> 심정순 역시 박팔괘와 마찬가지로 일찍이 가야금연주자로서 공연활동을 한 기록이 나타난다. 1920년 4월 14일 인쇄공구제음악회에서 심정순이 가야금을 연주했다고 한다.

印刷工救濟音樂會 십사일밤 청년회에서

십사일 밤 일곱시 반부터 인쇄직공구제회 주최로 중앙 기독교청년회에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입장자가 거의 칠백여인에 이르러 만원의 성황을 이루었으며 순서를 조차 사회 구자옥씨의 소개로 십여회의 음악은 박수 갈채 중에 섭섭히 맞추었는데 沈正淳 군의 가야금 金永煥 군의 피아노가 가장 재미있었으며 신진음악가 柳潯熙 군의 바이올린과 金后童 군의 우명의 노래는 저음이 청객의 마음을 잇그렸고 었더한 무명부인의 의연금도 잇서 회는 자못 대성황을 이두었더라<sup>196)</sup>

물론 이 때 심정순이 연주한 음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서양악기와 함께 심정순이 연주하는 가야

194) 『동아일보』 1930년 10월 19일자 7면.

195)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10-12쪽.

196) 『동아일보』 1920년 4월 16일자 3면.

금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연주회가 개최되는 1920년에 이미 심정순이 연주하는 가야금음악은 서양악기인 피아노, 가야금 등의 독주와 비견되는 전통 기악으로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박팔괘와 심정순 이후에도 가야금병창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이가 등장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 1920년대 후반부터 경성방송에 출연해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오태석을 들 수 있다. 오태석은 다른 이들이 가야금산조와 병창을 동시에 레퍼토리로 삼은 것에 비해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꾸준히 가야금병창 연주자로서만 활동함으로써 당시의 가야금병창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로 꼽을 수 있겠다. 오태석 역시 많은 공연활동에 참여했는데 주로 판소리 명창, 민간 악사 등 당대의 유명한 민속음악 악사들과 함께 공연을 했다.

新幹紀念遊會 各種順序도 결정

식을 마친후 재래 가무도 잇서 少年軍 出動으로 場所整理

기보=新幹會京城支會에서 오는 십칠일을 택하여 동대문 외 상춘원에 서 창립 일주년 기념 園遊會를 거행한다 함은 루보하얏거니와 동일 오전에는 기념식을 거행하고 오후에는 다음과 가튼 순서의 音樂大會를 연다하며 입장자가 과다하리라 하여 會員 家族에만 입장을 허하게 되어 입장권을 발부하고 질서를 정돈키 위하여 朝鮮少年軍도 출동한다더라

第一

一, 沈淸歌 韓善泰 一, 伽倻琴併唱 李素香 一, 遊覽歌 牟秋月 一, 短簫 口琴 피리 合奏 趙東奭 池龍九 高在德 一, 華容道 李花中仙 一, 僧舞 會員 柳寅元 一, 伽倻琴併唱 吳泰錫 一, 節行春香歌 李東百...197)

전라남도 출신으로 알려진 오태석은 판소리명창 오수관(吳壽寬)의 아들이며 박덕기(朴德基)에게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만갑 문하에서 판소리를 익혔다고도 하는 오태석은 가야금병

197) 『동아일보』 1928년 6월 14일자 5면.

창으로 그의 명성을 쌓아갔다. 판소리명창들과의 인연 덕분에 오택석은 아래의 기사에서 보이듯이 판소리명창들의 모임인 조선음률협회 등에도 소속되었으며, 이러한 그의 활동으로 당시 유행하는 판소리 못지않게 가야금병창 역시 예술성을 높여 인정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音律協會 第一聲 十九二十 兩日

지난번 창립된 朝鮮音律協會에서는 그 회의 목적인 조선음률과 가사의 補遺 修正과 특히 잡스러운 것을 전부 고치고 여러 가지로 淨化運動을 해 오든 바 이번 제일회로 公演會를 열게되어 오는 十九, 二十일 이틀동안 매일 오후 일곱시부터 조선극장에서 개최하리라는 바 출연할 인사들은 전혀 조선 명창들을 망라하여 그 수효에 잇서서 더욱 골라 종래 이와 가튼 연예회에서 만히 볼 수 잇는 재담, 발님, 안일이 등은 절대로 금지하고 참신한 무대장치까지 너히 정숙하며 규를 잇는 연출을 보여 저간 정화운동의 불만한 성적을 나래내리라고 한다 그리고 출연할 인사들은 알에와 가티 숨엇든 조선 가사의 선배들도 참가한다고 한다

▲曹學珍 ▲金昌煥 ▲金昌龍 ▲李素香 ▲吳太石 ▲沈相健 ▲朴綠珠 ▲金楚香  
▲韓成俊<sup>198)</sup>

오택석 외에 심상건 역시 1920년대 후반부터 가야금병창을 많이 연주했다. 앞서 소개한 심정순의 조카로 알려진 심상건은 가야금산조 역시 많이 연주했었기에 박팔괘, 심정순, 오택석과는 다르게 가야금산조와 관련된 기록, 음원 등도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한편 이들 외에 단발적으로 가야금병창 연주자로서 방송활동을 한 이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은 주로 권번 소속의 기생들로서 당시 권번에서 가야금병창이 학습되었고, 또한 기생들의 주요레퍼토리로서 연주되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권번을 중심으로 기생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은 『조선미인보감』<sup>199)</sup>에 대해 이설희는 예술전문사학위논문 “『朝鮮美人寶鑑』에 나타난

198) 『동아일보』 1930년 11월 19일자 3면.

199) 아오야나기 고타로(靑柳綱太郎)·지송옥, 『조선미인보감』, 경성일보사, 1918.

기생조합 권번에 관한 고찰”에서 권번 별로 기생들의 기예 분포도를 정리해 놓았다.<sup>200)</sup> 이를 참고해 권번들 중 기생수가 많은 한성권번, 대정권번, 한남권번, 경화권번, 대구조합을 살펴보면 <표 77>과 같다. 한성권번은 기생 190명 중에 분포도가 높은 기예가 가(歌) 68명, 우조 65명, 시조 61명인데 가야금은 11명이었고 산조는 2명 이었다. 대정권번은 기생 수 182명인데 기예가 시조는 168명, 서도잡가는 114명, 정재무는 68명인데, 가야금은 15명 산조는 4명이었다. 한남권번은 기생 수 75명 중 정재무가 23명으로 여러 기예 중 가장 많았고 시조가 19명, 병창이 16명이고 가야금은 16명, 산조는 1명이었다. 경화권번의 기생수는 39명이며 가곡은 25명, 정재무는 20명, 경서잡가는 16명이고, 가야금 또는 산조 기예가 아예 없었다. 대구 조합은 기생 수 39명으로 가곡이 25명으로 기생수가 가장 많았고, 병창이 16명, 승무가 16명이고, 가야금 기예가 24명, 산조가 12명이다.

<표 77> 『조선미인보감』 기예에 따른 연주자 수

권번	기생 수	기예1	기예2	기예3	가야금	산조
한성권번	190명	가(歌)(68명)	우조(65명)	시조(61명)	11명	2명
대정권번	182명	시조(168명)	서도잡가(114명)	정재무(68명)	15명	4명
한남권번	75명	정재무(23명)	시조(19명)	병창(16명)	16명	1명
경화권번	39명	가곡(25명)	정재무(20명)	경서잡가(16명)	없음	없음
대구조합	39명	가곡(25명)	병창(16명)	승무(16명)	24명	12명

위의 표에 나타난 기예 분포도를 보아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성악이 우세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반해 기악으로서 가야금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기생들도 산조와 같은 기악곡 보다는 성악과 결합된 병창을 더 선호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 할 수 있다.

그런데 1920년대 이후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기생들의 수는 193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40년대에는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표 78>.

200) 이설희, 『『朝鮮美人寶鑑』에 나타난 기생조합 권번에 관한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표 78> 20세기 전반기 연대별 가야금병창 연주자들의 경성방송 출연 상황

구분	연도 및 연주횟수		연주자(출연횟수)
1920년대	1926	10	강소춘(1) 김금련(4) 김금홍(1) 김남주(3) 김농운(5) 김란홍(1) 김련(1) 김연수(1) 김연우(3) 김옥희(3) 김운선(5) 김운정(1)
	1927	53	김정문(2) 김종기(4) 김채운(1) 김초월(1) 김해선(20) 박동준 (5) 배운선(1) 송옥주(3) 심매향(1) 심상건(61) 심정순(2) 안기
	1928	97	옥(2) 염계화(6) 오소옥(1) 오취경(1) 오태석(34) 윤옥향(1) 이 금향(1) 이소향(38) 이옥화(8) 이월향(2) 이일선(18) 장금련(1)
	1929	92	장초향(3) 장행진(1) 장향란(1) 전란홍(1) 정남희(1) 조룡선(1) 조몽실(1) 조우춘(14) 조우향(2) 조학진(1) 최운매(2) 최향심 (1) 한국향(1) 홍소월(4) 황국향(1) 황란향(1)
1930년대	1930	59	○계홍(1) ○금화(1) 강계란(1) 강계선(1) 강계향(2) 강계홍(7) 강선옥(1) 강태홍(35) 강희구(1) 김갑자(1) 김금란(1) 김금암
	1931	38	(1) 김금옥(5) 김녹주(2) 김성기(1) 김소향(1) 김여란(2) 김연 우(1) 김옥련(2) 김옥진(3) 김옥희(2) 김우학(1) 김운선(25) 김
	1932	40	은자(7) 김일선(2) 김종기(10) 김채련(12) 김채운(4) 김해선 (14) 이화중월(1) 류대○(2) 민옥향(1) 박계화(2) 박금도(1)
	1933	57	박동준(2) 박상근(1) 박설향(1) 박성옥(3) 박옥돌(1) 박정희(2) 박추월(22) 박팔괘(4) 성금화(14) 성농운(1) 신관영(1) 신송
	1934	77	학(1) 신송화(1) 신청거(1) 신패동(4) 심○원(1) 심상건 (64) 안기옥(2) 염계화(2) 오비취(1) 오태석(77) 원농월(1) 윤옥향
	1935	53	(2) 이계순(1) 이계화(1) 이기화(3) 이난향(1) 이남수(1) 이상 봉(1) 이소향(39) 이순근(1) 이연향(1) 이옥화(10) 이운선(1)
	1936	80	이일선(26) 임소향(1) 임추월(1) 장초향(1) 전봉선(1) 전행○ (1) 정금○(4) 정금도(6) 정금수(1) 정남희(39) 정옥희(1) 정운
	1937	63	선(1) 조계선(1) 조농선(1) 조명주(3) 조선한성양권번기생일동 (1) 조영학(7) 조우춘(1) 지만수(1) 최○○(1) 최계란(11) 최금
	1938	63	향(1) 최난주(1) 최봉익(11) 최소옥(11) 최송희(1) 하귀란(1) 하농주(1) 한○환(1) 한갑득(4) 한공숙(1) 한남권번(1) 한봉환
	1939	52	(1) 한성기(13) 함동정월(1) 홍소월 (2)
1940년대	1940	39	○향옥(1) 정달영(1) ○성기(1) 강계홍(2) 강태홍(1) 고계선(1) 김봉란(1) 김연우(1) 류대복(2) 박상근(6) 박성옥(2) 방응교(1)
	1941	29	성금선(5) 성금연(7) 성금화(2) 신패동(1) 신채란(1) 신패동(8) 심상건(27) 안기옥(2) 오태석(14) 정남희(20) 조농옥(2) 조영
	1942	22	하(1) 조영학(8) 죽정태(1) 청송금호(1) 청송상건(3) 평산패동 (5) 한성기(1)
	1943	24	
	1944	10	
	1945	11	

즉,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조 역시 주목을 받게 되고, 한편으로는 오태석, 심상건과 같이 가야금병창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연주자들이 탄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번 소속 기생들이 가야금병창을 연주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는 기생들의 음악이 유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권번이 폐지되면서 방송 출연이나 음반 취입, 공연 등의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 3. 산조 및 민속기악: 가야금음악의 성립 및 확대

20세기 전반기에 산조를 연주한 이들 중 가장 먼저 이름이 보이는 것은 1926년에 발매된 유성기음반에 녹음을 남긴 심상건이다. 1928년에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 심상건은 안기옥, 이소향 등과 비슷한 횟수로 출연을 했지만 유성기음반으로는 훨씬 많은 양의 녹음을 남긴다. 다음의 <표 79>에서 보이듯이 심상건은 1926년, 1929년, 1931년, 1943년에 꾸준히 음반을 발매하고 이후 1930년대, 40년대에도 그의 활동은 이어진다.

<표 79> 심상건의 가야금산조 유성기음반

발매연도	제목	음반번호
1926	진양조(1)(2)	제비표조선레코드B41/A,B
	늦은 중모리(3), 자진중모리(4)	제비표조선레코드B65/A,B
	산조(5),(6) 당학(상,하)	제비표조선레코드B132/A,B
1929	늦은 중모리(상),(하)	Columbia40040/A,B
	잔머리, 엇중머리	Columbia40049/A,B
	자진잔머리, 당학	Columbia40060/A,B
1931	다스름, 진양	RegalC183/A,B
	진양조, 사설	Columbia40280/A,B
1943	엇머리, 중머리	Taihei8340/A,B

이처럼 심상건이 가야금산조 음반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연주하는 가야금산조가 음악적으로 예술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그의 활발한 공연활동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충청도 출신인 심상건은 작은아버지인 심정순 집에서 자라면서 심정순에게 가야금을 배웠으며 심정순이 서울에서 활동하며 기반을 잡은 뒤인 1920년대에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유명해졌다.<sup>201)</sup> 그는 『동아일보』 1933년 8월 8일자 기사에도 나와 있듯 많은 기악인들과 공연활동을 했다. 김용승, 최수성, 김흥구, 명호진, 이한경, 금명수, 고재덕, 조재필, 방용현, 지용구 등이 그와 함께 공연한 이들로 확인된다.<sup>202)</sup> 또한 이동백, 강태홍 등과 함께 1930년대에는 조선음률협회(1930)의 결성과 조선성악연구회(1934)를 출범시키는 데에도 심상건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03)</sup>

이렇게 20세기 전반기 유명한 음악인들과 함께 활동했던 심상건의 이름은 음반회사 관계자들에게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자연히 널리 알려졌을 것이며 그 결과 유성기음반에 많은 녹음을 남길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심상건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경성방송의 라디오방송, 각종 공연 무대, 유성기음반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한 것은 그가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도 함께 연주가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야금병창 연주자로서 무대에 소개되기도 했다.

朝鮮音樂公演 데일회로개최

종래의 조선음악이 민멸함을 분개하고 이를 부활시킬 목적으로 朝鮮音樂協會가 조직되었다 함은 기보와 갓거니와 동협회에서는 데일회의 공연을 다음과 가티 개최하리라더라

201)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 제28집, 한국음악사회, 1997, 14쪽.

202) 각주 190)과 같음.

203) 김성혜,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한국음악학논집』 1권, 한국음악사학회, 1990, 321-326쪽.

一,日時 二月二十一日午後七時半  
 一,會場 鐘路中央青年會館講堂內  
 一,出演樂目 朝鮮正樂 大風流同 四大吹樂同 靈山會像十三曲 蔞 鷄鳴  
 山秋夜月 笛獨奏 同 編樂朝鮮聲樂 李東伯군의 獨唱 朝鮮器樂併奏 沈相  
 健의 伽倻琴併唱 獨奏 以上 朝鮮音樂協會員一同出演...204)

가야금병창과 병행해서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음악가로 유명했던 심상건과는 달리 1920년대 후반에는 가야금산조만을 전문적으로 연주했던 안기옥이 등장한다. 그는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방송 출연횟수는 많지 않지만 병창을 함께 연주하는 것이 아닌, 산조만을 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김창조에게 가야금산조를, 백낙준에게 거문고산조를 배웠다고 알려진 안기옥은 나주 출신이었다. 1920년대에 상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동백과 함께 조선음악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했고, 조선창극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sup>205)</sup>

그러나 안기옥처럼 가야금산조만을 연주하는 음악인은 20세기 전반기에는 많지 않았다. 1930년대 경성방송에서 김종기, 정남희, 강태홍 등이 산조만을 연주했던 기록이 있으며 이들이 1936년의 경우 가야금병창만을 연주하는 오태석보다 더 많이 방송에 출연한다. 즉, 이들의 활약으로 서서히 산조가 가야금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까지는 민속악 중 병창이 가야금의 주요 레퍼토리였지만, 이렇게 산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이들이 활약하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 가야금의 레퍼토리로서 산조가 주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전반기에는 가야금 단독으로 병창이나 산조를 연주하는 경우가 물론 많았지만 그 외에 가야금이 민요의 반주 또는 다른 악기와 의 기악합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연주자들은 아래의 <표 80>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204) 『동아일보』 1928년 2월 20일자 2면

205)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년, 500~501쪽.

<표 80> 20세기 전반기 경성방송국 민속기악 가야금연주자

연대	구분(장르)	연주자(1회 이상 출연횟수)			
1920년대	가야금+ 기악합주	김우학(3)	김해선(5)	박동준(4)	
	기타(가야금반주)	김산월 김선화 김연우	김우학(4) 안기옥	오택석 이소향	이옥향 이옥화
1930년대	가야금+ 기악합주	김갑자 김금암(2) 김일선(2)	김채련 김해선 박동준(2)	심상건 오택석(2) 이일선(13)	정남희(4) 한갑득
	기타(가야금반주)	김우춘(2) 김우학(3) 김일선	김종기(3) 김철성(2)	심상건 이일선(17)	정남희 조류색
1940년대	가야금+ 기악합주	박상근 광산영이	목춘현일	심상건	박성옥
	기타(가야금반주)	심정순 박상근(2)	심상건(3)	정채란	조영학

앞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민요 반주나 다른 악기들과 민속음악을 합주하는 연주자는 특정 연주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유명한 오택석 외에 가야금산조로 유명한 심상건 등의 이름이 보인다. 이에 당시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로 유명한 전문음악인들이 민요 반주자 등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시나위>, <봉장취> 등 산조 이외의 민속 기악곡으로 레퍼토리를 확장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소결론

20세기 전반기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오늘날 알려져 있는 전통음악의 각 장르들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자리잡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궁중음악은 유성기음반과 경성방송이라는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궁중의 의례나 연례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아닌 감상용 음악으로서 연주되기 시작했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가야금이 포함되어 연주되는 시도가 나타나 음악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곡이 <만년장환지곡>이라고도 알려

진 가곡 계열 음악의 반주 음악인데, 가야금이 포함되지 않는 편성으로 반주되는 경우도 더러 보인다. 즉,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야금 역시 반주악기로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편성이 오늘날 가곡 반주 편성으로 확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궁중음악을 가야금 연주 악곡으로 레퍼토리화 한 이왕직아악부 출신 가야금연주자로는 명완벽, 명호진, 김강본, 김영윤, 이창규, 홍원기, 박성원, 유영수, 김상진, 이재국 등을 들 수 있겠다. 그 중 명완벽은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사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가 연주하는 가야금 역시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그의 아들 명호진은 이러한 명완벽의 활동을 이어받는데 더해서 공연 무대 등에서도 활동을 하며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섰다. 즉, 이왕직아악부의 악사들은 비록 궁중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교육받았지만 당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라디오 및 근대 무대에서도 음악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권번 출신 음악인들과 지역출신 음악인들은 주로 풍류방음악에서 가야금 연주를 담당했다. 지역 출신 음악인으로는 나운보, 민성기, 이재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재규는 이화학교에서 가야금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민간 출신 악사들은 이미 1920년대 즈음에는 풍류방음악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야금병창 연주자로는 박팔괘, 심정순 등이 대표적이며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초에 활동했다. 둘은 모두 충청도 출신의 음악인으로 특히 박팔괘는 가야금병창을 창시한 인물로도 언급되고 있다. 이후 가야금병창 연주자로는 1920년대 후반부터 경성방송에 출연했던 전라남도 출신의 오태석을 들 수 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야금병창의 인기와 더불어 산조 역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병창 및 산조만을 연주하는 이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오태석과 같이 가야금병창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연주자들이 탄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번 소속 기생들이 가야금병창을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산조가 주목받게 되는데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연주자

가 심상건이다. 심정순의 조카로 병창과 산조 모두에 능했던 심상건은 가야금음악의 주된 기류가 병창에서 산조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까지는 민속악 중 병창이 가야금의 주요 레퍼토리였지만, 안기옥과 같이 산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 가야금의 레퍼토리로서 산조가 주목받게 되었다. 산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던 연주자들의 출신 및 학습 지역은 주로 전라도까지 포함되는 충청 이남권이었다. 즉, 당시 이 지역에서 발달한 판소리 및 풍류 문화 등의 영향으로 가야금산조를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인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이나 가야금산조를 전문으로 연주했던 연주자들은 민요 반주나 민속 기악 등까지도 영역을 확대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야금 전문 음악인들의 활약으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악기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근대화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 VI. 결론

가야금이라는 악기, 가야금연주자 그리고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급변했던 20세기 전반기 상황에서 다른 어떤 악기들보다도 근대화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19세기 말부터 기악독주곡인 산조가 다른 어떤 악기들보다 가장 먼저 가야금으로 연주되었고, 이후 근대 사회를 거치며 가야금은 ‘기악곡’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제일 먼저 자리매김하며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야금은 20세기 전반기에 진행된 전통음악의 근대화라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새로이 등장한 방송과 음반이라는 미디어와 근대식 무대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악기로 자리매김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음악의 전개양상에 관해 살펴보려 하였다. 당시의 가야금음악에 관해서는 『매일신보』,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의 기사들, 라디오로 방송되었던 음악에 대한 기록을 담은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과 가야금음악이 담긴 유성기음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한국유성기음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방송, 유성기음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활동했던 궁중음악 가야금연주자로는 함화진, 명호진 등을 들 수 있겠다. 당시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는 영산회상 계열 음악으로, 궁중음악이 본격적으로 가야금음악의 레퍼토리로서 연주되는 것은 1930년대 이습희의 활동 이후였다.

이러한 궁중음악과 비교할 때 풍류방음악이 오히려 더 이른 시기에, 그리고 훨씬 빈번하게 라디오 방송 또는 공연 무대에서 소개되었다. 1920년대 가야금으로 풍류방음악을 연주했던 이들은 주로 권번 소속의 기생들이 많았으며 간혹 민간의 악사도 있었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대부분 ‘조선음률’이라고도 불렀던 영산회상 계열 음악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왕직악악부 소속 또는 관련 있는 음악가들



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개인의 연주 역량 강화라는 이승희의 기획 의도와 더불어 궁중음악은 가야금 독주, 또는 가야금과 다른 악기의 소규모 합주라는 이전과 다른 편성들이 선보여졌다. 이러한 시도는 방송에도 영향을 주어 점차 가야금이 독주악기로 부각이 되고 가야금이 합주 음악에만 포함되는 종속적인 연주형태에서 벗어나 독주 악기로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가야금정악이라고도 분류되는 궁중음악이 가야금의 레퍼토리로 부상하는 시기는 20세기 전반기,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겠다.

20세기 전반기 풍류음악을 가야금으로 연주한 이들 중 기생들은 1920년대에 권번 단위로 주로 합주 편성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활동을 했었다. 이들이 연주했던 곡은 영산회상 계열 악곡, 가곡 계열 악곡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궁중음악의 레퍼토리화도 겹치는 이들 악곡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생들보다는 이왕직악부 출신의 악사 또는 민간의 연주자들이 더욱 많이 연주하게 된다. 이는 기생들이 연주하는 음악의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권번의 쇠퇴와도 관련이 있겠으며 또한 가야금병창, 산조 등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다른 음악의 유행과도 관련이 있겠다. 즉 권번의 쇠퇴로 자신들의 음악을 유통시키기 어렵게 된 기생들은 대중에게 인기 있는 가야금병창과 산조 등의 전문 음악가로서 자리 잡는 경우가 아니면 가야금연주자로서 활동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세기 전반기에 많은 인기를 누린 가야금음악으로는 병창과 산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1920년대에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중 병창이 방송이나 유성기음반에 가장 많이 등장했다. 이렇게 가야금병창의 인기는 1936년에 최고를 이루었다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점차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던 이들을 보면, 크게 권번 출신 여성 기생인 경우와 풍류방이나 명인들의 문하생으로 시작한 전문 연주자들로 구별 할 수 있겠다. 기생 연주자의 경우 조선권번과 한성권번 출신들이 많았는데, 병창과 산조를 함께 연주한 이들보다는 병창만을 연주한 이들이 많았다. 이는 당시 판소리와 창극의 인

기로 인해, 가야금으로 반주하며 판소리의 단가 등을 부르는 병창이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생들이 방송에 출연하기 쉬웠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짧은 학습 기간은 산조와 같은 음악적 창조 능력이 결부되어야 하는 레퍼토리는 무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병창을 연주한 이들 중에 기생이 아닌 전문 음악인들의 모습도 살펴 볼 수 있다. 심상건, 오태석, 정남희, 강태홍 등이 전문 음악인으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던 이들이었다.

이어서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으로 연주한 기악 음악 중 오늘날까지 발전을 거듭하며 중요하게 전승되고 있는 음악인 산조는 1930년대 중반에 가야금 레퍼토리로서 어떤 장르보다도 주목 받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판소리의 유행에 편승해서 병창이라는 장르로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 가야금이 점차 그 음악적 영역을 확대해 나가서 독자적인 기악곡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로는 충청이남 및 전라도 지역에서 판소리 및 풍류의 음악문화를 접하고 학습한 것이 배경이 되는 음악인들이었다.

산조를 연주했던 이들을 보면, 크게 권번 출신 여성 기생인 경우와 풍류방에서 활동했거나 판소리 명인의 문하생으로 음악 학습을 거친 전문 연주자들로 구별된다. 기생 연주자의 경우 가야금산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비교적 짧은 학습 기간을 거치고 무대에 서야했던 기생들은 긴 학습기간과 창조적인 음악성을 필요로 하는 산조를 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향, 김운선 등과 같이 권번에 속해 있지만 가야금산조로까지 음악 영역을 확대시킨 음악가들도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던 산조 연주자로 심상건, 정남희, 강태홍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앞의 가야금병창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언급된 이들로 병창 연주자로서도 활약했다. 즉, 심상건, 정남희, 강태홍 등 당시 가야금병창으로 인기를 누리게 된 이들이 레퍼토리의 확장을 위해 산조를 적극적으로 연주하게 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속 기악의 중주 및 합주 형태로는 <가야금과 대금> 또는 <가야금과 해금, 장고>의 결합이 두드러졌으며 <봉장취>, <시나위> 등의 기악합주와 민요기악연주 등의 레퍼토리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야금과 바이올린>의 민요 합주와 같은 새로운 시도도 엿볼 수 있었다. 가야금의 또 다른 레퍼토리로는 잡가, 민요 또는 판소리 등의 성악 반주로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볼 수 있었다.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병창, 산조, 민속기악 등 각 장르별로 진행해 본 논의를 바탕으로 20세기 가야금음악의 전개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과 같은 정악·산조·창작음악이라는 가야금음악의 레퍼토리는 근대 이후에 정립된 것이다. 근대 이전의 전통음악에서 가야금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이른바 오늘날 정악이라고 장르를 구분 짓는 음악에서 그 역할이 매우 미비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 특히 1930년대 이후 가야금을 근대에 맞는 기악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탈바꿈하면서 시도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궁중음악은 이습회의 영향으로 독주나 병주 등의 새로운 편성으로도 연주가 시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합주 역시 여러 악기들과의 다양한 편성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편성 중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의 역할이 부각되었으며,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 및 풍류방음악이 가야금정악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속악의 레퍼토리로 20세기 전반기에 시도된 것은 가야금병창과 산조이다. 판소리와 창극의 유행을 배경으로 가야금병창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이를 시도했던 이들은 권번 출신, 그리고 풍류방에서의 경험이나 판소리 학습 이력을 가진 전문 음악인들이었다. 가야금병창으로서 음악계에서 입지를 다진 이들은 이후 레퍼토리의 확장으로 산조의 연주를 시도했다. 유성기음반의 유통, 1920년대 이후의 라디오방송 실시 등으로 가야금산조는 서서히 대중에게 인지도를 얻어갔으며 그 음악적 발전과 함께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병창의 인기를

넘어서게 되었다.

셋째, 20세기 전반기 가야금을 연주했던 연주자들은 이왕직아악부 출신 음악인, 권번 출신의 기생, 민간 악사, 판소리 등의 학습 이력을 지닌 전문 음악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이들은 각각 주로 연주했던 레퍼토리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왕직아악부 출신 음악인들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연주했으며 권번 출신의 기생은 가야금병창과 풍류방음악을 주로 연주했다. 산조는 주로 전문 음악인들에 의해 연주되었으며 이들은 병창을 함께 연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20세기 전반기는 가야금음악이 근대화된 사회를 위한 레퍼토리로서 확립되고 발전해 나가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박팔괘, 심정순 등과 같이 가야금산조와 병창을 연주하던 지방의 가야금연주자들이 판소리의 인기에 힘입어 가야금병창을 내세워 유성기음반, 라디오 등 당시 음악문화 유통의 중심지였던 서울 진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는 1920년대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 병창이 당시 가야금음악의 유통에 앞장서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병창보다는 전문 음악인이 연주하는 가야금산조가 주목을 받게 되고 가야금이라는 악기 자체가 독주악기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궁중음악을 레퍼토리로 하는 이 습회에서 가야금 독주나 중주로 연주를 시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30년대까지 이어지는 가야금병창과 산조의 유통은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포함하는 정악에서도 가야금이 부각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병창, 산조, 민속기악 등이 유성기음반, 라디오방송, 공연 무대 등에서 가야금음악으로서 선보이게 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시점인 20세기 전반기는 가야금음악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저서 · 단행본

- 국립고궁박물관, 『이왕직아악부 유성기음반 <조선아악>』, 국립고궁박물관, 2014.
- 국립국악원,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국립국악원, 1991.
-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 민속원, 2004.
- 김영희, 『매일신보 전통공연예술 관련기사 자료집 1』, 보고사, 2006.
- 김우진, 『한국음악학 연구 방법론』, 민속원, 2015.
-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1』, 한길사, 1995.
- 박황,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1974.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공연예술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사, 2012.
- 아오야나기 고타로(靑柳綱太郎) · 지송옥, 『조선미인보감』, 경성일보사, 1918.
- 장사훈, 『국악개요』, 정연사, 1961.
- 정영진, 『일제강점기 국악』, 한국학술정보, 2007.
-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유성기음반』, 한결음더, 201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민속원, 2000.

## 2. 연구논문

- 권도희, 「가야금산조 진양의 형식론」, 『한국음반학』 제3집, 한국고음반 연구회, 1993.
- \_\_\_\_\_, 「김운선 가야금산조 연구」, 『한국음반학』 제5집, 한국고음반 연구회, 1995.
- \_\_\_\_\_, 「유성기음반 가야금산조의 중모리 연구: 평조 유형 간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6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6.
- \_\_\_\_\_, 「심상건의 산조사적 공헌」, 『한국음반학』 제9집, 한국고음반 연구회, 1999.
- \_\_\_\_\_, 「초기 산조에서 장단연속체 구성법의 다양성」, 『한국음악연구』 제59집, 한국국악학회, 2016.
- 권은경, 「동명이인(同名異人)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김운선(金竹波)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54집, 한국음악사학회, 2015.
- \_\_\_\_\_, 「일제강점기 가야금산조 연주자들의 세대별 음악활동 및 공연 예술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경성방송국 방송 시작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김명주,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방송활동: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30집, 한국음악사학회, 2003.
- 김성혜,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한국음악학논집』 1권, 한국음악사학회, 1990.
- 김영희, 「광무대 전속 기생-산옥과 옥엽을 아시나요-」, 『월간문화공간』, 문화산책, 2013.
- 김원명·정영진, 「일제강점기 대중매체에 조용한 가야금산조」, 『文化傳統論集』 제10호,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김해숙,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산조의 틀: 김해선의 음반 연주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3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3.
- \_\_\_\_\_, 「유성기음반의 함동정월 가야금산조와 현행과의 비교」, 『한국

- 음반학』 제2집, 한국고음반연구회, 1992.
- 김현호, 「일제강점기 가야금산조의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研究』 제53집, 동양고전학회, 2013.
- 민의식, 「가야금음악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확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은혜, 「근대 전문음악교육 연구」-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배연형, 「심정순일가의 음반」, 『한국음악사학보』 제28집, 한국음악사학회, 2002.
- 서재길, 「1930년대 후반 라디오 예술과 전통의 문제」, 『한중인문학연구』 제23집, 한중인문학회, 2008.
- 성기련,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의 음악교육 연구」, 『동양음악』 제26권,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 송방송, 「고려 향악의 삼현문제-선비들의 풍류를 중심으로-」, 『고려음악사연구』, 일지사, 1988.
- \_\_\_\_\_, 「거문고명인 白樂俊과 가야금명인 丁南希의 公演樣相: 일제강점기의 방송, 음반,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11집, 한국고음반연구회, 2001.
- 송혜원, 「유성기음반을 통해본 1930년대 가야금병창의 실태」, 『韓國音樂史學報』 제27집, 한국음악사학회, 2001.
- 송혜진, 「고려시대 음악연구 : 거문고보다 가야금을 즐긴 고려시대의 문인들」, 『전통문화』 8월호, 전통문화사, 1986.
- \_\_\_\_\_,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肄習會)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국립국악원, 2001.
- \_\_\_\_\_, 「음악가 심정순의 공연활동 재검토-1911부터 1926까지의 『매일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제28집, 국립국악원, 2013.
- 신혜주, 「단성사 공연 활동에 관한 예술사적 연구 - 1910년-1918년대까지의 전통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56집, 한국음악사학회, 2016.

- 안성희, 「권번 여기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윤영혜, 「조선전기 사대부 금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 제28집, 한국음악 사회, 1997.
- \_\_\_\_\_, 「박팔괘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 제20집, 한국음악 사학회, 1998.
- 이 선, 「留聲機音盤에 나타난 가야금병창의 현황: '한국유성기음반총 목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설희, 「『朝鮮美人寶鑑』에 나타난 기생조합 권번에 관한 고찰」, 한국 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이소영,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수정, 「이왕직아악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용식, 「한국 전통음악의 전승과 미래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19집, 공연문화학회, 2009.
- 이유나, 「1930년대 가야금산조 악조별 시김새의 음향학적 분석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윤정,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가야금병창 공연형태의 변모 양상, 『우 리춤과 과학기술』 제12집, 2010.
- 이정희, 「한국근대전환기의 궁중악사, 명완벽」, 『한국음악사학보』, 한 국 음악사학회, 51권 2013.
- \_\_\_\_\_, 「이왕직아악부의 활동과 안팎의 시각」, 『동양음악』 제26집, 서 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 이지선,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음악 연구 -가네쓰네 기요스케(兼常 清佐)의 『朝鮮の音楽』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50권, 한국음악사학회, 2013.
- 이혜구, 「1930年代의 국악방송」, 『國樂院論文集』 제9집, 국립국악원, 1997.



- 전명희, 「오태석의 가야금병창 활동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영진, 「伽倻琴名人 姜太弘의 公演樣相 : 日帝强占期 放送·音盤資料를 中心으로」, 『韓國音樂史學報』 제29집, 한국음악사학회, 2002.
- \_\_\_\_\_, 「日帝强占期 傳統音樂의 展開樣想 研究」,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홍재동, 「가야금병창 연구」, 『판소리연구』 제5집, 판소리학회, 1994.

### 3. 기타

- 『동아일보』(1921-1945),  
『매일신보』(1910-1945),  
『조선일보』(1920-1945) 신문기사

### 4. 史書

- 『삼국사기(三國史記)』  
『성호사설(星湖僊說)』

### 5. 웹사이트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http://www.sparchive.co.kr>

## <Abstract>

### A study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Gayageum* Music of the early 20th century.

Song Jungmin  
Major in Gayageum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Korean music, *Gayageum*(가야금) music became as a popular and important musical instrument leading the musical genre in the early 20th century. *Gayageum* music began to play importantly in all genres of music such as court music, *Pungryubang*(풍류방) music, *Sanjo*, and folk instrumental music throughout the all performing media.

In this study, I'd like to examine the contents of radio broadcast list, phonograph records, and newspaper articles to examine the specific musical growth of *Gayageum* music. The result of the studies are as follow.

The court music played in *Gayageum* began to appear on radio broadcast and phonograph record in the mid-1920s. The representative court musical *Gayageum* musicians who were active at that time were *HamHwajin*(함화진) and *MyungHojin*(명호진). Typical repertoire was the music of *Youngsanhoesang*(영산회상). However, in the 1930s, the establishment of the court music as the central repertoire of *Gayageum* music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activities of the music group *Iseuphoe*(이세회).

Compared to these court music, the *Pungryubang*(풍류방) music

was introduced at a rather early stage, and more often on radio broadcasts or stage performances. In the 1920s, those who played *Pungryubang* music with *Gayageum* were mostly *Gisaeng*(기생) musicians, and sometimes there were also private musicians. Their repertoire was mostly a *Yeongsanhoesang*(영산회상), which was also called *Choseoneumryul*(조선음률). After the mid-1930s, the repertoire of *Pungryubang*(풍류방) music and court music overlapped, leading to more prominent performances by musicians from the *Yiwangjik Aakbu*(이왕직악부) or private players rather than by the *Gisaeng* musicians.

On the other hand, the *Gayageum Byeongchang*(병창), which was popular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seems to have declined gradually since the mid 1930s. Among those who played the *Gayageum Byeongchang*, many of them came from the *Gwonbeon*(권변),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popularity of *Pansori* and *Changgeuk*(창극) at that time. *Gayageum* players seem to have strategically selected a song like *Pansori Danga*(단가) along with *Gayageum* accompaniment as a way of approaching the public.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ondition that the short learning period of *Gisaeng*(기생) musicians, it would be easier to perform *Byeongchang* repertoire than *Sanjo*(산조). The *Byeongchang*(병창) is less demanding for musical creativity than *Sanjo*.

*Sanjo*,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music after much development to the present day, became a music that attracted attention as a repertoire of the *Gayageum* in the mid 1930s. It can be said that the *Gayageum*, which became popular with the genre of the *Pansori*, became gradually recognized as a unique instrumental music by expanding its musical realm. The musicians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at this time were mainly musicians

from the southern *Chungcheong*(충청) and *Cholla*(전라) provinces, and their musical background was based on the music from *Pansori* and *Pungryubang*(풍류방) music.

In all of these genres, *Gayageum* music became popular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Gayageum* players participated in vocal music accompaniments such as, folk songs, *Japga*(잡가) or *Pansori* and folk instrumental music. This is a result of the growth of *Gayageum* music and *Gayageum* player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ccording to the above discussion, since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especially in the 1930s, the *Gayageum* has become a musical instrument playing modern instrumental music as a solo instrument playing court music, *Pungryubang*(풍류방) music, *Byeongchang*, *Sanjo* music. The main repertoires of *Gayageum Jeongak*(정악) played today is determin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its main repertoire is centered on court music and *Pungryubang* music. In same period, *Byeongchang* and *Sanjo* were also established as folk music played with *Gayageum*.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discussion above is that the distribution of folk instrumental music such as *Gayageum Byeongchang* and *Sanjo* that developed from the beginning of the 1900s to the 1930s formed the basis for *Gayageum* to become an important musical instrument in *Gayageum* genre including court music and *Pungryubang*(풍류방) music.

.....

Keywords : *Gayageum*(가야금), Court music(궁중음악), *Gisaeng*(기생), *Pansori*(판소리), *Danga*(단가), *Pungryubang*(풍류방) music, *Sanjo*(산조), *Byeongchang*(병창), Phonograph record(유성기음반)

Student Number : 2006-30466

## 부 록

### <제목 차례>

#### I.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목록 중 가야금 관련 프로그램목록

1. 궁중음악 및 풍류방음악 .....	165
1) 궁중음악(이왕직아악부) .....	165
2) 풍류방음악 .....	166
2. 민속악 .....	167
① 1926년 .....	167
② 1927년 .....	167
③ 1928년 .....	169
④ 1929년 .....	172
⑤ 1930년 .....	174
⑥ 1931년 .....	176
⑦ 1932년 .....	177
⑧ 1933년 .....	179
⑨ 1934년 .....	182
⑩ 1935년 .....	187
⑪ 1936년 .....	190
⑫ 1937년 .....	194
⑬ 1938년 .....	197
⑭ 1939년 .....	201

⑮ 1940년 .....	204
⑯ 1941년 .....	207
⑰ 1942년 .....	209
⑱ 1943년 .....	211
⑲ 1944년 .....	212
㉔ 1945년 .....	213

## Ⅱ. 이왕직아악부 이습회 가야금 연주곡 .....

① 1932년 .....	214
② 1933년 .....	214
③ 1934년 .....	215
④ 1935년 .....	215
⑤ 1936년 .....	216
⑥ 1937년 .....	217
⑦ 1938년 .....	218
⑧ 1939년 .....	218
⑨ 1940년 .....	219
⑩ 1941년 .....	220
⑪ 1942년 .....	220
⑫ 1943년 .....	220

## Ⅲ. 유성기음반 중 가야금 관련 음반목록 .....

1)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	220
----------------------	-----

2) 민속악 .....	220
① 1908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0
② 1911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1
③ 1915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1
④ 1925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1
⑤ 1926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2
⑥ 1927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3
⑦ 1928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4
⑧ 1929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4
⑨ 1930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5
⑩ 1931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6
⑪ 1932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7
⑫ 1933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29
⑬ 1934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31
⑭ 1935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35
⑮ 1936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36
⑯ 1937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40
⑰ 1938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42
⑱ 1939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43
⑲ 1940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44
㉔ 1942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44
㉕ 1943년 유성기 음반 가야금 민속음악 .....	244

# I. 경성방송국 국악방송 목록 중 가야금 관련 프로그램목록

## 1. 궁중음악 및 풍류방음악

### 1) 궁중음악(이왕직아악부)

연도	날짜	구분	곡명	연주자
1928	11.3	악기소개 주악	1. 서일화지곡(합악) 2. 만년장환지곡 (가.관현악반주) 3. 봉황음(관현악) 4. 요천순일지곡(세악) 5. 만파정식지곡(관악)	조선이왕직아악부 김영제/함화진(아악수)/하규일(축탁)/이 기○/명호진/박창규/김득길(아악수장)/ 이순용/김계선./김수천/고영재/이병우/ 박노아/김천룡/이병성/유금돌/김천홍(아 악수)
1931	4.5	조선아악	1.서일화지곡(합악) 2.만년장환지곡(가악반주) 3.봉황음(관악) 4.요천순일지곡(세악) 5.장춘불로지곡(합악)	박성재(편종)/박노아(편경)/김계선(대금, 생황)/김철복(필율)/이병성(해금)/이복길 (당적)/김보남(단소)/김강본(가야금, 鼓)/ 김천홍(해금)/김선득(장고)/성경린(좌고)/ 장정봉(박)/이수경(지휘: 아악사) (이왕직아악부 조선 지방자치제 실시 기 념 프로그램)
1933	11.2	이습회 만일주년 기념연주회	승평만세지곡(현악)	지휘:함화진 연주자:이왕직아악부원 김강본(가야금)/김천홍(비파) (이왕직아악부로부터 중계)
1934	11.1	아악	황하청지곡(初二) 정상지곡(현악) (하현으로부터 군악)	김영운(가야금) 이수경외 7인
1935	3.21	아악	오운개서조(현악)	해금/양금/가야금 (이왕직아악부연주소로부터 중계)
	11.7	가야금독주	우림령	김강본(가야금) (이왕직아악부연주소로부터 중계/이습회 3주년기념)
	12.4	아악	하성조(현악)	현금/가야금/양금/해금/대금/단소/장고 (이왕직아악부연주소로부터 중계)
1937	8.15	가곡	1. 우조초수대엽(남창) 2. 우조두겨(여창) 3. 언락(남창) 4. 우락(여창) 5. 편락(남창) 6. 편(여창)	이병성(남창)/이아정(여창)/장인식(현금)/ 김수봉(가야금)/이복길(가야금)/김보남(피 리)/김계선(대금)/김천홍(해금)/김선득(장 고)
	10.8	아악	황하청지곡	지휘:아악사장 함화진 김영운(대쟁)/이창규(가야금) (이왕직아악부연주소로부터 중계)
	11.3	아악	현악 황하청지곡 (대금, 가야금)	이왕직아악부원 지휘:아악사장 함화진 (이왕직아악부연주소로부터 중계)
1942	6.19	(城)아악	1. 정상지곡(현악) 2. 보허자(합악)	이왕직아악부원 지휘:성송청(이왕직아악부より 중계)



## 2) 풍류방음악

연도	날짜	구분	곡명	연주자
1926	7.18	조선음률	정악	차금홍(현금, 한성권번)/김진홍(양금, 한성권번)/김초홍(가야금, 한성권번)
1927	9.19	조선음율	영산회상	이성환(현)/나운보(가)/고희직(양)/용구(해)/현용현(대)/이재규(적)/김상운(단)
1928	1.23	조선음율 및 남도잡가 합창	수종(數種)	윤옥향(현금)/김운선(가야금)/이소향(단소)/서산옥(양금)
	6.11	조선음율과 남도잡가	곡명 없음	윤옥향(현금)/김운선(가야금)/이소향(단소)/서산옥(양금)
	8.8	조선음율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윤옥향(현금)/서산옥(양금)/김운선(가야금)/이소향(단소)
	9.20	조선음율과 남도잡가	곡명 없음	이금홍(현금)/서산옥(양금)/김운선(가야금)/이소향(단소)/고일선(장고)
	10.2	조선음율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이금옥(현금)/서산옥(양금)/김운선(가야금)/이소향(단소)
	12.6	조선정악	곡명 없음	이금옥(현금)/현매홍(양금)/김운선(가야금)/이봉구(단소)/박산홍(장고)
	12.22	조선정악과 남도잡가	곡명 없음	이금옥(현금)/서산옥(양금)/문하월(가야금)/이계향(단소)
1929	7.20	조선음률	영산회상	인천: 김설영(현금)/신화중선(양금)/김산홍(양금)/이석련(해금)/이우규(함남울咸南簫)/이금향(가야금)/김명주(단소)/정인화(장고)
1931	8.26	조선음율	영산회상	이선홍(현금)/이소향(단소)/서산호주(양금)/김운선(가야금)/김수창(장고)(조권)
1932	7.23	조선음율 관현악	영산회상 중 제1장 상령산 제2장 중령산 제3장 세령산 제4장 상현 제5장 하현 제6장 엽불 제7장 타령 제8장 군악	조선권번연중 조홍련(현금)/박산홍(양금)/김운선(가야금)/이소향(단소)/김영근(대금)/한농선(해금)/김수창(장고)
	8.12	조선음율과 남도단가	영산회상 중 제1장 제 10장	개성권번연중 조송학(현금)/허계홍/이화우(양금)/류금화(가야금)/이병우(단소)/박춘심(수고)
1933	1.18	조선음율	영산회상	개성권번 김○옥(현금)/김옥희(가야금)/박선(양금)/고산홍(양금)/민완식(해금)/이병우(단소)/박추월(장고)
	4.26	음율과 무용	음율 (영산회상 중)	이정애(현금)/한소향(가야금)/한연행(단소)/김해경(가야금) (10길로이중방송개시식상황 경성부외정희방송소에서 중계)
	5.28	음율	1. 잔영산 2. 가락도도리 3. 삼현 4. 잔도도리 5. 하현 6. 엽불 7. 타령 8. 군악 9. 계면도도리	고산홍(현금)/고초운(가야금)/이진홍(양금)/박종해(장고)/이병우(단소)

			10.양청	
	7.4	음율	잔도드리, 염불, 타령, 군악	한농선(해금)/문연춘(단소)/임소형(세적)/권봉선(가야금)/한영희(양금)/한성준(장고)
	9.10	조선권변 배반자리	1. 가곡 2. 가사 춘면곡 3. 시조	이비취/이수완/안진동/정채홍/신화선(여창) 반주:현금/가야금/양금/해금/대금/세적/장고 (돈의동 명월관 본점에서 중계)
1934	1.28	정악	곡명 없음	동래권변기생 양농선(해금/최소학(가야금)/박계화(양금)/정설월(양금)박윤이(단소)/최송학(장고)/최금화/허난엽(독창)
1937	2.17	음율	영산회상	윤영련(현금)/민성기(가야금)/오한모(양금)/이두칠(해금)/이재규(피리)/강용운(단소)/김기○(장고)
	8.15	음율	영산회상	윤영달(현금)/민성기(가야금)/오한모(양금)/김덕진(해금)/이두칠(대금)/강용운(통소)

## 2. 민속악

### ① 1926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7.12	남도잡가(가야금병창)	육자백이	김농운(한성권변)
7.18	조선소리(가야금병창)	사랑가	심매향(조선권변) 김해선(한성권변)
7.22	가야금병창	심청가	심정순
8.5	조선가곡(가야금병창)	춘향전	심정순
8.8	조선노래(가야금병창)	단가	김남주, 송옥주(대동권변)
8.19	가야금병창	소상팔경, 만고강산	김해선, 이월향, 오소옥(한성권변)
9.2	조선소리(가야금병창)	백구사, 옥중가, 죽지사, 매화사	김해선, 한국향, 김금홍, 장향란(한남권변)
10.7	조선노래(가야금)	1.남도잡가	김남주, 송옥주(대동권변)
		2.서도잡가	김란홍, 전란홍(대동권변)
11.1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일동전속조선명창)
12.9	남도단가(가야금병창)	단가, 애가(愛歌), 조가(鳥歌)	심상건/한성준(장고)

### ② 1927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26	남도잡가(가야금병창)	단가, 화용도	송옥주, 조우춘(대동권변)
3.1	단가(가야금병창)	조타령, 무녀유가, 투전해가, 춘향가	이일선/박춘재(고수)
3.9	남도단가(가야금병창)	백구사, 만고강산, 육자가	김농운, 최운매(조선권변)
3.11	가야금병창	단가, 몽중가, 소상팔경	심상건
3.26	가야금병창	대장부, 소상팔경	심상건
3.29	가야금병창	백구사, 조가, 흥타령	김농운, 최운매(조선권변)
4.4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심상건

4.5	가야금병창	만고영웅, 이별가	황관향(한성권변)
4.9	가야금병창	단가, 흥타령, 조타령	이월향(한성권변)
4.20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4.29	가야금병창	수창(數唱)	조우향(대동권변)
5.1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이일선
5.10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5.12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6.2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대동권변)
7.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7.3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7.16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김운선(조선권변)
7.2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7.2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황국향(한성권변)
8.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8.20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8.2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8.2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9.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9.18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대동권변)
9.2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10.2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
10.8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10.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0.15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0.20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0.2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0.2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대동권변)
10.2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1.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1.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조선권변)
11.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1.11	가야금병창 단소 독주	수종(數種)	이소향(조선권변)
11.1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1.1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조선권변)
11.2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1.30	가야금병창 단소독주	곡명 없음	이소향(조선권변)
12.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12.2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2.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
12.7	가야금병창	수곡(數曲)	심상건
12.1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2.1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없음
12.2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조선권변)
12.23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2.2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2) 가야금병창과 산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20	남도단가(가야금병창)	산조, 신관봉접, 기생접고	심상건
3.18	가야금병창	산조, 단가	심상건

③ 1928년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8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조선권번)
1.10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15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18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조선권번)
1.20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1.25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한남권번)
1.2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운선
1.2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2.2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2.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2.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2.12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
2.15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2.2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2.2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
3.2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3.7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3.12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오태석/오갑조(고수)
3.15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3.18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3.20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오태석/오갑조(고수)
3.2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4.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오태석/한성준(고수)
4.3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이일선
4.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향
4.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오태석/한성준(반주)
4.15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이일선
4.1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4.20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오태석/안기옥(반주)
4.2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박동준/박종기(고수)
4.28	가야금병창	수곡(數曲)	오태석/안기옥(고수)
5.3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오태석
5.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5.11	남도단가 및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해선
5.13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5.14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윤옥향
5.20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해선
5.2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5.28	가야금병창과 대금합주	곡명 없음	박동준/박종기
5.31	가야금병창-남도단가	곡명 없음	김해선
6.17	남도잡가와 가야금	곡명 없음	김해선
6.19	가야금병창과 대금합주	곡명 없음	박동준/박종기
6.26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김해선
6.2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7.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7.1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운정
7.15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7.1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오태석
7.19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7.22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농선
7.23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박동준
8.3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8.12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해선
8.22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8.2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
9.9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9.13	가야금병창 남도입창	곡명 없음	김종기(병창)/백점봉(입창)
9.18	가야금병창과 대금합주	곡명 없음	이소향/박종기
9.21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이옥화(한성권번)
9.25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9.29	가야금병창과 남도잡가	곡명 없음	김종기(가야금)/백점봉(입창)
10.4	가야금병창	수곡(數曲)	심상건
10.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박동준
10.17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이옥화(한성권번) 이옥화(경성권번)
10.22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0.27	가야금병창 대금독주-합주	곡명 없음	이소향/박종기
10.30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1.2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조학진/오태석
11.11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이옥화
11.13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염계화
11.17	가야금병창과 대금합주	곡명 없음	이소향/박종기
11.24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11.2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12.2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이옥화
12.4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목 없음	김연수
12.11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김해선
12.12	남도단가 및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소흥
12.17	남도입창과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백점봉(입창)/김종기(가야금)
12.27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12.31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안기옥(가야금)/조몽실(입창)
-------	-------------	-------	------------------

## 2) 가야금병창과 산조

날짜	구분(장르)	곡목	연주자
5.3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5.21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5.29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6.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6.22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7.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7.28	가야금산조와 병창	수종(數種)	안기옥/오택석
8.14	가야금산조과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8.28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10.14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0.20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오택석
10.28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11.6	가야금대회	곡명 없음	심상건/안기옥(산조)/ 이소향/오택석(병창)/ 박종기(고수)
11.21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11.29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2.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1절	안기옥/오택석
12.7	가야금산조와 병창	수종(數種)	심상건/이소향
12.16	가야금병창	산조, 장부한, 소상팔경 외	심상건
12.21	가야금병창	산조, 단가, 적별가, 화용도	이소향

## 3) 가야금산조

날짜	구분(장르)	곡목	연주자
12.6	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김운선

## 4)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목	연주자
1.28	가야금-대금독주 및 합주	곡명 없음	이소향(조권)/박종기(대금)
5.10	가야금-대금독주와 합주	곡명 없음	박동준(가야금)/박종기(대금)
5.17	가야금과 대금 합주	곡명 없음	박동준(가야금)/박종기(대금)
6.7	가야금과 대금합주	곡명 없음	박동준/박종기
7.13	가야금과 대금합주	곡명 없음	김해선/박종기(대금, 고)
7.25	가야금과 대금합주	곡명 없음	김해선(가야금)/박종기(대금)
8.3	가야금-대금독주 및 합주	곡명 없음	이소향/박종기
10.1	가야금-대금독주 및 합주	곡명 없음	김해선/박종기
10.12	가야금-대금독주 및 합주	곡명 없음	이소향/박종기
11.23	가야금-단소합주	곡명 없음	김우학(가야금)/송영준(단소)
12.24	가야금-대금독주 및 합주	곡명 없음	김해선/박종기

5)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목	연주자
9.3	가야금 합주·남도단가 합창	곡명 없음	김산월/김선화
9.14	가야금과 서도잡가 합주	곡명 없음	김우학(가야금)/손진홍(좌창)
10.13	가야금과 서도잡가 합주	곡명 없음	김우학/이진봉
12.15	가야금과 남도잡가 합주	곡명 없음	이금옥/김우학(가야금)

④ 1929년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4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이옥화
1.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1.10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독주 및 합창	곡명 없음	김연수/배운선
1.13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이일선
1.15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김해선/박종기(고수)
1.18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1.21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김농운/염계화
1.24	가야금·남도단가	수종(數種)	장초향/오취경
1.25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장행진
2.7	가사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련
2.8	가야금병창과 대금합주	곡명 없음	김해선(창)/박종기(대금)
2.17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數種	박록주/김해선/박종기(고수)
2.22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오택석/정남희
2.24	남도단가·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농운/염계화
2.2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해선
3.3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3.4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옥화/김연수
3.6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3.7	가야금병창	수종(數種)	심상건
3.2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오택석
3.3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미상
4.1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장금련
4.8	남도단가·가야금 합창	곡명 없음	김해선/박록주/박종기(고수)
4.9	시조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금련
4.17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정문/오택석
4.18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장초향
4.24	가사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금련
4.25	가야금병창	수곡(數曲)	김해선/박종기(고수)
4.29	가야금병창	수곡(數曲)	김채운
5.2	남도단가·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홍소월/염계화
5.19	가사·가야금병창· 영남시조·단가	수종(數種)	김금련
5.20	남도단가·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홍소월/염계화
5.22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이소향/김해선

	독창 및 합창		
6.15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홍소월/염계화
6.24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수종(數種)	이옥화/김연수
6.29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조우춘/김해선
7.20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인천:이금향/김초월
7.2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8.11	가야금병창	수곡(數曲)	조우춘
8.24	남도단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미상
9.5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홍소월/조우춘
9.16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미상
9.29	가야금병창	수곡(數曲)	김옥희
10.27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김남주/장초향
11.3	재담과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미상
11.30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최향심/한정기(장고)
12.12	가야금병창	아리랑가와 경남조, 육자가, 리리리야 기타	김운선(가야금)
12.20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미상
12.30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미상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7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31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박종기(고수)
2.1	가야금산조와 남도단가	곡명 없음	안기옥(琴)/조몽실(歌)
2.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3.2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정남희(산조)/오택석(병창)
3.1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정남희(산조)/오택석(병창)
3.17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3.2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4.6	가야금산조와 병창	수종(數種)	이소향
4.7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오택석/정남희
4.11	가야금산조와 병창	수종(數種)	이소향/박종기(고수)
4.12	남도단가와 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김정문/안기옥
4.14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강소춘
4.21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박종기(고수)
5.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박종기(고수)
5.9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정남희/오택석
5.12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5.1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김운선
5.2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5.2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5.28	가야금병창과 산조	산조, 단가, 심청가, 박타령	오택석/정남희
6.1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김운선
6.3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6.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정남희(산조)/오택석(병창)



6.11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김해선
6.1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심상건
6.27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7.7	가야금산조와 병창	가야금산조와 병창	심상건
7.1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장부한가	심상건
7.27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김해선(창)
8.1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미상
8.10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미상
8.2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오택석/안기옥
9.7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안기옥/오택석
9.2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미상
10.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10.12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미상
10.20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박종기
11.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김옥희
11.10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김종기
11.19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
11.24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미상
12.8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조우춘
12.1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이별가 기타	김옥희

### 3)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1	가야금과 대금독주와 합주	곡명 없음	박동준/박종기
1.28	가야금과 단소합주	곡명 없음	김우학/송영준
2.17	가야금과 단소합주	곡명 없음	김우학(가야금)/송영준(단소)
5.10	가야금과 대금합주	단가 애가, 옥중가, 산조, 잡가 합주가	김해선(가)/박종기(대금)

### 4)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7	남도단가와 가야금독창 및 합창	곡명 없음	박녹주/하농주/ 이소향/이옥향
2.10	가야금과 남도단가 독창 및 합주	곡명 없음	이옥화/김연수/박종기(고수)
3.16	가야금과 서도잡가 합주	곡명 없음	김우학/이성(창)
4.23	가야금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박녹주/하농주/ 오택석/안기옥

## ⑤ 1930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2	가야금병창	단가, 새타령, 유행잡가	이일선
2.11	가야금병창	단가, 새타령, 유행가 기타	이일선

2.16	남도단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금옥
2.22	가야금병창	단가, 옥중가	김운선
2.25	경성잡가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박춘재/이일선
3.6	가야금병창	단가, 愛의 歌, 심청가	김해선
3.12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단가, 사랑가, 심청가	염계화
3.18	가야금병창	단가, 愛의 歌, 백구가 외	조우춘
3.21	경성잡가 및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박춘재/이일선
3.23	남도단가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김금옥
4.3	가야금병창	단가, 새타령, 기타 잡가 수종	이일선
4.6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심청가, 잡가 기타	김운선
5.4	남도단가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심청가	염계화
5.18	가야금병창	단가, 새타령, 경성유행가 수종	이일선
6.5	가야금병창	단가, 새타령, 잡가, 유행소패(流行小唄)	이일선
6.21	가야금병창	조타령, 아리랑조, 이팔청춘가	이옥화
6.24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 및 유행가	이일선
6.30	가야금병창	단가, 심청가	김옥희
7.2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외	강선옥
7.6	가야금병창(조선음악) (광도에서 전국 중계)	새타령, 아리랑사, 이팔청춘가	이옥화
7.11	가야금병창	단가, 잡가, 유행단가 외	이일선
7.28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 및 유행패	이일선
8.3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심청가 외	이옥화
8.20	가야금병창	단가, 조의가, 잡가와 유행가	이일선
8.30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와 유행가	이일선
9.5	남도단가 가야금병창	1. 단가 2. 춘향가 3. 단가 4. 사랑가 5. 유행가 기타	이옥화
9.15	가야금병창	단가, 새타령, 잡가 수종, 유행가 기타	미상
9.25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심청가 외	오태석
10.7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 유행패	이일선
10.17	가야금병창	단가, 심청가 중, 춘향가 중	오태석
10.25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단가, 진양조, 단가, 사랑가, 심청가	이옥화
10.28	가야금병창	단가, 수궁가, 흥부가 외	오태석
11.15	가야금병창	단가, 수궁가 외	오태석
11.19	조선음악협회공연 (조선극장에서 중계)	단가: 노화월(蘆花月), 춘향전 사랑가	심상건
12.1	남도단가와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애가, 심청가 외	이옥화
12.7	가야금병창	단가, 심청가 외	오태석
12.12	남도단가 및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중, 조어환주(釣魚換酒), 소상팔경	이소향
12.16	가야금병창	단가, 수궁가 외	오태석
12.22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 유행가	이일선
12.29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 및 유행가	이일선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14	가야금산조와 병창	단가, 사랑가, 이별가	이소향
2.27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외	한성기
4.1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심상건
4.2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외	이소향
6.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유행가 외	김운선
6.16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한성기
6.2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외	김운선
7.26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유행단가	김운선
8.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애가, 유행가 외	김운선
8.1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한성기
8.27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외	심상건
9.30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외	김운선
10.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가	김해선
10.10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이순근(통영)/김용배(고수)
11.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수궁가 외	김운선
11.9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김해선
11.2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노화월, 사랑가	심상건
12.2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심상건

⑥ 1931년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일선
1.25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곡명 없음	장초향
1.29	가야금병창	단가, 수궁가	오태석
2.12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 및 유행가	이일선
2.19	가야금병창	단가, 사랑가, 심청가, 수궁가	오태석
3.10	가야금병창	단가, 심청가	오태석
3.31	단가(가야금병창)	조어환주	이소향
3.31	단가(가야금병창)	초한가, 토공전, 수궁가	오태석
5.17	가야금병창	단가, 수궁가	오태석
6.30	가야금병창	단가, 수궁가	오태석
8.15	남도단가와 가야금	단가, 심청전, 춘향가 외	이옥화
8.31	가야금병창	1. 단가 2. 백구가 3. 죽장가 4. 조타령 5. 兎의歌 6. 철설령 7. 문장천 8. 이별가(보요 普謠) 9. 아리랑(신민요) 10. 무녀가	이계화/김옥련
9.28	가야금병창	단가, 새타령, 잡가, 유행가	이일선

10.20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와 유행가	이일선
10.29	가야금병창	단가, 수궁가	오태석
11.23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와 유행가	이일선
12.7	가야금병창	단가, 심청가	오태석
12.31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단가, 애의가, 단가, 춘향가	이옥화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0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외	한성기
2.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전 중	심상건
2.2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화초조타령, 사랑, 별가	한성기
3.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소상팔경	심상건
4.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전	김운선
4.12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가	한성기
4.26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수궁가	오태석
5.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가, 이별가	한성기
5.14	가야금산조와 병창	단가, 백발가, 자탄가, 춘하추동	이남수/박계화
5.2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춘향가	한성기(산조)/박계화(병창)
6.17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백발가, 선인가	한성기
7.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진양가	김운선
7.1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가, 이별가	한성기
8.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외	김운선
8.1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외	심상건
8.2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의 노래, 이별가	한성기
9.1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가	한성기
10.7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한성기
10.2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장부한, 춘향가	심상건
11.29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새타령, 청춘가	김운선

## 3)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5.11	잡가와 가야금	수심가, 놀랑, 구타령, 양산도, 난봉가, 무녀가	백목단(唄)/김우혁(가야금)

## ⑦ 1932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3	가야금병창	단가, 수궁가	오태석
1.17	가야금병창	단가, 조타령, 잡가, 유행가	이일선
1.29	가야금병창과 남도합창	초한가, 선인가, 적성조타령, 창랑가, 옥중가, 심청가	김옥련/전행○/ 한성기(교수)
2.9	가야금병창	단가, 수궁가	오태석
2.25	가야금병창	단가, 심청가	오태석

3.11	가야금병창	단가, 흥부가	오택석
3.25	가야금병창	심청가	오택석
3.29	가야금병창	단가, 추월만정, 옥중가, 농부가	김성기
4.9	재담과 가야금병창	제석거리, 단가, 잡가	박춘재/이일선
4.12	가야금병창	심청전	오택석
5.2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단가, 사랑가, 단가, 심청가	이옥화
5.5	만주파견 조선부대 개선축하회실황(순서부동)	가야금	한남권변
5.19	가야금병창과 남도단가	단가, 사랑가, 심청가, 춘향가	이옥화
5.25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잡가와 유행가	이계순
5.29	가야금병창	단가, 흥부가	오택석
6.18	가야금병창	단가, 흥부가	오택석
7.10	가야금병창	단가, 심청가	오택석
7.20	가야금병창	단가 장부한, 만고강산, 애가, 화초가	이소향/한성준(고수)
8.25	가야금병창	죽장망해, 심봉사자탄가, 초한가, 심봉사이별가	김소향/고인숙(고수)
9.10	가야금병창	단가 일표건곤, 춘향전 춘도남원	오택석
9.29	가야금병창과 창극조	가야금산조, 장부한, 초한가, 창극조 심청전 중	한공숙/김여란
10.22	가야금병창	장부한, 춘향전 중 농부가	오택석
11.2	가야금병창	단가 명기명창, 심청가	김운선/박종기(고수)
12.16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심청전 중	오택석/한성준(고수)
12.25	단가와 가야금병창	단가, 가야금병창	김채련/한성준(고수)
12.30	가야금병창	1. 죽장망해 2. 춘향가 3. 춘향가 중 옥중가 4. 심청전 중 심향후탄식 5. 흥부전 중 유색황금가	최소옥/박종기(고수)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0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춘향가	심상건
1.2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초한가, 이별가, 적성조타령	한성기
1.3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가	김운선
2.20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장부한, 춘향가	심상건
3.20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장부한, 심청가	심상건
4.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장부한, 심청전, 춘향가	심상건
4.17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가	김운선
6.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사랑가	미상
7.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심청가	김운선
8.1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장부한, 사랑가, 춘향전 중 이별가	김운선
9.25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장부가, 만고강산, 적벽가	김운선/고인금(고수)
11.1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죽장망해, 사랑가, 몽중가	이소향/한성준(고수)

3)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7.17	조선음곡(朝鮮音曲)	염불타령, 살পুর곡,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한농선(해금)한간행(단소) 한봉선(양금)한성준(장고) 한소행(가야금)

4)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7.29	가야금병창	1. 구타령 2. 양산도 3. 놀량 4. 후산타령 5. 수심가 6. 공명가 7. 개성난봉가	이영산홍(창)/ 김우학(가야금)

⑧ 1933년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1	대금독주와 가야금병창	1. 대금독주 가)농부가 나)육자백이 3. 가야금병창 가)단가 나)부용도	김해선(가야금과 노래) 박종기(대금독주 반주)
2.26	가야금병창	단가, 토타령	오테석
3.16	국방헌금연주회 (공회당에서중계)	1. 사고무 2. 경성좌창 3. 연화대무 4. 남도좌창 5. 가야금병창 6. 남도독창 7. 내지가 8. 남도독창 9. 서도입창 10. 남도입창 11. 무용각종	조선한성양권번 기생일동
4.28	가야금병창	단가 심청가	이소향/김운선
5.2	가야금병창	단가 박타령, 동풍가, 심청가	김해선
5.10	가야금병창	단가 강산에 등등, 춘향전 중 별가	최소옥/이금련(장고)
5.18	가야금병창	단가, 박타령, 동풍가, 심청가	김해선
5.24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춘향가	오테석
6.12	가야금병창	단가, 박타령, 동풍가, 심청가	김해선/지용구(고수)
6.27	가야금병창	대장부, 어화청춘, 범피중류, 유색황금가	최소옥/지용구(고수)
7.6	가야금병창	단가 춘향가	이소향/지용구(장고)
7.15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수궁가	박옥돌/김세준(고수)
7.2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수궁가	오테석/한성준(고수)
7.29	가야금병창	단가 백구타령, 심청가	김해선/김세준(고수)
8.4	가야금병창	1. 단가 가)석구야 나) 노화월 2. 잡가 가) 골패타령 나) 투전푸리 다) 화투불림 라) 춘하추동	심상건/심명주(고수)
8.9	가야금병창	어화청춘, 대장부, 소상팔경, 범피중류	최소옥
8.17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흥부가, 소상팔경, 사랑가	이소향/지용구(고수)
8.26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전 중 심청이 하직하는 데	오테석/한성준(고수)
9.13	가야금병창	단가 백구야, 창극조 적벽대전	김채련/한성준(고수)
9.24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수궁가	오테석
9.29	가야금병창	단가 백구야, 창극조 사랑가	김해선/지용구(고수)

10.9	가야금병창	1. 단가 가) 어화청춘 나) 대장부 2. 창극조 가) 흥부가 나) 범피종류	최소옥/홍소월
10.16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춘향전 중 몽중가	김채련/지용구(고수)
11.4	가야금병창과 남도잡가	1. 가야금병창 가)단가 나)진양조 다)중모리(사랑가) 2.잡가 가)육자백이 나)자진육자백이 다)흥타령 라)개고리타령	이금옥/윤옥향(가야금)
11.14	가야금병창	1. 단가 만고영웅 2. 창극조 심청전 중 심봉사 항성을 나가는데	오태석/지용구(고수)
11.21	가야금병창	어화청춘, 옥중가, 심황후자탄가	최소옥/지용구(고수)
11.26	가야금병창과 단가	곡명 없음	정금도(대구달성권번)
11.28	남도잡가와 가야금병창	1. 가야금병창 가) 단가 나)진양조 다)중머리 2. 잡가 가)육자백이 나)흥타령 다)개고리타령	이금홍/윤옥향(가야금)
11.29	독창과 가야금병창	1. 독창 가)단가 백구가 나)창극조 이별가 2. 가야금병창 춘향자탄가	김채련/지용구(고수)
12.8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전 중 심청이 작별하는데	홍소월/지용구(고수)
12.19	가야금병창	단가 백구가, 창극조 심청가	김채련/지용구(고수)
12.25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수궁가	오태석/지용구(고수)
12.30	가야금병창	단가 오호청춘, 창극조 옥중가, 심황후 탄식하는데	최소옥/지용구(고수)

## 2) 가야금병창과 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8.11	잡곡	1. 가야금병창 가) 단가 나) 새타령 다)노래가락 2. 가야금과 해금 가) 방아타령 나) 춘향가 다) 양산도 라) 도라지타령	이일선(가야금) 김봉엽(해금)
12.22	잡곡	1. 가야금병창 가)대장부 2. 가야금과 대금 가)방아타령 나)양산도 다)노래가락 라)청춘가 마)밀양아리랑 바)사발가 사)널니리야	이일선(가야금) 김봉엽(대금)

## 3)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단가, 조타령	김운선/박종기(고수)
2.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죽장망혜, 사랑가, 몽중가	이소향/한성준(고수)
2.17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어허청춘, 조타령	김운선/한성준(고수)
3.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미상
3.2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죽장망혜 2. 춘향가 3. 옥중가 4. 심황후자탄 5. 유색황금가(흥부전 중)	최소옥/김세준(고수)
4.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가) 오호청춘 나) 새타령 다) 사랑가	김운선

4.2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부용도	강태홍/한성준(고수)
4.29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단가 장부한, 춘향가	심상건
6.4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죽장망해, 사랑가, 몽중가	이소향/김세준(고수)
6.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 중머리 나) 잔머리 2. 병창 가) 단가 장부한 나) 심청전 중 소상팔경	심상건/심명주(고수)
6.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단가, 어화청춘, 사랑가	김운선/지용구(고수)
7.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중머리·가진머리, 2. 병창 단가 사랑가·이별가	심상건/심명주(고수)
7.1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가) 어화청춘 나) 사랑가	김운선/김세준(고수)
7.26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느진중머리, 잔머리, 병창 장부한, 이별가	심상건/심명주(고수)
8.2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가) 어화청춘 나) 사랑가	김운선/김세준(고수)
8.3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 중머리 나) 잔머리 2. 병창 가) 장부한 나) 사랑가	심상건/심명주(고수)
9.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가) 단가 나) 심청가	김운선/지용구(고수)
9.1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 진양조 나) 중머리 2. 병창 가) 단가 명기명창 나) 창극조 심봉사 셋비는데	심상건/심명주(고수)
10.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중머리, 잔머리, 2. 병창 장부한, 소상팔경	심상건/심명주(고수)
10.2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 중머리 나) 잔머리 2. 병창 가) 장부한 나) 소상팔경	심상건/한성준(고수)
11.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 중머리 나) 잔머리 2. 병창 가) 단가 명기명창 나) 개타령 다) 베풀가 라) 난봉가	심상건/지용구(고수)
12.1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 진양조 나) 중머리 다) 잔머리 2. 병창 가) 오호청춘 나) 범피중류	김은자/지용구(고수)

#### 4) 가야금산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5.21	가야금산조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잔머리	김운선/지용구(고수)

#### 5) 가야금산조와 병창, 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5.14	가야금과 양금	1. 가야금산조 2. 병창 단가 3. 합주 가) 육자백이 나) 흥타령 다) 개고리타령	심상건(가야금) 지용구(양금과 장고)

#### 6)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7.23	잡가	1. 양산도 2. 방아타령 3. 신방아타령 4. 춘향가 5. 자진난봉가 6. 아리랑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7. 구아리랑 8. 닐니리아 9. 한강수타령 10. 노래가락 11. 창부타령	
12.2	가야금과 해금	1. 단가 새타령 2. 노래가락 3. 춘향가 4. 닐니리아 5. 도라지타령 6. 담바귀타령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7)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0.26	속요	1. 가야금병창 가)놀랑 나)애원곡 다)수심가 라)방아타령 마)양산도 2. 독창 전쟁가	최순록, 김우혁(가야금)
11.18	속요	1. 놀랑 2. 후산타령 3. 수심가 4. 역금 5. 방아타령 6. 양산도 7. 개성난봉가	정금홍, 김우혁(가야금)

⑨ 1934년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8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수궁가	오택석/한성준(고수)
1.14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박타령, 옥중가	최소옥/지용구(고수)
1.20	가야금병창	단가 만고영웅, 심청가	오택석/지용구(고수)
2.1	가야금병창과 독창	1. 가야금병창 가)단가 나)사랑가 다)방아타령 라)양산도 마)청춘가 사)사발가 2. 독창 가)추심가 나)역금 다)명록홍절	김옥진
2.4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수궁가	오택석/한성준(고수)
2.13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심청가	김종기/한성준(고수)
2.24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적벽가	김채련/지용구(고수)
2.25	가야금병창과 단가	가야금병창, 단가	야명권변 박월선(고수) 김화중월/민옥향
2.28	남도잡가와 농부가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농부가	오택석(가야금) 김종기(同)
3.13	가야금병창	장부한, 옥중가, 박타령	최소옥/한성준(고수)
3.30	가야금병창	대장부, 옥중가, 박타령	최소옥/지용구(고수)
4.6	가야금병창	단가, 심청가	김채련/지용구(고수)
4.8	(新)	가야금병창	정옥희/이춘도(장고)
4.30	가야금병창과 독창	1. 가야금병창 가)단가 가자어서가 나)화용도 2. 독창 수궁가	김연수/한성준(고수)
5.11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심청가 중 황성가는데	오택석/지용구(고수)
5.13	군산으로부터	가야금병창 초한가	이난향/최명곤(장고)
6.6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심청가	오택석/정원섭(고수)

6.21	가야금병창	단가 백구, 적벽가	김채련/지용구(고수)
6.29	가야금병창	단가 운담풍경, 흥부 집터담는데	정금도/지용구(고수)
7.3	가야금병창과 대금산조	1. 가야금병창 가)육자백이 나)새타령 2. 농부가 3. 대금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하농주(가야금병창) 박종기(대금독주와 조주)
7.6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박타령	오테석/지용구(고수)
7.11	가야금병창	단가 운담풍경, 흥부 가난타령	강태홍/지용구(고수)
7.27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춘향전 중 신정마지	오테석/지용구(고수)
7.30	가야금병창	단가 창파가, 창극조 박타령	정금도/강태홍(고수)
8.9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수궁가	오테석/한성준(고수)
8.21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심봉사 황성가는데(심청가 중)	오테석/지용구(고수)
8.28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박금도/강태홍(고수)
9.1	가야금병창	단가 명기명창, 심청가	강계향/박종기(고수)
9.18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적벽대전	김채운/지용구(고수)
9.27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수궁가	오테석/조상선(고수)
10.4	가야금병창	단가 창랑가, 창극조 적벽가	강태홍/한성준(고수)
10.7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정금도/강태홍(고수)
10.11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어화청춘, 사랑가, 흥부가	김금옥/지용구(장고)
10.25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선인따라가는데(심청가 중)	박추월/지용구(장고)
10.28	가야금병창	제비노정기	달성권변 최계란
11.13	가야금병창	1. 단가 죽장망해 2. 창극조 심청가 선인따라가는데 3. 춘향가 춘향모가리는데	이기화/조상선(고수)
11.15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수궁가	오테석/정원섭(고수)
11.24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오비취/지용구(고수)
11.27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적벽가	김채운/정원섭(고수)
12.3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적벽가	김채운/지용구(고수)
12.7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적벽가	김채운/지용구(고수)
12.1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미상
12.19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심청가	이기화/정원섭(고수)
12.21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남원신관도입하는데	오테석/한성준(고수)

## 2) 가야금병창과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1	가야금과 해금	1. 가야금병창 단가 2. 가야금과 해금 가)양산도 나)도라지타령 다)노래가락 라)창부타령 마)사발가 바)밀양아리랑	이일선 김봉업(해금)

		사)서러운신세 아)아라비아의 노래	
2.11	가야금병창	1. 단가 대장부 2. 가야금과 해금 가)방아타령 나)청춘가 다)흥타령 라)자진아리랑 마)세동무 바)담배귀타령 사)박물가	이일선 김봉업(해금)
2.26	가야금과 해금	1.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2. 가야금과 해금 가)새타령 나)방아타령 다)양산도 라)사발가 마)이팔청춘 바)도라지타령 사)밀양아리랑 아)닐리리아 자)암로(暗路)	이일선 김봉업(해금)
3.14	가야금과 바이올린	1. 신이팔청춘 2. 양산도 3. 방아타령 4. 닐리리타령 5. 톱기타령 6. 청춘가 7. 달거리	김갑자(창과 가야금) 김갑순(바이올린)

### 3)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장부한 나)창극조 심청가	김은자/지용구(고수)
2.2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장부한 나)심청가	김은자/지용구(고수)
3.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잔모리 2. 병창 가)단가 장부한 나)사랑가	심상건/지용구(고수)
3.2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단가 죽장망혜 2. 방아타령 3. 이팔청춘 4. 오동나무 5. 도라지타령 6. 사창(紗窓) 7. 세동무	김은자/지용구(고수)
4.1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엇모리 다)잔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심청가	심상건/지용구(고수)
4.22	민요와 가야금(함흥에서)	민요 아리랑, 가야금병창과 산조	김금란/김옥희/정남희
4.26	가야금산조병탄과 병창	1. 가야금산조병탄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작은몰이 2. 가야금병창 가)단가 명기명창 나)적벽가	김은자/김채련
5.1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머리 다)잔머리 2. 병창 가)단가 나)심청가	강태홍/정원섭(고수)
5.2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심청가	김은자/지용구(고수)
5.2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심상건/최봉래(고수)
6.1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춘향가	강태홍/한성준(고수)
6.18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김종기/한성준(고수)
6.2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김종기/한성준(고수)

		2. 단가 가)공도란이 나)심청가	
7.1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가)백구아 나)심청가	김종기/지용구(고수)
8.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범피중류	강태홍/지용구(고수)
8.16	가야금병창과 산조	1. 병창 가)단가 달거리 나)광한루가 2. 산조	김종기/지용구(고수)
9.4	가야금병창과 산조	1. 병창 가)명기명창 나)범피중류 2. 산조	강태홍/조상선(고수)
9.12	가야금병창과 산조	1. 병창 가)단가 죽장망혜 나)심청가 2. 산조	김종기/김세준(고수)
10.30	가야금병창과 산조	병창 단가 공도란 부친이별(심청가 중), 산조	김종기/조상선(고수)
11.7	가야금병창과 산조	1.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춘향가 2. 산조	강태홍/지용구(고수)
11.19	가야금병창과 산조	1. 가야금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박타령 2. 산조	김종기/지용구(고수)
12.1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머리 다)가진머리 2. 병창 가)단가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정원섭(고수)
12.27	가야금산조와 창극조	1. 산조 가)진양조 나) 중모리 다) 자진모리 2. 창극조 춘향가	김종기/한성준(고수)

#### 4) 가야금산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3.7	(경성에서 전국중계) 가야금산조	중모리, 자진모리	김은자/김채련/ 지용구(고수)

#### 5)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4	가야금과 대금	1. 방아타령 2. 이팔청춘 3. 오동나무 4. 도라지타령 5. 청치마밧해 6. 옛장사 7. 아리랑	이일선(가야금) 김봉업(대금)임명월(장고)
5.23	신아위	곡명 없음	김채련(가야금) 김종기(현금)지용구(해금)
9.24	가야금과 대금	박타령	김해선(가야금)박종기(대금)

#### 6)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15	남도잡가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삼산반락, 개고리타령, 흥타령	김소희/김종기(가야금)
3.12	가야금과 해금	가야금병창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정명월(창)
4.5	단가와 잡가	1. 단가 죽장망혜 2. 새타령 3. 방아타령 4. 양산도 5. 사발가 6. 이팔청춘 7. 도라지타령	임명월/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8. 밀양아리랑 9. 날니리야 10. 암로	
4.19	남도잡가	육자백이와 자진육자백이, 개고리타령, 흥타령	성농선/조소옥 김종기(가야금)
4.20	단가와 잡가	1. 죽장망해 2. 새타령 3. 방아타령 4. 양산도 5. 사발가 6. 도라지타령 7. 밀양아리랑 8. 날니리야 9. 암로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5.7	속요	1. 단가 백구야 2. 새타령 3. 흥타령 4. 세동무 5. 사발가 6. 신아리랑 7. 노래가락 8. 창부타령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5.25	속요	1. 놀양 2. 뒷산타령 3. 수심가와 역금 4. 방아타령 5. 양산도 6. 개성난봉가 7. 오희타령	김옥엽 김우혁(가야금)
6.14	속요	1. 단가 백구야 2. 새타령 3. 흥타령 4. 사발가 5. 신아리랑 6. 이팔청춘 7. 도라지타령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7.2	속요	1. 단가 죽장망해 2. 새타령 3. 방아타령 4. 양산도 5. 사발가 6. 이팔청춘 7. 도라지타령 8. 밀양아리랑 9. 날니리야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8.13	속곡	곡명 없음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9.5	속곡	1. 새타령 2. 방아타령 3. 양산도 4. 한강수타령 5. 노래가락 6. 창부타령 7. 날니리야 8. 사발가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9.17	속요	1. 새타령 2. 방아타령 3. 양산도 4. 한강수타령 5. 노래가락 6. 창부타령 7. 날니리야 8. 사발가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10.1	속요	1. 새타령 2. 흥타령 3. 방아타령 4. 양산도 5. 한강수타령 6. 노래가락 7. 창부타령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10.9	조선민요와 풍년춤	조선민요(나)산타령)	오택석(노래)주란형(노래) 이기화(노래)박종기(대금) 김종기(가야금) 조상선(장고)
11.7	가요	1. 새타령 2. 흥타령 3. 방아타령 4. 양산도 5. 한강수타령 6. 도라지타령 7. 아리랑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11.22	속곡	1. 방아타령 2. 산염불 3. 양산도 4. 날니리야 5. 사발가 6. 춘향가 7. 노래가락 8. 창부타령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12.7	속곡	1. 영변가 2. 청춘가 3. 사발가 4. 노래가락 5. 개성난봉가 6. 방아타령 7. 양산도 8. 한강수타령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12.29	속곡	영변가, 산염불, 청산가, 사발가, 노래가락, 날리리야	임명월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㉑ 1935년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3.8	가야금병창	단가 만고강산, 창극조 춘향가 중 기생접고하는데, 새타령	박팔괘/정원섭(고수)
3.23	가야금병창	단가 남혼전, 가자어서가, 창극조 옥중가	조농선/정원섭(고수)
3.27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수궁가	오태석/지용구(고수)
3.30	가야금병창	단가 파난가, 죽장망혜, 창극조 심청가	이기화/한성준(고수)
4.3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어부 집터닥는데	김금옥/한성준(고수)
4.16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정금○/지용구(고수)
4.21	가야금병창	1. 단가 초한가 2. 창극조 심청가 중 심봉사황성올나가는데	정남희/지용구(고수)
4.26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적벽가	김채련/지용구(고수)
5.15	가야금병창	단가 옥루사창, 창극조 박타령	임소향/한성준(고수)
5.22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수궁가	오태석/정원섭(고수)
5.31	가야금병창	1. 단가 백구야 2. 창극조 가)춘향가 중 동풍가 나)흥부가 중 돈타령	성농운/조상선(고수)
6.1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지용구(고수)
6.26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춘향가 중 신궁도입	오태석/지용구(고수)
6.27	가야금병창과 민요	1. 병창 가)명기명창 나)화초타령 2. 민요 가)요○조타령 나)자진타령 다)자진방아타령 라)용드레타령 마)몽금포타령	김옥진/고재덕(세적) /민원식(장고)
7.8	가야금병창	단가 공도란 창극조 수궁가	정남희/조상선(고수)
7.10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한성준(고수)
7.22	(부산공회단으로부터 중계) 창극조와 가야금병창	가야금병창 객래문아	同 박설향
7.25	가야금병창과 신민요	1. 가야금병창 가)대장부 나)화초가 2. 신민요 가)삼각산타령 나)일편단심 다)자진타령 라)날어오네	김옥진/고재덕(세적) /민원식(장고)
7.31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농부가	오태석/지용구(고수)
8.6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춘향가 중 어사남원내려가는데	오태석/지용구(고수)
8.29	가야금병창	단가 방창가, 창극조 박타령	정금수/전원섭(고수)
9.9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흥부가	김해선, 조상선(고수)
9.21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수궁가	오태석/정원섭(고수)
9.27	가야금병창과 대금	단가 강산유람, 창극조 박타령	김해선(가야금병창)/ 박종기(대금)한성준(고수)
10.8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박타령	정남희/정원섭(고수)
10.21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중 황성올나가는데	오태석/한성준(고수)
11.9	가야금병창	단가 백구야, 창극조 심청가	김해선/박종기(대금)

11.17	가야금병창	단가 운담풍경. 창극조	정금도/강태홍(고수)
12.10	대금과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박타령, 춘향가 중 자탄가	김해선/박종기(대금) /지용구(고수)
12.13	가야금병창	단가 운담풍경. 창극조 적벽가	박정희/강태홍(고수)
12.2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	임추월/지용구(고수)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3.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적벽가	강태홍/정원섭(고수)
3.1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나)창극조 특기타령 중 용왕이 탄식하는데	성금화/지용구(고수)
3.1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수궁가	정남희/한성준(고수)
4.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혜 나)창극조 수궁가	정남희/한성준(고수)
4.1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혜 나)창극조 제비노정기	강태홍/한성준(고수)
5.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나)창극조 특기타령	성금화/지용구(고수)
5.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창극조 흥부가	심상건/심용구(고수)
5.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명창 가)단가 객래문아 나)춘향가	강태홍/지용구(고수)
6.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수궁가	정남희/지용구(고수)
6.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창극조 흥부가	심상건/한성준(고수)
6.17	가야금병창과 산조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지용구(고수)
6.2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금화/지용구(고수)

		2. 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나)특기타령	
7.23	가야금산조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한성준(고수)
8.1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한성준(고수)
8.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머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심청가	심상건/한성준(고수)
9.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춘향가 중 이별가	정남희/한성준(고수)
10.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심청가	강태홍/정원섭(고수)
10.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느진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성풍경가 나)사몽중가	심상건/한성준(고수)
11.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지용구(고수)
12.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나)특기타령	성금화/지용구(고수)
12.2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한성준(고수)
12.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소상팔경	정남희/지용구(고수)

### 3)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4.11	속곡	영변가, 박연폭포, 밀양아리랑, 사발가, 노래가락	임명월/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4.28	속곡	영변가, 박연폭포, 도라지타령, 노래가락	임명월/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5.12	속곡	산염불, 영변가, 밀양아리랑, 사발가, 노래가락	임명월/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5.29	산염불 외	1. 산염불 2. 영변가 3. 청춘가 4. 방아타령 5. 도라지타령 6. 노래가락	임명월/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7.3	노원곡 외	수심가, 갈가보다, 노원곡, 방아타령, 신희타령	고일심/김칠성(가야금)/ 김영근(대금)/고재덕(세적)
7.18	이별가 외	1. 이별가 2. 무덤속에 님이	조송강/김칠성(가야금)/



		3. 양산도 4. 사발가 5. 오호타령 6. 신청춘가	김영근(대금)/고재덕(세적)
10.30	노들강변 외	단가 노들강변, 밀양아리랑, 청춘가, 사발가, 노래가락	김인숙/이일선(가야금)
11.6	축○가	곡명 없음	신태향/심상건(가야금)/ 김덕진(해금)/정해시(통소)/ 한성준(장고)
12.29	신민요	유사가, 춘용가, ○처가, 신사발가, 신방아타령	조송강/김우춘(가야금)/ 고재덕(세적)

#### 4) 강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7.22	음악강화(音樂講話)	조선음악기본율동과 가야금산조에 대하여(一)	이기세
7.23	음악강화(音樂講話)	조선음악기본율동과 가야금산조에 대하여(二)	이기세

#### ㉑ 1936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	가야금병창	단가 백구야, 창극조 박타령	김해선/박종기(대금)/ 지용구(고수)
1.4	가야금병창	단가 운담풍경, 창극조 적벽가	박정희/강태홍(고수)
1.15	가야금병창	1. 단가 죽장망혜 2. 창극조 가)심청가 중 임당수로 가는데 나)적벽가 중 활쏘는데	김채련/한성준(고수)
1.1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어사남원내려가는데	오태석/정원섭(고수)
1.22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정원섭(고수)
2.15	가야금병창	단가 강상에 동동, 창극조 심청이 하직하는데	강계향/한성준(고수)
3.10	가야금병창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춘향가 중 박석티넘어가는데	박팔괘/한성준(고수)
3.21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박타령	정남희/정원섭(고수)
3.23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지용구(고수)
3.30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김금옥/지용구(고수)
4.5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이소향/정원섭(고수)
4.13	가야금병창	단가 초한가, 창극조 툽기타령	조명주/정원섭(고수)
5.1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춘향가 중 신정마지	오태석/한성준(고수)
5.13	가야금병창	단가 초한가 창극조 춘향가 중 박석티	박팔괘/지용구(고수)
5.23	가야금병창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춘향가 중 박석티	박팔괘/한성준(고수)
6.3	가야금병창	단가 창랑가, 창극조 화용도	정금도/강만수(고수)
6.10	가야금병창	단가 청춘몽, 창극조 흥부가	이소향/한성준(고수)
6.25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이 선인따라가는데	박추월/지용구(고수)

7.2	가야금병창	단가 초한가, 창극조 춘향가	원농일
7.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몽중가, 공명가	이소향/정원섭(고수)
7.19	가야금병창	단가 명기명창 창극조 박석택, 새타령	최봉익
8.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정원섭(고수)
8.11	가야금병창	단가 아서라세상사, 새타령	최봉익/지용구(고수)
8.16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특기타령	오테석/한성준(고수)
8.20	가야금병창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춘향가 중 옥중가	이소향/지용구
9.1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지용구(고수)
9.25	가야금병창	단가 공도란, 창극조 심청가	성금화/지용구(고수)
9.27	가야금병창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춘향가 중 옥중가	이소향/정원섭(고수)
9.29	가야금병창	단가 창랑가, 창극조 적벽가	정금○/강만수(고수)
10.1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박타령	한봉환/지용구(고수)
10.4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중 황성을나가는데	오테석/지용구(고수)
10.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적벽가 중 동남풍비는데	강계홍/지용구(고수)
10.13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지용구(고수)
10.17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이소향/한성준(고수)
11.1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춘향전 중 과거보는데	이상봉/지용구(고수)
11.14	가야금병창	단가 아서라 세상가, 창극조 심청가	오테석/지용구(고수)
11.18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범피종류, 화용도	최계란/한성준
11.26	가야금병창	단가 방랑가, 창극조 적벽가	정금○/지용구(고수)
12.4	가야금병창	단가 명기명창 창극조 동풍가, 새타령	최봉익/지용구(고수)
12.12	가야금병창(경성)	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옥중가	최계란/정원섭(고수)
12.14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한성준(고수)
12.23	가야금병창	단가 명기명창, 창극조 동풍가	최봉익(미상)/지용구(고수)
12.2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적벽가	강계선/정원섭(고수)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엇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특기타령	성금화/정원섭(고수)
1.12	(조양교환방송)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정남희/임종성(고수)
1.3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조계선/ 조상선(고수)
2.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탐승가 나)창극조 흥타령	정남희/지용구(고수)
2.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천하태평 나)창극조 특기타령	조명주/조상선(고수)

3.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강태홍/한성준(교수)
3.7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지용구(교수)
3.1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성금화/정원섭(교수)
4.9	가야금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적벽가	강태홍/정원섭(교수)
4.1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여화청춘 나)창극조 심청가	성금화
4.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명기명창 나)소상팔경	심상건/정원섭(교수)
4.29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강태홍/조상선(교수)
5.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가)단가 소상팔경 나)몽중가 다)화용도 활쏘는데	이소향/조상선(교수)
5.17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심상건/한성준(교수)
5.2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평타령 나)자진모리 2. 병창 가)소상팔경 나)동풍가 다)특기화상 라)새타령	최봉익/한성준(교수)
6.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심청이 낚는데	정남희/지용구(교수)
6.1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다스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명기명창 나)창극조 몽중가	심상건/정원섭(교수)
6.22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성금화/지용구(교수)
6.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박타령	정남희/지용구(교수)
7.1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다스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폐성가 나)소상팔경	심상건/한성준(교수)
7.2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잔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정원섭(교수)
7.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대장부 나)새타령	정운선/조천홍(교수)
8.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정원섭(교수)
8.3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춘향가	정남희/지용구(교수)

9.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한○환/지용구(고수)
9.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다스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대장부 나)소상팔경	심상건/ 한성준(고수)
9.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춘향가	이소향/지용구(고수)
9.1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조영학/정원섭(고수)
9.1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창극조 옥중가	류대○/지용구(고수)
10.2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여화청춘 나)창극조 심청가	성금화/정원섭(고수)
10.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적벽가	강태홍/정원섭(고수)
10.3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춘향가 중 옥중가	정남희/지용구(고수)
11.3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창극조	이소향/지용구(고수)
11.8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성금화/한성준(고수)
11.2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가)단가 나)창극조 춘향가	조명주/지용구(고수)
11.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다스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장부한 나)소상팔경	심상건/한성준(고수)
12.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여화청춘 나)창극조 심청가	성금화/정원섭(고수)
12.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범피중류 다)화용도	이소향/정원섭(고수)

### 3) 가야금산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7	가야금산조	산조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조명주/지용구(고수)
7.29	가야금산조와 봉작가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봉작가	류동초/조천홍(장고)
8.2	조만교환방송 (경성으로부터) 통소독주와 가야금독주	통소독주 봉작가 가야금산조	류동초/조천홍(장고) 심상건/한성준(장고)

### 4)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	--------	----	-----

2.22	골패타령 외	곡명 없음	조류색(가야금)/박추월(장고)/고재덕(세적)
3.3	춘용가 외	춘용가, 제격가, 간간이타령, 유유별한, 고독의 원한	조송강/고재덕(세적)/최수성(단소)/김우춘(가야금)
5.10	선만교환방송 (경성으로부터)	남도가요(보름, 새타령, 육자백이)	김소희/조소옥/정남희(가야금)/박종기(대금)

⑫ 1937년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8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범피중류, 화용도	최계란/지용구(고수)
1.14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박타령	이소향/정원섭(고수)
1.25	가야금병창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수궁가	최봉익/정원섭(고수)
1.31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강계홍/지용구(고수)
2.2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정원섭(고수)
2.8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오태석/지용구(고수)
3.8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돈타령, 새타령	최봉익/지용구(고수)
3.13	가야금병창	단가 남훈전, 창극조 적벽가	강계홍/지용구(고수)
3.28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옥중가, 제비노정기	최계란/지용구(고수)
3.3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적벽가	박추월/지용구(고수)
4.1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적벽가	최계란/지용구(고수)
4.16	가야금병창	단가 명기명창, 창극조 박타령	최봉익/지용구(고수)
4.18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이소향/한성준(고수)
4.25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수궁가	오태석/지용구(고수)
5.7	가야금병창	단가 공도란, 창극조 범피중류, 화용도	최계란/정원섭(고수)
5.11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	박추월/지용구(고수)
6.4	가야금병창(경성)	단가 대장부, 창극조 춘향전 중 어사함행하는데	오태석/한성준(고수)
6.15	가야금병창	단가 남훈전, 창극조 적벽가	강계란/지용구(고수)
6.26	가야금병창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동풍가, 새타령	최봉익/지용구(장고)
7.8	가야금병창	단가 인호상, 창극조 박타령	이소향/지용구(고수)
7.30	가야금병창	단가 패성가, 창극조 춘향가	최난주/한성준(고수)
8.4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토끼타령, 새타령	신쾌동/한성준(고수)
8.13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어사내려오는데	오태석/정원섭(고수)
8.21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범피중류	이소향/한성준(고수)
9.4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중 선인따라가는데	박추월/지용구(고수)
9.13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봉사 황성을나가는데	오태석/지용구(고수)
9.23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중 황성을나가는데	오태석/정원섭(고수)

10.22	가야금병창	단가 운담풍경, 창극조 흥부가	정금○/지용구(고수)
10.29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지용구(장고)
11.7	가야금병창	단가 ○○가 창극조 심청가 중 범피중류	정남희/한성준(고수)
11.10	가야금병창	단가 초한가, 창극조 박타령	박성옥/한용구(고수)
11.27	가야금병창	단가 백구가 창극조 심청가 중에서 범피중류	조영학/정원섭(고수)
12.5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적벽가	박추월/정원섭(고수)
12.8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삼고초려	강계홍/지용구(고수)
12.22	가야금병창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심청가 중 황성올나가는데	오태석/한성준(고수)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혜 나)창극조 박타령	정남희/지용구(고수)
1.2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강태홍/정원섭(고수)
2.14	조만교환방송 (경성으로부터)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병창	이소향/지용구(고수)
2.1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정남희/한성준(고수)
2.2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잔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적벽가	강태홍/정원섭(고수)
2.26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성금화/한성준(고수)
3.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창극조	김금암/지용구(고수)
3.2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명기명창 나)창극조 춘향가 중 옥중가	류대○/지동근(고수)
4.2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다스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장부한 나)창극조 소상팔경	심상건/지용구(고수)
4.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심○가 나)창극조 춘향전 중 춘향모를 만나는데	정남희/지용구(고수)
5.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나)창극조 적벽가	박성옥/정원섭(고수)
5.1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강태홍/정원섭(고수)

		나)창극조 박타령	
5.2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수궁가	정남희/지용구(고수)
7.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장부한 나)창극조 패성가	심상건/한성준(고수)
7.1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만고강산 나)토끼타령 다)새타령	조영학/정원섭(고수)
7.2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제비노정기	정남희/지용구(고수)
8.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장부한 나)창극조 소상팔경	심상건/정원섭(고수)
8.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자룡이 활쏘는데 다)새타령	조영학/지용구(고수)
8.3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춘하추동	전봉선/조농선(장고)
9.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나)창극조 춘향가 중 광한루경개가	정남희/정원섭(고수)
9.1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패성가 나)새타령	심상건/한성준(고수)
9.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소상팔경 나)적벽새타령	최봉익/지용구(고수)
10.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 진양조 나) 중모리 다) 자진모리 2. 병창 가) 단가 어화청춘 나)창극조 적벽가 새타령	박성옥/정원섭(고수)
10.1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적벽가 나)소상팔경	심상건/한성준(장고)
11.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패성가 나)소상팔경	심상건/한성준(장고)
11.1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제비노정기	이소향/한성준(고수)
11.2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백구야 나)춘향가 중 박석퇴	정남희/임종성(고수)

12.1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3)당학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개타령	심상진/한성준(고수)
-------	-----------	--	-------------

### 3) 가야금산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6.20	가야금산조와 현금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수궁가	박성옥/ 정원섭(고수)

### 4)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3.26	속곡	신아위, 성주푸리, 새타령	신쾌동(현금)/김금암(가야금) /박종기(대금)/지동근(장고)
8.23		새타령, 살푸리, 성주푸리	박종기(대금)/신쾌동(현금)/ 오택석(가야금)/정원섭(장고)
11.2	속곡	방아타령, 청춘가, 도라지타령, 흥타령, 사발가, 영변가	이일선(가야금)/김봉업(해금) /강학수(세적)
12.2	속곡	산조, 성주푸리, 새타령	신쾌동(현금)/정남희(가야금) /박종기(대금)
12.29	가야금과 대금	보름, 새타령, 군노사령	오택석(가야금)/박종기(대금) /조상선(장고)
12.31	속곡	산염불, 노들강변, 오봉산, 한강수타령	이일선(가야금)/김봉업(해금) /강학수(세적)

### 5) 음악박람회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6.12	음악박람회	곡명 없음	생황/훈/단소/통수/황적/하 와이안기타/만들린/색소폰/ 필크로오카리나/산동적/피 리실로폰/가야금/양금/피아 노(병창)/오르간(병창)

## ⑬ 1938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몽중가, 적벽가	이소향/한성준(고수)
1.18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수궁가	오택석/한성준(고수)
1.28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흥부가	○계홍/정원섭(장고)
2.2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주월/한성준(장고)
2.3	남도민요(부)	편시춘, 가야금병창, 춘향자탄가, 농부가	하귀란/최송희/최금향/심○ 원(동래권번)
4.1	가야금병창	단가 강상에 동동 창극조 춘향가 중	함동정월/한성준(장고)
4.10	가야금병창	단가, 창극조	오택석/정원섭(장고)



4.2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수궁가	오택석/정원섭(장고)
4.26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최계란/정원섭(장고)
5.8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몽중가, 제비노정기	이연향/정원섭(장고)
5.22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한성준(장고)
6.5	조선음악(청)	가야금병창 춘하추동	신송학/신송화/지만수
6.26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남풍가 나)창극조 수궁가	한갑득/한성준(장고)
7.3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몽중가, 적벽가	이소향/한성준(장고)
7.11	가야금병창	단가 녹음방초, 창가극조, 춘향가 중 신정마지	오택석/한성준(장고)
7.17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정원섭(고수)
8.6	가야금병창	단가 초한가, 창극조 수궁가	조영학/한성준(고수)
8.13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토기타령	성금화/한성준(장고)
8.20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오택석/정원섭(장고)
9.18	가야금병창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춘향가 중 박석티	최봉익/지용구(장고)
9.21	가야금병창	단가 녹음방초, 창극조 흥부가	오택석/정원섭(장고)
10.1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적벽가	강계홍/지용구(고수)
10.3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수궁가	오택석/한성준(고수)
11.2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제비노정기, 옥중가	이소향/한성준(고수)
11.20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최계란/한성준(고수)
11.30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옥중가 제비노정기	이소향/한성준(고수)
12.4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창극조	신쾌동/한성준(장고)
12.8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오택석/정원섭(장고)
12.13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범피중류, 적벽가	이소향/정원섭(고수)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3)당학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소상팔경	심상건/한성준(고수)
1.2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범피중류	김은자/한성준(고수)
1.3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패성가 나)몽중가	심상건/한성준(장고)
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성금화/한성준(장고)

		나)창극조 심청가	
2.1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혜 나)창극조 심청가 중 사당하직하는데	정남희/정원섭(고수)
3.1	가야금산조와 병창	산조, 병창 박석틱	이소향/정원섭(고수)
3.1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3)당학 2. 병창 가)대장부 나)패성가	심상건/한성준(고수)
3.20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최○○
5.1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창극조	안기옥/정원섭(장고)
5.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탐승가 나)창극조 적벽가	정남희/한성준(장고)
5.2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적벽가 중 활쏘는데	이소향/정원섭(고수)
6.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3)당학 2. 병창 가)대장부 나)패성가	심상건/한성준(고수)
6.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곤리건곤 나)창극조 박석틱	이소향/한성준(장고)
6.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심청가	정남희/한성준(고수)
7.3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3)당학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혜 나)창극조 옥중가	심상건/한성준(장고)
8.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범피중류	이소향/한성준(장고)
8.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패성가	심상건/한성준(장고)
9.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곤리건곤 나)창극조 적벽가	이소향/정원섭(고수)
9.1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흥부가 중에서 유색황금가	강태홍/정원섭(고수)
9.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탐승가 나)춘향가 중 박석틱	신청거/정남희 정원섭(장고)

9.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옥중가	심상건/정원섭(고수)
10.1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창부 나)창극조 적벽가	이소향/한성준(고수)
10.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창랑가 나)창극조 수궁가	강태홍/한성준(고수)
10.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심청가 중 장승상덕가는데	정남희/한성준(고수)
11.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2. 병창 가)노화월 나)새타령	심상건/한성준(고수)
11.2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옥중가	심상건/한성준(고수)
12.2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탐승가 나)창극조 중 장승상덕가는데	정남희/한성준(고수)
12.25	가야금병창	산조	미상
12.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고을금해(古往今來) 나)창극조 화용도	박동준/박종기(장고)

### 3) 가야금산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0.1		가야금산조 굿거리	강소향/원채욱(고수)

### 4)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7	속곡	1. 긴아리랑 2. 노들강변 3. 방아타령 4. 양산도 5. 베를가 6. 날리리야 7. 오돌독	이일선(가야금) 김봉엽(해금)/강학수(세적)
3.8	속곡	1. 경북궁타령 2. 천안삼거리 3. 사절가 4. 오봉산 5. 베를가 6. 오돌독	김봉엽(해금)/강학수(세적) 이일선(가야금)
3.25		봉성취, 성주পুর이	신쾌동(현금)/정남희(가야금) /박종기(대금)
4.29		새타령	신쾌동(현금)/정남희(가야금) /박종기(대금)/정원섭(장고)
5.30	현금과 가야금·대금	신아위, 새타령, 성주পুর이	신쾌동(현금)/정남희(가야금) /박종기(대금)/한성준(장고)
6.15	가야금과 대금	새타령, 신아위	한갑득(가야금)/박종기(대금) /한성준(장고)

5) 강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4.4	조선음악해설	곡명 없음	이기세(해설) 심상건(실연)/김연수(同)

⑭ 1939년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5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호남가 나)창극조 심청가	신쾌동/한성준(장고)
3.2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나)창극조	신쾌동/정원섭(장고)
3.9	가야금병창	단가 여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최계란/임종성(장고)
4.10	가야금병창	단가 탐승가, 창극조 수궁가	정남희/정원섭(고수)
6.5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심청가	조영학/한성준(장고)
7.3	가야금병창	단가 공도란, 창극조 심청가	김녹주/한성준(고수)
7.1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한성준(고수)
8.3	가야금병창	단가 장부한, 창극조 소상팔경	심상건/정원섭(고수)
8.12	가야금병창	단가 운담풍경, 창극조 수궁가	강희구/한성준(장고)
8.18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현금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가야금병창 가)단가 남풍가 나)창극조 수궁가	한갑득/정원섭(장고)
8.26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현금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가야금병창 가)단가 남풍가 나)창극조 수궁가	한갑득/정지섭(장고)
9.8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현금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가야금병창 가)단가 여화청춘 나)창극조 심청가	한갑득/정원섭(장고)
9.17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오테석/한성준(고수)
9.1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적벽가	강계홍/정원섭(장고)
10.27	가야금병창	단가 여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한성준(고수)
11.23	가야금병창	단가 여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박추월/한성준(고수)
12.25	가야금병창	단가 초한가, 창극조 심청가	김녹주/한성준(장고)
12.31	가야금병창	1. 단가 장부한 2. 창극조 심청가 중 심봉사 황성 올너지는데	미상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심상건/한성준(고수)

		2. 병창 가)단가 장부한 나)창극조 몽중가	
1.1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수궁가	정남희(장고)/임종성
1.2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제비노정기	강태홍/정원섭(장고)
1.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축석령 나)창극조 화용도	김채련/박종기(고수)
2.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옥중가	심상건/한성준(고수)
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녹음방초 나)창극조 춘향가 어사남원나가려는데	오태석/정원섭(장고)
2.1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춘향가 중 박석치	이소향/정원섭(고수)
2.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탐신가 나)창극조 수궁가	정남희/임종성(장고)
3.1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적벽가	강태홍/정원섭(장고)
3.1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제비노정기	박상근/김세준(장고)
3.2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심청가	정남희/임종성(장고)
4.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中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패성가 나)창극조 심청가 중 중나려오는데	심상건/한성준(고수)
4.15	가야금산조와 병창(咸)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심청가	김여란
4.1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여화청춘 나)창극조 수궁가	오태석/한성준(장고)
4.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여화청춘 나)창극조 박타령	정남희/임종성(고수)

4.30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조영학/임종성(장고)
5.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패성가 나)창극조 심청가	심상건/한성준(고수)
5.1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적벽가	강태홍/정원섭(장고)
5.2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정남희/임종성(장고)
6.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패성가 나)창극조 춘향가	심상건/정원섭(고수)
7.1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탐승가 나)창극조 장승상집 차자가는데	정남희/정원섭(고수)
9.1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몽충가	심상건/정원섭(고수)
9.2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탐승가 나)창극조 춘향가 중 박석치(峙)	정남희/한성준(고수)
10.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한성준(장고)
10.1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운담풍경 나)소상팔경	심상건/정원섭(고수)
11.1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옥중가	심상건/한성준(고수)
11.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적벽가	강태홍/임종성(장고)
11.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소상팔경	심상건/한성준(고수)
12.3	가야금산조와 병창(裡)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적벽가	신관영/박성순(고수)
1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탐승가 나)창극조 춘향가	정남희/한성준(고수)
12.12	가야금산조와 병창(威)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혜	안기옥/민옥행(고수)

		나)창극조 공명가	
12.2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2. 병창 가)단가 창랑가 나)창극조 박타령	강태홍/정원섭(장고)
12.2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부용도	박동준/한성준(장고)

### 3) 기악독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9.4	속곡(裡)	1. 가야금산조 중중모리	정영준/하석영(고수)

### 4) 기악독주 및 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0.13	가야금과 대금	산조 진양조, 중모리, 봉작취	박동준(가야금)박종기(대금)

### 5)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7.17	속곡	경북타령, 방아타령, 양산도, 한강수타령, 사발가	이일선(가야금)/ 김봉엽(해금)/강학주(피리)
9.5	속곡	길군악 산엽불, 날리리야, 도라지타령, 한강수타령	이일선(가야금)/ 김봉엽(해금)/강학주(세적)

### 6)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17	향토민요(裡)	제주도동계타령, 배노래, 진도아리랑	정채란/박옥화/전란주/ 김유선/전응환(양금)/ 가야금장고반주

## ⑮ 1940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1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수궁가	오테석/한성준(고수)
1.21	가야금병창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박타령	박성욱/정원섭(고수)
4.2	가야금병창(합흥)	곡명 없음	김봉란
6.5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춘향가	오테석/한성준(고수)
7.13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혜, 창극조 수궁가	조영학/정원섭(장고)
7.22	(이)현금과 가야금	1. 현금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가야금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나) 창극조 춘향가	신관영(현금)/ 정달영(가야금병창)
7.26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중 상승상매가는데	오테석/정원섭(장고)
8.9	가야금병창	단가, 녹음방초	오테석/정원섭(장고)

		창극조 심청가 중 황성올너지는데	
9.15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춘향가	오택석/정원섭(장고)
9.29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옥중가	평산쾌동(平山快童)/ 서원성준(西原成俊)(장고)
10.13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방응교/한희종(장고)
10.30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평산쾌동/박종기(장고)
11.27	현금과 가야금(레코-드)	곡명 없음	미상
11.2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적벽가	강계홍/이창용(장고)
12.17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죽정태석(竹井太石)/ 대원원섭(장고)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아서라 세상사 나)창극조 흥부가	강태홍/정원섭(장고)
2.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춘향가 중 옥중가	심상건/한성준(고수)
3.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춘향전 중 옥중가	정남희/한성준(장고)
3.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수궁가	조영하/정원섭(장고)
3.3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나)창극조 심청가	박성욱/정원섭(고수)
4.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동풍가	심상건/정원섭(고수)
4.1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소상팔경 나)창극조 춘향가	심상건/한성준(장고)
4.2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명기명창 나)창극조 심청가 자탄가	류대복/김상기(장고)
4.2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흥부가	조영하/한남종(장고)
5.1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심청가	심상건/한성준(장고)
5.2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정남희/한성준(장고)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심청가	
5.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적벽가	조영학/한성준(장고)
6.1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범피중류	심상건/정원섭(고수)
6.2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수궁가	조영학/한성준(장고)
7.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학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몽충가	심상건/한성준(장고)
8.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심청가	정남희/정원섭(장고)
10.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데	안기옥/서원성준(장고)4
11.19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청송상건/신○금○(장고)
12.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아서라세상사 나)창극조 심청가	평산쾌동/ 신○종기(新○鍾基)(장고)
12.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심청가	안기옥/ 대원원섭(大原元燮)(장고)

### 3) 가야금독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6	가야금산조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심상건/한성준(고수)
6.30	가야금병창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남희/정원섭(장고)
7.18	가야금산조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정남희/정원섭(장고)
11.5	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정남희/박종기(장고)

### 4)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8	속곡	1. 산염불 2. 방아타령 3. 양산도 4. 흥타령 5. 노들강변 6. 사절가 7. 날니리아	강학주(피리) 박성옥(가야금)

5)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5.20	호득이와 초금	호득이, 초금	강학수/강춘변/ 심상건(가야금병주)
5.20	남선가요	목포배노리, 진도아리랑, 광주동계타령	정채란/박옥화/김명선/유종 초(통소)/정채란(가야금)
11.30	남도가요	보름,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신채란/채숙자/평산패동(현 금)/신0종기(대금)/ 박상근(가야금)

⑩ 1941년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2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적벽가	강계홍/이창○(장고)
3.27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적벽가	신래동/박종성(장고)
5.5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수궁가-토끼화상	신래동/박종기(장고)
5.16	가야금병창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화용도	신채란/한성준(장고)
7.21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춘향전	오태석/정원섭(장고)
10.18	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1. 현금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호남가 나)창극조 판독불가	신래동 외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0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미상
2.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아서라세상사 나)창극조 심청가	평산래동
2.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소상팔경 나)창극조 심청가	청송상건(靑松相健)/ 서원성준(장고)
3.2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심청가	정남희/대원원섭(장고)
4.12	가야금산조와 병창(평양)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심청가 중 자탄가	류대복/윤봉양(장고)
4.1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정남희/김세준(장고)

		2. 병창 가단가 춘향가 나)창극조 춘향가-박석티	
4.1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혜 나)창극조 적벽가	조영학/김세준(장고)
4.2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성금연
4.3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심청가	정남희/박종기(장고)
5.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아서라세상사 나)창극조 심청가	성금연/성금선(장고)
5.2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탐○가 나)창극조 심청가-눈뜨는데	정남희/박종기(장고)
6.1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대장부 나)창극조 흥부전	오테석/정원섭(장고)
7.1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풍가 나)창극조 흥부가	성금연/성금선(장고)
8.7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청춘가 나)창극조 흥부가	정남희/정원섭(장고)
8.1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소상팔경	심상건/한남종(장고)
8.3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공도란 나)창극조 수궁가	한성기/○남종(장고)
9.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초한가 나)창극조 박타령	정남희/정원섭(장고)
9.1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강상가 나)창극조 수궁가	심상건/김세준(장고)
10.3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어화청춘 나)창극조 적벽가	○성기/성원강(장고)
10.9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혜 나)창극조 춘향가	성금연/성금선(장고)

11.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신쾌동/한갑득(장고)
11.1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풍가 나)창극조 심청전	성금화/성금연/ 성금선(장고)
12.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춘모리 2. 병창 가)단가 담풍가 나)창극조 흥부가	신쾌동/한남중(고수)

### 3) 가야금독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6.23	가야금산조	진양조, 중모리, 자진머리	성금연/성금선(장고)
7.4	(평양함흥·대구) 가야금산조	진양조, 중모리, 자춘모리	정남희/정원섭(장고)

### 4)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4.6	속곡	곡명 없음	김탁건○(세적)/목춘현일( 가야금)/평산벽송(대금)
9.24	속곡	신아위, 봉장취, 굿거리	심상건(가야금)/방용현(대 금)/김덕진(해금)/지영희( 세적)/이소향(장고)

### 5)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3.22	남도민요	1. 새타령 2. 까투리 타령 3. 동계타령 4. 진도아리랑 5. 강강수월래	조연옥/조금옥/김덕진(해 금)/정해시(대금)/ 정순(가야금)
9.4	남도가요	보름, 옥자백이, 흥타령	이난향/김일선/ 조영학(가야금)
9.21	민요	타작노래, 꿩지나칭칭, 진도아리랑, 풍년가	김유양/김0주/김초향/ 심상건(가야금)

### 6) 강연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8.24	명곡○○산조	진양조, 중모리, 엇중모리, 잔모리	이기세(해설)/심상건(가야 금)/김덕진(해금)/정해시( 통소)/지영희(세적)/한남중 (장고)

## ⑰ 1942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9	가야금병창	소상팔경	심상건/이정엽(고수)
3.22	가야금병창	단가 초한가, 창극조 적벽가	심상건/이태순(장고)

3.29	가야금병창	단가 대장부, 창극조 흥부가	조영학/강○○(장고)
6.19	(城)가야금병창(조선어)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흥부가	청○상건(靑○相健)/ 국본태순(國本泰順)
6.29	(城)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평산쾌동/ 강남○동(姜南○同)(장고)
8.5	(城)가야금병창(조선어)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흥부가	박상근/정원섭(장고)
9.2	(城)가야금병창(조선어)	단가 죽장망해, 창극조 흥부가	심상건/국본정엽(장고)
10.5	(城)현금산조와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신쾌동/국본정엽(장고)
11.16	(城)가야금병창(조선어)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오테석/국본정엽(장고)
11.22	(城)현금산조と 가야금병창(조선어)	1. 현금산조 2. 가야금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수궁자	신쾌동/김재선(장고)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8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창극조 흥부가	정남희/정원섭(장고)
1.25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창극조 흥부가	심상건/이태순(장고)
2.10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조영학/정원섭(장고)
2.14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만고영웅 나)창극조 흥부가	정남희/정원섭(장고)
2.2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수궁자	정남희/김세준(장고)
3.11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고고천변 나)창극조 흥부가	심상건/이태순(장고)
4.11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 없음	신쾌동 외
4.16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2. 병창 가)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적벽가	조영학/이세○(장고)
4.20	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가)진양조 나)중모리 2. 병창 가)단가 죽장망해 나)창극조 흥부가	정남희/이정엽(장고)
7.17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1. 산조 2. 병창 가)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심상건/국본태순(장고)
7.29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1. 산조 2. 병창 가)단가 소상팔경 나)창극조 흥부가	청송금호(淸松錦湖)/ 국본태순(장고)
8.12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1. 산조 2. 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심청가	미상
11.2	(城)가야금산조와	1. 산조	심상건/이태순(장고)

	병창(조선어)	2. 병창 가)소상팔경 나)창극조 흥부가	
--	---------	---------------------------	--

### 3) 가야금독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5.4	(城)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정남희/○남○(장고)
5.15	(城)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심상건/이태순(장고)
12.1	(城)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심상건/이태순(장고)
12.19	(城)가야금산조(レコード)	곡명 없음	미상

## ⑩ 1943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5	(城)남선민요(南鮮民謠) (조선어)	곡명 없음	성금연(현금·창)/ 성금선(가야금·창)/ 성금주(장고·창)
1.22	(城)가야금병창(조선어)	단가 대장부, 창극조 수궁가	오택석/이정엽(장고)
1.26	(城)남도민요(조선어)	조っくし, 육자가	성금연(현금·창)/○향옥 (가야금·창)/장향옥(장고· 창)/고재덕(세적)
3.3	(城)남선민요(南鮮民謠) (조선어)	곡명 없음	성금연(현금·패)/조농옥(가 야금·패)/장향옥(장고·창)/ 고재덕(세적)
3.7	(城)남선민요(南鮮民謠) (조선어)	鳥つくし, 유자패, 농부가	성금연(현금·창)/성금선(가 야금·창)/성금주(장고·창)
3.30	(城)남선민요(南鮮民謠) (조선어)	곡명 없음	성금연(현금·창)/조농옥(가 야금·창)/장향옥(장고·창)/ 고재덕(세적)
5.14	(城)남선민요(南鮮民謠) (조선어)	농부가, 蛙の唄, 흥타령	성금선(현금·패)/고계선(가 야금·패)/조소옥(장고·패)
6.12	(城)가야금병창(조선어)	단가 운담풍경, 창극조 흥부가	박상근/김재선(장고)
6.18	(城)남선민요(南鮮民謠) (조선어)	곡명 없음	성금연(현금·패)/성금선(가 야금·패)/성금주(장고·패)
8.2	(城)남선민요	곡명 없음	성금연(현금·패)/성금선(가 야금·패)/성금주(장고·패)
8.15	가야금병창(조선어)	단가 대장부 창극조 심청가 중 より	오택석/이정엽
8.20	(城)남선민요(南鮮民謠)	곡명 없음	성금연(현금·패)/성금선(가 야금·패)/성금주(장고·패)
9.29	(城)남선민요(南鮮民謠) (조선어)	곡명 없음	김연수(가야금·패)/오비취( 장고·패)/김광식(대금)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3.18	(城)가야금산조와 병창	1. 산조 2. 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심청가 중 より	심상건/방○일(장고)

4.28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외
5.10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산조, 병창	성금화/성금선(장고)
7.2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조선어)	1. 산조 2. 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심청가	심상건/이정엽(장고)
7.14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조선어)	곡명 없음	성금연/성금선(장고)
8.30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조선어)	곡명 없음	심상건/이정엽(장고)
9.6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조선어)	1. 산조 2. 단가 죽장망혜 나)창극조 심청가	정남희/이정엽(장고)
9.27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조선어)	1. 산조 2. 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흥부가 중 より	성금연/성금선(장고)
10.28	(城)가야금산조と 병창 (조선어)	1. 산조 2. 단가 소상팔경 나)창극조 심청가 중 より	정남희/이정엽(장고)
11.19	가야금산조と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1.27	가야금산조と 병창	곡명 없음	정남희/국본정엽(장고)
12.26	가야금산조と 병창	1. 산조 2. 단가 운담풍경 나)창극조 수궁가 중 より	심상건/이정엽(장고)

### 3) 가야금독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4	(城)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심상건/한남종(장고)
2.5	(城)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심상건/이정엽(장고)
6.28	(城)가야금산조と 양금 조선어)	곡명 없음	광산영이(光山永二)(가야금)/○산○○

## ⑩ 1944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21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오테석/국본정엽(장고)
5.23	가야금병창	단가 소상팔경 창극조 흥부가 중 より	오테석/국본정엽(장고)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3.12	가야금산조と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1.28	가야금산조と 병창	1. 산조 2. 단가 죽장망혜 나)창극조 심청가 중 より	정남희/이정엽(장고)
5.4	가야금산조と 병창	곡명 없음	심상건
6.9	가야금산조と 병창	1. 산조 2. 단가 죽장망혜	정남희/국본정엽(장고)

		나)창극조 수궁가 중 요리	
7.2	가야금산조 & 병창	○○ 외	심상건
8.3	가야금산조 & 병창	곡명 없음	박상근/국본정엽(장고)
9.16	가야금산조 & 병창	곡명 없음	박상근/국본정엽(장고)
11.9	가야금산조 & 병창	곡명 없음	박상근/국본정엽(장고)
11.29	가야금산조 & 병창	1. 산조 2. 병창 가)단가 고고천변 나)창극조 심청가 중 요리	심상건/국본정엽(장고)

### 3) 가야금독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4.1	가야금산조	곡명없음	심상건/국본정엽(장고)
9.22	(東)가야금산조	곡명없음	미상
10.8	가야금산조	곡명없음	미상
10.18	가야금산조	곡명없음	미상
11.2	가야금산조	곡명없음	미상
11.15	가야금산조	곡명없음	미상
12.16	가야금산조	곡명없음	미상

### 4)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1.22	○○합주	곡명 없음	김자○(현금)/광산영이(가야금)/대림한부(장고)

### 5) 반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24	창극조	곡명 없음	박록주/심상건(가야금)

## ㉔ 1945년

### 1) 가야금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5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미상
1.11	현금산조 & 가야금병창	현금산조, 가야금병창	신과동/국본정엽(장고)
2.24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오택석
5.13	가야금병창	곡명 없음	오택석/국본정엽(장고)

### 2) 가야금산조와 병창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2.13	가야금산조 & 병창	곡명없음	미상
3.4	가야금산조 & 병창	곡명없음	정남희
3.24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없음	심상건
5.22	가야금산조와 병창	가요곡	정남희/국본정엽(장고)
6.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없음	박상근/국본정엽(장고)



6.15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없음	심상건/김광채(장고)
7.22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없음	미상
7.26	가야금산조와 병창	곡명없음	미상

### 3) 가야금독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1.20	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미상
4.17	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정남희/김임○(장고)
4.30	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정남희/국본정엽(장고)
5.29	가야금산조	곡명 없음	심상건/국본정엽(장고)

### 4) 기악합주

날짜	구분(장르)	곡명	연주자
6.12	해금과 가야금	○곡집	이산준(해금)박상근(가야금)

## II. 이왕직아악부 이습회 가야금 연주곡

### ① 1932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11.4(2회)	가야금독주	만파정식지곡 1-7장	김강본(가야금)
	합주	평조 본영산	박성재(피리), 이동식(현금), 김강본(가야금), 박노아(양금), 김만홍(해금), 김천룡(당적), 김철복(대금)
12.1(3회)	가야금독주	수연장지곡 1-7장	김영운(가야금)
	합주	정상지곡	이동식(현금), 김영운(가야금), 이길복(양금), 박성재(피리), 임장길(대금), 박영복(장고)

### ② 1933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1.12(4회)	가야금독주	취태평지곡 중영산	김강본(가야금) 2
2.2(5회)	가야금독주	우림령 삼현, 하현, 염불	김영운(가야금)
3.2(6회)	가야금독주	승평만세지곡 4, 5장	김강본(가야금)
4.6(7회)	가야금독주	만년장환지곡 편락, 편, 언편	김영운(가야금)
6.1(8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우조 초삭, 삼삭	김경용(노래), 김강본(반주가야금)
	가야금독주	승평만세지곡 6.7장	김강본(가야금)
7.6(9회)	가야금독주	취태평지곡 상영산	김영운(가야금)
8.3(10회)	가야금독주	수연장지곡 1-7장	김강본(가야금)
9.7(11회)	가야금독주	만파정식지곡	김영운(가야금)
10.5(12회)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세영산, 가락제지, 삼현	김강본(가야금)
11.2(13회)	병주	승평만세지곡 6.7장	김강본(가야금), 김천홍(비파)

12.7(14회)	가야금독주	황하청지곡 1-3장	김영윤(가야금)
-----------	-------	------------	----------

③ 1934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1.11(15회)	가야금독주	황하청지곡 4-7장	김강본(가야금)
2.1(16회)	가야금독주	황하청지곡 4-7장	김영윤(가야금)
3.1(17회)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상영산	김강본(가야금)
4.5(18회)	합주	서자고	장인식(현금), 김덕규(가야금), 이병성(양금), 김천홍(단소), 박창균(생황), 김천홍(해금)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초장	김영윤(가야금)
5.3(19회)	가야금독주	황하청지곡 1-3장	김강본(가야금)
6.7(20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계면 평릉, 계락	이재천(노래), 김영윤(반주가야금)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초장	고칠동(가야금)
7.5(21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연락, 계락	김선득(노래), 김강본(반주가야금)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상영산	김덕규(가야금)
9.6(23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3장	김영윤(가야금)
	관련합주	취태평지곡 상영산	봉해룡(대금), 김보남(피리), 김천홍(해금), 장인식(현금), 김영윤(가야금), 황종순(장고)
10.4(24회)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세영산, 가락달이	김강본(가야금)
11.1(25회)	합주	정상지곡 하현, 염불, 타령, 군악	이수경(거문고), 김덕규(가야금), 김영윤(양금), 김천홍(비파), 황종진(해금), 박창균(생황), 봉해룡(단소), 황종순(장고)
	가야금독주	황하청지곡 1-3장	김영윤(가야금)
12.6(26회)	합악	수연장지곡 전곡	성경린(현금), 김강본(가야금), 유길수(대금), 김보남(세피리), 김만홍(해금), 박성재(장고)
	가야금독주	정상지곡 별곡	김강본(가야금)

④ 1935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1.17(27회)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상영산	김영윤(가야금)
	합주	천년만세 별곡	박성재(현금)김영윤(가야금), 박노아(양금), 김천홍(해금), 황종순(장고)
2.7(28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초장	김강본(가야금)
3.7(29회)	현악합주	수요남곡	장인식(현금), 김영윤(가야금), 박노아(양금), 김천홍(해금), 김선득(장고)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중영산	김영윤(가야금)
4.4(30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2장	김강본(가야금)
5.2(31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우조 삼삭, 소용, 반엽	왕종진(노래), 김영윤(반주가야금)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2장	고칠동(가야금)

6.6(32회)	관현합주	송구여지곡전곡	박창균(대금), 김덕규(단소), 이재천(세피리), 장인식(현금), 김강본(가야금), 김천룡(해금), 박성재(장고)
	가야금독주	중선회 우조 두거	김강본(가야금)
7.4(33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우룡, 우락, 우편	김천룡(노래), 김강본(반주가야금), 박성재(장고)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4, 5장	김영윤(가야금)
9.5(35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6, 7장	김영윤(가야금)
10.3(36회)	가야금독주	중선회 우조 이삭	김강본(가야금)
11.7(37회)	가야금독주	우림령	김강본(가야금)
12.5(38회)	가야금독주	중선회 우조 이삭	김강본(가야금)

⑤ 1936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1.9(39회)	가야금독주	승평만세지곡 4, 5장	고칠동(가야금)
	합주	중광지곡 상영산	박성재(현금), 고칠동(가야금), 김봉원(양금), 김만홍(해금), 이복길(피리), 강길주(대금), 김천룡(단소), 최경길(장고)
2.6(40회)	가야금독주	중선회 우조 삼삭	*불참 김강본(가야금)
	관현악	취태평지곡 상영산	장인식(현금), 박노아(양금), 김영윤(가야금), 이복길(피리), 김봉원(대금), 김천홍(해금), 김선득(장고)
3.5(41회)	가야금독주	중선회 우조 삼삭	김강본(가야금)
4.2(42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우조 두거, 반엽	박창진(노래), 김강본(반주 가야금), 박성재(장고)
	현악합주	하성조	장인식(현금), 김강본(가야금), 김영윤(양금), 왕종진(해금), 박성재(장고)
5.7(43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계면 삼삭, 언룡	박성재(노래), 김영윤(반주 가야금), 이재천(장고)
	가야금독주	수요남곡	이창규(가야금)
6.4(44회)	가야금독주	승평만세지곡 3장	김강본(가야금)
7.2(45회)	가야금독주	승평만세지곡 4, 5장	함연춘(가야금)
8.6(46회)	가야금독주	보허사 1, 2장	김영윤(가야금)
	관현합주	천년만세 전곡	성경린(현금), 김영윤(가야금), 이병성(양금), 홍운기(피리), 김봉원(대금), 김종희(해금), 김덕규(장고)
9.3(47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6, 7장	이창규(가야금)
10.8(48회)	가야금독주	중선회 계락, 우락	김강본(가야금)
11.12(49회)	가야금독주	승평만세지곡 5장	김영윤(가야금)
	관현합주	정상지곡(수연장지곡 하연, 염불, 타령, 군악	이수경(현금), 김강본(가야금), 박노아(양금), 김천룡(비파), 왕종진(해금), 황종순(장고)
12.3(50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6, 7장	함연춘(가야금)
	관현합주	정상지곡 전곡	장사훈(현금), 함연춘(가야금), 이주환(양금), 김보남(세피리),

			김봉완(대금), 김교성(해금), 봉해룡(단소), 김선득(장고)
--	--	--	---------------------------------------

⑥ 1937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1.7(51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계면두거, 삼삭	김경룡(노래), 김강본(반주 가야금)
	현악합주	취태평지곡 상영산	김철영(현금), 이창규(가야금), 김천홍(양금), 김종희(해금), 김해영(장고)
	가야금독주	하성조	이창규(가야금)
2.4(52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계면 평거, 두거	김경룡(노래), 김강본(반주 가야금), 박창진(장고)
	가야금독주	취태평지곡 중영산	*불참 김강본(가야금)
3.4(53회)	가야금독주	천년만세 전곡	김영윤(가야금)
4.1(54회)	가야금독주	수요남곡	함연춘(가야금)
	관현합주	승평만세지곡 4장	성경린(현금), 함연춘(가야금), 김영윤(양금), 이재천(피리), 김성진(대금), 김교성(해금), 김선득(장고)
5.6(55회)	가야금독주	황하청지곡 1, 2장	이창규(가야금)
6.3(56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태평가	이병성(노래 남창), 박창진(노래 여창), 장인식(반주 현금), 김영윤(반주 가야금), 김종희(반주 해금), 박성재(장고), 김성태(반주 세피리), 임장길(반주 대금)
	합주	우림령 세영산, 가락덜이, 삼현	함연춘(가야금), 김진환(피리), 김종희(해금)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상영산, 가락덜이	김영윤(가야금)
7.1(57회)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상영산	이창규(가야금)
8.5(58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4, 5장	김영윤(가야금)
	가야금독주	취태평지곡 상영산	함연춘(가야금)
10.8(60회)	관현악	승평만세지곡 4장	장사훈(현금), 함연춘(가야금), 김영윤(양금), 김천룡(비파), 김천홍(해금), 김준현(피리), 최의식(대금), 봉해룡(단소), 김선득(장고)
	병주	우림령 가락덜이, 삼현	김영윤(가야금), 김천룡(비파)
	병주	황하청지곡 1, 2장	김영윤(대쟁), 이창규(가야금)
11.18(61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1장	함연춘(가야금)
	관현악합주	중광지곡 상영산	김철영(현금), 함연춘(가야금), 김봉완(양금), 주성배(피리), 김기수(대금), 왕종진(해금), 최의식(단소), 김해영(장고)
12.8(62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2장	김영윤(가야금)

⑦ 1938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1.13(63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우조 초삭, 두거	김철영(노래), 함연춘(반주 가야금), 김성태(반주 피리)

	가야금독주	서자고	이창규(가야금)
2.3(64회)	가야금독주	중선회 우조 초삭, 이삭	김영운(가야금)
	현악합주	하성조	장사훈(현금), 김영운(가야금), 김천홍(양금), 김종희(해금)
3.3(65회)	가야금독주	황하청지곡 3, 4장	이창규(가야금)
4.7(66회)	관현악합주	오운개서조 6, 7장	김철영(현금), 함연춘(가야금), 홍윤기(양금), 주성배(피리), 최의식(대금), 이덕환(해금), 김해영(장고)
	가야금독주	황하청지곡 1, 2장	함연춘(가야금)
5.5(67회)	관현합주	승평만세지곡 4장	장사훈(현금), 김영운(가야금), 박성재(양금), 김성태(피리), 김기수(대금), 김만홍(해금), 김진환(장고)
	가야금독주	중선회 우조이삭, 소용	김영운(가야금)
6.2(68회)	가야금독주	만년장환지곡 계면 초삭, 삼삭	이창규(가야금)
7.14(69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우조 초삭, 삼삭	주성배(노래), 이창규(반주 가야금), 홍윤기(피리)
	가야금독주	하성조	함연춘(가야금)
8.4(70회)	가야금독주	수요남곡	김영운(가야금)
	관현악	중광지곡 중영산	김철영(현금), 김영운(가야금), 김천홍(양금), 김진환(피리), 김기수(대금), 이덕환(해금), 봉해룡(단소), 김선득(장고)
9.1(71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4, 5장	이창규(가야금)
	관현악	중광지곡 하현, 염불	장사훈(현금), 이창규(가야금), 이주환(양금), 이준현(피리), 전영선(대금), 왕종진(해금), 김진환(장고)
10.6(72회)	병주	오운개서조 6, 7장	김영운(대쟁), 이창규(가야금)
11.10(73회)	가야금독주	만년장환지곡	함연춘(가야금)
	관현악	중광지곡 상영산	성경린(현금), 함연춘(가야금), 김봉완(양금), 홍윤기(피리), 강길수(대금), 김종희(해금), 김선득(장고)
12.1(74회)	관현악	만파정식지곡	김철영(현금), 김영운(가야금), 홍윤기(양금), 김보남(피리), 김기수(대금), 김만홍(해금), 김진환(단소), 김해영(단소)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중영산	김영운(가야금)

⑧ 1939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1.12(75회)	가야금독주	우림령 세영산, 가락달이, 삼현	이창규(가야금)
2.9(76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연락, 편락	*불참 김성태(노래), 김영운(반주 가야금), 최의식(반주 대금)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2장	*불참 함연춘(가야금)
3.9(77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2장	함연춘(가야금)
	관현합주	우림령 염불, 타령.군악	성경린(현금), 함연춘(가야금), 홍윤기(피리), 임장길(대금), 김봉완(양금), 왕종진(해금)

	병주	천년만세 전곡	성경린(현금), 김영윤(가야금)
4.6(78회)	가야금독주	만년장환지곡 계면 초삭, 삼삭	김영윤(가야금)
5.4(79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박창진(노래, 여창), 김영윤(반주 가야금), 임장길(반주 대금)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4장	이창규(가야금)
	관현악	유초신지곡 삼현, 하현, 염불	장인식(현금), 김영윤(가야금), 김보남(피리), 강길수(대금), 김만홍(해금), 김진환(장고), 김해영(좌고)
6.1(80회)	반주	만년장환지곡 우조 이삭	이주환(노래 여창), 김영윤(반주 가야금), 임장길(반주 대금)
	가야금독주	회팔선 우조 초삭, 삼삭	*불참 함연춘(가야금)
7.6(81회)	합주	천년만세지곡	장사훈(현금), 이창규(가야금), 김보남(피리), 임장길(대금), 김종희(해금), 홍윤기(양금), 김진환(장고)
8.3(82회)	가야금독주	서자고 전곡	김영윤(가야금)
	관현합주	중광지곡 중영산	장사훈(현금), 김영윤(가야금), 이재천(피리), 김기수(대금), 이덕환(해금)
9.7(83회)	관현악	만파정식지곡	성경린(현금), 김영윤(가야금), 김준현(세피리), 전영선(대금), 김기수(단소), 김만홍(해금), 김선득(장고)
	가야금독주	우림령 하현, 염불	*불참 함연춘(가야금)
10.5(84회)	가야금독주	서자고 전곡	김영윤(가야금)
	현악합주	황하청 2장	성경린(현금), 이창규(가야금), 김영윤(대쟁), 김천룡(비파), 홍윤기(양금)
11.2(85회)	관현악	승평만세지곡 6, 7장	김철영(현금), 이창규(가야금), 김준현(세피리), 전영선(대금), 김기수(단소), 김만홍(해금), 김진환(장고)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4, 5장	이창규(가야금)
12.7(86회)	가야금독주	중선회 계면 두거	김영윤(가야금)

⑨ 1940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2.1(88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4장	김영윤(가야금)
3.7(89회)	합주	오운개서조 5장	장사훈(현금), 김영윤(가야금), 김보남(양금)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타령, 군악	이창규(가야금)
5.2(91회)	가야금독주	서자고 전곡	김영윤(가야금)
6.6(92회)	가야금독주	우림령 하현, 염불	이창규(가야금)
7.4(93회)	가야금독주	우림령 하현, 염불	이창규(가야금)
	관현악	천년만세 전곡	김철영(현금), 이창규(가야금), 김보남(양금), 주성배(피리), 강길수(대금), 이덕환(해금), 김진환(단소), 김선득(장고)
9.5(95회)	가야금독주	수요남극 전곡	김영윤(가야금)

12.5(98회)	가야금독주	황하청 1. 3장	이창규(가야금)
-----------	-------	-----------	----------

⑩ 1941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1.9(99회)	가야금독주	중광지곡 하현, 염불, 타령	김진환(가야금)
2.6(100회)	병주	승평만세지곡 6장	장사훈(현금), 이창규(가야금)
	가야금독주	정상지곡 세영산, 가락덜이	김영윤(가야금)

⑪ 1942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2.5(112회)	가야금독주	오운개서조 7장	홍원기(가야금)

⑫ 1943년

날짜(회)	구분	곡명	연주자
8.5(130회)	가야금독주	황하청 6. 7장	박성원(가야금)
11.4(133회)	합주	여민락 5장	장인식(현금), 양영환(가야금), 이장성(피리), 강길주(대금), 왕종진(해금), 김선득(장고)
	가야금독주	중선회 계락	양영환(가야금)

### Ⅲ. 유성기음반 중 가야금 관련 음반목록

1)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

연도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1925	편	최섬홍(병창)/이초선(양금), 심매향(가야금)	일촉조선소리반K507/A
	모시편	최섬홍(병창)/이초선(양금), 심매향(가야금)	일촉조선소리반K507/B
1926	시조(상)	박월정/심상건(가야금), 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2/A
	시조(하)	박월정/심상건(가야금), 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2/B
1928	중광지곡(현) 세영산	이왕직악부원(지휘·합화진)	Victor49810/A
1935	타령	김계선(단소), 박종기(대금), 오태석(가야금), 문윤옥(제금)/오계선양악단	Okeh30011/B(K1384)

2) 민속악

① 1908년

1) 가야금병창(판소리)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새타령	박팔괘	Victor13512
자진산타령	박팔괘	Victor13513
토끼화상	박팔괘	Victor13521

② 1911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새타령	심정순	NIPPONOPHONE6023
기생접고	심정순	NIPPONOPHONE6024
춘향옥중가	심정순, 박춘재	NIPPONOPHONE6068
이별가	심정순	NIPPONOPHONE6069
소상팔경가	심정순, 박춘재	NIPPONOPHONE6071
사령 춘향 부르는데	심정순	NIPPONOPHONE6076
이도령어사발행	심정순	NIPPONOPHONE6077
토끼화상	심정순, 박춘재, 유명갑	NIPPONOPHONE6083
육자배기	심정순, 박춘재, 유명갑	NIPPONOPHONE6101

③ 1915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단가(상편)	박팔괘/가야금남자	Victor42983/A
단가(하편)	박팔괘/가야금남자	Victor42983/B

④ 1925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백구타령-백구야월월날지마라	김해선, 심매향/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04/A
춘하추동기-춘하추동	김해선, 심매향/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04/B
적벽가 군사설움가(1)-내설움을네들어라	심정순/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18/A
적벽가 군사설움가(2)-간밤에꿈을꾸니	심정순/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18/B
백구타령-백구야월월날지마라	김해선/심매향(가야금), 심정순(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20/A
신관도임(1)-신년맞아내려간다	김해선/심매향(가야금), 심정순(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20/B
신관도임(2)	김해선/심매향(가야금), 심정순(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23/A
춘향사랑가-사랑내사랑이야	심매향/김해선(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23/B
자진사랑가-상산자호네노인은	심매향/김해선(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35/A
골패타령-쌍줄옥삼육	심매향/김해선(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35/B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장양조산조	김해선/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06/A
중머리산조	김해선/한성준(장고)	일축조선소리반K506/B
잔모리	김해선/한성준	납보노흥 K575/A.B

3) 가야금독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	---------	------------



배달가, 난봉가(서도소리)	심정순/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43/A
자진시나위	심정순/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43/B

### 3)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삼남산타령(1)- 나를 데려가려무나	신금홍 /권금주(가야금),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27A
삼남산타령(2)- 임생각이나발광이로구나	신금홍 /권금주(가야금),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27B

## ⑤ 1926년

###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단가(상)	심상건/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임31/A
춘향전(하)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임31/B

###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진양조(1)(2)	심상건/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1/A,B
늦은 중모리(3)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65/A
자진중모리(4)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65/B
산조(5)(6)	심상건/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임132/A,B

### 3) 반주

#### \* 단가/판소리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대장부허랑하여(상)	박월정/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4/A
춘향몽중가(하)	박월정/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4/B

#### \* 남도잡가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비조가(상)	박월정/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임24/A
비조가(하)	박월정(남도잡가)/ 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임24/B
육자배기(상)	박월정/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6/A
자진육자배기	박월정/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46/B

#### \* 경기잡가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제비가(상)	박월정/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임25/A
제비가(하)	박월정/심상건(가야금),한성준(장고)	제비표조선레코드B임25/B

⑥ 1927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죽장망해(상)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01-A
죽장망해(하)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01-B
대장부가(1)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02-A
대장부가(2)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02-B
가자 어서가 가자 어서가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03/A
군사설움가 -고당학발양친이별한지라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03/B
적벽가공사가(상) -주유노숙으로더불어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04/A
적벽가공사가(하) -두장사붙을내여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04/B
소상팔경(1)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17/A
소상팔경(2)	강남중, 신옥란, 신진옥, 신연옥	넙보노홍K117/B
삼남새타령-남풍꽃아떨쳐나	심정순	넙보노홍K212/A
신관도임기생호명 -기생호명차차한다	심정순	넙보노홍K212/B
춘향가 (춘향옥중가-난향이란기생이)	심정순	넙보노홍K222/A
춘향가 (춘향이별가-춘향이기가막혀)	심정순	넙보노홍K222/B
사령춘향호출가 -군노사령이나간다	심정순	넙보노홍K224/A
어사발행기-어사발행하는데였다	심정순	넙보노홍K224/B
토끼화상	심정순(가야금병창) /박춘재(장고), 유명갑(피리)	넙보노홍K225/A(6083)
육자배기-간다나는간다	심정순(가야금병창) /박춘재(장고), 유명갑(피리)	넙보노홍K225/B(6101)
투전풀이-얼사마더여방아흥아	심매향/김해선(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51/A
화투풀이-화투풀이나하여보자	심매향/김해선(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51/B
흥타령-아이고데이흥	권금주/신금홍(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62/A
춘향사랑가-사랑내사랑이야	권금주/신금홍(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62/B
충효가-고고천변일륜흥	김해선, 심매향, 박화선	일촉조선소리반K573/A
유람가-만고강산유람할제	김해선, 심매향, 박화선	일촉조선소리반K573/B
새타령(1)-산천은힘준하고	신금홍, 권금주/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74/A
새타령(2)-귀촉도	신금홍, 권금주/가야금, 한성준(장고)	일촉조선소리반K574/B
대장부허랑하여(상)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121/A
대장부허랑하여(하)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121/B
명기명창	심상건/한성준(고)	제비표조선레코드B133/A
사랑가	심상건/한성준(고)	제비표조선레코드B133/B
백구타령	김해선/한성준(고)	제비표조선레코드B152/A
동풍가	김해선/한성준(고)	제비표조선레코드B152/B
심청가(청송령 소상팔경)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166/A
심청가(청송령 소상팔경)	심상건	제비표조선레코드B166/B

2) 기악합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굿거리	심정순	일촉조선소리반K566/A
자진굿거리	심정순	일촉조선소리반K566/B
굿거리	심상건(가야금)/지용구(해금)	제비표조선레코드B154/A
도드리	심상건(가야금),지용구(해금)	제비표조선레코드B154/B

㉞ 1928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심봉사상여뒤에-상여소리	오택석/지동근(장고)	Victor49041/A
심봉사상여뒤에우는데-상여소리	오택석/지동근(장고)	Victor49041/B

㉟ 1929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몽유가(상)-대장부허랑하여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08/A(20631)
몽유가(하)-대장부허랑하여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08/B(20632)
십장가(상)	오택석/이흥원(장고)	Columbia40031/A(20669-1)
십장가(하)	오택석/이흥원(장고)	Columbia40031/B(20670-1)
죽장망혜	오택석/백점봉(장고)	Columbia40042/A(20527)
초한가	오택석/백점봉(장고)	Columbia40042/B(20528)
박타령	오택석/지동근	Victor49014/A
돈타령	오택석/지동근	Victor49014/B
죽장망혜가	오택석/지동근	Victor49015/A
심봉사방아타령	오택석/지동근	Victor49015/B
백구타령	김해선/지동근(장고)	Victor49023/A
옥중가	김재선/지동근	Victor49023/B
청설영과가	김해선	Victor49039/A
사랑가	김해선	Victor49039/B
신연행차-신연맛이	김해선/지동근(장고)	Victor49044/A
춘향자탄가	김해선/지동근(장고)	Victor49044/B
죽장망혜	오택석/지동근	VictorKJ1296/A
돈타령	오택석	일촉조선소리판K801/A(20668)
심봉가눈뜨는데	오택석/백점봉(장고)	일촉조선소리판K801/B(20530)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느린중머리(상)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40/A(20567)
느린중머리(하)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40/B(20568)
잔머리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49/A(20569)
엇중머리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49/B(20570)
자진잔머리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60/A(20571)
당학	심상건/이흥원(장고)	Columbia40060/B(20572)
진양도	안기옥/이흥원(장고)	일축조선소리판 K804-B(20713)

⑨ 1930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박타령	오택석	Columbia40078/A(20830)
돈타령	오택석	Columbia40078/B(20831)
군노사령(상)	오택석	Columbia40086/A(20828)
군노사령(하)	오택석	Columbia40086/B(20829)
토끼화상	오택석	Columbia40101/A(20792)
별주부모친	오택석	Columbia40101/B(20793)
고고천변	오택석	Columbia40117/A(20794)
각색집승	오택석	Columbia40117/B(20795)
소상팔경(1)	심상건	Columbia40124/A
소상팔경(2)	심상건	Columbia40124/B
소상팔경(3)	심상건	Columbia40125/A(20924)
소상팔경(4)	심상건	Columbia40125/B(20925)
심봉사젓비는데(상)	심상건	Columbia40126/A
심봉사젓비는데(하)	심상건	Columbia40126/B
골패타령	심상건	Columbia40127/A(20932)
투전풀이	심상건	Columbia40127/B(20933)
장부한(상)	심상건	Victor49054/A
장부한(하)	심상건	Victor49054/B
옥중가	오택석	일축조선소리판K837 /A(20796)
쑥대머리	오택석	일축조선소리판K837/B(20797)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중머리	김종기	일축조선소리판K8임09/A
잔머리	김종기	일축조선소리판K8임09/B

3) 기악합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신방곡시나위(상)	심상건(가야금), 백낙준(현금), 한성준	Victor49064/A

	(소적)/반주:이중선(장고)	
신방곡시나위(하) 늦은살풀이	심상건(가야금), 백낙준(현금), 한성준 (소적)/반주:이중선(장고)	Victor49064/B

⑩ 1931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노화월	심상건	Columbia40152/A(20898)
청석령	심상건	Columbia40152/B(20899)
새타령	심상건(가야금병창)	Columbia40184/A(20927)
백구타령	심상건	Columbia40184/B(20926)
어사행상	오태석	Columbia40185/A
농부가	오태석	Columbia40185/B
초로인생	오태석	Columbia40230/A(21261)
춘향모	오태석	Columbia40230/B
사랑가(상)-잡가	심상건	Columbia40262/A
사랑가(하)-잡가	심상건	Columbia40262/B
선인따라서(상)	오태석	Columbia40278/A
선인따라서(하)	오태석	Columbia40278/B
세상사가소롭다	이옥화	DeerD임02/A
청석령	이옥화	DeerD임02/B
적벽새타령	한성기	Tombo50001/A
자진새타령	한성기	Tombo50001/B
이별가	한성기	Tombo50009/A
이별가	한성기	Tombo50009/B
이별가(상)	한성기	Tombo500임04/A
이별가(하)	한성기	Tombo500임04/B
죽장망혜	한성기	Tombo500임08/A
어화청춘	한성기	Tombo500임08/B
기산영수	한월탄	Tombo500임15/A
단가	한월탄	Tombo500임15/B
사랑가(상)	한월탄	Tombo500임17/A
사랑가(하)	한월탄	Tombo500임17/B
육자배기	한성기	Tombo500임21/A
명기명창	한성기	Tombo500임21/B
심청가(선인가-선인따라)	한성기	Tombo500임24/A
옥중가	한성기	Tombo500임24/B
노화월	한성기	Tombo500임27/A
화초새타령	한성기	Tombo500임27/B
심봉사눈뜨는데(상)	오태석	일축조선소리판K839/A(20832)
심봉사눈뜨는데(하)	오태석	일축조선소리판K839/B(20833)
아리랑/닐리리야	김운선(가야금병창)	일축조선소리판K841/A(21125)
청천강수/밀양아리랑	김운선	일축조선소리판K841/B(21126)
조어환주	이소향	일축조선소리판K853/A(21101)
박석티	이소향	일축조선소리판K853/B(21102)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진양 중머리	강태홍/한성준(장고)	VictorKJ1342/A 재발매 Victor 49244/A
자진중모리,잔모리	강태홍	VictorKJ1342/B 재발매 Victor 49244/B
진양조	심상건	Columbia40280/A(20914)
사설	심상건	Columbia40280/B(20915)
다스름	심상건	RegalC183/A(20912)
진양	심상건	RegalC183/B(20913)
굿거리	한성기	Tombo500임13/A
당학	한성기	Tombo500임13/B

3)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신이팔가	석산월/가야금	Tombo50006/A
아리랑	석산월/가야금	Tombo50006/B
닐리리아	석산월/가야금	Tombo50015/A
아리아리랑	석산월/가야금	Tombo50015/B

㉠ 1932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범피중류(상)	이옥화/김옥엽(장고)	Chieron2/A
범피중류(하)	이옥화/김옥엽(장고)	Chieron2/B
가지어서가	한성기	Chieron23(가)/A
새타령	한성기	Chieron23(가)/B
심청가(심청하직)	이옥화/김옥엽(장고)	Chieron27/A
선인가	한성기/김옥엽(장고)	Chieron27/B
이화청춘	한성기	Chieron38/A
초한가	한성기	Chieron38/B
명기명창	한성기	Chieron41/A
백구타령	한성기	Chieron41/B
긴사랑가	한성기	Chieron44/A
자진사랑가	한성기	Chieron44/B
세상공명	이옥화/김옥엽(장고)	Chieron502(특)/A
동원도리	이옥화/김옥엽(장고)	Chieron502(특)/B
이별가	방금선	Chieron54/B
비조가(새타령)	한성기	Chieron61/A
중타령	한성기	Chieron61/B
고고천변	한성기/이화성	Chieron69/A
신연맛이	한성기/이화성(장고)	Chieron69/B
정자노래	한성기	Chieron76/A
흥타령	한성기	Chieron76/B
방아타령, 양산도	오테석	Columbia40318/A(21484)

한강수타령, 경북공타령	오택석	Columbia40318/B(21485)
신연맞이	오택석, 임방울(조창)	Columbia40324/A
기생접고	오택석, 임방울(조창)	Columbia40324/B
육자배기	오택석	Columbia40342/A
흥타령	오택석	Columbia40342/B
곽씨부인사별(심청전중)	오택석	Columbia40355/A(21491)
심봉사탄식(심청전중)	오택석	Columbia40355/B(21492)
세상공명	이옥하/김창선(고)	Polydor19015/A
토타령	이옥하/김창선(고)	Polydor19015/B
죽장망해	오택석/이취향(장고)	Taihei8004/A
심청하직	오택석/이취향(장고)	Taihei8004/B
토끼화상	오택석/이취향(장고)	Taihei8008/A
고고천변	오택석/이취향(장고)	Taihei8008/B
초로인생	오택석/이취향(장고)	Taihei8014/A
농부가	오택석/이취향(장고)	Taihei8014/B
노화월-고고천변	심상건/한성준(장고)	Victor49088/A
소상팔경-범피중류	심상건/한성준(장고)	Victor49088/B
새타령(상)	강태홍/한성준(장고)	Victor49111/A(3508)
새타령(하)	강태홍/한성준(장고)	Victor49111/B(3509)
단가 호접몽(상)	이소향/한성준(고)	Victor49127/A(3506)
단가 호접몽(하)	이소향/한성준(장고)	Victor49127/B(3507)
호리건곤	이소향/오택석(장고)	Victor49160/A(4317)
적벽대전	이소향/오택석(장고)	Victor49160/B(4318)
청춘원(상)	이소향/오택석(장고)	Victor49165/A
청춘원(하)	이소향/오택석(장고)	Victor49165/B
토공화상-토끼화상	오택석/이소향(장고)	Victor49166/A
주부출궁-고고천변	오택석/이소향(장고)	Victor49166/B
새타령(상)	김채연/이양옥(장고)	Victor49169/A(4357)
새타령(하)	김채연/이양옥(장고)	Victor49169/B(4358)
진국명산 객래문아-소지노화	신옥도/신채련(장고)	Victor49170/A
동풍가-옥중가	신옥도/신채련(장고)	Victor49170/B
춘도남원(상)	오택석/이소향(장고)	Victor491임03/A
춘도남원(하)	오택석/이소향(장고)	Victor491임03/B
육자배기	박동준	일축조선소리판K863/A(21147)
자진육자배기	박동준	일축조선소리판K863/B(21148)
심봉사황성행(상)	심상건	일축조선소리판K864/A(21305)
심봉사황성행(하)	심상건	일축조선소리판K864/B(21306)
토끼화상	김운선	일축조선소리판K8임20/A
이별가(춘향전중)	김운선	일축조선소리판K8임20/B
화용도(공명제풍후)	이소향	일축조선소리판K8임22/A
화용도(공명제풍후)	이소향	일축조선소리판K8임22/B
양산도, 청천강수	김우학, 이달현	일축조선소리판K8임24/A
방아타령	김우학, 이달현	일축조선소리판K8임24/B
몽중가(상)	심상건	일축조선소리판K8임37/A
몽중가(하)	심상건	일축조선소리판K8임37/B

2)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닐리리야	이영산홍, 김옥엽/가야금, 장고	Chieron3/A
아리아리랑	이영산홍, 김옥엽/가야금, 장고	Chieron3/B
아리랑	김옥엽/석산월(가야금)	Chieron26/B
흥부전 흥부복거(상)	김초향/강태홍(가야금), 한성준(장고)	Victor49131/A(3477)
흥부전 흥부복거(하)	김초향/강태홍(가야금), 한성준(장고)	Victor49131/B(3478)

㉔ 1933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기생점고	한성기	Chieron81/A
돈타령	한성기	Chieron81/B
산타령	한성기	Chieron87/A
아리아리랑	한성기	Chieron87/B
동원도리	이옥화	Chieron89/B
화용도	한성기	Chieron98/A
적벽새타령	한성기	Chieron98/B
이별가	한성기	Chieron110/A
이별가	한성기	Chieron110/B
방이타령(상)	오태석	Columbia40394/A
방이타령(하)	오태석	Columbia40394/B
노래가락	김갑자/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66/A(21805)
도라지타령	김갑자/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66/B(21806)
장부한	한농선/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72/A(21797)
은실타령	한농선/한성준(고)	Columbia40472/B(21798)
이팔춘추가	김갑자/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73/A(21795)
고당상(군사사향가)	김갑자/한성준(고)	Columbia40473/B(21803)
청춘원(상)	최소옥/하농주(장고)	Okeh1501/A
청춘원(하)	최소옥/하농주(장고)	Okeh1501/B
적벽가(상)	최소옥/하농주(장고)	Okeh1508/A
적벽가(하)	최소옥/하농주(장고)	Okeh1508/B
가난타령	최소옥/하농주(장고)	Okeh1524/A
돈타령	최소옥/하농주(장고)	Okeh1524/B
춘향가(몽중가(상))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544/A
춘향가(몽중가(하))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544/B
함평천지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548/A
명기명창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548/B
박타령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558/A(K503)
돈타령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558/B(K504)
중타령(상)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562/A
중타령(하)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562/B
육자배기	박녹주 서영주, 김종기	Okeh1568/A
흥타령	박녹주 서영주, 김종기	Okeh1568/B



공도난이	김종기	Okeh1576/A
사랑가	김종기	Okeh1576/B
호접몽(장부한)(상)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579/A(K603)
호접몽(장부한)(하)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579/B(K603)
이비나오는데(상)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593/A
이비나오는데(하)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593/B
단가(청석령)	이소향	Okeh1601/A
왕알연하다	이소향	Okeh1601/B
신명기명창	김운선/김창선(고)	Polydor19014/A(5201BF)
이별가	김운선/김창선(고)	Polydor19014/B(5220BF)
이팔가, 오동나무	김운선/김창선(장고)	Polydor19017/A
아리랑	김운선/김창선(장고)	Polydor19017/B
노화월(백로횡강)	김운선/김창선(고)	Polydor19084/A
화초가	김운선/김창선(고)	Polydor19084/B
장부소원	주난향/한성기(장고)	Taihei8028/A
주부탄식	주난향/한성기(장고)	Taihei8028/B
패졸원혼	한성기/주난향	Taihei8029/A
새타령	한성기/주난향(장고)	Taihei8029/B
노화월	한성기/주난향	Taihei8034/A
토끼화상	한성기/주난향(장고)	Taihei8034/B
옥중한탄	주난향/한성기(장고)	Taihei8038/A
죽장망혜	주난향/한성기(장고)	Taihei8038/B
호남가	주난향/한성기(장고)	Taihei8042/A
명기명창	주난향/한성기(장고)	Taihei8042/B
공도백발	한성기/주난향(장고)	Taihei8050/A
초한가	한성기/주난향(장고)	Taihei8050/B
편시춘	김남수	Taihei8063/A
심청애탄	김남수	Taihei8063/B
육자배기	김남수	Taihei8066/A
자진육자배기	김남수	Taihei8066/B
만고강산	김남수	Taihei8070/A
춘하추동	김남수	Taihei8070/B
중타령	김채연/신옥도(고)	Victor49180/A
죽장망혜	김채연/신옥도(고)	Victor49180/B
사랑가	신옥도/김채연(고)	Victor49181/A
이별가	신옥도/김채연(고)	Victor49181/B
방아타령	오태석/이소향(고)	Victor49188/A
양산도, 널리리야	오태석/이소향(고)	Victor49188/B
백구사	신정옥/김채연(장고)	Victor49194/A(4653)
적벽원조가	신정옥/김채연(장고)	Victor49194/B(4659)
칠성제풍(상)	이소향/한성준(고)	Victor49232/A(5325)
칠성제풍(하)	이소향/한성준(고)	Victor49232/B(5326)
운담풍경	이소향/한성준(고)	Victor49237/A
수회	이소향/한성준(고)	Victor49237/B
소상팔경(상)	이소향/한성준(고)	Victor49243/A(5325)
소상팔경(하)	이소향/한성준(고)	Victor49243/B(5326)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진양조	한성기/이화성(장고)	Chieron52/A
중머리	한성기/이화성(장고)	Chieron52/B
진양(상)	한성기/주난행(장고)	Taihei9000/A
진양(하)	한성기/주난행(장고)	Taihei9000/B
중머리	한성기/주난행(장고)	Taihei9001/A
엇머리	한성기/주난행(장고)	Taihei9001/B
잔머리	한성기/주난행(장고)	Taihei9002/A
당학	한성기/주난행(장고)	Taihei9002/B

3) 기악합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방아타령 자진난봉가	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기린조선악단	KirinC153/A
자라메라 아라비아	김봉업(해금)이일선(가야금)/ 기린조선악단	KirinC153/B

4)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방랑의노래	채규화/가야금, 바이올린/ 안일파(편곡)	Columbia40468/B
흥타령	한성기, 주난행/가야금	KirinC157/B
도라지타령	강홍식, 박월정, 강석연, 전옥/ 가야금, 바이올린, 템버린, 장고	Victor49231/A(5327)
밀양아리랑	강홍식, 박월정, 강석연, 전옥/ 가야금, 바이올린, 템버린, 장고	Victor49231/B

㉓ 1934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노화월	심상건	Chieron213/A
동풍가	심상건	Chieron213/B
양산도	김갑자/김갑순(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86/A(21796)
객래문야흥망사	김갑자/한성준(고)	Columbia40486/B(21804)
짜사랑(상)	한농선/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96/A
짜사랑(하)	한농선/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496/B
추월강산	김갑자/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502/A(21835)
이별가	김갑자/바이올린, 한성준(고)	Columbia40502/B(21836)
토끼화상	김갑자/일본콜럼비아관현악단	Columbia40509/A(21963)
하사월	김갑자/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09/B(21955)
천안삼거리	김갑자/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13/B
신창부타령	김갑자/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21/A(21945)
오동동추야	김갑자/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21/B(21943)

사랑가	오비취/한성준(고)	Columbia40524/A
명기명창	김차돈/한성준(고)	Columbia40539/A
춘향가(쑥대머리)	김차돈/한성준(고)	Columbia40539/B
닐리리야	김갑자/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61/A(21948)
밀양아리랑	김갑자	Columbia40561/B(21958)
화용도(상)	오비취/한성준(고)	Columbia40570/A (1 22007)
화용도(하)	오비취/한성준(고)	Columbia40570/B (2 22008)
방아타령	김갑자/김갑순(바이올린)	Columbia40597/A
가자어서가	김갑자/조화악반주	Columbia40597/B
박석티(상)	오태석	KirinC183/A
박석티(하)	오태석	KirinC183/B
초로인생	오태석	KirinC188/A
농부가	오태석	KirinC188/B
흥보가(흥보자탄가)	최소옥	Okeh1628/A
흥보가(흥보자탄가)	최소옥	Okeh1628/B
가자어서가	김연수	Okeh1636/A
남병산넘어	김연수	Okeh1636/B
적벽가 화용도(상) (조자룡할쏘는데)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639/A
적벽가 화용도(하) (조자룡할쏘는데)	이소향/박녹주(장고)	Okeh1639/B
눈어두운백발부친(상)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712/A
눈어두운백발부친(하)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712/B
오호청춘	오태석/김종기(장고)	Okeh1725/A
심청부친이별	오태석/김종기(장고)	Okeh1725/B
황성도중방아짚는데(상)	오태석/김종기(장고)	Okeh1738/A
황성도중방아짚는데(하)	오태석 김소희(조창)오비취(조창) /김종기(장고), 박종기(대금), 김종기( 해금)	Okeh1738/B
아리랑.닐리리야	김운선(가야금잡곡)	RegalC103/A
청천강수 밀양아리랑	김운선	RegalC103/B
조어환주	이소향	RegalC128/A(21101)
박석티	이소향	RegalC128/B(21102)
초로인생	오태석	RegalC130/A(21261)
쑥대머리	오태석	RegalC130/B(20797)
돈타령	오태석/이흥원(장고)	RegalC147/A(20668)
옥중가	오태석	RegalC147/B(20796)
토끼화상	김운선	RegalC148/A(21127)
심봉사눈뜨는데	오태석/백점봉(장고)	RegalC148/B(20530)
화용도 (공명제풍후)(상)	이소향	RegalC180/A(21103)
화용도 (공명제풍후)(하)	이소향	RegalC180/B(21104)
이별가(춘향전중)	김운선	RegalC182/A(1 21128)
춘향모	오태석	RegalC182/B(2 21262)
백구야날지마라	권농선/한성준(고)	RegalC190/A(R 192)
새타령	권농선/한성준(고)	RegalC234/A(1 21830)

골패타령	권농선/한성준(고)	RegalC234/B(2 21831)
기생접고(상)	오태석	Taihei8080/A(K380)
기생접고(하)	오태석	Taihei8080/B(K381)
육자배기	오태석, 김유앵, 박녹주	Taihei8081/A
흥타령	오태석, 김유앵, 박녹주	Taihei8081/B
청춘원	박녹주	Taihei8082/A
화초장	박녹주	Taihei8082/B
춘향과 방자 수작	김유앵	Taihei8083/A
고당상	김유앵	Taihei8083/B
장부한	오태석	Taihei8090/A
박타령	오태석	Taihei8090/B
적성가	김유앵	Taihei8091/A
선인수거	김유앵	Taihei8091/B
운담풍	박녹주	Taihei8094/A
대관강산	박녹주	Taihei8094/B
십장가(상)	오태석	Taihei8109/A
십장가(하)	오태석	Taihei8109/B
심봉사통곡(상)	오태석	Taihei8115/A
심봉사통곡(하)	오태석	Taihei8115/B
용왕탄식	오태석	Taihei8122/A(K388)
주부출궁	오태석	Taihei8122/B(K389)
화초가	이소향/한성준(장고)	Victor49269/B
춘향자탄가	김채련/한성준(장고)	Victor49297/A
춘향자탄가	김채련/한성준(장고)	Victor49297/B
군신읍별(상) 갑신정변 황철(사)	정남희/이소향(장고)	Victor49306/A
군신읍별(하) 갑신정변 황철(사)	정남희/이소향(장고)	Victor49306/B
반석현성하의수훈(상)	이소향/김현경(작)/황철(사)	Victor49308/A
반석현성하의수훈(하)	이소향/김현경(작)/황철(사)	Victor49308/B
오호곽씨부인(상) 빅타조선문예부(편)	정남희/이소향(장고)	Victor49313/A
오호곽씨부인(하) 빅타조선문예부(편)	정남희/이소향(장고)	Victor49313/B
호남가	김옥진/이소향(장고)	Victor49315/A
유색항금눈	김옥진/이소향(장고)	Victor49315/B
죽장망혜	정남희/이소향	Victor49326/A
별주부토끼만나는데	정남희/이소향(장고)	Victor49326/B
철야장탄(상)	이소향/정남희(장고)	Victor49327/A
철야장탄(하)	이소향/정남희(장고), 한성준(장고)	Victor49327/B
읍혈등선(상)	이소향/정남희(장고)	Victor49333/A
읍혈등선(하)	이소향/정남희(장고)	Victor49333/B

##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중머리	김운선/김창선(고)	Polydor19013/A(5199BF)
일머리	김운선/김창선(고)	Polydor19013/B(5200BF)
진양도(一)	정남희/한성준(고)	Regal C199-A

진양도(二)	정남희/한성준(고)	Regal C199-B
중머리	정남희/한성준(고)	RegalC263/A(1R 17)
중중머리 잔머리	정남희/한성준(고)	RegalC263/B(2R 18)

### 3) 기악합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신아리랑	이일선(가야금)/김봉업(해금)/이충선(대금)	KirinC170/A
창부타령	이일선(가야금)/김봉업(해금)/이충선(대금)	KirinC170/B

### 4)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오호타령	최순경, 장명화/김일춘(가야금)	Chieron191/A
애원성	최순경, 장명화/김일춘(가야금)	Chieron191/B
수심가	최순경/김일춘(가야금)	Chieron207/A
자진수심가	최순경/김일춘(가야금)	Chieron207/B
춘향찬하가	임방울(편곡 및 창) /오태석(가야금)박종기(대금) 김종기(해금) 김소희(장고)	Okeh1724/A(K1322)
신옥중가	임방울(편곡 및 창) /오태석(가야금)박종기(대금) 김종기(해금) 오비취(장고)	Okeh1724/B(K1323)
뱃노래	주창:김소희, 조창:오태석, 오비취 /오케-조선악단(가야금:오태석, 대금:박종기, 단소:김계선, 제금:문윤옥)	Okeh1728/A
진도아리랑	주창:김소희, 조창:오태석, 오비취 /오케-조선악단(가야금:오태석, 대금:박종기, 단소:김계선, 제금:문윤옥)	Okeh1728/B
새타령(새산도)(상)	오태석, 오비취, 김소희(합창) /김종기(가야금), 박종기(대금)	Okeh1741/A(K1403)
새타령(새산도)(하)	오태석, 오비취, 김소희(합창) /김종기(가야금), 박종기(대금)	Okeh1741/B(K1404)
황해산염불	김주호/고재덕(세적), 최수성(단소), 김우학(가야금)	Polydor19165/A(7852BF)
십생염불	김주호/고재덕(세적), 최수성(단소), 김우학(가야금)	Polydor19165/B(7853BF)
방아타령	김주호/고재덕(적), 최수성(단소), 김우학(가야금)	Polydor19169/A
양산도	김주호/고재덕(적), 최수성(단소), 김우학(가야금)	Polydor19169/B
수심가	김옥엽/김우학(가야금)	Taihei8094/A(K416)
염음수심가	김옥엽/김우학(가야금)	Taihei8094/B(K417)
놀랑	이진홍/가야금	Taihei8118/A
뒷산타령	이진홍/가야금	Taihei8118/B

⑭ 1935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상산사호	신금홍	Chieron233/A
자탄가	신금홍	Chieron233/B
초한가	김차돈, 김성화/한성준(고)	Columbia40590/B(2 21998)
어화청춘	한성기	CoreaH7/A
초한가	한성기	CoreaH7/B
패줄원귀	한성기	KirinC200/A
새타령	한성기	KirinC200/B
일절통곡(상)	한성기/주난행(장고)	KirinC204/A
공도백발	한성기	KirinC225/A
초한가	한성기	KirinC225/B
곽씨부인사별	오태석/김종기(장고)	Okeh1748/A(K1372)
곽씨부인복망산행	오태석김소희(조창)오비취(조창) /김종기(장고), 박종기(대금)	Okeh1748/B (K1371)
십장애호	오태석	Okeh1752/A
십장애호	오태석	Okeh1752/B
방아타령, 양산도	오태석/김계선(대금), 김종기(해금)	Okeh1769/A(K1393)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 날좀보소, 날리이야	오태석/김계선(대금), 김종기(해금)	Okeh1769/B(K1394)
신관부임	오태석/김종기(장고)	Okeh1785/A
기생점고	오태석/김종기(장고)	Okeh1785/B
죽장망혜	성금화	Okeh1814/A
절통곡	성금화	Okeh1814/B
토끼화상(수궁가)	성금화/정원섭(장고)	Okeh1845/A(K155)
곽씨부인장후 (심청가)	성금화/정원섭(장고)	Okeh1845/B(K156)
어화세상	오비취/한성준(고)	RegalC262/A(1 21999)
태평천지	오비취/한성준(고)	RegalC268/A(1R40)
청류원	정남희/정원섭(고)	RegalC288/A(1KR264)
청춘을허송마라	정남희/박상근(고)	RegalC288/B(2KR257)
어사춘향모상봉(상)	정남희/박상근(고)	RegalC292/A(1KR258)
어사춘향모상봉(하)	정남희/박상근(고)	RegalC292/B(2KR265)
가자어서가	오비취/한성준(고)	RegalC299/A(1 22000)
백발가	오태석	Taihei8128/A
군노사령	오태석	Taihei8128/B
공도백발	정남희	VictorKJ1010/A
일절통곡	정남희	VictorKJ1010/B
청석령	이소향/김일지흥(장고)	VictorKJ1027/A(756)
꽃타령	이소향/김일지흥(장고)	VictorKJ1027/B(757)
일절통곡	이소향/김일지흥(장고)	VictorKJ1030/A(754)
하로가고	이소향/김일지흥(장고)	VictorKJ1030/B(755)
가난타령	이소향/김일지흥(장고)	VictorKJ1034/A(752)
중타령	이소향/김일지흥(장고)	VictorKJ1034/B(753)

2) 가야금독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월하수회곡	김우학	Polydor19178/A

3) 기악합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봉황곡	정해시(동소)/심상건(가야금)/김덕준(해금)/한성준(장고)	VictorKJ1043/A(JRE1106)
취포무	정해시(동소)/심상건(가야금)/김덕준(해금)/한성준(장고)	VictorKJ1043/B(JRE1107)

4)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공공타령	고일심/일본콜럼비아관현악단	Columbia40610/B
수심가	고일심/김철성(가야금), 김영근(대금)	Columbia40638/A
반갑도다	유개동/김철성(가야금), 민완식(장고)	Columbia40638/B
농부가	오비취(합창), 김소희(합창), 임방울(합창), 오태석(합창) /박종기(대금), 김종기(가야금)	Okeh1755/A
자진농부가	오비취(합창), 김소희(합창), 임방울(합창), 오태석(합창) /박종기(대금), 김종기(가야금)	Okeh1755/B
수궁풍류(상)	임방울 /조상선(가야금), 정원섭(세적), 박종기(대금), 지동금(해금)전일도(장고)	Okeh1813/A(K206)
수궁풍류(하)-성주풀이	임방울 /조상선(가야금), 정원섭(세적), 박종기(대금), 지동금(해금)전일도(장고)	Okeh1813/B(K207)
청춘가	김주호/고재덕(세적), 최수성(단소), 김우학(가야금)	Polydor19175/A
흥타령	김주호/고재덕(세적), 최수성(단소), 김우학(가야금)	Polydor19175/B
언문풀이(상)	김주호/세적, 단소, 가야금	Polydor19188/A(7880)
언문풀이(하)	김주호/세적, 단소, 가야금	Polydor19188/B(7881)
자진방아타령	이옥화/강춘섭(초금), 오비취(가야금), 한성준(장고)	RegalC315/B
신이팔청춘가	석금성/일본빅타관현악단(필름, 가야금, 장고)/김동운(작시), 빅타문예부(편곡)	Victor49339/B
나를잊었나	석금성/관현악(템버린, 가야금, 장고)	Victor49344/A
신이화타령	석금성/관현악(필름, 가야금, 템버린, 장고)	Victor49349/B

⑮ 1936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몽중가	김갑자	Colmbia40669

		/A(1 21956)
썩대머리	김갑자	Colmbia40669 /B(1 21957)
구만리(상)	강태홍/박종기(장고)	MillionCM812/A
구만리(하)	강태홍/박종기(장고)	MillionCM812/B
비몽사몽(상)	최계란/강태홍(장고)	MillionCM815/A
비몽사몽(하)	최계란/강태홍(장고)	MillionCM815/B
천리강산	최계란/강태홍(장고)	MillionCM819/A
몽중가(상)	이소향	NewKorea1040/A7
몽중가(하)	이소향	NewKorea1040/B
객래문아	김금옥/최소옥(장고)	Okeh1533/A
골패타령	김금옥/최소옥(장고)	Okeh1533/B
골패타령	임소향/한성준(고)	Polydor19288/A(8810)
청춘원	정남희	Polydor19329/A
썩대머리	정남희	Polydor19329/B
춘향가(춘향자탄가)	조앵무	Polydor19338/A
화용도새타령	조앵무	Polydor19338/B
심청사당하직	오태석	Polydor19348/A
심청선인수행	오태석	Polydor19348/B
선인의뱃노래	오태석(외다수)	Polydor19349/A
선인의뱃노래	오태석(외다수)	Polydor19349/B
이별가	정남희	Polydor19358/A
가자어서가	오비취/한성준(고)	RegalC299/A(1 22000)
경기가(상)-작사:김석구	정남희/정원섭(장고)	RegalC344/A
경기가(하)-작사:김석구	정남희/정원섭(장고)	RegalC344/B
심청전 신수궁가(상) -뱃노래	정남희/조선악단	RegalC348/A(1KR373)
심청전 신수궁가(하) -뱃노래	정남희/조선악단	RegalC348/B(1KR372)
만정월색	오비취/한성준(고)	RegalC362/A(1R38)
꿈인가생시인가	오비취/한성준(고)	RegalC362/B(2R37)
노화월(가야금병주)	이난향	Taihei8210/B
편시춘(상)	이소향/박종기(장고)	Taihei8218/A
편시춘(하)	이소향/박종기(장고)	Taihei8218/B
범피중류(상)	이소향/박종기(장고)	Taihei8229/A
범피중류(하)	이소향/박종기(장고)	Taihei8229/B
죽장망혜	이소향/박종기(장고)	Taihei8235/A
좌석다툼	이소향/박종기(장고)	Taihei8235/B
청설령	이소향/박종기(장고)	Taihei8240/A(K766)
일절통곡	이소향/박종기(장고)	Taihei8240/B(K767)
소상팔경	이소향	Taihei8247/A
추월강산	이소향	Taihei8262/A(K769)
제비가	이소향	Taihei8262/B(K768)
신조농부가	김옥진/심상건(매구),정해시(통소),김	Victor49403/B



	덕진(해금),한성준(장고)	
패성가	심상건	VictorKJ1050/A(JRE1095)
객래문아	심상건	VictorKJ1050/B(JRE1110)
황릉묘전편(상)	심상건	VictorKJ1054/A(JRE1108)
황릉묘전편(하)	심상건	VictorKJ1054/B(JRE1109)
황릉묘후편(상)	심상건/한성준(고)	VictorKJ1057/A(JRE1111)
황릉묘후편(하)	심상건/한성준(고)	VictorKJ1057/B(JRE1112)

##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살풀이	김종기	Okeh1871/A
자진중머리	김종기	Okeh1871/B
자진머리	김종기	Okeh1872/A
자진당학	김종기	Okeh1872/B
진양(상)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869/A(K535)
진양(하)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869/B(K536)
중모리(상)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870A/(K537)
중모리(하)	김종기/박녹주(장고)	Okeh1870/B(K538)

## 3) 기악합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봉장취(상)	강태홍(가야금)박종기(대금)최계란(장고)	MillionCM809/A
봉장취(하)	강태홍(가야금)박종기(대금)최계란(장고)	MillionCM809/B
진양조	심상건(가야금)정해시(통소)김덕준(해금)한성준(장고)	VictorKJ1046/A(JVE7911)
평타령	심상건(가야금)정해시(통소)김덕준(해금)	VictorKJ1046/B
잔머리	심상건(가야금)정해시(통소)김덕준(해금)한성준(장고)	VictorKJ1047/B
한강수타령	심상건(가야금)/김덕진(해금)/한성준(장고)/정해시(통소)/김매홍(탬버린)	VictorKJ1066/A(KRE151)

## 4) 반주

### \* 경기민요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홍공단타령	이영산홍/장고,가야금,대금,세적	MillionCM808
자진방아타령	이옥화/강춘섭(초금), 오비취(가야금), 한성준(장고)	RegalC315/B
자진방아타령	김태운/고재덕(세적), 김칠성(가야금),민완식(장고)	Columbia40641/B(2KR294)
군밤타령	이소향,유능주/가야금,대금	Taihei8219/B
청춘가	김옥엽/장고,해금,가야금	Victor49397/B

\* 근대음악(대중민요)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세골큰애기	김복희/일본빅타관현악단(가야금, 대금, 장고)/고파영(작사)나소운(작곡)	Victor49417/A
바람이났네	김옥진/일본빅타관현악단(가야금, 대금, 장고)/김팔련(작사)전수린(작곡)	Victor49417/B
봄을찬미하자	채규엽/김갑순(바이올린), 김갑자(가야금)/서수미래(작사)	Columbia40661/B

\* 남도민요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등개타령	이소향, 유농주/가야금, 대금	Taihei8219/A
보름	최계란, 조소옥/장고, 가야금, 대금	MillionCM805/A
새타령	최계란, 조소옥/장고, 가야금, 대금	MillionCM805/B

\* 판소리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적벽야유	김옥진/심상건(매구), 정해시(통소),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고)	Victor49428/A(KVE113)
춘향가(돈타령)	김옥진/심상건(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고)	Victor49428/B(KVE114)
낭자출궁(상)	방진관/통소, 가야금, 해금, 장고	VictorKJ1064/A(KRE111)
낭자출궁(하)	방진관/통소, 가야금, 해금, 장고	VictorKJ1064/B(KRE112)
고당상(상)	김소희/심상건(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고)	VictorKJ1073/A(KRE125)
고당상(하)	김소희/심상건(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고)	VictorKJ1073/B(KRE126)
탈의상중(상)	김소희/가야금, 통소, 해금, 장고	VictorKJ1060/A(KRE153)
탈의상중(하)	김소희/가야금, 통소, 해금, 장고	VictorKJ1060/B(KRE154)
가난타령	김초향/이소향(가야금), 김덕진(해금), 정해시(통소), 한성기(장고)	VictorKJ1067/A(KRE133)
중타령	김초향/이소향(가야금), 김덕진(해금), 정해시(통소), 한성기(장고)	VictorKJ1067/B(KRE134)

\* 서도무악(잡가)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십대왕풀이	김주호/가야금, 해금, 통소	VictorKJ1062/A(KRE113)
놀랑	김태운/고재덕(세적), 김칠성(가야금), 민완식(장고)	Columbia40641/A (1KR293)

\* 신민요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해로가	김옥진/장고, 해금, 가야금	Victor49397/A
꽃타령	김옥진/심상건(가야금), 정해시(통소), 김덕진(해금), 한성준(장고)	Victor49403/A

㉞ 1937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구만리(상)	강태홍	KoraiCM812/A 재발매 MillionCM812/A
구만리(하)	강태홍	KoraiCM812/B 재발매 MillionCM812/B
비몽사몽(상)	최계란/강태홍(장고)	KoraiCM815/A 재발매 MillionCM815/A
비몽사몽(하)	최계란/강태홍(장고)	KoraiCM815/B 재발매 MillionCM815/B
심봉사자탄	김금암	Okeh12005/A
증타령	김금암	Okeh12005/B
죽장망혜	김금암	Okeh12047/A
토끼화상	김금암	Okeh12047/B
항성올라가는데	김금암	Okeh1982/A
도중방아타령	김금암	Okeh1982/B
호남가	김금암	Okeh1996/A
배타령(소지노화)	김금암	Okeh1996/B
탐승가(상) 작사:김석구	정남희/정원섭(장고)	RegalC377/A
탐승가(하) 작사:김석구	정남희/정원섭(장고)	RegalC377/B
군밤타령 널리리아	권농선/한성준(고)	RegalC379/A
날좀보소 도라지	권농선/한성준(고)	RegalC379/B
각지어라	오비취/한성준(고)	RegalC390/A(1R39)
옥중가	권농선/한성준(고)	RegalC398/A
노화월	심상건	Taihei8289/A(K977)
자탄가	심상건	Taihei8289/B(K978)
성지강산	심상건	Taihei8294/A(K982)
춘하추동	심상건	Taihei8294/B(K980)
언덕우에 초동이요	심상건	Taihei8304/B
호접몽(상)	이소향	VictorKJ1101/A(KRE117)
호접몽(하)	이소향	VictorKJ1101/B(KRE118)
기생접고(상)	심상건/빅타조선탁단	VictorKJ1103/A(KRE163)
기생접고(하)	심상건/빅타조선탁단	VictorKJ1103/B(KRE164)
호리건곤	이소향	VictorKS2006/A 재발매Victor49160/A(4317)
적벽대전	이소향	VictorKS2006/B 재발매 Victor49160/B(4318)
심청이선인파라가는데(상)	이소향	VictorKS2016/A
심청이선인파라가는데(하)	이소향	VictorKS2016/B
새타령(상)	강태홍/한성준(고)	VictorKS2020/A
새타령(하)	강태홍/한성준(고)	VictorKS2020/B
죽장망혜	정남희/이소향	VictorKS2029/A 재발매 Victor49326/A
별주부토씨만나는데	정남희/이소향	VictorKS2029/B 재발매Victor49326/B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굿거리	함동정월/김성채(장고)	Columbia40759/A (1 22455)
중머리	함동정월/김성채(장고)	Columbia40759/B (2 22456)

3) 기악합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봉장취(상)	강태홍(가야금)/박종기(대금)/최계란(장고)	KoraiCM809/A 재발매 MillionCM809/A
봉장취(하)	강태홍(가야금)/박종기(대금)/최계란(장고)	KoraiCM809/B 재발매 MillionCM809/B
양산도	빅타조선악단(심상건)	VictorKJ1099/A(KRE1100)
방아타령	빅타조선악단(심상건)	VictorKJ1099/B(KRE1101)

4) 반주

\* 경기민요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홍공단타령	이영산홍/장고,가야금,대금,세적	KoraiCM808/B 재발매 MillionCM808
경흥타령	고일심/김영근(대금),김철성(가야금),정원섭(장고)	RegalC389/A(1KR338)
이팔가	김난홍/김계선(대금),이병우(단소),가야금,장고	VictorKJ1139/A(KRE271)

\* 남도잡가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보름	최계란,조소옥/장고,가야금,대금	KoraiCM805/A 재발매 MillionCM805/A,B
새타령	최계란,조소옥/장고,가야금,대금	KoraiCM805/B 재발매 MillionCM805/A,B

\* 동부민요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한오백년	김난홍/김계선(대금),가야금,장고	VictorKJ1139/B(KRE272)

\* 판소리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천지만물가	임방울/신쾌동(거문고)김금암(가야금)박종기(대금)박태순(장고)	Okeh1980/A(K519)
음양전도가	임방울/신쾌동(거문고)김금암(가야금)박종기(대금)박태순(장고)	Okeh1980/B(K520)

㉞ 1938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세상사	함동정월/김성채(장고)	Columbia40764/A (1 22430)
상사가	함동정월/김성채(장고)	Columbia40764/B (2 22431)
무정한세월아	김갑자/김갑순(바이올린)	RegalC445/B
소상팔경(상)	이소향/한성준(고)	VictorKJ1185/A (5318 49243-A) 재발매Victor49243/A(5325)
소상팔경(하)	이소향/한성준(고)	VictorKJ1185/B 재발매Victor49243/B(5326)
곽씨부인사별	오태석/지동근(고)	VictorKJ1186/A 재발매Victor49041/A
심봉사상여뒤에우는데	오태석/지동근(고)	VictorKJ1186/B 재발매 Victor49041/B
박타령	오태석/지동근(고)	VictorKJ1187/A 재발매 Victor49014/A
돈타령	오태석/지동근(고)	VictorKJ1187/B 재발매 Victor49014/B
호접몽(상)	이소향/한성준(고)	VictorKJ1188/A
호접몽(하)	이소향/한성준(고)	VictorKJ1188/B
청춘원(상)	이소향/오태석(고)	VictorKJ1189/A
청춘원(하)	이소향/오태석(고)	VictorKJ1189/B
노화월	심상건/한성준(고)	VictorKJ1190/A
소상팔경	심상건/한성준(장고)	VictorKJ1190/B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중모리	김금암	Okeh12108/A(K547)
잔모리	김금암	Okeh12108/B(K548)

3) 반주

\* 경기민요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사발가	김인숙/세적, 대금, 가야금, 장고	Columbia40753/A

\* 서도민요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야흥타령	김난홍/이일선(가야금) 김봉업(해금)	VictorKJ1137/A(KRE260)

㉔ 1939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청춘원	정남희	PolydorX553/A
쑥대머리	정남희	PolydorX553/B
청춘원	정남희/한성준(고)	PolydorX645/A
쑥대머리	정남희/한성준(고)	PolydorX645/B
죽장망혜	오택석/지동근	VictorKJ1296/A 재발매 Victor49015/A
심봉사방아타령	오택석/지동근	VictorKJ1296/B 재발매 Victor49015/B
장부한(상)	심상건/한성준(장고)	VictorKJ1301/A 재발매 Victor49054/A
장부한(하)	심상건/한성준(장고)	VictorKJ1301/B 재발매 Victor49054/B
토끼화상	오택석/이소향(장고)	VictorKJ1308/A 재발매 Victor49166/A
주부출궁	오택석/이소향(장고)	VictorKJ1308/B 재발매 Victor49166/B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진양조(1)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05/A (1 22801 22801)
진양조(2)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05/B (2 22802 22802)
중머리(3)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06/A (1 22803)
중머리(4)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06/B (2 22804)
중중머리(엇머리)(5)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07/A (1 22805)
잔머리(6)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07/B (2 22806)

3) 반주

\* 남도민요 반주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진도아리랑	김소희/리갈고악단(가야금-정남희/ 대금-박종기)	ColumbiaC2011A(1-22841)
강강수월래	김소희/리갈고악단(가야금-정남희/ 대금-박종기)	ColumbiaC2011B(1-22839)

㉑ 1940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초한가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44015/A (1 22809)
심청가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44015/B (2 22810)
청루가인곡(상)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40/A
청루가인곡(하)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40/B
화류정한(상)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24/A (1 22847)
화류정한(하)	정남희/한성준(장고)	ColumbiaC2024/B (2 22848)

㉒ 1942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심청부친이별(상)	정남희/정원섭(장고)	Okeh20106/A(K1736)
심청부친이별(하)	정남희/정원섭(장고)	Okeh20106/B(K1737)
춘향옥중자탄(상)	정남희/정원섭(장고)	Okeh20111/A(K1734)
춘향옥중자탄(하)	정남희/정원섭(장고)	Okeh20111/B(K1735)
죽장망혜	정남희/정원섭(장고)	Okeh20118/A(K1746)
흥보부부박타는데	정남희/정원섭(장고)	Okeh20118/B(K1747)

㉓ 1943년

1) 가야금병창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장부한(상)	심상건	Okeh31186/A
장부한(하)	심상건	Okeh31186/B

2) 가야금산조

제목	연주자/반주자	음반번호(확장번호)
엇머리	심상건	Taihei8340/A
중머리	심상건	Taihei8340/B